

# 경기북부 인물년

## 人物傳

포천 양사언  
파주 성흔  
양주 윤근수  
동두천 정사호  
가평 유몽인  
의정부 이서  
남양주 이행진  
구리 김규식  
연천 김상용  
고양 김현규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의정부문화원

우리 민족은  
참으로 긴 세월  
이 땅에서 살아왔다.  
나그네가 잠깐  
쉬었다 간 자리에  
흔적이 남거늘,  
긴 세월 살며 남긴  
애환의 편린(片鱗)이,  
삶의 궤적이 왜 없겠는가?  
우리가 스포츠를 관전할 때  
내용과 규칙을 모르면  
그저 사람들이 뛰어다니는  
모습만을 볼 뿐이다.  
문화재는 분명히  
우리들이 알아야 할  
조상들의 유산이다.  
그러나 그 속에 깃든  
조상들의 체취를, 숨결을,  
불어넣은 혼(魂)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한갓 한 덩이 돌이요  
그릇 조각일 뿐이다.

〈우리의 문화유산〉 중에서

경기북부  
인물년  
人物傳

# 경기북부 인물년

## 人物傳

포천 양사언

파주 성훈

양주 윤근수

동두천 정사호

가평 유몽인

의정부 이서

남양주 이행진

구리 김규식

연천 김상용

고양 김현규





### 경기부부 인물년 人物傳

- 포천 | 봉래(蓬萊) 양사언(楊士彦, 1517~1584)
- 파주 | 우계(牛溪) 성혼(成渾, 1535~1598)
- 양주 | 월정(月汀) 윤근수(尹根壽, 1537~1616)
- 동두천 | 화곡(禾谷) 정사호(鄭賜湖, 1553~1616)
- 가평 | 어우(於于) 유몽인(柳夢寅, 1559~1623)
- 의정부 | 월봉(月峰) 이서(李曙, 1580~1637)
- 남양주 | 지암(止庵) 이행진(李行進, 1597~1665)
- 구리 | 노은(盧隱) 김규식(金奎植, 1880~1931)
- 연천 | 월파(月坡) 김상용(金尙鎔, 1902~1951)
- 고양 | 동관 김현규(金鉉圭, 1942~2004)

# 경기북부 인물년

## 차례

---

발간사 / 의정부문화원장 조수기	6
격려사 / 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 염상덕	8
포천의 인물 봉래 양사언(楊士彦)	11
파산(坡山)의 성리학자 우계 성혼(成渾)	43
조선중기의 문신 해평부원군 월정 윤근수	77
강명청절의 명성 높았던 화곡 정사호(鄭賜湖)	107
가평과 어우(於于) 유몽인(柳夢寅)	135
완풍부원군 월봉 이서(李曙) 이야기	167
지암 이행진(李行進)의 생애와 문학	203
독립운동가 노은 김규식	235
연천의 서정시인 월파 김상용	275
동관 김현규의 삶과 소리 그리고 민속놀이	305

## “조상의 빛나는 얼을 이어가는 이정표 보여준다는 사명감으로...”



경기북부지역 10개 문화원은 경기북부 문화벨트를 형성하기 위하여 2016년 10월 공동사업으로 ‘경기북부 생활유물전시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이어 연말에 또다시 《경기북부 인물던(人物傳)》을 발간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경기북부지역은 6.25사변 당시 격전지였던 관계로 호적부 등기원 등 지방의 중요 문서 대부분이 소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이 소장했던 중요 문서와 생활유물도 파괴되고 유실됨에 따라 지역의 생활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추진된 ‘경기북부 생활문화전’은 지역 주민생활의 역사를 복원하고 후손에게 조상의 빛나는 얼을 이어가는 이정표를 보여준다는 사명감으로 개최하여 좋은 평가를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발간하는 《경기북부 인물던(人物傳)》

은 우리고장에서 탄생했거나 활동하셨던 선인들의 정신과 삶에 관한 기록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분으로 부터는 애국애족의 국가관을 배우고, 문화예술 발전에 평생을 바치신 어른으로 부터는 예술혼을 이어받고, 한평생 같은 일에 매진하신 장인으로 부터는 과학발전과 공업의 동력을 되살리는 밑알을 찾아서 싹을 틔운다.”는 심정으로 뜻을 모았습니다.

《경기북부 인물전(人物傳)》에 수록된 포천의 인물 봉래 양사언 님의 시조를 읊어봅니다.

“태산이 높다하되 하늘아래 뉘이로다  
오르고 또오르면 못오르리 없건마는  
사람이 제아니 오르고 뉘만 높다 하더라”

이처럼 조상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 지역의 여건이 어렵고 험하다 할지라도 힘과 지혜를 모아 우리는 전통문화의 맥을 찾아서 새로운 한류를 창조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 하고자 합니다.

경기북부인물전 발간을 위해 자료수집과 편찬에 협조해주신 10개 시·군문화원 관계자 여러분과 편집과 감수에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인사 드립니다.

2016년 12월

의정부문화원장 조수기

## “경기도의 미래문화 창조와 지역문화와 세계문화 공존 초석 될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역사 인물을 조사하고 기록하는 일은 당시의 삶과 역사가 현재의 삶을 규정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밝힌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연구가 더디었던 경기북부지역 인물들을 선정하여 그들의 고귀한 삶과 정신을 하나하나 기록하기 위해 발품을 아끼지 않으신 집필자분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큰 후원을 해주신 남경필 경기도지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특히 경기북부권문화원협의회 조수기 의정부문화원장님께서 큰 일의 책임을 맡아 진행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기북부지역은 강원도와 더불어 군사적인 제한으로 인해 접근이 어려운 관계로 역사가 발굴되지 못하고 묻혀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로인해 지금도 선사시대 이래 전해져 내려오는 각종 사적과 문화재들이 그 속에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경기북부 지역은 또한 역사의 분기점마다 굼직굼직한 역할을 했던 훌륭한 인재들을 배출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경기북부 인물년(人物傳)》은 경기북부지역의 10개 지방문화원에서 한 분씩 선정하여 추천한 인물 열 분의 생애와 업적을 소개하는 저서입니다.

《경기북부 인물년(人物傳)》의 발간은 지금까지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인물들의 삶과 발자취가 발굴, 조사되어 오늘날 새롭게 조명되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와,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할 후손들에게 역사적 메시지를 전달해 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사실 지역의 역사문화 인물들을 조명하고, 후대가 계승하는 계기와 장(場)을 여는 일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의 이러한 작업들이 경기도의 미래문화 창조에 일조하고 발전시키며, 나아가 지역문화와 세계문화가 나란히 공존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집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집필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경기북부권역 문화원장님들께도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6. 12.

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 염상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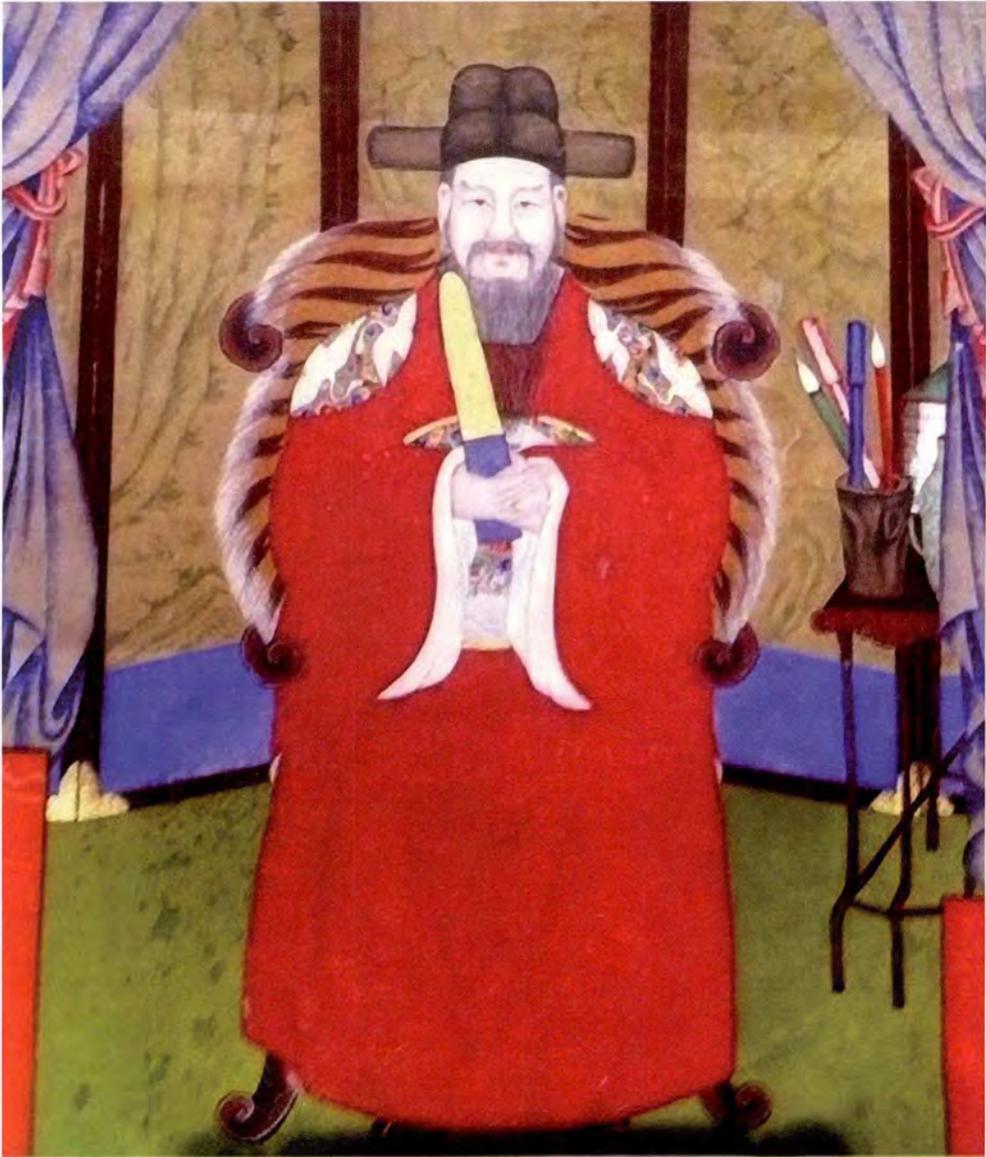
여 백

포천



# 포천의 인물 봉래 양사언(蓬萊 楊士彦)

김경민 | 포천문화원 사무국장



봉래 양사언 영정  
포천인물지에서서

# 포천의 인물 봉래 양사언(蓬萊 楊士彦)

김경민 | 포천문화원 사무국장

## I. 서론

“태산이 높다하되 하늘아래 뫼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리 없건마는 사람이 제 아니 오르고 뫼만 높다 하더라.”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봤을 이 시조의 작자가 바로 포천이 낳은 대표적인 인물인 봉래(蓬萊) 양사언(楊士彦, 1517~1584)이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교과서에서 익숙하게 읽혀진 이 시조가 우리 경기북부 지역, 포천에서 태어난 봉래 양사언이 지은 시조임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우리나라에 대한 역사는 물론 지역사에 대한 관심이 멀어져 가고 있고 경제 논리에 밀려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소홀히 하는 탓 일 것이다.

예로부터 포천 지역은 역대 명현(名賢)의 유적이 많은 고장이다. 여러 명현들 중에서도 대표적인 인물을 탐구하여 그가 포천의 역사와 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고 방대한지를 널리 알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 일 것이다.

그동안 포천문화원에서는 2006년부터 매년 ‘포천을 빛낸 인물연구 학술연구 발표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그중의 대표적인 문화인물인 봉래 양사언 선생에 대하여는 《포천인물지》, 2007년 포천인물연구 학술연구 발표회에서 강남대학교 홍순석 교수가 봉래 양사언에 대해 연구한 논문을 발표하였고, 직계손인 양윤택 포천문화원장은 《봉래시집》, 《청주양씨대동보》 등과 홍순석 교수의 논문을 참고하여 봉래 양사언에 대한 글을 쓰셨다. 이 글은 2017년 봉래 양사언의 탄생 500주년이 되는 해를 맞아 포천군지와, 포천인물지, 홍순석 교수의 논문, 양윤택 포천문화원장의 글 등을 인용하여 경기북부의 인물, 나아가서는 경기도의 인물로 널리 알려져야 할 봉래 양사언의 삶과 기록을 간추려 기록하여 경기북부인의 자긍심을 높일 자료로 기록해 보고자 한다.

## Ⅱ. 본 론

### 1. 양사언의 생애

양사언의 본관은 청주(淸州)이며 자는 응빙(應聘), 호는 봉래(蓬萊)·완구(完邱)·창해(滄海)·해객(海客)이다. 중종 12년(1517)에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에서 출생하였으며, 아버지는 주부(主簿)를 지낸 희수(希洙)이고 어머니는 문화 류씨이다. 특히 양사언을 비롯한 사준(士俊), 사기(士奇) 3형제는 모두 글에 뛰어나 세상 사람들은 이들 3형제를 중국의 삼소(三蘇, 소식·소순·소철)에 견주기도 했다. 또한 수절은사(守節隱士)로 유명한 병마절도사 퇴은(退隱) 양치(楊治) 선생의 증손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용모가 준수하고 재주가 뛰어났으며 어진 어머니의 각별한 교육으로 주위의 촉망을 받으며 자랐다.

양사언은 중종 35년(1540) 진사에 급제했는데, 이때에 과시(科試)로 지은 ‘단사부(丹砂賦)’는 명작으로 손꼽히며 세인들의 칭송을 받았다. 이후 부모상을 당하여 6년간 시묘살이를 마친 후인 명종 원년(1546)에 정시문과(庭試文科)에 급제하여 대동승(大同丞)에 오른다. 이후 함흥(咸興)·평창(平昌)·강릉(江陵)·회양(淮陽)·철원(鐵原)·안변(安邊) 등 8고을의 수령을 지냈다.

양사언은 특히 해서(楷書)와 초서(草書)에 뛰어나 김정희(金正喜)·한호(韓濼)와 함께 조선 3대 서예가로 손꼽힌다. 주로 커다란 글씨를 잘 썼는데 금강산 만폭동에 큰 글자로 새겨 놓은 ‘봉래풍악원화동천(蓬萊楓嶽元化洞天)’ 여덟 글자를 두고 세인이 평하기를 “최치원의 쌍계석문(雙溪石門)이 이에 못 미친다.”고 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평양찰방(平壤察訪) 재임 시에 지은 <열운정기(閱雲亭記)>도 세인들의 칭송을 받는 등 당대 최고 문장가로서의 문재(文才)를 인정받았다. 또한 “태산이 높다하되 하늘 아래 뒤흠라”라는 시조는 순국문학의 정수로써 불후의 명작으로 전해져 후세에 도전정신과 진취정신을 일깨우고 있는 작품이다. 이처럼 봉래 양사언은 국문학의 정형문학에도 선구자적 위상으로 추앙받고 있다.

양사언은 자신의 호를 ‘봉래(蓬萊)’로 지을 만큼 금강산을 사랑했다. 그는 유달리 자연 풍치를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 산수(山水) 좋은 변방을 골라 외직(外職)

만을 자청했다. 명종 19년(1564)에는 관동으로 이주하여 구선봉(九仙峯) 아래의 감호(鑑湖) 곁에 거처를 마련하여 당호를 ‘감호(鑑湖)’라 하고 크게 ‘비(飛)’라는 글자를 써서 장자(障子)를 만들었는데, 어느 날인가 하루는 괴상한 바람이 불어와 글자를 바다 속으로 휩싸고 들어갔다. 그런데 그날이 바로 양사언의 관화일(觀火日)이었다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다. 태학사(太學士) 유서경(柳西炯)은 이 일을 기(記)로 쓰기까지 했다.

선조 10년(1577) 양사언이 안변대도호부사(安邊大都護府使)가 되었을 때의 일이다. 이 고을은 변방이라 풍속이 사납고 잔인하기까지 하여 이졸(吏卒)들조차 명을 듣지 않아 관아의 통솔은 말할 것 없고, 백성들도 다스리기가 어려운 형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양사언은 관아의 모든 이졸을 모아 놓고 그중 가장 흉포한 자를 지적하여 밭에 가서 수숫대를 하나 베어 오라고 했다. 이졸이 수숫대를 가지고 오자, 이번에는 그 수숫대를 양팔 길이만큼 잘라 옷소매 속으로 휘어 집어넣으라고 명하였다. 그러나 이졸은 수숫대를 부러지지 않게 휘어 넣지를 못하고 찢절매며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양사언은 가만히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크게 호통을 치며 말하기를 “1년도 채 자라지 못한 수숫대를 휘지도 못하는 놈이 감히 상관을 능멸하다니 그것이 용서받지 못할 죄임을 알겠는가”라고 꾸짖어 이졸들의 기강을 잡았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양사언이 부임한 이후에 고을을 효제(孝悌)로 다스리고 교화(教化)에 힘쓰자 고을 사람들은 그 선정(善政)에 감복하며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이곳 사람들은 양사언의 사후에는 그에게 입은 은혜가 부모의 은혜보다 무거운데 최복(衰服)을 입지 못했다고 한탄했다고 한다. 이에 고을 사람들이 양사언의 은덕을 칭송하여 거사비(去思碑)를 세웠으니, 이러한 사실만 보아도 양사언의 백성 사랑 정신과 올곧은 수령의 자세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렇듯 모범적인 선정(善政)은 말할 것도 없고, 앞날의 일을 대비하여 유사시에 많은 군마(軍馬)가 먹을 수 있는 우물과 건초를 준비하여 실제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하는 등 뛰어난 행정관리 능력을 발휘하였다. 이를 알게 된 관찰사가 조정에 상주하여 당상관(堂上官) 품계인 통정대부(通政大夫)에 가자(加資)되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안변대도호부사 재임 시 발생한 지릉(智陵)의 화재에 책임을 지고 유배되었다. 유배는 2년 뒤에 풀렸으나 돌아오는 길에 노상에서 병사하니, 선조 17년(1584) 향년 68세로 서세(逝世)하였다.



길명사 - 포천의 인물지에서

우리 포천에는 영평팔경의 금수정을 비롯한 곳곳에 선생의 일화, 시, 서, 암각문이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어 위대한 선생을 회상케 하고 있다.

선생의 문집은 3권 1책으로 되어 있는데 280여 편의 시, 부, 기, 문(詩, 賦, 紀, 文)이 실려 있다.

권말부록(卷末附錄)에 두아우 풍고(楓阜) 사준(士俊), 청계(淸溪) 사기(士奇)의 작품들이 실려 전하고 있다. 포천시 향토유적 제 45호로 지정된 길명사(吉明祠)에 배향, 제향은 음력 9월 16일이다.

봉래 양사언은 인품으로는 누구보다 빼어나고 지혜롭고 슬기로우며 모든 분야에 걸쳐 식견이 넓고 깊었다. 타고난 재능에 자만하지 않고 부단히 노력하며 공부하여 읽지 않은 책이 없어 학문의 폭이 참으로 넓고 깊었다. 그러나 이러한 양사언을 견제하고 시기하는 일이 왕왕 발생하여 남의 일로 인하여 추국을 당하는 등의 시련이 따랐으니, 이에 스스로 내직에 재임을 꺼리고 외직을 자청했으리라 추측하게 된다. 또한 외직으로 나가는 것이 자신의 자연과 풍치를 사랑하는 취향과도 들어맞아서 스스로 택하여 즐기며 관직을 수행한 것으로 생각된다.

양사언은 급제 후 8개 고을을 다스렸으나 단 한 푼의 부정도 없었던 것으로 유

명한 청백리(清白吏)이다. 때문에 생활에 있어서는 들어감에 한 푼도 넉넉함이 없었고, 나감에 말 한 필도 변변하지 못할 정도로 식구들을 위해서는 추호도 계획을 하지 않으며 항상 말씀하기를 “나는 사지공(四知公)의 후손으로 가히 선조께 욕을 끼치지 않아야 한다.” 했다하니 오늘을 사는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양사언은 조선의 뛰어난 문장가이면서 청백리였다. 유학자이면서 동시에 불교와 선도에 심취했던 특이한 이력도 갖고 있다.

## 2. 양사언의 가문(家門)

### 1) 가족 관계

양사언의 본관은 청주(淸州)이다. 청주 양씨(淸州楊氏)는 한(漢)나라 양진(楊震)의 후예로 원(元)나라에서 도첨의정승(都僉議政丞)에 오른 양기(楊起)가 시조이다. 양기(楊起)는 원나라 순제(順帝)의 명에 따라 노국대장공주(魯國大長公主)와 함께 고려에 오게 되었다가 이 땅에 정착하게 되었다. 그것이 고려 충정왕(忠定王) 3년인 1351년의 일이다.

양기(楊起)는 슬하에 성주(成柱), 천주(天柱), 만수(萬壽), 지수(之壽), 근(根), 포(浦) 6형제를 두었다. 양사언은 그중 양지수(楊之壽)의 후손으로 서평군파(西平君派)에 속한다. 양지수(楊之壽)는 광정대부에 올라 찬성사(贊成事)를 역임한 인물로, 고려 공민왕 때부터 조선 초기까지 관직에서 활동하다가 서평군(西平君)에 봉해졌다. 양지수(楊之壽)의 후손인 양천진(楊天震)은 고려 공양왕 때 호조전서(戶曹典書)를 지냈고, 중국에 사신으로 가서 세공 삭감을 성공시킨 공으로 안악군(安岳君)에 봉해졌다. 이후 조선의 개국공신으로 공조전서(工曹典書)가 되었으며 시호는 경안공(景安公)이다. 양천진(楊天震)의 아들인 양치(楊治)는 조선 전기 문신으로 함길·황해의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를 지낸 인물로 세종 시대에 김종서와 함께 6진을 개척하고 북방을 지키는 바 있다. 이후 계유정난으로 김종서가 죽임을 당하고 단종이 폐위되자 자신의 호를 퇴은(退隱)이라 하며 신북면 기지리 두문동(杜門洞)에 은둔(隱遁)하며 칩거하였다. 이때부터 청주 양씨 서평군파 후손들이 포천에 정착하여 살게 되었다. 양치(楊治)의 아들이자 양사언의 조

부(祖父)인 양제달(楊悌達)은 통훈대부로 장례원(掌隸院) 사정(司正)을 지냈다. 양제달(楊悌達)의 아들이자 양사언의 부친인 양희수(楊希洙)는 돈령주부(敦寧主簿)를 지냈다. 이처럼 양사언의 가문은 위로는 시조인 양기(楊起)부터 부친인 양희수(楊希洙)까지 상당백(上黨伯), 찬성사(贊成事), 절도사(節度使) 등을 지낸 것은 물론이고 청백리(清白吏)로도 명망이 높은 집안이다.

양사언의 가족에 대해 알아보면 부친인 희수(希洙)에게는 파평 윤씨, 진천 송씨, 문화 류씨 등 3명의 부인이 있었다. 파평 윤씨 부인과의 사이에는 사원(士元), 사형(士亨), 사인(士仁), 사의(士義) 4명의 아들을 두었고, 진천 송씨 부인과의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다. 부인들이 사망한 이후 문화 류씨 부인과 혼인하여 3명의 아들을 얻었으니 그 중 첫째 아들이 사언(士彦)이다. 사언(士彦), 사준(士俊), 사기(士奇)를 낳은 문화 류씨 부인은 대언공(代言公) 류총(柳總)의 후손인 류위(柳緯)의 여식이다.

문화 류씨의 집안은 대대로 좌의정(左議政), 증이조판서(贈吏曹判書), 군기시 부정(軍器寺副正), 군수(郡守) 등을 배출한 명문가이다. 문화 류씨의 5대 조부인 류만수(柳曼殊)는 고려 말과 조선 초기의 대신이다. 공민왕 때 관직에 나갔고 우왕 때 이성계와 함께 왜구를 물리치는 공을 세웠다. 창왕 때는 이방원과 같이 왜구를 물리친 공로를 인정받았고, 공양왕 때 문하찬성사(門下贊成事)에 올랐다.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하자 개국공신으로 책록되어 좌의정(左議政)에 올랐다. 문화 류씨 부인의 조부인 류종경(柳從京)은 순창군수(淳昌郡守)를 지냈고, 부친인 류위(柳緯)는 삼척부사(三陟府使)를 지냈다. 류위(柳緯)는 조선 선조 때 시와 글씨로 유명했던 문신이지만 임진왜란 때는 권율의 종사관으로 큰 활약을 하기도 했다. 이처럼 류위는 문무를 겸한 인재로 이름을 날렸던 인물이다. 한편 양사언의 부친인 양희수(楊希洙)와 모친인 문화 류씨의 나이차가 매우 많아서 이들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설화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기도 하다.

양사언의 동생 사준(士俊), 사기(士奇) 또한 문재(文才)가 뛰어난 인물로 유명하다. 사준(士俊)의 자는 응거(應學), 호는 풍고(楓臯)로 사언과 같은 해인 중종 35년(1540) 진사시에 합격하였으며, 명종 원년(1546)에 증광문과(增廣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였고, 첨정(僉正)을 지냈다. 명종 10년(1555) 을묘왜변 때에는 김경석(金慶錫)의 종사관이 되어 영암에서 왜구와의 전쟁에 참전하기도 했다.

이러한 경험을 담은 가사 <남정가(南征歌)>가 《남판윤유사(南判尹遺事)》에 실려 그의 대표적인 문학작품으로 전해진다. 명종 12년(1557)에는 평양서윤(平壤庶尹)을 지냈고, 명종 18년(1563)에는 간성군수(杆城郡守)로 부임하였으나 이듬해 병으로 사직하였다. 사준(士俊)은 성품이 인자하고 품행이 단정하고 예의에 어긋남이 없어 주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었다고 전해진다.

양사언의 막내 동생인 사기(士奇)는 중종 26년(1531)에 태어나 양사언과는 무려 14살 차이가 난다. 자는 응우(應遇), 호는 죽재(竹齋)로 명종 7년(1552)에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하고, 그 다음해 별시문과(別試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였다. 호조좌랑(戶曹佐郎)을 거쳐 원주(原州)·부평(富平) 등 7고을의 수령(守令)을 역임하였는데 부임하는 곳마다 선정(善政)을 베푸는 것은 물론이고 청백리(清白吏)로도 명망이 높았다. 전하는 말로는 선조가 즉위한 후에 상소를 올려 외적의 침입에 대한 방어대책이 필요하다고 진언했는데 뒷날 그 예언대로 임진왜란이 발생했다. 양사언이 사망하고 2년 후인 선조 19년(1586)에 병으로 앓아눕게 되자 스스로 죽을 날을 예언했는데 신기하게도 바로 그 날에 사망했다고 전해지고 있으니 향년 56세이다.

양사언은 음성 박씨와 혼인하였으나 자식을 얻지 못하였고, 후에 간성 이씨와의 사이에서 자식을 얻었다. 선조 7년(1574) 강릉에서 태어난 아들 만고(萬古)는 자는 도일(道一)이고, 호는 감호(鑑湖)·돈호(遯湖)·비로도인(毘盧道人)이다. 양만고는 일찍이 선조 36년(1603)에 사마시에 합격하여 생원이 되었고, 광해군 2년(1610) 알성시(謁聖試)에서 을과(乙科)에 급제하였다. 인조 17년(1639) 군수품의 출납을 맡아보던 관아인 군자감정(軍資監正)이 되어 시폐(時弊)를 논하는 <조진설치사책(條陳雪恥四策)>을 상소하였다. 후에 통진부사(通津府使)를 지냈으며, 이후 외직으로 나가 무장(茂長)·장연(長淵)·영변(寧邊) 등 7고을의 수령을 역임하였다. 인조 22년(1644)에 인천도호부사(仁川都護府使)에 제수되었으나 인조 23년(1645)에 노쇠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장계(狀啓)를 올리고 관직에서 물러났다. 아버지 양사언의 영향을 받아 양만고 또한 서예와 문장에 두루 능하였다. 포천에 소재한 ‘장령정희등묘표(掌令鄭希登墓表)’에 그의 글씨가 남아 있다.

## 2) 양사언에 관련된 설화

본래 양사언의 시, 시조, 글씨가 갖는 명성에 비해 인간 양사언에 대한 기록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양사언에 대한 설화들이 저마다 조금씩 다른 이야기로 전해진다. 양사언에 대한 설화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한 가지는 양사언의 어머니와 관련된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양사언의 글씨와 죽음에 관한 것이다.

먼저 양사언의 어머니와 관련된 설화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먼저 양사언의 아버지 양희수(楊希洙)가 길을 가던 중에 허기가 저 들린 곳이 바로 아직은 어린 소녀였던 양사언 어머니의 집이었다. 장차 양사언의 어머니가 되는 류씨는 당시 비록 나이 어린 소녀였으나 정성껏 상을 차려 대접했다. 이에 감복한 양희수(楊希洙)가 소녀에게 작은 부채를 예폐(禮幣)라며 선물로 주었다. 당시 양희수는 어린 소녀가 하는 짓이 기특하고 어여뻐 건넨 것이었으나, 예폐(禮幣)를 받아들인 소녀는 이를 청혼이라 여기고 소중히 간직한다. 몇 년 후 소녀는 아버지 류위(柳濤)에게 부채를 내놓으며 양희수에게 시집가겠다고 선언한다. 이에 놀란 류위는 소녀를 어르고 달래며 만류하였으나 소녀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 결국 류위는 양희수를 찾아가 자초지정을 이야기하고 혼담을 논한다. 설화는 말 그대로 설화인지라 대부분 다소 과장되고 믿기 어려운 것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양사언의 어머니에 대한 설화는 어리지만 당돌하리만큼 성숙했던 류씨 부인의 면모를 강조하고 있다.

설화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양희수와 결혼해서 양사언을 포함한 3명의 아들을 낳은 류씨 부인은 총명하고 재능 있는 아들들이 적자가 아닌 것을 늘 마음에 걸려했다. 그러던 중에 양희수가 사망하자 결국 류씨 부인은 큰 결심을 한다. 양희수의 큰 아들인 양사원(楊士元)과 마주 앉은 류씨 부인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말을 꺼낸다. 지금은 남편 상을 당해 적자인 큰아들이 상복을 입었으나, 후에 자신이 죽으면 큰아들은 석 달 밖에 상복을 입지 않을 것이니 그렇게 되면 사언을 비롯한 3형제들이 적자가 아닌 것이 티가 나게 될까 두렵다고 걱정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금 죽어 남편과 함께 상을 치르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눈치 채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류씨 부인은 지금 자신이 죽으면 자신이 낳은 3형제를 앞으로 서자 취급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달라는 말을 남기고 품

에서 단도를 꺼내 자결을 했다. 이로 인해 사언, 사준, 사기 3형제는 적자로서 벼슬길에 나서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아들들의 앞날을 자신의 목숨과 맞바꾼 숭고한 어머니의 사랑이 강조된 설화이다.

류씨 부인의 자식에 대한 지극 정성과 사랑은 조금 다른 내용의 설화로도 전해진다. 양사언 형제를 낳은 후 류씨 부인은 자하동(紫霞洞)으로 집을 짓고 나간다. 하루는 자하동으로 행차를 했던 성종이 소나기를 만나 잠시 비를 피하려 들린 곳이 바로 류씨 부인의 집이다. 이 일을 계기로 총명했던 양사언 형제들이 성종에게 발탁되어 출세길에 올랐다는 내용의 설화이다. 이 설화는 류씨 부인의 총명함을 강조한 내용이다. 설화 속의 류씨 부인은 먼 미래를 내다보았기에 큰길가에 집을 짓고 왕의 행차를 대비할 수 있었고, 이런 노력으로 인해 아들들의 출세 길을 열어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설화 속의 류씨 부인은 공통적으로 나이는 어리지만 당차고 명석했던 여인이다. 설화를 통해 조선 최고의 명필이자 문인이며 관리였던 양사언의 뒤에는 이렇게 특별한 어머니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이 새롭게 다가온다.

양사언과 관련된 설화 중에 양사언 본인과 관련된 설화도 한 가지가 있다. 조선 3대 명필가로 이름이 높은 양사언은 특히 커다란 글씨를 잘 쓰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가 남긴 ‘비(飛)자’와 관련된 설화가 있다. 양사언이 쓴 커다란 ‘비(飛)자’가 강한 바람이 부는 어느 날 스스로 날아가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이다. 그가 쓴 글씨가 얼마나 힘이 넘치고 살아있는 듯 했기에 이런 설화가 생겨난 것인지 짐작이 되고도 남는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이수광(李睟光)의 《지봉유설(芝峰類說)》에도 찾아볼 수 있다. 《지봉유설(芝峰類)》에 따르면 양사언이 관동 지역으로 이주하여 머물던 시기에 ‘비(飛)자’를 크게 써서 아들에게 주면서 이르기를 “나의 모든 기를 쏟아 쓴 글씨이니 잘 간직하거라.”라고 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 바다로부터 큰 바람이 불어와 ‘비(飛)자’가 쓰인 종이가 공중으로 날아가 버려 찾을 길이 없었다. 후에 알고 보니 그날이 바로 양사언이 죽음을 맞이한 날이었다는 것이다. 여러 종류의 설화와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비(飛)자’와 양사언의 죽음과의 연결성이다.

‘비(飛)자’가 하늘로 날아올라 가고 양사언도 사망했다는 것은 인생 말년에 선



날비자(飛)-포천의 인물지에서

도(仙道)에 심취해 선계(仙界)로 가 신선이 되고자 했던 양사언의 사상과도 흐름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때 사라졌던 ‘비(飛)자’는 아직까지 청주 양씨 문중에 유품으로 남아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일각에는 양사언이 ‘비(飛)자’를 2장 써서 남겼다가 한 장은 하늘로 날아가고 한 장은 지금껏 남아있는 것이라는 말도 있다.

### 3. 양사언의 모습에 대하여

#### 1) 청백리 양사언

양사언은 24세가 되던 중종 35년(1540)에 진사가 되었다. 이때 과시(科試)로 지었던 것이 바로 그 유명한 <단사부(丹砂賦)>이다. 그러나 바로 부모상을 당하여 6년간 시묘살이를 하게 된다. 이후 30세가 되던 명종 원년(1546)에 문과에 급제해 이후 40여 년 동안 관직에 종사했다.

양사언이 처음 부임한 곳은 함길도 함흥지역이다. 그는 함흥부사(咸興府使)에 재임하다가 명종 10년(1555)에 병을 얻어 사직하고 귀향했다. 이후 명종 11년(1556)에 대동승(大同丞)에 발탁되어 평양찰방(平壤察訪)으로 부임한다. 이때 지은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열운정기(閱雲亭記)>이다. 외직에 머물던 양사언은 다시 내직인 저열(著閱)로 발탁되어 재임한다. 그런데 명종 13년(1558)에 대제학 정사룡(鄭士龍)이 과거 응시생인 신사헌(愼思獻)에게 과제를 미리 알려주었다는 내통 문제와 관련해서 추국을 당하는 고초를 겪게 된다. 이 일 이후 명종 15년(1560)에 종4품인 평창군수(平昌郡守)에 제수된다. 원래 평창군수의 임기는 명종 18년(1563)에 만료 되었으나 양사언의 선정(善政)에 감복한 백성들이 한마음으로 조금 더 재임할 것을 간청하여 임기를 1년 더 연장했다고 한다. 명종 19년(1564)에 정4품인 성균관 사예(司藝)에 제수된 양사언은 다시 내직으로 돌아오게 된다. 내직으로 돌아온 이후 종3품인 성균관 사성(司成), 정3품인 종부시(宗簿寺)의 정(正)으로 재임하던 중에 돌연 자원하여 철원·회양 군수로 부임하여 떠난다. 그 때가 양사언이 48세가 되던 명종 19년(1564)이다. 아예 모든 짐을 꾸려 관동지방으로 이주한 양사언은 관동지역 구선봉(九仙峯) 아래 감호(鑑湖) 옆에 집을 짓고 당호(堂號)도 감호(鑑湖)라고 했다. 집 뒤에는 정자를 짓고 비래정(飛來亭)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는 이곳에서 관동지역의 아름다운 자연을 맘껏 즐기며 많은 시를 남겼다. 《봉래시집(蓬萊詩集)》에 실린 대부분의 작품들은 모두 이 시기에 지어진 것들이다. 관리로서는 내직이 아닌 외직에 재임하는 것이 그리 좋은 일은 아니었을 수도 있겠으나 풍류를 사랑하고 즐겼던 양사언에게는 이 시기가 그의 문학세계를 풍성하게 하는 소중한 나날이 되었을 것이다.

양사언은 자청하여 철원군수(鐵原郡守)에 부임하였으나 1년 만에 병으로 사임했고, 이후 회양부사(淮陽府使)로 다시 부임하였으나 역시 2년을 넘기지 못하고 또다시 병으로 사직했다. 그로부터 3년 후인 선조 4년(1571)에 양사언은 다시 정3품인 강릉대도호부사(江陵大都護府使)로 제수되어 그곳에서 6년간 재임한다. 강릉에는 재임시절에 그가 쓴 비문이 아직도 남아 있다. 척박한 외곽지역 백성들의 어려움을 자신의 일같이 살피고 선정(善政)을 베풀어, 이후 마을 사람들이 양사언을 기리는 선정비(善政碑)를 세우기도 했다. 양사언은 관직에 있는 동안 총 8개 고을을 다스렸으나 단 한 번도 백성들을 어렵게 하거나 괴롭힌 일이 없었다

고 한다. 이런 이유로 그가 임기를 마치고 고을을 떠난 후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의 공덕을 기리는 비를 세우는 일이 반복되었다.

1577년(선조10) 안변부사가 되었는데 관북(關北) 관문의 도회지로 풍속이 거칠고 까다로워 정무지침(政務指針)을 효제(孝悌) 제일주의로 삼아 민속교화(民俗教化)에 주력하여 큰 성과를 거두어 백성들이 양부사(楊府使)를 친아버지 같이 받들었다. 함경관찰사(咸鏡觀察使)가 도내 제일이라고 조정에 상주하여 당상관 정삼품(堂上官 正三品)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승차하였다. 또한 양사언은 안변성 주변에 큰 연못을 파고 물을 넣어 성의 방비를 두텁게 하고 마초(馬草)를 많이 비축하여 두었다. 이후 군마가 주둔할 것이므로 그 예비책 이라고 하였다. 과연 그 다음해에 여진족이 난을 일으키어 국경에 있는 일부 성을 침략, 함락시키자 조정에서는 신립(申砬), 신성절(申尙節) 장군을 급파, 난의 진압을 위하여 대병이 이르렀다. 안변에서는 선생의 선견지명으로 대군을 동원, 난을 진압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는데 다른 소에서는 물자 준비하는데 급급했고 책임을 다하지 못해 처벌을 받아 죽는 자도 있었다. 그러나 선생은 주저 없이 착착 대처함으로 사람들이 신인(神人)답다고 탄복하였다. 그러나 양사언이 안변부사 재임 중이던 선조 14년(1581) 지릉(智陵)에 화재 사건이 일어나자 이에 책임을 지고 해서(海西)로 유배를 떠나게 된다. 선조 17년(1588)에 유배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사망하니 향년 68세이다.

양사언은 40여 년간 관직 생활을 했으나 사망 후 한 푼의 재산도 남기지 않았을 만큼 청렴한 청백리였다. 비록 내직보다는 외직으로 떠돌며 보냈으나 백성을 사랑하고 본분을 다하는 관리로서 타의 모범이 되는 인물이었다. 평소 자신은 사지공(四知公)의 후손으로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한다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던 것이다. 자연과 문학을 사랑했던 명필가로 알려진 양사언에게 관리로서 지내온 또 다른 생이 있었다.

## 2) 양사언의 내면세계

현재 전해져 내려오는 양사언에 관한 이야기는 사실상 정사(正史)보다는 야사(野史)적이며 꾸며진 이야기에 의지하는 면이 많다. 보다 상세하고 정확한 인간 양사언에 관한 기록은 용주(龍州)의 조경(趙綱)이 찬(撰)한 묘갈(墓碣)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 묘갈에 의해 양사언에 대한 비교적 정확한 역사 연대나 기록 내용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조정의 묘갈 원문에도 틀리게 기록된 역사적 사실이 있다. 바로 원나라 순제(順帝)를 성종으로, 노국대장공주(魯國大長公主)를 제국장공주(齊國長公主)로 기록한 것은 명백한 오기(誤記)이다. 또한 묘갈 원문을 국역하면서 원문과 동떨어진 번역을 하여 봉래 바로 밑의 아우인 사준(士俊)을 봉래의 형으로 알려지게 된 것 또한 잘못 된 것임을 봉래 양사언의 후손들은 밝히고 있다.

양사언은 명석한 두뇌의 소유자임과 동시에 꾸준한 노력으로 늘 공부하고 배우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아 세상사에 모르는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전해진다. 특히 시작(詩作)에 있어서는 꾸미어 조탁하지 않고 천의무봉(天衣無縫)의 자세로 자연스럽고 호방하고 도가적(道家的)인 기법을 구사하는 뛰어난 문인으로 예찬 받고 있다. 또한 유자(儒者)로서 모든 경전을 섭렵했음은 물론이고, 당시에는 이단(異端)이라 불리던 불도(佛道)에도 심취하여 천연사(天然師)나 청허(淸虛)와 같은 불자(佛者)들과도 교류하였다. 양사언은 이처럼 불도에 심취한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선도(仙道)에도 깊은 관심을 갖게 된다. 선도에 심취한 이후에는 세상은 물론이고 가족까지도 멀리하고 자신의 존재도 돌아보지 않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양사언은 본인이 이미 이 세상의 존재가 아니고 선계(仙界)의 진선(眞仙)으로 잠시 진계(塵界)에 내려왔다는 인식을 하며 언행은 물론 문필 표현도 이러한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 전통적으로 유가(儒家)의 섭리와 경륜으로 다스려지는 조선 풍토에서는 이러한 양사언의 행보가 자연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어 그를 바라보는 눈이 다르고, 대하는 얼굴이 달랐음은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양사언은 유교가 아닌 불교를 가까이하더니 끝내는 선도(仙道)에 빠져들게 되면서 당시 세인들이 생각하는 정도(正道)를 벗어난 인물로 평가되기에 이르렀다.

양사언이 일찍이 인생의 도리를 터득하였다는 것을 그가 24세의 나이로 진사시에 합격할 때 지었던 <단사부(丹砂賦)>를 보면 알 수 있다. 당시 사람들은 <단사부(丹砂賦)>를 보고 젊은 선비의 뛰어난 혜안에 놀라움을 금하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또한 평양찰방(平壤察訪)으로 재임하던 시기에 지었던 <열운정기(閱雲亭記)>도 양사언의 문재(文才)를 세상에 널리 알리게 된 뛰어난 작품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 당시 조선은 철저한 현세

철학에 근거하여 생활했던 시기였다. 이런 사회에서 양사언은 내세(來世)를 그려보고 동경하면서 심지어 현실 세계를 넘어보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자신이 살고 있던 세상을 오염된 세계로 보고, 그러한 속인들의 세상을 벗어나 자신은 그 무엇에도 물들지 않고 고고한 아름다움이 가득한 선계를 살고자 했다. 마치 진계(塵界)와 선계(仙界)를 넘나드는 권위를 전유하는 진선(眞仙)이 된 듯한 정신세계를 향유한 양사언의 말년의 모습을 그냥 그런가 보다하고 쉽게 넘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누구도 채근하여 살피지 않았던 각도에서 살펴본다면 양사언의 보다 깊은 정신 내면의 세계를 알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 4. 양사언의 문학

##### 1) 작품세계

양사언은 해서와 초서에 능했던 조선을 대표하는 명필가로 손꼽힌다. 조선전기 4대 명필가는 안평대군(安平大君), 김구(金球), 양사언(楊士彦), 한호(韓濩)이고, 조선 3대 명필가는 양사언(楊士彦), 한호(韓濩), 김정희(金正喜)를 꼽는다.

양사언은 글씨뿐만이 아니라 수려한 시 작품으로도 이름을 널리 알린 문인이다. 특히 양사언의 시는 꾸밈이 없고 자연스럽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양사언이 남긴 문집으로는 《봉래시집(蓬萊詩集)》이 있다.

그는 서예나 시 창작에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서화에도 능했다. 그의 회화작품으로는 <양봉래매란국죽화첩(楊蓬萊梅蘭菊竹畫帖)>이 남아있다. 이러한 뛰어난 재능은 양사언만이 아니었다. 양사언의 3형제가 중국의 미산삼소(眉山三蘇)에 견주어졌을 정도로 문인으로서의 뛰어난 재주를 세상에 펼쳤고, 양사언의 아들 만고(萬古)도 뛰어난 필력과 글씨로 이름을 떨쳤다. 그야말로 대대로 문재(文才)가 뛰어난 집안이다.

지금까지 전해지는 양사언의 문학 작품은 280여 편 정도이다. 그의 작품 속에서 풍류를 즐기며 안빈낙도(安貧樂道)를 추구한 그의 성향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가 남긴 작품을 통해서 그가 세상을 보고 또 받아들이는 자신만의 세계가 어떠했는지도 살펴볼 수 있다. 양사언의 문장이 세상에 빛을 발한 것은 그가 진사시에서 과시(科試)로 지었던 <단사부(丹砂賦)>이다. <단사부(丹砂賦)>는 그가

24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꿰뚫어 보는 혜안(慧眼)을 가졌음을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양사언의 시는 풍류를 읊은 것이 대부분이나 때때로 형제에 대한 사랑이나 자신을 어린 시절 키워준 외숙모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담기도 했다. 알려진 대로 양사언은 어린 시절 어머니와 떨어져 외숙모의 손에서 성장했다. 흠잡을 데 없는 현모양처였던 외숙모의 영향을 많이 받은 양사언은 두고두고 외숙모를 그리워했다. 양사언이 외직으로 나와 재임하던 어느 날 꿈에 외숙모가 나타나 자신의 죽음을 알리며 장례를 부탁했다는 말이 전해지기도 한다. 꿈을 꾸 이후 외숙모의 사망 소식을 들은 그는 외숙모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녹아있는 작품을 남겼다.

#### 외숙모 유씨(柳氏)의 만장(挽章)

溫溫淑德自清真(온온숙덕자청진) 온순하고 착한 덕은 스스로 진실하여  
 竹性松心萃六親(죽성송심취육친) 대와 소나무 같은 품성으로 육친과 화목했네  
 服教早成雙玉樹(복교조성쌍옥수) 태교 행하며 일찍이 두 아들을 길렀고  
 母儀偏化一家人(모의편화일가인) 어머니의 의례는 한 가정을 교화시켰네  
 提孩忝奉昏晨戒(제해忝奉昏晨戒) 어린아이라서 아침 저녁 문안도 못했고  
 三歲長勤願腹仁(삼세장근고복인) 삼년동안 오래도록 어진 품에서 자랐으며  
 天只半途先下世(천지반도선하세) 어머니가 먼저 중년에 세상을 떠나셔서  
 義乎猶子寄孤身(의호유자기고신) 의로운 조카가 외로운 맘을 의지했네  
 廩官去隔三千里(미관거격삼천리) 벼슬에 얽혀 삼천리나 떨어져 있음에  
 拭淚悲纏十二辰(문루비전십이진) 눈물을 뿌리며 열두 때 슬퍼함이 간절하였네  
 言念夢中堂上語(언념몽중당상어) 꿈속에 마루에서 하시던 말씀 생각하면  
 忍看丘壘草生春(인간구릉초생춘) 차마 무덤에 봄풀 자람을 볼 수 있을까

양사언은 그가 살았던 포천 지역 부근에 있던 금수정(金水亭)이라는 정자를 즐겨 찾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수정은 포천시 창수면에 있는 정자로 서울에서 관동지방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어서 많은 문인들이 들렀던 곳으로도 유명한 곳이다. 양사언은 이곳에서 지인들과 함께 풍류를 나누며 금수정을 소재로 시를 짓기도 했다.



금수정-포천의 인물지에서

金水亭(금수정)

十年塵土髮如絲(십년진토발여사)	십년간 속세에 사노라니 귀밑털 실 같은데
一笑權娛問幾時(일소환오문기시)	한 번 웃는 기쁨인들 몇 때나 될까
晚向江湖訪漁父(만향강호방어부)	늙마에 강과 호수로 어부를 찾아가니
白鷗心事少人知(백구심사소인지)	백구와 같은 마음을 아는 이 적네

《봉래시집(蓬萊詩集)》에는 양사언이 그토록 아끼며 즐겨 찾았던 금수정의 주인인 금옹(琴翁) 김윤복에게 써주었다는 그의 또 다른 시도 수록되어 있다.

贈琴翁(증금옹)

綠綺琴伯牙心(록기금백아심)	녹기금(거문고)은 백아의 마음
鍾子是知音(종자시지음)	종자기가 이 소리를 알았지
一鼓復一吟(일고복일음)	한 번 타고 다시 한 번 읊노라니

泠泠虛籟起遙岑(령령허뢰기요잠) 맑고 맑은 그 소리 먼 산에 메아리치며  
江月娟娟江水深(강월연연강수심) 강 위의 달 곱고 강물은 깊어라

평소 거문고 타는 것을 좋아했던 금용에게 안성맞춤인 시로 《봉래시집(蓬萊詩集)》에는 이 시를 근처 바위에 새겼다는 기록이 함께 남아있다. 문인들이 자주 찾았던 금수정 주변에는 양사언을 비롯해서 한호의 글씨 등이 암각 되어 남아 있다. 이처럼 양사언은 본격적으로 관직에 나서기 전까지 살았던 포천지역에서 주변 문인들과 교류하며 다양한 시 작품을 남겼다. 그러나 관직을 수행하기 위해 변방으로 떠나면서 작품의 배경은 부임지 주변으로 변화하게 된다. 양사언은 주로 관동지역의 고을을 다스렸다. 그 중에서도 평양찰방(平壤察訪)으로 재임하던 시절 지었다는 《열운정기(閱雲亭記)》는 그 뛰어난 문장에 많은 사람들이 감탄을 금치 못했던 작품이다.

#### 《열운정기(閱雲亭記)》

“(상략)… 대동관(大同館)은 기사성(箕子城) 중의 동상(東廂) 아래에 있고 작은 역사(驛舍)가 있어 찰방(察訪)이 거처한다. 역사 위에 작은 정자가 있으니 찰방의 청사(廳舍)로 본래 이름이 없고 산정(山亭)이라고 불렀다. 병진년(丙辰年) 겨울에 나의 친구 청계옹(淸溪翁)이 와서 이름이 없는 것을 한탄하고 나에게 이름을 청하였다. 나는 ‘열운(閱雲)’으로 고하니 청계옹이 크게 기뻐하며 이르기를 “나의 뜻과 같다.”고 하면서 곧 손수 크게 세 글자 <閱雲亭>을 써서 못을 박아 벽 위에 걸고 또 나에게 기문(記文)을 청하였다. 나는 말하기를 “돌에 부딪쳐서 생겨 점점 모이는 것은 태산(泰山)의 구름이고 다만 편안히 즐길 수가 있지만 갖다가 그대에게 줄 수는 없다는 것은 산 언덕 위의 구름이다. 옛 사람들이 구름에서 취한 것이 이 같으니 내가 무엇을 보고 이름을 붙였겠는가? 아! 구름이란 공중의 하나의 무물(無物)이다. 무심히 생겼다가 자취 없이 흩어져 푸른 개처럼 되었다가 흰옷처럼 되어 갑자기 변하여 마침내 무형(無形)의 물건으로 돌아가니, 나는 여기에서 느낀 마가 있다. 아득한 먼 길에 관사(官舍)에 투숙하면서 왕래하는 사람이 날마다 몇 천 명이나 될까. 구름 같은 기(旗)에 용절(龍節)을 가지고 꾸불꾸불 오면 역관(驛館)이 분주히 그의 명을 대기하는 자도 있고, 한 마리의 말을 타고 문서를 가지고 달리면서 오고 감을 고하면 역의 아전들이 증명

을 가지고 그의 물건을 검사하는 자도 있고, 뽕추가 물건을 지고 역의 하인들과 너니 내니 하면서 서로 꾸짖는 자도 있고, 역말을 몰아 달려가는 자와 증명을 조사하고 먹여주는 자, 수레에 올라 천천히 오면서 시름없이 돌아가는 자가 있어, 온 사람은 가고 간 사람은 오며 노래하면서 보내고 울면서 이별하는 자도 있다. 인간세상의 사생(死生), 궁달(窮達), 비환(悲歡), 이합(離合)을 한 길 가운데서 편히 볼 수 있고, 한 정자 아래에서 모두 지켜 볼 수 있으니, 결국 이것은 무엇일까? 천지간의 여관이 되고, 세상일은 뜬 구름과 같아, 여기에 앉아 모두 볼 수 있으니 마치 늙은 선인이 세상을 구경하면서 죽지 아니하고 우뚝하게 홀로 살아있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이것이 내가 이름을 그렇게 붙인 까닭이다."라고 하였다. …(하략)"

관직 생활의 대부분을 보냈던 관동지역 중에서도 양사언이 특별히 사랑했던 것이 바로 금강산이다. 그의 금강산에 대한 남다른 사랑은 그의 생애 전반에 걸쳐 찾아볼 수 있다. 스스로 자신의 호를 ‘봉래(蓬萊)’라고 했고, 관직의 대부분을 관동지역에서 보낸 것도 스스로 자청하여 부임했기 때문이었다. 양사언의 문집인 <봉래시집(蓬萊詩集)>에 수록되어 있는 시를 소재별로 살펴봐도 금강산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양사언이 단지 금강산 경치의 아름다움에 반해 금강산 주변지역에서 머물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가 자신의 신분적 한계를 벗어나고자 선택한 것이 외직이었고, 그곳에 금강산이 있었다. 복잡한 세상사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그가 빼어난 자연미를 간직한 금강산에서 정서적 안정감을 찾으면서 자신의 문학적 감성을 꽃피우게 된 것이 아닐까 싶다. 양사언은 금강산의 품 안에서 자신의 문학세계를 크게 넓혀갔고 그의 작품 대부분이 그가 관동지역에 머물던 시기에 지어졌다.

양사언은 함흥부사(咸興府使)를 시작으로 관동(關東)지역의 고을들을 옮겨 다니며 다스렸다. 급기야 관동지역의 매력에 심취한 양사언은 아예 금강산 동쪽에 있는 구선봉(九仙峯) 아래 감호(鑑湖) 주변으로 이주했다. 집 뒤편에는 비래정(飛來亭)이라는 정자를 지었는데 양사언은 그곳에서 관동지역의 풍류를 마음껏 즐겼다. 당시 지은 飛來亭(비래정)이라는 시를 보면 그의 심정을 살펴볼 수 있다.

### 飛來亭(비래정)

海入壺中地(해입곤중지)	바다는 신선세계로 들어왔고
樓居水上天(루거수상천)	누대는 물위의 하늘에 떠있네
靑浮雙玉筍(청부쌍옥순)	푸른빛 띠고 떠있는 것은 옥순이고
紅折萬金蓮(홍절만금연)	붉은 꽃잎은 희귀한 연꽃이네
煉汞龍吟鼎(연홍용음정)	수은을 달이니 용이 솥에서 우는 듯
餐霞骨已仙(찬하골이선)	안개를 먹음에 몸은 이미 신선일세
君招黃鶴酒(군초황학주)	그대는 황학을 불러 술을 마시게
吾與白鷗眠(오여백구면)	나는 백구와 함께 잠을 자리라

양사언은 친분이 깊었던 이달(李達)과 함께 구선봉 부근에서 풍류를 즐기면서 서로 댓구를 지어 답하며 흥을 나누었다고 한다. 그런데 양사언의 <구선봉(九仙峯)>이라는 시를 듣고는 이달이 더 이상 댓구 짓기를 사양하면서 말하기를 “이처럼 놀라운 시는 상대할 수 없다.”라고 했다는 말이 전해진다.

### 九仙峯(구선봉)

九仙何日九天中(구선하일구천중)	구선이 언제 높다란 하늘 가운데
萬里來遊駕紫虹(만리래유가자홍)	멀리서 와 놀면서 무지개를 탔었나
湖海勝區看未厭(호해승구간미염)	바다의 좋은 경관 볼 때마다 싫지 않아
至今離立倚長空(지금까지 속세 떠나 하늘에 의지해 서있네)	지금까지 속세 떠나 하늘에 의지해 서있네

양사언이 금강산 유람 중에 지인인 차식(車軾)의 시에 답하여 금강산 동북쪽에서 물이 흘러내림을 형용한 시를 지었는데 차식이 그 시를 듣고 감탄하여 이르기 를 “이 시는 옛사람들도 도달하기 어려운 곳에 달했다.”라고 했다. 또 허균(許筠)은 『학산초담(鶴山樵談)』에서 양사언의 시를 일컬어 불계(佛偈)와 같다고 하면서 양사언을 두고 풍골(風骨)이 속되지 않았고 필법이 기고(奇古)하다, 평범한 것에서 벗어나 있으니 글자마다 신선의 품격이 있다며 감탄해마지 않았다.

양사언의 금강산 사랑은 급기야 청허대사(淸虛大師)에게 거처를 봉래산으로 옮기기를 청하며 보낸 편지글인 <기청허서(寄淸虛書)>에서 절정에 달한다.

“텅 비고 푸른 동해 바다와 옥설이 뒤엉킨 봉래산은 청허대사가 거하기에 마땅하  
거들 무슨 마귀가 막고 끌어당겨 9년 동안이나 머물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그대가 끝내 봉래산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몸을 일으켜 서쪽으로 가서 도사  
의 소매를 잡고 동쪽으로 올 것입니다.”

“봉래산은 천하제일의 명산으로 새벽에 천하에서 먼저 양기(陽氣)가 향하는 바이  
니, 생불(生佛)과 진선(眞仙)인 그대와 내가 오늘 만행 중에 만행이 아닙니까?”

이처럼 양사언은 자신이 좋아하고 깊은 교류를 나누던 사람들을 금강산으로  
이끌어 함께 그 정취를 나누고 싶어 했다. 양사언에게 금강산은 더이상 자연  
그대로의 산이 아니었다. 그에게 금강산은 자신의 도가적 성향으로 이어지는  
신선들의 세상과도 같았다. 이러한 그의 정서가 금강산을 노래한 시에 잘 나타  
나 있다.

#### 新卜關東(신복관동)

淵明心事歸來賦(연명심사귀래부) 도연명의 마음으로 귀거래사를 읊었고  
摩詰生涯轉口圖(마힐생애망구도) 마힐의 한평생 망천에서 살았네  
超然遠蹈蓬山路(초연원도봉산로) 속세를 떠나 봉래산 길을 밟노라니  
萬二千峯盡也無(만이천봉화야무) 일만이천봉은 그림이라 없구나

#### 遊楓嶽和車紫洞(유풍악화차자동)

山上有山天出地(산상유산천출지) 산 위에 산 있고 하늘이 땅을 내었으며  
水邊流水水中天(수변류수수중천) 물가에 물 흐르고 물 속엔 하늘이 있는데  
滄茫身在空虛裏(창망신재공허리) 아득한 내 몸은 텅 빈 하늘 속에 있으니  
不是烟霞不是仙(불시연하불시선) 노을도 아니거니와 신선도 아니니라

양사언의 고향인 포천군을 비롯해서 그가 부임했던 삼척, 함흥, 평창, 강릉, 회  
양, 안변, 철원 등지에는 그의 뛰어난 필체가 암각화로 남아있다. 그중에서도 유  
명한 것이 바로 만폭동에 남긴 글자인 <봉래풍악원화동천(蓬萊楓嶽元化洞天)>이  
다. 워낙 유명한 암각화여서 이를 둘러싼 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진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찍이 봉래풍악원화동천(蓬萊楓嶽元化洞天) 8개의 커다란 글자를 보니, 자체가 횡일(橫逸)하고 꿈틀거리 사람의 마음과 눈을 현혹하게 하나 획력(劃力)이 부응하지 못해서 마음에 매우 괴이하게 여겼었다. 전년에 풍악에 가서 보니, 만폭동에 누워있는 큰 돌 위에 새겨져 있는데, 급류에 씻겨 마멸된 데다가 관장(官長)과 유람객들의 탁본이 실 날이 없어서 몇 년 못가서 흐려지게 되었다. 이에 중들이 제 멋대로 쪼아 새긴 것이 이미 백 수십 번을 되풀이하여, 다만 윤곽만 방불하게 남아 있을 뿐이요, 그 신기(神氣)와 정채(精彩)는 이미 죽은 지 오래였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단지 봉래의 글씨라는 것만 듣고 ‘금강산과 같이 높다.’하는 것은 모두 들은 풍월로 하는 소리에 불과한 것이다.”

## 2) 봉래(蓬萊)의 관련 인물들

양사언의 시 작품 세계에 담긴 도가적인 성향 때문에 그가 청연(靑蓮) 이후백(李後白)에게 시를 배웠을 것이라는 설이 있다. 그러나 양사언이 이후백에게 시를 배웠다는 정확한 기록이나 자료는 없다. 다만 양사언이 이후백의 스승으로 알려져 있는 이의건(李義健), 최경창(崔慶昌), 백광훈(白光勳) 등과의 교류가 있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이후백과 친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일 것이라고 추측된다. 대부분의 문인들은 같이 배우고 작품을 공유한 인맥들이 잘 알려져 있는 것에 반해, 그 방면에서는 별달리 알려진 바가 없는 양사언은 아마도 문학 창작에 있어서 스스로 깨달아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구축해 나아간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양사언과 교류가 있었던 인물들은 대부분 고향인 포천을 중심으로 찾을 수 있다. 그중에서도 양사언의 도가적 맥락에 영향을 끼친 인물로는 남사고(南師古)를 꼽을 수 있다. 옛 기록에 의하면 양사언이 점치는 일에 능했는데 이는 남사고의 가르침을 받은 것이라고 되어 있다. 남사고는 중종과 명종 시대의 사람으로 벼슬을 하지는 않았는데 스스로 공부를 하던 중에 깨달음을 얻어 역학에 깊은 조예를 갖게 되었다고 알려져 있는 사람이다. 특히 예언에 능해서 문정왕후의 죽음과 왜구침략, 동서분당 당쟁 등을 예언했다고 한다. 남사고와의 만남은 화담(花潭) 서

경덕(徐敬德)과의 만남으로 이어졌다. 양사언은 남사고, 서경덕과의 만남으로 역학에 눈을 떠 예언에 능했다는 평을 듣게 되었다.

사실 양사언과 가장 밀접한 인물은 초당(草堂) 허엽(許曄, 1517~1580)이다. 양사언과 같은 해에 태어난 허엽은 포천의 두문동 근처에 거주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문과에도 함께 급제한 인연이 있다. 허엽의 아들인 허균(許筠)이 쓴 <학산초담(鶴山樵談)>에서도 허엽과 양사언의 친분을 언급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양사언은 허엽과의 친분으로 서로 많은 시를 써 주고받았는데 대표적인 시로는 <謝惠草堂杜詩(사혜초당두시)>가 있다.

#### 謝惠草堂杜詩(사혜초당두시)

我愛杜工部(아애두공부)	나는 두보의 시를 사랑하는데
文章天下先(문장천하선)	그의 문장은 천하에 제일이며
珠璣生筆翰(주기생필한)	구슬 같은 시가 붓끝에서 나왔고
造化謝機權(조화사기권)	조화는 웅모(雄謀)를 칭찬할만 하네
不見迨三載(부견태삼재)	그대를 보지 못한지 삼년이지만
相思抵百年(상사저백년)	서로 그리워함은 백년이 된 듯하고
今來開碧眼(금래개벽안)	지금에야 푸른 눈을 떠서
草罷太玄篇(초파태현편)	태현경 초(草)하기를 마쳤네

이 시는 허엽이 두보의 시를 보내 준 것에 고마워하며 쓴 것으로 허엽과의 친분을 찾아 볼 수 있는 시이다. 동갑내기로 많은 것을 공유하고 교류했던 양사언은 허엽이 사신이 되어 중국으로 떠날 때는 친구를 떠나보내는 아쉬움을 시로 지어 전하기도 했다.

#### 送許草堂出使江南(송허초당출사강남)

北闕承恩日(북궐승은일)	궁궐에서 임금의 은총을 받은 날
南州出使臣(남주출사신)	남쪽 고을로 사신가는 신하일세
梅花應索笑(매화응소소)	매화는 맞이하여 응당 웃음 지으리니
莫作未歸仁(막작미귀인)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되지는 말게

허엽은 양사언이 강릉부사(江陵府使)로 재임하고 있을 때 손곡(蓀谷) 이달(李達, 1539~1612)을 소개해 서로의 친분을 이어준다. 허엽의 소개로 이달은 양사언과 적지 않은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감을 나누는 벗이 된다. 이달은 최경창(崔慶昌), 백광훈(白光勳)과 함께 삼당시인(三唐詩人)으로 이름을 떨쳤던 문인이다. 그러나 서얼로 태어났기 때문에 별다른 벼슬을 하지 못하고 말단관직을 한 것이 전부이다. 신분상의 한계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던 양사언과 이달은 함께 금강산을 유람 다니면서 풍류를 즐겼다.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양사언은 봉래산인(蓬萊山人)이라고 하였고, 이달은 이적선(李謫仙)이라 칭하며 신선세계를 동경했다. 정서적 교감을 나누며 문학 세계를 공유했던 양사언은 자신을 두보(杜甫)에 이달은 이백(李白)에 비교하기도 했다. 이처럼 각별한 친분을 유지하던 세 사람은 허엽이 먼저 사망하자 양사언이 그의 묘갈을 썼고, 양사언이 사망하자 이달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곡양봉래(哭楊蓬萊)>라는 시를 지어 그를 추모했다.

#### 哭楊蓬萊(곡양봉래)

知是人間尸解身(지시인간시해신) 이는 인간 시해의 몸인 줄 알겠으니  
 不須惆悵浪沾巾(부수추창랑침건) 모름지기 슬픈 눈물로 수건 적실 일은  
 아니라네  
 蓬萊海上東歸路(봉래해상동귀로) 봉래 바닷가 동쪽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疑有碧桃千樹春(의유벽도천수춘) 아마도 벽도 천 그루 봄날이 있으리라

허엽 외에도 양사언과 동갑 지인이 한명 더 있다. 바로 차식(車軾, 1517~1575)이다. 차식 또한 화담 서경덕의 문인으로 문과에 급제해 고성군수(高城郡守) 재임시절에 해산정(海山亭)을 지어 놓고 양사언과 풍류를 즐겼다. 양사언의 금강산 유람에 동행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이때 발연사(鉢淵寺) 부근의 반석에 시를 지어 암각해 놓은 것이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다.

허엽, 이달, 차식 등이 양사언과 문학적 감성을 서로 공유했다면, 양사언의 어려움을 살뜰히 챙겨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진 지인도 있다. 양사언이 진사시에 합격 후 부모상을 치르며 마땅한 관직이 없이 10년간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 자주 교류했던 윤가평(尹加平)이다. 그가 당시 상황이 좋지 않았던 양사언에게 여러모로 도움을 준 사실을 그의 시 여러 편에서 확인할 수 있다.

謝加平送圻奴晉石鏹治屋壁(사가평송오노진석만치옥벽)

送王承福壁圻鏹(송왕승복벽오만) 왕승복을 보내주어 벽을 바르니  
 感兒嘉惠坐長嘆(감형가혜좌장탄) 형의 은혜 감사하면서도 앉아서 탄복할 뿐  
 請借更窮三日力(청차경궁삼일력) 곤궁한 이때에 사흘간이나 힘을 빌어  
 盡除風雨十年寒(진제풍우십년한) 바람과 비 십년간 추위를 다 막았네

양사언이 친분을 맺고 교류했던 인물 중에는 승려도 있었다. 불교에 관심이 많았던 양사언은 천연사(天然師)라는 승려와 친분이 깊었다. 천연사는 양사언, 박순(朴淳), 허봉(許篈) 등과 교류한 승려로 허균(許筠)의 《학산초담(鶴山樵談)》에서 그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있다. 본래 천연사의 집안은 공훈을 세운 문벌이었으나 그는 그 지위를 버리고 불가에 귀의하였다. 승려였으나 기백이 남달랐던 인물이다. 이런 면모는 임진왜란 때 천연사가 청허(淸虛)와 함께 공을 세웠다는 기록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천연사, 청허, 양사언은 서로가 끈끈하게 교류한 것으로 보인다. 청허(淸虛)는 우리가 서산대사로 알고 있는 인물로 임진왜란 때 승병장으로 이름을 날린 인물이다. 《봉래시집(蓬萊詩集)》에 전해 오는 양사언이 청허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그들이 얼마나 친분이 깊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양사언과 친분이 있거나 문학적으로 교감을 나누었던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 그나마 교류했던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향인 포천지역에 거주했던 사람들이었다. 양사언은 비록 소수의 사람들과 친분을 나누었으나 그들과 나는 풍류와 서사는 그 어떤 인연보다도 깊고 풍성했다.

## 5. 양사언에 대한 평

“선생은 정축년(1517)에 태어나 갑신년(1584)에 돌아가셨으니 지금으로부터 5백년이 되었다. 우리의 고향에서는 부녀자나 농부가 선생이 사시던 마을을 지날 때는 반드시 선생의 마을이라고 말하고, 선생의 묘를 지날 때는 선생의 묘라고 이르니, 어

찌 가르쳐서 이르겠는가. 우리 고을이 아니더라도 사망의 사람들이 선생의 성명을 모르는 자 있으랴. 비유하건데 상서로운 기린과 아름다운 봉황이 비록 수천 년 빛을 감췄을지라도 구포의 털과 귀창의 소리만 들어도 사람들이 다 사모하는 줄 알아, 어디선가 직접 보고 들은 듯이 여기저늘, 선생의 명성을 전하는 것을 과연 필석에 새김이 있어야 한단 말인가? 하니, 중정공이 말하기를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선생의 효우와 행동과 지적, 경력과 벼슬의 시종을 내세에 밝히지 않을 수 없다’하였다.”

이것은 양사언의 사망 이후에 같은 고장 출신인 조경(趙綱)이 적은 묘갈명(墓碣銘)의 일부분이다. 양사언은 40년 넘는 관직생활로 품계가 통정대부(通政大夫)까지 오른 인물이다. 그러나 그는 관리보다는 도가적 취향을 가진 명필 서예가로서 널리 알려져 있다. 관료였으나 유교적 인물이기 보다는 불교를 가까이 한 사람이면서 말년에는 도가적인 성향을 띤 인물이다. 이것은 유교적 이념을 따르는 선비로서는 매우 특이한 경우이다. 옛 기록에서는 양사언을 풍류를 즐기며 도가적 성향을 갖고 있었던 인물로 평하고 있다. 몇 가지 기록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포천현의 읍지(邑誌)인 견성지(堅城誌)에는 ‘세상에 뛰어난 재사로서 시와 필법이 기이하고 힘찼다. 산수를 즐겨 유람하였다. 세상 사람들은 신선(神仙)의 풍채(風采), 도인(道人)의 기골(氣骨)이라고 칭송하였다. 회양, 강릉 등의 읍을 역임하였는데 모든 곳에서 이적이 있었다.’라고 양사언을 기록하고 있다.

양사언이 6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재임했던 강릉의 〈강릉부읍지(江陵府邑誌)〉에 따르면 양사언은 ‘몸가짐이 곱고 깨끗하였으며, 정사를 간결하고 평이하게 하였다. 관리의 봉급을 매우 공평하게 지급하고, 관아에서의 쓰임새는 매우 박하게 하였다. 관직에 있었던 6년간 한 자의 벼도 가정에 보탠 적이 없었다.’고 한다.

《지봉유설(芝峯類說)》에서는 ‘봉래 양사언은 안변부사로 있으면서 문서나 책에 뜻을 두지 않고 오직 산수를 찾아다녔는데 어떤 때는 열흘간 돌아오지 않았다.’라며 풍류를 즐겼던 양사언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양사언은 산수를 즐겨 유람을 즐기는 풍류객이었다. 말년에는 신선 혹은 도인과 같은 분위기를 풍겼던 도가적 인물이었으나 그렇다고 정사에 소홀한 것은 아니었다. 매사에 공평하고 청렴한 모범적인 관리였기에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다.

효성이 깊고 우애가 깊었음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음이다. 양사언이 도가적 성향을 띄었다고는 하나 실제 기인처럼 행동하지는 않았다. 단지 그의 작품에서 현실세계와는 다르게 신비로운 느낌을 찾을 수 있을 뿐이다.

이익(李瀾)은 《성호사설(星湖僊說)》에서 양사언을 두고 신선 같은 인물이라고 평하면서, 그 글씨 또한 그 인물과 같은데, 사람들이 그 글씨가 진속(塵俗)을 벗어난 줄은 알아도 그 시가 세상 사람의 말이 아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다. 그의 작품세계가 현실세계를 초월해 신선의 세계와 같이 신비한 경지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양사언과 각별한 관계였던 허엽과 그의 아들인 허균(許筠) 또한 양사언과 교류가 있었다. 허균은 그가 쓴 ‘홍길동전’에서 알 수 있듯이 신분차별을 극복하고자 했던 신념을 갖고 있던 인물로 양사언과 정서적으로 공통된 부분이 있어 서로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하는 관계였을 수도 있을 것이다. 허균(許筠)은 《학산초담(鶴山樵談)》에 양사언에 대한 기억을 이렇게 적었다. ‘양사언 선생은 아량과 풍도가 있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숭상되었다. 돌아가신 부친께서는 사마시와 문과를 그와 함께 급제하였으므로 가장 가깝게 사귀셨다. 문장이 세상에 뛰어나 구름을 넘어서는 기운이 있었으며, 초서를 잘하였는데 마치 용과 뱀을 내어놓은 듯하였다. 성품이 가벼워서 벼슬자리에 있으면서도 산수에 마음을 붙이고는 미투리를 신고서 바위와 골짜기 사이를 돌아다니지 않은 날이 없었다. 사람들이 그를 사강락(謝康樂)에다 견주었다. 일찍이 강릉 고을을 다스렸는데 은혜로운 정치를 베풀었으므로 거사비(去思碑)를 세워주었다고 하였다. 또한 봉래가 풍악(風嶽)에 있으면서 시를 지었는데, <중략>… 신선의 풍채와 도인의 기골이 매우 깊게 들어있다. 중형이 화답하였는데, <중략>… 비록 좋기는 하지만 끝내 봉래의 선운을 따라가지는 못했다.’라고 기록했다.

《한국문학통사(조동일 著)》에서는 양사언을 도가적인 인물로 꼽았는데 ‘과거에 급제해서 지방관을 두루 역임하는 동안 회양군수로 있을 때 금강산을 자주 드나들었으며, 거기서 노는 기분을 시로 읊은 것이 여럿 있어서 나중에 금강산에 들어가 신선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남겼다. 금강산의 탄 이름인 봉래(蓬萊)로 호를 삼아 도가적인 기풍을 풍겼기에 전설과 잘 어울린다. 그런데 앞에서 든 사람 들처럼 기이한 행동을 하거나 이상스러운 문구는 찾지 않고, 널리 인정될 수 있

는 시를 짓되 표현이 기발하고 탈속한 느낌이 들도록 해서 천의무봉(天衣無縫)이라는 평을 들었다.’라고 적고 있다.

양사언은 신분적 한계를 스스로 극복하고, 이단으로 배척받던 불가와 도가를 거리낌 없이 넘나들었던 인물이다. 평생 관직에 있으면서도 백성 위에 군림하려 하지 않았고, 청렴함을 자랑으로 여긴 청백리로서 한 푼의 재산도 가족에게 남기지 않았다는 그의 삶은 모든 이의 귀감이 될 만한 것이다. 이러한 양사언의 일생을 조정(趙綱)이 묘갈명(墓碣銘)에 잘 정리해 놓았다.

원정(元精)이 배태되어 독실한 이인(異人)을 낳았도다. 내외의 방술(方術)에 온갖 정신을 쏟았고, 처음에는 이단(異端)을 가까이 하더니 나중에는 선도(仙道)에 빠졌도다. 이단과 선도를 하지 않았다면 넉넉히 요천(寥天)에 드실텐데 겨 찌꺼기의 시편(詩篇)이 인간 세상에 떨어져 흩어진다.

### Ⅲ. 결론

봉래 양사언은 조선의 3대 명필이자 뛰어난 문인이다. 그러나 그 명성에 비해 그의 관직생활은 그리 화려하지 않았다. 벼슬길에 올라 40년 동안 8개 명읍을 다스렸는데 한 푼도 넉넉함이 없었다. 처자를 위해서는 털끝만큼도 계획을 하지 않았고 항상 말하기를 나는 사지공(四知公)의 후예(後裔)로서 선조에게 욕되게 하지 말아야 하며 하늘과 사람에게 부끄럼이 없어야 한다고 하였다. 봉래 양사언은 자청하여 외직으로 돌며 40여년의 관직생활 대부분을 보냈다. 혹자들은 양사언이 자연을 사랑하여 풍류를 즐기려는 마음으로 외직을 자청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외직으로만 옮겨 다니며 재임했기 때문에 자연과 풍광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그의 문학적 재능이 꽃을 피웠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가 외직을 돌며 풍류를 즐겼던 풍류객이라고 널리 알려졌으나 관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선정(善政)을 펼치는 것을 게을리 하지는 않았다. 관리로서의 양사언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하였고, 일말의 사리사욕을 품지 않는 청백리로 명성을 드높였다.

양사언은 관직생활을 40여 년간 했으나 교류한 인물이 같은 관직에 있던 사람은 드물다. 몇몇 문인(文人)과의 인연 외에는 포천지역 사람들과 불교 승려들이 대부분이다. 양사언은 ‘태산이 높다하되’로 시작하는 그의 시조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끝없는 도전 정신을 가진 진취적 인물이었다. 양사언은 일찍이 유교학자로서 관직에 나아갔지만, 후에는 불교에 심취했으며 마지막에는 선도(仙道)에 빠져 신선이 되고자하는 이상향을 추구했다. 이러한 믿음의 변화는 당시로서는 찾아보기 힘든 사례이다. 이런 성향 때문이었는지 당시 사람들이 이단(異端)이라 여겼던 불교와 선도에 열린 마음으로 다가섰던 것일 수도 있다. 500여 년 전 사회에서 이미 통념을 벗어난 사고에 두려움이 없었던 그의 자유로움이 놀랍지 않을 수 없다.

그는 평생에 있어서 초년에는 주로 포천 지역에서 궁핍한 가운데 시서와 거문고를 벗하며 안빈낙도의 흥취를 즐겼다. 중년에는 강릉, 고성, 회양, 철원 등 관동 지방의 수령으로 재임하여 선정을 베풀면서도 산수자연을 유력하며 도가적 흥취에 몰입하였다. 말년에는 안변부사로 있으면서 선정을 베풀어 관리로서의 면모를 보이는 한편, 도가적인 흥취에 더욱 몰입된 경지를 보였다.

조경(趙綱)의 <묘비명(墓碣銘)>에서 지적한 바대로 그는 이인(異人)으로 태어나 내외(內外)의 방술(方術)에 몰입하였고, 유자(儒者)이면서도 불교를 가까이 하였으며, 만년에는 선도(仙道)에 빠졌던 인물이다. 그를 일러 ‘선풍도골(仙風道骨)’이라 말하고, 작품을 평하여 “탈속(脫俗)한 정취(情趣)가 빼어나다.”고 한 것은 가장 집약적이고 적확(的確)한 지적이다.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 자유롭게 사고하며 인생을 옹골게 산 양사언의 생애를 살펴보면 이 시대의 공직자들과 지도자들에게 시사 하는바가 매우 큼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경기북부 지역, 특히 포천지역은 서울과 인접한 지역으로 문인과 학자 등 유명한 인물을 많이 배출한 지역이다. 이러한 선인들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는 인물사 연구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낙후된 경기북부가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 주길 기대하며 본 지면에 소개된 포천의 인물인 봉래 양사언의 삶속에서 새로운 모습을 발견 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 [ 참고문헌 ]

### 1. 자료

《봉래시집(蓬萊詩集)》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

《청주양씨대동보(淸州楊氏大同譜)》

《문화류씨세보(文化柳氏世譜)》

《허균전집(許筠全集)》

봉래양사언묘갈(蓬萊楊士彦墓碣)

포천군지(抱川郡誌)

한시작가작품사전(漢詩作家作品事典)

포천의 인물지(抱川의 人物誌)

포천을 빛낸 인물연구 2007 학술연구논문집(2007 學術研究 論文集)

탄신 500주년에 봉래를 말하다(양유탉 포천문화원장)

### 2. 단행본

홍순석, 《양사언의 생애와 시》, 경인문화사, 2000.

홍순석, 《양사언의 생애와 문학》, 강남대출판부, 2001.

### 3. 논문

홍순석, “양사언 출생설화 연구”

홍순석, “양사언 시에 나타난 도가적 경향”

여 백

파주



# 파산(坡山)의 성리학자 ‘우계 성혼’

오경미 | 파주문화원 과장



우계 선생은 기호학파(畿湖學派)로 지칭되는 일군의 성리학자들을 이끌었으며, 파주를 조선의 추로지향(鄒魯之鄉)으로 불리게 한 파산학파(坡山學派)의 중심인물이다.

## 파산(坡山)의 성리학자 ‘우계(牛溪) 성혼(成渾)’

오경미 | 파주문화원 과장

### 1. 들어가는 말

우계(牛溪) 성혼(成渾) 선생은 문묘(文廟)에 배향된 동국 18현의 한 명이며, 울곡(栗谷) 이이(李珣) 선생과 함께 파주(坡州)를 대표하는 대학자이다. 파주시 파평면 늘노리 우계(牛溪, 소개울)가에 거주하며 학문을 연마하였고, 울곡·구봉·송강 등 당대의 학자들과 교류하며 우정을 나눴다.

도학(道學)의 탁마와 실천을 중시하는 청빈한 선비로 평생을 살며 사림(士林)들의 존경을 받았고, 울곡의 천거로 조정에 나가 나라의 평안을 위한 계책을 진언하기도 하였으며, 파주 우계에 머물며 후학들을 양성하는 데에도 힘을 기울였다.

6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 파주시 파주읍 향양리에 묻혔으며, 사액서원(賜額書院)으로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도 존속되었던 파산서원(坡山書院, 파주시 파평면 파산서원길 24-40)에 위패가 모셔졌다.

우계는 울곡과 함께 조선 중기 기호학파(畿湖學派)<sup>1)</sup>로 분류되는 일군의 성리학자들을 이끌었으며, 파주를 조선의 추로지향(鄒魯之鄉)<sup>2)</sup>으로 불리게 한 파산학파(坡山學派)의 중심인물이었다.

울곡과 함께 조선 중기 성리학의 발전에 큰 족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관심과 연구가 부족했던 우계의 삶과 발자취를 다양한 역사적 자료들과 관련 유적들을 통해 살펴보는 것은 파주는 물론 경기 철학의 분류와 한국철학의 흐름을 살피는 뜻깊은 일이 될 것이다.

1)기호학파(畿湖學派) : 조선 중기 경기도·충청도 지역의 이이·성혼의 문인과 학자들의 집단을 지칭

2)추로지향(鄒魯之鄉) : 공자(孔子)와 맹자(孟子)의 고향이란 뜻으로, 예절을 알고 학문이 왕성한 곳을 말함. 울곡 이이와 우계 성혼 이외에도 청송 성수집, 휴암 백인걸, 철효 성수종 등 많은 유학자들이 이곳에서 배출되었다.

## 2. 우계 성혼 연보(年譜)

- 1535년 1세 증종 30년 6월 25일 서울 순화방(順和坊) 본가에서 출생하였다.
- 1544년 10세 9월에 부친인 청송(聽松) 선생이 파산(坡山)의 우계(牛溪)에 복거(卜居)했는데 선생은 가정에서 시학(侍學)하였다. 청송은 정암(靜庵) 조광조(趙光祖) 선생의 문하에서 수학하다가 기묘사화 이후로는 문을 닫고 들어앉아 일체 출입하지 않았다. 백악산(白岳山) 송림 속에 서실을 짓고 「聽松」이라는 편액을 써 붙였었다. 이때 시국이 더욱 어렵게 되므로 드디어 파산으로 돌아갔다. 이 때 선생은 학업이 크게 진보되어 스승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았었다.
- 1549년 15세 선생은 경사(經史)를 널리 통하고 문사(文辭)도 훌륭하였으며 학식과 행실도 남에게 모범이 되었다.
- 1551년 17세 7월에 부인 고령신씨(高靈申氏)를 순천군(順天郡)에서 맞이하였다.
- 1553년 19세 아들 문영(文泳)이 태어나다.
- 1554년 20세 율곡 이이와 더불어 도의지교(道義之交)를 맺었다.
- 1555년 21세 큰 병을 앓은 후부터는 비위(脾胃)가 허해서 고질이 되었다.
- 1559년 25세 아들 문준(文濬)이 태어나다.
- 1561년 27세 12월에 어머니 파평 윤씨(坡平尹氏)의 상(喪)을 당하다.
- 1563년 29세 2월에 외제(外除)한 다음 심상(心喪)으로 계셨다. 가을에는 부친 청송의 병환이 위독하여 다리의 살을 갈라 약에 타서 바치다.
- 1564년 30세 정월에 부친 청송 선생이 세상을 떠났다.
- 1566년 32세 3월에 3년 상을 마치고 옛 집으로 돌아왔다.
- 1567년 33세 부친 청송의 묘지(墓誌)를 고봉(高峯) 기대승(奇大升)에게 지어 달라고 청하였다.
- 1568년 34세 2월에 전생서(典牲署) 참봉(參奉)에 제수 되었다. 5월에 율곡 선생과 더불어 중(中)이니 지선(至善)이니 하는 학설을 논하였다.
- 1569년 35세 8월에 목청전(穆淸殿) 참봉을 제수 받았다. 12월에 장원서(掌死署) 장원(掌死)을 제수 받았다. 청송묘갈(聽松墓碣)을 퇴계(退溪) 선생에게 지어 주기를 요청 하였다.

- 1570년 36세 6월에 적성현감(積城縣監)에 제수 되었다.
- 1571년 37세 봄에 <서실의(書室儀)>를 지어 제생에게 보여 주었다. 또 주자서(朱子書)에 말씀한 <위학지방(爲學之方)>을 초(抄)하여 제생에게 보여 주었다. 9월 천마산(天磨山) 놀이를 가서 서화담(徐花潭)이 살던 옛 집을 찾아 보았다.
- 1572년 38세 여름 율곡 선생과 더불어 사단(四端), 칠정(七情), 이기(理氣)의 학설을 변론 하였다.
- 1573년 39세 2월 공조좌랑(工曹佐郎), 7월에는 장원(掌苑)이 되었으나 모두 부임하지 않았으며 12월에는 사헌부 지평(持平)을 제수 받았다.
- 1574년 40세 정월 본주(本州)에 장계를 올려 통례원(通禮院) 인의(引儀)를 그만두었는데, 또 공조좌랑으로 옮겨졌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또 지평을 제수받고 상소하여 사면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아 또 사직소를 올렸다. 2월에 전생서주부(主簿)를 제수 받았는데 또 유지를 내려 날씨가 따뜻한 후에 올라오라 하였으나 상소하여 사면하였다. 3월 특명으로 공조좌랑을 제수 받았으나 그만두려고 상소하니 어서(御書)로 비답(批答)을 내리어 윤허하지 않았다.
- 1575년 41세 2월 설경헌(薛敬軒)의 <讀書錄> 끝에 발문을 썼다. 6월 지평을 제수 받았다. 소명을 받고 서울까지 들어와서 병으로 사직소를 올리고 그만두었는데 임금의 특명으로 어의를 보내어 진찰하고 약을 보내주도록 하였다. 7월 공조정랑(工曹正郎)이 되고 8월에는 지평으로 옮겨졌는데 병으로 그만두었다가 다시 공조정랑이 되었다. 9월에는 궐하에서 사은한 다음 사직소를 올리고 시골로 돌아왔는데 12월에 비로서 그만두도록 하였다.
- 1576년 42세 10월 지평을 제수 받고 사직소를 올렸는데 잇달아 인의(引儀)가 되었다.
- 1577년 43세 4월 송익필(宋翼弼)의 편지에 답하였다. 10월 편지를 써서 최영경과 정인홍에게 부쳤다.
- 1578년 44세 5월 지평을 제수 받고 상소하여 그만두었는데 또 조지서(造紙署) 사지(司紙)가 되었다. 8월 다시 지평이 되었으나 그만두고 다시 사지가 되었다. 11월 또 지평을 제수 받고 사직소를 올리니 그만두도록 하고 예빈시(禮賓寺) 판관(判官)을 제수 시켰다.
- 1579년 45세 2월 지평을 제수 받고 사직소를 올렸는데 또 종묘서령(宗廟署

승)을 제수 시켰다. 3월 또 지평을 제수 받고 사직소를 올렸으나 윤희하지 않았다. 4월 지평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특명으로 장흥고(長興庫) 주부(主簿)를 제수시키고 소명을 내렸다. 5월 아픔을 참고 서울로 올라가다가 도중에 병이 심해져 사직소를 올려 그만두려 하였으나 임금이 잘 조섭한 후에 천천히 올라 오라고 하였다. 7월 지평이 되었으나 상소하여 그만두었는데 또 광흥창(廣興倉) 주부(主簿)를 제수하고 소명을 내리므로 봉사(封事)를 올려 종선(從善)과 전학(典學)에 대한 방법을 개진하였다. 8월 전생서 주부가 되었다. 성대기(成大器) 부고를 받고 통곡 하였다.

- 1580년 46세 7월 <소학집주(小學集註)>의 발문을 지었다. 8월 사헌부 장령을 제수 받았으나 병으로 그만두었다. 또 재차 소명이 있어 병을 억지로 참고 집을 떠나게 되었으나 중도에서 병이 심해져 더 나아갈 수 없어 그만 두었는데 장악원(掌樂院) 첨정(僉正)을 제수시켰다. 12월 장령을 제수 받고 병으로 사직소를 올렸으나 윤희하지 않고 가마를 타고 올라오라고 하므로 또 진정소를 올리기까지 하였으나 역시 윤희하지 않았다.
- 1581년 47세 정월 장령을 그만두고 종묘서 령(令)이 되어 서울로 돌아갔으나 병으로 그만두게 되었다. 2월 대궐로 나아가 진정소를 올리고 그만두려 하였으나 임금이 사정전(思政殿)으로 불러 사대(賜對)하도록 하였다. 공조정랑을 제수 받았으나 병으로 그만두었다. 5월 다시 입대(入對)하라는 명이 내려졌으나 역시 병으로 입궐하지 못하였다. 또 호조에 명하여 쌀과 콩을 내려주도록 하였는데 두 차례 상소하여 사양 하였다. 또 세 차례나 사직소를 올리고 시골로 돌아가려 했으나 윤희하지 않았다. 6월에는 임금이 의원을 시켜 약을 지어 보냈다. 전설사(典設司) 수(守)를 제수 받았다. 9월에는 다섯 차례나 사직소를 올렸으나 윤희하지 않았다. 또 충무위(忠武衛) 사직(司直)으로 옮겨졌는데 10월에 입대한 후 시골로 돌아가기를 거듭 간청 하였다. 11월에는 여섯 번이나 사직소를 올렸으나 윤희하지 않고 겨울을 날 신탄(薪炭)을 내려주라고 명하였다. 용양위(龍驤衛) 상호군(上護軍)에 승진되었는데 사직소를 올려 시골로 돌아가기를 거듭 간청하였으나 윤희하지 않았다.
- 1582년 48세 2월에 사헌부 지평을 제수 받았고 3월에는 두 차례 소명을 받고 또 사직소를 올려 그만두었다. 잇달아 사옹원(司饔院) 정(正)을 제수 받았으나

또 병으로 그만두었다. 5월에 또 사옹원 정으로 소명 받고 사직소를 올렸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어사(御賜)한 <농사직설(農事直說)> 끝에다 발문(跋文)을 적었다. 9월에 또 사옹원 정을 제수 받았다가 사재감(司宰監) 정(正)으로 옮겼으나 병으로 그만 두었다.

- 1583년 49세 정월에 집의(執義)를 제수 받고 2월에 그만두었다. 3월에는 특지(特旨)로 통정대부 병조참지(兵曹參知)를 제수 받았다. 4월에 사직소를 올렸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5월에 소명을 받고 서울로 들어갔으나 병이 심해서 사 은하지 못한 채 사직소를 올렸는데 참지를 그만두고 호군(護軍)이 되었다. 계인일(癸印日)에 대궐로 나아가 사직소를 올렸는데 옮겨서 이조참의(吏曹參議)를 제수시키고 은대(銀帶)를 하사하였다. 7월에 상소하여 삼사(三司)의 죄를 논박하고 율곡 선생을 신구(伸救)한 다음 시골로 돌아가기를 간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무술일(戊戌日)에 양사(兩司)의 비방을 받고 파산(坡山)으로 돌아갔다. 9월에는 특명으로 이조참의를 제수시키고 빨리 올라오라는 전교를 내렸다. 10월에 또 사직소를 올렸다. 또 거듭 사직소를 올렸으나 윤허하지 않고 빨리 올라오라는 전지를 내렸다. 11월에는 특명으로 가선대부(嘉善大夫) 이조참판(吏曹參判)을 제수시켰는데 사직소를 올렸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 1584년 50세 정월에는 율곡 선생의 죽음을 애통해 하였다. 2월에는 을해소(乙骸疏)를 올렸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4월에는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를 제수 시켰다. 얼마 안 되어 또 이조참판을 제수 받았으나 사직소를 올리고 그만두었는데 다시 동지중추부사가 되었다. 6월에는 상소하여 시골로 돌아가 분황(焚黃)하려 하였으나 임금의 가을을 기다려 내려가도록 하였다. 7월에 파산으로 돌아 왔다. 8월에는 사직소를 올려 그만두려고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9월에는 불러들이는 유지가 내려지므로 소를 올려 그만두려고 하였다. 11월에는 장계를 올려 사직하려 하였으나 다만 겸대(兼帶)만 그만두게 하고 병을 치료한 후 올라오도록 하였다. 12월에는 우두머리 아전에게 명하여 존문(存問)하게 하고 식물(食物)도 양급(量給)하도록 하였다.
- 1585년 51세 정월에 상소하여 존문한 명을 사례하였다. 3월에는 율곡 묘소에 가서 성묘 하였다. 5월에 사직소를 올리고 그만 두었다. 7월에는 또 동지중추부사를 제수 받고 사직소를 올렸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9월에는 양사의 지탄

을 받았는데 이름이 천부(天府)에 적혀 있었다. 9월에 또 두 번째 상소하여 그만 두려고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 1587년 53세 2월에 조여식(趙汝式) 헌(憲)에게 편지를 부쳤다. 7월에 자지문(自誌文)을 지었다. 8월에 <감회이절(感懷二絶)>을 써서 오충겸(吳充謙)과 황신(黃慎) 두 선비에게 보였다.
- 1589년 55세 7월 조여식(趙汝式)에게 편지를 부쳤다. 박사암(朴思庵)의 죽음을 애통해 하였다. 8월에는 석담사(石潭祠)에 제향할 일을 논의 하였다. 11월에 이조참판을 제수 받고 사직소를 올렸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12월에 병으로 사직소를 올리니 그만두도록 하고 동지중추부사를 제수 하였다.
- 1590년 56세 봄에는 임금이 대신에게 명하여 선생을 사유(師儒)로 들어오도록 상의하라고 하였으나 결국 그대로 되지 않았다. 4월에 봉사를 올려 양민(養民), 보방(保邦), 율빈(律貧), 진현(進賢) 등에 대한 방법을 개진하였는데 여러 천언(千言)이나 되었다. 5월에 대궐로 나아가 사은한 다음 을해소를 올렸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9월에 정좌상(鄭左相) 철(澈)에게 편지 하였다. 11월에는 박순경(朴舜卿) 여룡(汝龍)의 편지에 답하였다.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를 제수 받았다.
- 1591년 57세 봄에 <栗谷先生文集>을 엮어 정리 하였다. 4월에는 김장생(金長生)과 더불어 거취(去就)에 대한 의리를 상의 하였다. 7월에는 정철을 적소(謫所)로 전송 하였다.
- 1592년 58세 4월 대열(大閱)에 불참한 이유로 상소하여 자핵(自劾) 하였다. 임인일(壬寅日)에 왜적이 국경에 침입했는데 기미일(己未日)에 대가(大駕)가 피난하게 되었다. 5월에 선생이 병화를 피해 산골로 들어갔다. 7월 세자가 이천(伊川)에 머물러 있으면서 영을 내려 불렀으나 병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위학지도(爲學之道)와 시무(時務)에 대한 15조(條)를 논하였다. 기묘일(己卯日)에 세자의 영을 받고 김지(金漬)의 의병(義兵)이 주둔한 군중(軍中)에 이르렀다. 갑신일(甲申日)에 세자가 또 영을 내려 부르므로 떠나서 안협(安峽)에 이르러 더 나아가지 못하였다. 8월 세자의 영을 받고 개성유수(開城留守) 이정형(李廷馨)의 군중으로 나아갔다. 정철에게 편지를 부쳤다. 9월에는 세자에게 검찰사(檢察使)를 제수 받고 이정형에게 양보하였다. 세자가 또 불러들이는 영이 있

어서 임오일(壬午日)에 바로 군중을 떠나 성천(成川)에 있는 분조(分朝)로 향하였다. 10월 비로소 성천에 이르러 세자를 찾아뵙고 곧 대조(大朝)로 들어가도록 간청 하였다. 신해일(辛亥日)에 성천을 떠나 의주에 있는 행조(行朝)로 향하였다. 11월에 행차가 순천(順川)에 이르렀는데 나중 신후(身後)의 일을 글로 적어 윤생(尹甥)에게 부쳤다. 의주에 있는 행조로 들어가 계사를 올리고 대죄하였다. 우참찬(右參贊)을 그만두려고 계사를 네 번이나 올렸는데 끝내 윤희하지 않으므로 이에 사은 하였다. 12월에는 시무(時務)에 알맞은 아홉 조항을 적어 올렸다. 사헌부 대사헌에 제수 되었으나 병으로 그만두었는데 또 우참찬이 되었다.

- 1593년 59세 정월에 대사헌을 제수 받고 병으로 그만두었는데 도로 우참찬이 되었다. 계유일(癸酉日)에 대가(大駕)가 정주(定州)로 돌아오셨으나 병으로 따라가지 못했다. 3월에는 대가가 영유(永柔)로 옮기게 되었으나 병이 들어 수행하지 못하였다. 임신일(壬申日)에 영유에 이르러 대죄계(待罪啓)을 올렸다. 정철에게 편지를 부쳤다. 5월에 대사헌을 제수 받고 대궐로 나아가 계사를 올려 그만두게 되었는데 또 지중추부사가 되었다. 경신일(庚申日)에는 명을 받고 선릉(宣陵)과 정릉(靖陵)을 봉심(奉審) 하였다. 7월에는 도로 제령(載寧)으로 왔었는데 병이 심해서 여러날 머물러 있게 되었다. 9월에는 해주 행조에 가서 복명한 다음 연로(沿路)의 보고 들은 바를 아뢰었다. 을해소를 올렸으나 윤희하지 않았다. 대가가 서울로 되돌아오게 되었는데 선생은 병으로 수가(隨駕)할 수 없어 머물러 있다가 중전(中殿)을 호종 하였다. 10월에는 석담정사(石潭精舍)에서 우거(寓居) 하였다. 12월에 정철의 부고(訃告)를 받고 통곡 하였다.
- 1594년 60세 정월에 이첨지(李僉知) 해수(海壽)에게 편지를 부쳤다. 2월 계유일(癸酉日)에는 석담을 떠났다. 3월 서울로 들어와 대궐로 나아가 상소(上疏)하고 대죄(待罪) 하였다. 4월에 자핵소(自劾疏)를 올렸다. 비국당상(備局堂上)을 사면하려 했으나 윤희하지 않았다. 5월에는 또 좌참찬을 제수 받았다. 비국당상에게 유지를 내려 각기 계책을 적어 바치도록 했는데 시무에 알맞은 14조를 지어 올렸다. 계묘일(癸卯日)에 비국에서 인대(引對)했는데 진본(秦本)의 내용을 의논 하였다. 또 상소하여 비국당상과 좌참찬을 그만 두려고 했으나 윤희하지 않았다. 우참찬으로 옮겨지자 또 사직소를 올렸다. 7월에 또 자핵소를 올

렸다. 또 상소하여 병으로 그만두려하자 윤희하였다. 8월 정미일(丁未日)에는 용산(龍山)으로 나갔다. 또 을해소를 올렸다. 9월에는 병으로 군직(軍職)을 그만두고 임오일에 배를 세내어 타고 서강(西江)에서 떠났다. 갑진일(甲辰日)에는 연안(延安) 각산(角山)에 이르러 우거 하였다.

- 1595년 61세 2월에 각산에서 파산으로 돌아오고 6월에 부호군(副護軍)을 제수 받았다.
- 1596년 62세 여름에는 이참의(李參議) 해수(海壽)에게 편지를 부쳤다. 10월에는 황사숙(黃思叔) 신(愼)에 답한 편지를 부쳤다.
- 1597년 63세 5월에는 조상 제사를 받들 전택(田宅)과 노비는 대대로 종가에 전해주도록 하라는 유서(遺書)를 지어 아들 문준(文濬)에게 부쳤다. 8월에는 윤좌상(尹左相) 두수(斗壽)의 편지에 답하였다.
- 1598년 64세 정월에는 옛 병이 더욱더 심해졌다. 6월 기미일(己未日)에 파산(坡山) 시냇가 오막살이에서 눈을 감았다. 8월 임신일(壬申日)에 파주(坡州) 향양리(向陽里) 묘좌(卯坐) 유향(酉向)으로 된 산에 장사지냈는데 바로 부친인 청송(聽松) 선생 묘소의 뒤였다. 부음(訃音)이 전해지자 임금이 예관(禮官)을 시켜 치제(致祭)하도록 하였다.

#### [ 사후 ]

- 1602년 2월에 소인(小人)들의 험뜰음에 따라 관작(官爵)을 추탈(追奪) 당하였다.
- 1608년 2월 광해(光海)가 즉위 하였다.
- 1610년 9월에 관학유생(館學儒生) 김욱(金埵) 등, 10월에는 파주유생(坡州儒生) 김탕(金盪) 등과 전현감(前縣監) 한교(韓嶠) 등이 서로 잇달아 상소하여 신원(伸冤)하도록 하였다.
- 1613년 인조대왕 원년 3월에 관작을 되돌려 주라고 명하였다.
- 1616년 황산서원(黃山書院)이 창건되어 신판(神板)을 봉안(奉安)하고 석채례(釋菜禮)를 행하였다.
- 1628년 10월 파산서원(坡山書院)이 이룩되었는데 신판을 봉안하고 석채례를 행하였다.
- 1629년 4월에 증대광보국승록대부의정부좌의정겸영경연감춘추관사세자

사전(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兼領經筵監春秋館事世子師傅)를 추증하였다.

- 1633년 시호(諡號)를 내렸는데 문간(文簡)이라 하였다.
- 1635년 5월에 관학유생 송시영(宋時瑩) 등이 상소하여 선생과 율곡 선생을 문묘(文廟)에 종사(從祀)하도록 간청 하였다.
- 1650년 효종 원년 파산서원에 사액(賜額)하고 예관을 시켜 치제하도록 하였다.
- 1651년 소현서원(紹賢書院)에 배향 하였다.

### 3. 문헌에서 만나는 우계 성혼

#### 가장(家狀)

우계 성혼 선생의 학문은 대체로 가정에서 얻었는데, 인륜을 근본으로 삼고 충신(忠信), 독경(篤敬), 반궁(反躬), 절기(切己)의 덕을 학문을 닦는 큰 방법으로 삼았다. 평생에 스승으로 섬기고 벗으로 사귀 이는 퇴계(退溪) 이황(李滉) 선생과 율곡(栗谷) 이이(李珣) 선생이다. 선생이 항상 말씀 하시기를, “퇴계 이 선생은 참으로 주자(朱子) 법문(法門)의 종지(宗旨)를 얻었다.” 하여, 비록 몸이 병들고 사는 곳이 멀어 직접 모시고 섬기지는 못하였으나 종신토록 변함없이 존모(尊慕)하여 그 문하(門下) 출신인 것 같다. 일찍이 퇴계 선생이 서울에 오신 계제에 찾아가 배알하였으며, 언제나 선생의 글을 얻으면 옷깃을 여미고 공경히 반복하여 읽지 않은 적이 없었으며, 손이 닿는 대로 글을 초록(抄錄)하여 권질(卷帙)을 이루었다. 그리고 율곡 이 선생과는 약관(弱冠) 시절에 도의지교(道義之交)를 맺고 성현의 떳떳한 교훈으로 스스로를 다스렸으며, 경적(經籍)을 토론하고 의리를 강마(講磨)하며 절차탁마(切磋琢磨)해서 봉우 간에 도움을 주고받은 것이 가장 많았다. 선생은 언제나 말씀하기를, “율곡은 나의 벗이 아니고 바로 나의 스승이다.” 하였으며, 기일(忌日)을 만나면 반드시 그를 위하여 소식(素食)을 하곤 하였다.

선생은 일찍이 주자(朱子)의 글 가운데에서 중요한 말씀을 뽑아내어 배우는 자들에게 보여 주고 제목을 ‘위학지방(爲學之方)’이라 하고, 말씀하기를, “율곡은 비록 세상에 드문 고명(高明)한 재주가 있었으나 저술(著述)을 너무 일찍 하였으

니, 이는 경계로 삼아야 하고 본받아서는 안 된다. 이제 내가 주자의 글을 초록(抄錄)한 것은 감히 저술한다고 자처한 것이 아니라 다만 주자의 문하에서 배우고 가르치던 요점을 뽑아내어 제군들로 하여금 준수하여 가슴속에 새겨 두게 하려고 해서일 뿐이다.” 하였다.

선생은 젊었을 적에 집이 가난하여 부모를 봉양하느라 힘들게 일하고 고심하여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으며, 힘써 맛있는 음식을 장만하느라 몸소 물고기를 잡고 사냥을 하는 수고로움을 피하지 아니하여 일찍이 맛있는 음식이 떨어진 적이 없었다. 청송(聽松) 선생이 풍병(風病)을 앓아 오랫동안 자리에 누워 있었는데, 선생은 밤낮으로 부친을 부축하고 모셔 비록 한겨울과 무더운 여름철이라도 잠시도 곁을 떠나지 않았으며 밤에도 물러가지 않았다. 청송 선생께서 선생이 피로가 쌓여 병이 날까 염려해서 물러가 쉬라고 하면 선생은 감히 그 뜻을 어기지 못하여 즉시 문밖에 나가서 처마 아래에 거적자리를 펴놓고 앉아 창가에 귀를 대고 부친의 숨소리를 살피다가 밤이 깊어 잠이 드신 뒤에야 잠시 물러가 가매(假寐)하였는데 옷의 띠는 풀지 않았다. 그리고 새벽이 되면 채 날이 밝지 않아 부친이 잠을 깨기 전에 먼저 방문 밖에 가서 앉아 날이 새기를 기다렸다가 마침내 문으로 들어가 문안을 올리곤 하면서 마치 자기 방에서 막 나온 것처럼 하였다.

부친의 증세가 위독해지자, 선생은 손가락을 잘라 피를 올리려 하였으나 ‘손가락은 사람들이 항상 보는 것이니, 효도한다는 이름을 얻으려는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여, 마침내 두 차례나 넓적다리 살을 베어 올렸다. 그러나 선생은 평생 이 사실을 철저히 숨겨 자손들에게 말씀한 적이 없었으므로 아는 자가 극히 드물었다. 문인 신응구(申應渠)는 항상 말하기를, “우리 선생의 효행을 아는 자가 세상에 드물다. 선생은 일찍이 학행(學行)으로 이름나셨기 때문에 한 가지 선행(善行)으로 일컬어지지 못하는 것인데, 실체는 참으로 효자이다.” 하였다.

그리고 어느 유명한 경(卿)이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이분은 평소 아버지 섬기기를 지극히 효성스럽게 하였으니, 국가에서는 마땅히 그분의 집 문에 정표(旌表)를 했어야 했다. 그런데 뒤에 그의 학문이 날로 진전되어 이름이 한 세상을 덮어 유림(儒林)의 사표(師表)가 되었으므로 사람들이 효자라고 지목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하였다.

선생은 부친을 여윈 다음 선친의 가르침을 공경히 받들어 돌아가신 분을 살아 제실 때와 똑같이 섬겼다. 그리하여 선조의 뜻과 사업을 계승하는 일에 정성을 지극히 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특별히 제사를 지내는 일을 삼가하여 몸과 마음을 깨끗하고 한결같이 함으로써 정성과 사랑을 지극하게 하였으며, 가정 형편에 맞추어 재물을 장만하되 되도록 정결하게 하였다. 그리고 제전(祭田)과 노비(奴婢)를 충분히 마련하여 제사를 받들게 하였으며, 자손들에게 유서(遺書)를 남겨 자자손손 전택(田宅)과 노비를 나누어 갖지 못하도록 하여 영구한 계책으로 삼았다. 남계(南溪) 박세채(朴世采)가 말하기를, “근세에 오직 우계께서 제사를 돌러 가며 지내는 법을 고치니, 사대부(士大夫) 집안 중에서도 한두 집안이 이에 교화되었다.” 하였다.

혹 어릴 때부터 서로 알아 어른으로 섬기는 분이면 비록 나이가 열 살 이상 차이가 나지 않더라도 대부분 ‘어르신네’라고 불렀으며, 자부(姊夫)는 비록 동고조(同高祖) 8촌(寸) 정도로 멀더라도 반드시 형이라고 칭하며 공경히 섬겼다. 친척과 고구(故舊)들에게 돈독히 하여 곤궁한 자를 구휼하고 환난(患難)을 구제하는데 정성과 힘을 다하였으며, 아주 가난하고 궁핍한 자가 있으면 매번 재물을 아끼지 않고 노비와 전택(田宅)을 주었다.

선생은 약관(弱冠) 시절에 병에 걸렸고, 뒤이어 친상(親喪)을 연달아 당하였는데 너무 슬퍼한 탓에 몸이 심하게 훼손되어 마침내 고질병이 되었다. 그리하여 하루에 한 끼만 먹고 겨울옷으로 여름까지 났으나 끝내 병이 있다고 하여 스스로 게을리 하지 않았다. 평소 근엄하게 지내어 마치 손님을 모시거나 제사를 받드는 것처럼 공손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하였다. 일찍이 낮에 눕지 않았으며, 나태해지려는 마음이 있음을 깨달으면 그때마다 용모를 정돈하고 수습하여 정신을 다잡았다. 때로 기운이 쇠진하여 지탱할 수 없으면 등을 병풍에 기대고 앉아서 눈을 감고 숨을 고를 뿐이었다. 그러다가 잠시 후 기운이 다소 소생하면 곧 일어나 앉아 책을 보았다. 이러기를 밤낮으로 계속하여 몸에 병이 들어어도 육체와 정신이 피곤한 줄을 알지 못하였다.

토정(土亭) 이지함(李之菡)이 일찍이 선생을 방문하였는데, 우계에 와서 타이르기를, “공의 병이 이와 같은데도 계속해서 책을 보니, 이는 거의 성벽(性癖)을 이룬 것이다. 옛날 당(唐)나라 명황(明皇)은 여색에 빠져 몸을 돌보지 않았으니, 사람들이 모두 비웃었다. 그런데 이제 공은 독서에 탐닉하여 병을 키웠으니, 책과 여색이 비록 청탁(淸濁)의 다름이 있으나 생명을 해치고 본성을 손상시키는 점에 있어서는 똑같다. 그러니 오늘날 경서(經書)와 자서(子書) 등 성현의 글은 또한 공에게 나쁜 물건이다.”라고 하니, 선생은 웃으며 사례하였다.

본주(本州 파주(坡州))의 성주(城主)를 섬길 적에는 예(禮)와 공경을 극진히 하여 비록 친한 벗을 대하더라도 그의 과실을 언급하지 않았으며, 비록 선생보다 연배(年輩)가 낮은 자라도 반드시 절하고 맞이하고 보내었다. 본관(本貫)인 창녕(昌寧)의 수령에게도 이와 같이 삼가고 공경하였다. 고을에서 부과하는 부역과 세금은 반드시 미리 장만하였으며, 일찍이 가난하다고 핑계하지 않고 항상 마을 백성들의 솔선이 되었다. 일기(日記)를 살펴보면 성주를 언급한 곳에는 반드시 한 글자를 띄워 경의를 표하였다.

### 일기 초본(草本)

정축년(1577, 선조10) 9월에 안습지(安習之 안민학(安敏學))가 나를 경계하여 말하기를, “후생(後生)을 대할 때에 말씀을 너무 번거롭게 많이 하시며 후생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하시니, 이와 같이 하면 한갓 빈말이 될 뿐입니다.” 하였다. 나는 절하고 이 말을 받아들이며 나의 병통에 딱 들어맞는 절실한 말이라고 여겼다. 이것은 바로 주자(朱子)가 말한 “가볍게 자신을 드러내어 외인(外人)들의 변론을 야기하고, 지나치게 수응(酬應)을 많이 해서 내면으로 향하는 공부를 분산시킨다.”는 것이다. 이는 자신의 실제 공부 없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이와 같이 들뜨고 경솔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사람을 대할 때에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가장 큰 병통이다. 말을 적게 하는 것이 병을 조섭하는 데에 가장 좋으니, 어찌 몸과 마음에 모두 유익하지 않겠는가. 내 이것을 써서 경계로 삼는 바이다.

10월 13일에 김복경 기선(金復慶基善)이 찾아왔는데, 만나서 번거롭게 말을

참 많이 하였으니, 이는 옛 습관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이다. 이것을 써서 나의 잘못을 기록하는 바이다.

무인년(1578, 선조11) 1월 12일 신시(申時)에 민씨(閔氏)에게 시집간 누님의 부음(訃音)을 듣고 위(位)를 설치하고 곡(哭)하였다. 성복(成服) 전에는 조석(朝夕)으로 곡하였고 15일에는 대공복(大功服)을 만들어 입고 곡하였으며, 미식(米食)과 면식(麵食), 술과 과일을 위를 설치한 곳에 올렸으니, 이는 편두통과 치통으로 얼굴이 부어서 궤연(几筵)에 달려가 곡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생각해 보니, 나는 평소에 효도와 공경을 다 바쳐 감동시키지 못하였으며 병환이 위독할 때에 달려가 문병하고 영결(永訣)하지 못하였으니, 마음이 더욱 애통하고 찢어지는 듯하여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다. 부모와 형제간에 후회스럽고 애통한 일이 많은데 이제는 다시 어떻게 해 볼 수가 없으니, 눈물만 흘릴 뿐이다.

28일에 소식(素食)을 마치고 육식(肉食)을 시작하여 몸이 허손(虛損)된 것을 보양하였으니, 이는 빨리 달려가 곡하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 《울곡별집(栗谷別集)》

울곡은 우계 선생과 이기(理氣)를 논란하여 서신을 아홉 차례나 주고받았는데, 우계는 울곡 선생의 말씀을 많이 따랐다. 그러나 울곡 선생은 사람들에게 말씀하기를, “의리(義理)를 아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우계보다 나아 우계가 나의 말을 따른 것이 많으나, 나는 성품이 느슨하고 해이하여 비록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지만 우계는 알고 나서는 곧 하나하나 실천하여 실제로 자기 것으로 만드니, 이는 내가 미치지 못하는 점이다.” 하였다.

선생이 도성(都城)에 들어간 날에 마침 송강(松江) 정철(鄭澈)의 생신 모임에 갔었는데, 선생이 뜰에 이르러 기생들이 대열에 있는 것을 보고는 주인에게 말씀하기를, “저 기생들은 오늘의 모임에 마땅하지 않을 듯합니다.” 하였다. 울곡이 웃으며 말씀하기를, “검은 물을 들여도 검어지지 않는 것이 또한 한 가지 방법이다.” 하니, 선생은 마침내 자리에 올랐다. 살피건대 혹자는 선생이 자리에 들어가지 않았다고도 한다.

### 《기옹만필(畸翁漫筆)》

율곡과 우계와 우리 선친께서 함께 진사(進士) 이희참(李希參)의 집에 모였었는데, 주인집에서 술자리를 베풀면서 명창(名唱)을 자리에 끼게 하였다. 술잔을 돌리고 노래를 하려 하는데 우계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니, 좌상(座上)에서는 감히 아무도 만류하는 자가 없었다. 선생은 평소 음탕한 음악을 듣지 않는 것을 법으로 삼았다 한다.

옛날에 우연히 한 노승(老僧)을 만났는데, 그가 말하기를, “내가 용문사(龍門寺)에 있을 때에 우계 선생과 여러 날을 함께 지냈으므로 선생의起居(起居)를 익숙히 보았다.” 하였다. 내가 “선생께서는 이른 아침부터 밤늦도록 무슨 일을 하시던가?” 하고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새벽에 일어나서는 반드시 세수하고 빗질한 다음 의관(衣冠)을 단정하게 하고 손을 모으고 바르게 앉아 계셨고, 점심 무렵이 되면 다시 세수하고 빗질하고 앉아 계셨다. 때로 서책을 펴 보다가 만일 생각할 부분이 있으면 책을 덮고 바른 자세로 묵묵히 앉아 계시니, 바라보면 엄숙하여 공경심을 일으키지 않는 자가 없었다.” 하였다.

### 현손(玄孫) 지선(至善)의 기록

청송 선생이 존귀한 손님과 말씀하시니, 선생은 아침 내내 손을 모으고 기둥사이에 서 계셨다. 손님이 청송에게 말하기를, “영윤(令胤)을 자리에 들어오게 하시오.” 하자, 청송 선생이 선생에게 앉으라고 명하였고, 선생은 그런 뒤에야 들어와 앉았다.

선생은 크고 작은 서찰에 손수 답장을 하였는데, 잠깐 사이에 글을 써서 즉시 봉하여 부치곤 하시니, 이 때문에 문에 기다리는 심부름꾼이 없었다.

선생은 항상 책자 하나를 장만하여 날마다 일기(日記)를 써서 퇴도의 《자성록(自省錄)》의 예(例)와 같이 하였다. 여기에는 “오늘은 아무 잘못을 반성하고 아무 악행을 고쳤다.”라는 내용이나 “아무 곳의 아무 사람이 훌륭한 행실이 있으니, 이는 공경할 만하다.”라는 내용이나 “아무 사람은 고상한 뜻이 있으니, 이는 가상하다.”라는 내용이 있었다.

선생은 말씀하기를 “날마다 머리를 빗지 않는 자는 뜻이 게으르기 때문이며,

손톱과 발톱이 긴데도 깎지 않는 자는 마음이 거칠어졌기 때문이며, 무딘 칼을 갈지 않고 쓰는 자는 기운이 진작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였다.

선생은 병이 위독해지자, 시자(侍者)에게 명하기를 “내일은 내가 장차 위태로울 것이다.” 하시고는 집 안의 종들에게 농사일을 나가지 말고 집에서 기다리라고 명하였는데, 이날 과연 별세하였다. 별세할 때에 흰 기운이 주무시는 방으로부터 집 뒤의 산 위에까지 뻗쳐 한동안 없어지지 않으니,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겼다.

### 《중봉집(重峯集)》의 병술년(1586, 선조19) 소(疏)

동방(東方)의 남자로서 욕심의 함정에서 스스로 초탈한 자가 이지함(李之菡), 성혼(成渾) 외에 다시 몇 사람이 있겠습니까. 신(臣)이 이 세상에서 사사(師事)한 자가 세 분인데 이지함, 성혼, 이이(李珣)입니다. 이상의 세 사람은 학문을 성취한 것은 비록 똑같지 않으나, 마음을 깨끗이 하고 욕심을 적게 하며 지극한 행실이 세상의 모범이 된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신은 그 만분의 일이나마 따르려고 하나 할 수가 없었습니다.

### 《계곡만필(谿谷漫筆)》

《현승편(玄繩編)》에 실려 있는 여러 노선생(老先生)이 주고받은 언론을 보니, 강론하고 문답한 부지런함과 우의(友誼)의 돈독함을 모두 상상해 볼 수 있는바, 지금 세상에는 어찌 이러한 일이 있겠는가. 율곡의 말씀은 솔직하고 평탄하며, 우계의 말씀은 온화하고 공손하며 간곡하였다. 그리고 구봉(龜峯) 송익필(宋翼弼)은 뜻과 기상(氣像)이 준엄하고 깨끗하며 몸가짐이 매우 신중하고 언론이 논리적이었으나 왕왕 온당치 못한 부분도 있었다.

### 《수몽집(守夢集)》

퇴계의 뒤에 율곡과 우계가 동시에 나와 도의(道義)를 강명(講明)하여 후학들을 계발하니, 그 유풍(遺風)과 여운(餘韻)이 사람들이 떠들어 대고 배척하는 가운데서도 없어지지 않았다. 그러니 지금 우리들이 의리(義理)를 앞세우고 이해(利害)를 뒷전으로 여겨 위로 군부(君父)와 국가를 저버리지 않는 것은 이 몇 군자들의 은택이 아니겠는가.

### 《상촌집(象村集)》

목릉(穆陵, 선조(宣祖))이 즉위하여 맨 먼저 퇴계(退溪) 이황(李滉)을 부르니, 이때에 성상(聖上)은 스스로를 가다듬어 학문에 힘쓰려는 뜻을 두고 있었고 조정에서는 청의(淸議)가 막 일어났다. 사서인(士庶人)들도 이러한 소문을 듣고 모두 흠모하여 선비들치고 성명(性命)의 이치를 말하고 예모(禮貌)를 갖추지 않는 이가 없었다. 그러다가 뒤이어 울곡(栗谷) 이이(李珣)와 우계(牛溪) 성혼(成渾)이 한 세상에 함께 나오니, 비록 원기(元氣)는 다소 흐려졌으나 풍속이 크게 변하였다. 그러다가 한 분은 별세하고 한 분은 배척을 받게 되자, 세상에 다시는 학문을 말하는 자가 없게 되었다.

### 충정공(忠定公) 이귀(李貴)의 정해년 소

이황이 학문이 끊긴 뒤에 분발하여 나와 창도하자 선비의 기풍(氣風)이 한 번 크게 변하였는데, 이것을 깊이 알고 독실히 좋아한 자는 오직 이이와 성혼 두 사람뿐입니다. 이황이 별세한 뒤로 두 사람은 도덕이 더욱 높아져 우뚝이 한 세상의 유종(儒宗)이 되었으니, 지금 사대부들 사이에 조금이라도 인륜과 예법이 있음을 아는 것은 모두 이황과 이이, 성혼의 공입니다.

### 포저(浦渚) 조익(趙翼)의 을해년 소

성혼은 일찍부터 과거 공부를 포기하고 오로지 고인(古人)의 학문에 뜻을 두어 산야(山野)에서 문을 닫고 학문에 침잠(沈潛)하여 진리를 탐구해서 젊어서부터 늙어서까지 마음과 몸의 일동일정(一動一靜)을 한결같이 법도대로 따랐습니다. 집에 거처할 때에는 내외(內外)의 구별과 장유(長幼)의 차례와 선조(先祖)를 받드는 예절에 있어 모두 일정한 제도를 만들었는데, 한결같이 옛사람을 법으로 삼았습니다. 이이와 도의지교를 맺고 서로 절차탁마하여 덕을 이룸에 이르렀으니, 함양(涵養)하고 체인(體認)하는 공부가 깊고 지극하여 종일토록 엄숙히 앉아 있는 것이 마치 소상(塑像)과 같았습니다. 이이는 말하고 웃는 것이 화락하여 배우는 자들이 그래도 친근히 할 수 있었으나 성혼은 배우는 자가 비록 10년을 함께 거처하더라도 더욱 두렵게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 시남(市南) 유계(兪棨)의 임인년 소

성혼의 학문은 가정에서 얻어 연원(淵源)이 매우 바릅니다. 인품이 장중(莊重)하고 순수(純粹)하여 겉과 속이 한결같았으며, 출처(出處)와 어묵(語默)을 모두 성현을 본받아 덕기(德器)가 성취되어 우뚝이 사림(士林)의 영수(領袖)가 되었으니, 바로 상서로운 기린과 봉황이 당세에 의표(儀表)가 되는 것과 같았습니다.

### 《청음집(淸陰集)》

만력(萬曆) 계미년(1583)은 소경왕(昭敬王, 선조(宣祖)) 16년이었다. 이때 선비들이 유학을 숭상하고 사기(士氣)를 진작시켜 나라가 편안하게 된 아름다움이 옛날보다 빛났는데, 이때 울곡(栗谷) 이 문성공(李文成公)과 우계(牛溪) 성 문간공(成文簡公)이 학문을 강론하고 이치를 밝혀 성대하게 유림(儒林)의 사표(師表)가 되었다. 이에 선(善)을 좋아하는 선비들이 다투어 사모하여 스승을 높이고 도를 호위하는 데 뜻을 두지 않는 이가 없었다.

### 중봉어록(重峯語錄)

마음이 통달하고 깨끗하며 도(道)를 봄이 분명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심취해서 자연히 보고서 감동하는 유익함이 있게 하신 분은 울곡 선생이요, 법도를 삼가 지키고 학문하는 순서가 매우 엄격해서 일상생활의 언행이 모두 본받을 만하므로 문하에 있는 자로서 비록 재주가 둔한 사람이라도 반드시 소득이 있게 하신 분은 우계 선생이니, 그 기상을 논하면 명도(明道)와 이천(伊川)이 서로 다른 것과 같았다.

### 《노서집(魯西集)》

“우계와 울곡 두 선생은 타고난 기질(氣質)이 같지 않았으므로 성취한 덕(德)도 달랐으니, 그 기상을 상상해 보면 하남(河南)의 두 정 부자(程夫子)와 같은 듯하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울곡은 먼저 천리(天理)를 통달한 곳으로부터 들어갔기 때문에 배움에 있어 의거할 곳이 없으나 우계는 일일이 법도를 따랐기 때문에 배움에 있어 자취가 있으니, 바로 정자(程子)가 안자(顔子)와 맹자(孟子)를 논한 것과 같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울곡은 견해가 뛰어났으나 일을 하는 부분

에 있어서는 반드시 우계를 추존(推尊)하여 말씀하기를 ‘우계가 아니면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 하였다. 그러므로 계미년에 특별히 우계를 천거하면서 ‘국가의 경륜(經綸)을 맡길 수 있다.’고 말씀하였으니, 덕이 같은 분들끼리 서로 허여함이 이와 같았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율곡의 말씀은 고명(高明)하고 통달한 반면 우계의 말씀은 질박(質朴)하고 정엄(精嚴)하니, 그 글을 고찰하면 모두 볼 수가 있다.” 하였다.

### 《남계집(南溪集)》

우계 선생은 정암(靜庵) 조 문정공(趙文正公)의 학문을 선친(先親)인 청송공(淸松公)에게서 배워 파평산(坡平山) 속에서 강학을 통해 전수하였다. 그리고 율곡이 문성공과 서로 학문을 강론하여 봉우 간에 유익하게 함이 더욱 지극하였으니, 문로(門路)의 올바름과 실천의 독실함이 우리나라 유현(儒賢) 중에 혹시라도 이보다 앞설 분은 있지 않다.

#### ■ 스스로 지은 묘지(墓誌), 정해년(1587, 선조20) 7월

성(成)은 그의 성이고, 혼(渾)은 그의 이름이며, 호원(浩原)은 그의 자이고, 창녕(昌寧)은 그의 본관이다. 아버지는 청송(淸松) 선생 휘 모(某)이고, 어머니는 파평 윤씨(坡平尹氏)이며, 조고는 사숙공(思肅公) 휘 모이고, 증조는 판서에 추증된 휘 모이며, 외조는 판관 휘 모이다.

혼(渾)은 약관 시절에 병을 앓아 몸이 허약하고 정신이 어두웠는데, 이렇게 일생을 마쳤다. 어려서 가정에서 수학하였는데 언제나 옛사람들이 몸을 닦고 학문한 내용을 들으면 개연히 흠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책을 읽고 이치를 궁구하여 은미한 뜻을 깊이 찾으려고 노력하였으나 끝내 얻지 못하였으며, 마음을 잡아 지키고 함양하여 허물과 죄악을 면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끝내 잡아 지키지 못한 채 병때문에 스스로 폐하여 조금도 뜻을 성취하지 못하였으니, 참으로 슬프다.

타고난 성품은 경박하여 착실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언제나 침착하고 굳세며 독실히 행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으나 또한 이에 가까이 다가가지는 못하였으며, 기질(氣質)이 혼탁한 것이나 외물(外物)에 어지럽혀진 것에 이르러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 또 남의 과실을 자주 지적하여 이 때문에 사람들이 대부분 꺼리고 싫어하였다.

30여 세에 천거로 참봉에 제수되고, 다음 해에 또다시 천거로 6품직에 올랐으며, 또 몇 년 만에 천거로 대관(臺官)이 되었으나 모두 병 때문에 출사하지 않았다. 만력(萬曆) 경진년(1580, 선조13) 겨울에 특별히 소명(召命)을 내리셨는데, 말씀한 뜻이 융숭하고 간절하였다. 황공하여 사양하다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스스로 수레를 타고 서울에 왔다. 그리하여 신사년(1581, 선조14) 2월 사정전(思政殿)에 등대(登對)하였는데, 상이 대도(大道)의 요점을 물었다. 물러 나와 만언(萬言)의 봉사(封事)를 올리니, 성상이 경연에 출입하라고 명하였는바, 이때 조정에서 대우하는 것이 매우 융숭하였다. 일 만들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현자를 우대하는 예를 베풀 것을 많이 건의하여 예우가 특별하니, 혼(渾)은 더욱 놀라고 두려워하였으며 사람들도 또한 속으로 비웃었다. 얼마 안 되어 사직하고 돌아왔다.

계미년(1583, 선조16) 여름 병조 참지로 부름을 받았는데, 다섯 번 소를 올려 사양하였으나 허락 받지 못하였다. 이에 혼은 다시 서울에 이르러, 군직(軍職)에 제수되고 또 다시 이조 참의로 옮겼으며, 서반직(西班牙職)으로 보내진 것이 모두 다섯 차례였는데, 사양하였으나 허락을 받지 못하였다. 제수하는 명을 받든지 며칠 만에 삼사(三司)에서 “병조판서 이이(李珥)가 국정을 제멋대로 전횡하고 교만 방자하여 성상을 무시한다.”고 논핵하였다. 이에 혼은 글을 올려 “이이가 충성을 다하는데 삼사에서 봉당을 일으켜 참조하는 말을 한다.”고 아뢰었다. 그러자 삼사에서는 혼이 사림(士林)을 일망타진한다고 탄핵하였으므로 급히 집으로 돌아왔다. 이해 가을 다시 이조 참의로 불렀는데, 군이 사양하였으나 허락을 받지 못하였고, 다시 대궐에 나아가 네 번 사양하였으나 또다시 허락받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부득이 봉직한 지 반달 만에 이조 참판으로 승진하였다. 또 다섯 번 사양하였으나 윤희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병을 무릅쓰고 사은숙배하니, 마침내 부모에게 자신과 같은 관직이 추증되었다. 재직한 지 한 달 뒤에 사직하는 상소를 올려 동지중추부사로 옮겼다가 갑신년(1584, 선조17) 7월 집으로 돌아왔다.

그 후 조정에서 “혼이 외척의 간당(奸黨)으로 조정을 혼란하게 하고 나라를 그리 친다.”고 논핵하니, 조야(朝野)에서 소인(小人)이라고 지목하였는데 혹 소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자도 있었다. 이것이 벼슬을 얻어 나아가고 물러난 대략의 내용이다.

훈은 어려서부터 병을 앓았는데 신병 때문에 과거에 응시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과거를 일삼지 않는다.”고 말하고, 몸이 쇠약하여 벼슬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영화로운 벼슬을 사모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파산(坡山)에서 선영(先塋)의 여막을 지키고 있으면 사람들은 “은거하며 지조를 지킨다.”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조정에 있는 자들이 번갈아 천거하여 점점 올라가 우연으로 무릅쓰게 되어 높은 관직에 이르렀으나 사실은 한 번도 관직을 소유한 적이 없었고 한 가지도 제대로 직임을 맡은 적이 없었으니, 모두 타인에 의해 억지로 이름이 붙여져 마침내 이 때문에 세상의 화를 취하였다.

훈은 일찍이 아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평생 동안 이름을 도둑질하여 국가의 은혜를 저버렸으니, 예로부터 신하가 은혜를 저버림이 누가 나와 같은 자가 있겠는가. 나의 죄가 크니, 나는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할 것이다. 너는 마땅히 나의 유지(遺旨)를 따라 국가에서 내리는 부의(賻儀)와 은수(恩數)를 사양하고 묘 앞에 ‘창녕 성혼묘(昌寧成渾墓)’라는 다섯 글자만을 써서 자손들로 하여금 문헌 곳을



성혼 선생 묘비



성혼 선생 묘 문인석

알게 하면 충분하다. 옛사람 중에 또한 묘 앞에 관직을 쓰지 말도록 명한 자가 있는데, 그는 깊은 뜻이 있어서였지만 나로 말하면 죄가 있으므로 스스로 폄하해서 성명만 쓰는 것이다. 일은 같으나 그 실체는 다르니, 옛사람에 견주어 함께 논할 수가 없다. 삼베옷을 입히고 종이 이불로 염습하여 소달구지에 싣고 돌아가 장례 하여 나의 뜻을 어기지 말라.” 하였다.

훈은 가정(嘉靖) 을미년(1535, 중종30)에 태어나 아무 해에 죽으니 향년이 약간인데, 청송(聽松) 선생의 묘 아래에 장사 지냈다. 훈은 스스로 이 글을 써서 광중(壙中)에 넣어 묘지(墓誌)로 삼게 하였다.

묘 앞에 작은 돌을 세워 ‘창녕 성훈묘’ 다섯 글자만을 새기고 돌의 후면에는 향리(鄉里)와 세계(世系), 사망한 날짜와 장례한 날짜 및 자손의 이름만을 간략히 써서 새기도록 하라.

#### ■ 서실의(書室儀)

서실(書室)에서 지켜야 할 예의(禮儀) 신미년(1571, 선조4) 봄

##### ① 入書室者。昧爽而興。親自整疊寢具。

서실에 들어온 자는 먼동이 틀 적에 일어나서 직접 스스로 침구(寢具)를 개어 정돈해야 한다.

##### ② 少者操箒。淨掃室中。

젊은 자는 빗자루를 들고 방 안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 ③ 以次盥櫛正衣冠。

차례로 세수하고 머리 빗고 의관을 바르게 해야 한다.

##### ④ 各就讀書處整冊對案。端肅危坐。從容讀誦。不得胡思亂想。不得顧盼他事。

不得與人雜設。不得出入起動。

각자 독서하는 곳에 나아가서 서책을 정돈하고 책상 앞에 단정하게 무릎 꿇고 앉아서 조용히 읽고 외우며, 어지러운 생각을 하지 말고 딴 일을 돌아보지 말며, 남들과 잡담을 나누지 말고 제멋대로 출입하거나 일어나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

##### ⑤ 食時就食。以齒而坐。從容整齊。不得戲嬉爭食。

아침밥을 먹을 때에는 나이대로 앉아서 조용히 정돈할 것이요, 희롱하고 장난하며 음식을 다투지 말아야 한다.

- ⑥ 食畢。以齒而出。逍遙于外。少時復入書室。整頓冊子。以俟招入授書。  
 식사가 끝나면 나이대로 나가 밖에서 산보하다가 잠시 후에 다시 서실로 들어와 책을 정돈하고 선생이 불러 책을 가르쳐 주기를 기다려야 한다.
- ⑦ 其間少隙。或間書寫字。不得亂草。必作端楷。或講論義理。不得怠惰放肆。任便自逸。  
 이 사이의 여가에는 글씨를 쓰든지 -어지러운 초서(草書)는 쓰지 말고 반드시 단정한 해서(楷書)로 써야 한다- 의리를 강론하든지 해야지 게으르고 방자하여 제멋대로 안일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 ⑧ 授書之後。分就讀所。兀然端坐。終日讀之。少有疑處。輒來質問。再三反覆。不得少有放過。不得少時閑懶。  
 글을 배운 뒤에는 독서하는 곳에 각자 나아가 오뚝하게 단정히 앉아서 종일토록 책을 읽으며 조금이라도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면 곧 와서 질문하되 재삼 반복할 것이요, 조금이라도 그대로 지나치지 말며 조금이라도 한가롭거나 나태하게 하지도 말아야 한다.
- ⑨ 夕食時就食如上儀訖。或出溪上閑步。或入書室中看書論文習字。  
 저녁밥을 먹을 때에 식사하기를 위의 의식과 같이 하며 식사가 끝나면 시냇가에 나가서 한가로이 산보하거나 서실 안에 들어와서 책을 보고 문장을 논하고 습자(習字)를 한다.
- ⑩ 既昏。張燈讀書。夜久而寢。  
 날이 어두워지면 등불을 밝히고 책을 읽으며 밤이 깊어지면 취침한다.
- ⑪ 寢時招婢布寢席就宿。齊手斂足。不作思惟。  
 잠을 잘 때에는 계집종을 불러 잠자리를 마련하게 하고 취침하되 손을 가지런히 하고 발을 거두며 엉뚱한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 ⑫ 日間居處。須要恭敬。不得倨肆惰慢。  
 날마다 거처할 적에 모름지기 공경할 것이요, 거만 방자 태만하지 말아야 한다.
- ⑬ 言語須要諦當。不得戲笑諠譁。  
 말하는 것은 모름지기 꼭 해야 할 때에만 하고 희롱하거나 웃고 떠들지 말아야 한다.
- ⑭ 起居坐立。務要端莊整肅。不得傾倚昏怠。  
 기거(起居)하고 앉고 서는 것을 되도록 단정하고 엄숙하게 할 것이요, 기대거나 태

만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⑮ 出入步趨。務要安詳凝重。不得跳走票輕。

출입할 때에는 걸음걸이를 되도록 편안하고 진중하게 할 것이요, 뛰고 달려 가볍게 하지 말아야 한다.

⑯ 出入時以齒而行。或比肩。不得疾行先長。

출입할 때에는 나이순으로 걸어가되 혹은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요, 빨리 걸어서 어른보다 먼저 가지 말아야 한다.

⑰ 溫謙自牧。和敬待人。

온화함과 겸손함으로 자처(自處)하고, 화목함과 공경함으로 남을 대하여야 한다.

⑱ 無故不得出入。

연고가 없으면 출입하지 말아야 한다.

⑲ 凡事切須謙恭謹勅。不得尙氣凌人。

모든 일은 반드시 겸손하고 공손하고 신중하게 할 것이요, 기세를 올려 남을 능멸하지 말아야 한다.

⑳ 早晚頻自點檢所習之業。思索義理。體認服行。不令心少有放逸。

아침저녁으로 자주 자신이 익히는 학업을 스스로 점검하고 의리(義理)를 사색하며 체인(體認)하고 실천해서 마음이 조금이라도 방만하고 안일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㉑ 切須服膺勤謹二字。造次不違。

모름지기 근(勤)과 근(謹) 두 글자를 가슴에 새겨 잠시라도 어기지 말아야 한다.

㉒ 冠者出入。少者皆起立。

관을 쓴 어른이 출입하면 어린 자들은 모두 일어난다.

이상 22조항은 서실에 들어온 자가 서로 준수하여 각자 명심해야 할 것이니, 혹시라도 이 약조를 어기고 게으르고 방자하여 독서를 부지런히 하지 않거나, 떠들썩하게 남을 조롱하고 업신여겨 함부로 대하면서 자기를 잃고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어른과 봉우들을 공경하지 않고 남의 타이름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노여워하고 스스로 방자해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고치지 않는 자가 있으면 제생들이 즉시 의논하여 와서 고하도록 한다.

■ 제문(祭文)

예관(禮官) 신정의(辛廷懿)를 보내어 치제(致祭)한 글

영령(英靈)이시여 / 惟靈

일찍 가학을 전하였고 / 早傳家學

만년에도 도에 매진하였네 / 晚猶耽道

깊이 은둔하고 세상에 나오지 않았으나 / 深藏不市

명예가 일찍 드러났네 / 聲譽頗早

여러 번 부름을 받고 일어나 / 屢徵而起

만언의 상소문을 올렸다고 / 萬言具疏

조정에 있는 지 얼마나 되는가 / 立朝幾何

매번 병환으로 떠나갔네 / 每以病去

전후로 높이 승진함은 / 前後超陞

모두 여망(輿望)에서 나온 것이었네 / 咸出衆望

갑과와 을과로 출신한 것은 아니나 / 科非甲乙

지위가 경상에 이르렀는데 / 位致卿相

물러나 산림을 지키니 / 退守丘壑

한 마음으로 나라를 걱정하였네 / 憂國一心

어찌 알았겠는가 이 병환으로 / 何期此疾

구름과 숲을 길이 하직할 줄을 / 永辭雲林

전쟁이 더욱 심해지는데 / 干戈益深

노성(老成)한 분이 모두 별세하니 / 耆舊皆凋

선인(善人)이 죽은 애통함에 / 殄瘁之痛

내 가슴 울렁거리노라 / 予懷搖搖

이에 예관을 보내어 / 茲遣禮官

하찮은 제수를 올리니 / 用寄菲薄

영령이여 만약 지각이 있거든 / 靈若有知

부디 와서 흠향하오 / 庶幾來格

파산서원(坡山書院)에 위판(位版)을 봉안(奉安)한 제문 [이정귀(李廷龜)]

우리 도가 동쪽으로 와서 / 吾道之東  
진유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 眞儒繼作  
하늘이 열어 인도해 주시고 / 惟天啓迪  
오악(五嶽)이 정기를 모아 / 惟嶽鍾毓  
세상에 뛰어난 명현이 / 間世名賢  
한 가문에 모이시니 / 萃于一門  
하남의 세가요 / 河南世家  
수사의 연원이었습니다 / 洙泗淵源  
깨끗한 높은 풍도요 / 洒落高風  
침잠한 깊은 학문이었습니다 / 沈潛邃學  
문로가 이미 바르고 / 門路既正  
실천이 돈독하였습니다 / 踐履斯篤  
무너진 풍속을 일으켜 세우고 / 砥礪頽俗  
여러 몽매한 자들을 개발하였으며 / 開牖群蒙  
출처의 바름이 / 出處之貞  
시종 똑같았습니다 / 一其初終  
돌아보건대 저 파산은 / 睠彼坡山  
고반한 옛터로 / 考槃之墟  
남은 향기 없어지지 않으니 / 遺芳不昧  
지나는 자들 마을에 경례합니다 / 過者式閭  
엄숙한 이 사당은 / 有儼斯堂  
많은 선비들이 우러러보고 의지하는 곳 / 多士瞻依  
백어(伯魚)가 뜰을 지나가는 듯 완연하고 / 宛見庭趨  
증점(曾點)의 비파 소리를 듣는 듯합니다 / 如聆瑟希  
거문고 타고 글 외는 곳에 / 絃誦有所  
제기를 진설하여 / 俎豆斯陳  
한 번 밝은 제사를 올리오니 / 一瓣明禋  
만고에 깨끗한 정신이 이어지이다 / 萬古精神

#### 4. 우계 성혼의 작품세계

퇴계(退溪) 선생이 벼슬을 버리고

도산(陶山)으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다 - 기사년(1569)

기사년 늦은 봄에 / 己巳春暮月

퇴계께서 호연히 고향으로 가셨다네 / 退溪浩然歸

서울에는 우리를 분 적어지고 / 京城少宗仰

선비들은 의지할 곳 잃었어라 / 士子失所依

대로가 복이 없으시니 / 大老也無福

천운이 쇠미한 때를 당하였네 / 皇天時運衰

산중에 부질없이 홀로 탄식하며 / 山中空竊歎

한밤중 눈물만 줄줄 흘러노라 / 中夜涕漣漣

달밤에 홀로 읊다

은 산에 가득한 송라(松蘿)의 달 깊이 창문에 들어오니 / 滿山松月入窓深

시원한 밤 상쾌하여 이 마음 알아주는 듯 / 清夜欣然會此心

다시 폭포 소리 먼 골짜기에서 울려오니 / 更有飛泉鳴遠壑

마치 깊은 숲 속에서 비바람 몰아치는 듯하여라 / 杳如風雨在深林

울곡과 함께 시냇가에 앉아서

높은 나무 시냇가에 둘러 있으니 / 溪上圍高樹

맑은 그늘 낚시터에 흠어지네 / 清陰散釣磯

흐르는 냇물은 원래 쉬지 않고 / 川流元不息

물고기와 갈매기는 절로 기심(機心)을 잊는다오 / 魚鳥自忘機

풀 가에는 풍광이 연하고 / 草際風光嫩

이끼 낀 냇가에는 들길이 가늘구나 / 苔邊野徑微

한가로운 사람 손에 책을 펴 보며 / 閑人書在手

서로 마주하여 돌아갈 줄 모르네 / 相對淡忘歸

파산(坡山)으로 돌아오다 - 갑신년

첩첩산중에 온갖 병을 앓는 이내 몸 / 萬疊山間百病身  
옛터에 돌아오니 들의 정취 새롭구나 / 歸來依舊野情新  
군주의 은혜 갚으려 해도 길이 없으니 / 君恩欲報知無路  
타생에서 결초보은하는 사람 되리라 / 應作他生結草人

피꼬리 우는 소리를 듣다

새벽 창문에 또렷한 피꼬리 노랫소리 / 曉窓鶯語轉分明  
둥풍에 꿈 깨니 두세 소리 들려오네 / 夢覺東風三兩聲  
기수(沂水)에서 목욕하고 시 읊으며 돌아오는 흥취 생각하니 / 忽憶詠歸沂上興  
온갖 꽃 활짝 피었는데 봄옷이 가벼워라 / 百花深處袂衣輕

감악산(紺嶽山)에서 노닐다 - 경인년(1590) 가을

깨끗한 시냇물 두 산 가운데에 쏟아지는데 / 一溪清瀉兩山中  
두메산골의 단풍 숲 밖에까지 비추어 붉구나 / 峽裏楓林分外紅  
다시 취미봉 아래의 절에 들어가 / 更入翠微峯下寺  
푸른 절벽 굽어보며 낙락장송(落落長松)에 의지하노라 / 步臨青峭倚長松

제군들과 작별하다 - 갑오년 9월

세상이 혼란하여 작별을 자주하니 / 世亂易爲別  
남은 인생 모두 백발이 되었구나 / 餘生俱白頭  
나그네 태운 배가 오늘에 출발하니 / 客舟今日發  
맑은 한강(漢江) 또다시 서쪽으로 흐르리라 / 淸漢又西流

## 6. 관련 유적

### 1) 파산서원(坡山書院)

- 지정번호 :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0호
- 지정년월일 : 1983년 9월 19일
- 시대 : 선조 1년(1958)
- 소재지 : 파평면 늘노리 235
- 소유자 : 파주유림
- 규모 : 사당 12평

이 서원은 조선중기 학자인 청송(聽松) 성수침(成守琛 1493~1564)과 그의 아들 우계(牛溪) 성훈(成渾 1535~1598), 아우 절효공(節孝公) 성수중(成守琮, 1495~1579) 및 휴암(休庵) 백인걸(白仁傑, 1497~1579)의 위패를 봉안하고 제향을 올리며 후학을 양성하던 곳이다.

선조(宣祖) 원년(1568) 울곡 이이(栗谷 李珣), 휴암 백인걸 등 파주지역 유생들의 주창으로 창건되었고, 효종(孝宗) 원년(1650) 사액(賜額)을 받았다. 이 서원은 조선말 대원군(大院君)의 서원철폐시에도 존속되었던 전국 47개 서원 중의 하나로 중요시되던 곳이다. 건물은 임진왜란 때 불타 없어진 것을 그 뒤 다시 복구하였으나 한국전쟁 때 다시 불타 1966년 서원 본전(本殿)인 사당만 복원하였다.

사당 주위로는 방형의 담장을 돌리고 정면 중앙에 솟을삼문을 두었다. 사당은



파산서원(坡山書院) 제향



파산서원(坡山書院) 전경

이별대의 기단위에 전돌을 깔고 원형의 초석과 원기둥으로 되어 있다.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전면간은 퇴칸(退間)으로 개방되어 있고 각 칸에는 2분합의 띠살문을 달아 놓았다. 지붕은 맞배지붕에 겹처마를 이루고 있다. 기둥머리에는 보 방향으로 2단의 촛가지를 결구한 이익공(二翼工)의 공포형식(栱包形式)을 이루고 있다. 내부의 바닥은 우물마루로 짜여있다. 이 건물의 초석과 기단석 등은 건립 당시의 것으로 추정된다.

## 2) 묘소

- 지정번호 : 경기도 기념물 제59호    · 지정년월일 : 1981년 4월 17일
- 시대 : 조선 중기 선조31년(1598)    · 소재지 : 파주읍 향양리 산 8-1
- 소유자 : 창녕 성씨 종중

자는 호원(浩原), 호는 우계(牛溪), 또는 묵암(默庵), 시호는 문간(文簡). 명종(明宗) 6년(1551) 생원·진사의 초시(初試)에 모두 합격하였으나 복시(復詩)에는 응하지 않고 학문에만 전념하였다. 휴암(休庵) 백인걸(白仁傑)의 문하(門下)에서 학문을 배우고, 명종 9년 같은 고을의 이이(李珥)와 평생지기가 되었다. 이황의 학설을 이어받아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을 지지하여 이이와 선조(宣祖) 5년(1572)부터 6년간에 걸쳐 사단칠정(四端七情)에 대한 논쟁을 벌여 유학계의 큰 화제가 되었다. 선조 초부터 여러 관직에 임명되었으나 취임하지 않다가 이이의 권유에 의해 이조참판(吏曹參判)에 특배되고 임진왜란 중에는 우참판(右參判)에 오르고 선조 27년 좌참판에 이르렀다. 그러나 당시 영의정 유성룡(柳成龍)과 함



우계 선생 묘역

게 일본과의 화의를 주장하다 선조의 노여움을 사게 되어 고향인 파주로 돌아왔다. 그가 죽은 뒤 선조 35년 기축옥사(己丑獄事)와 관련하여 삭탈관직 되었다가 인조(仁祖) 11년(1633) 복관되어 좌의정에 추증되었다.

묘역은 사성으로 둘러져 있고 봉분을 중심으로 우측에 묘비가 세워져 있으며 봉분정면에 상석과 향로석이 배치되어 있다. 상석 앞에는 장대석으로 계단을 쌓았으며 좌우에 문인석을 배치하였다. 묘소 입구 우측에는 신도비가 있는데 비문은 김상헌(金尙憲)이 짓고 김집(金集)이 썼으며 전액(篆額)은 김상용(金尙容)이 썼다.

### 3) 우계기념관

· 소재지 : 파주읍 향양리 390-57

우계기념관은 선생의 묘역 아래인 파주읍 향양리 마을회관 옆에 조성되어 2011년 11월 16일 개관 되었다. 철근콘크리트의 지상1층 규모로 지어진 우계기념관은 학문과 교육에 힘썼던 성훈 선생을 기리기 위해 건립되었다. 경기도 문화재위원회의 승인과 경기도 계획에 따라 실시된 우계 성훈 선생 묘역 정비 일환으로 조성되었으며 파주시의 협조로 2009년 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 대지 1776㎡, 건물면적 238㎡ 규모로 지어졌으며 준공 후 파주시에 기부채납 되었다.



기념관에는 우계 성훈 선생의 학문적 연원과 우계학, 우계의 학파, 우계의 나라사랑 정신, 우계의 후학양성을 주제로 한 상세한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다.

또 기념관은 외부공간에 자연석 담장과 자작나무, 회화나무, 매화나무 등을 심어 선비정신을 나타내고 있으며 내부 공간으로 진입하는 과정을 예에 관한 의식을 재해석하는 방법으로 설계하였다.

특히 기념관 개관과 함께 새롭게 우계 성훈 선생의 영정이 봉안 전시되어 특별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우계 성훈 영정(影幀)은 2009년 8월부터 자료수집과 고증 등에 의한 제작방법으로 완성하였다.

성혼 영정의 용모는 성혼 직계후손들의 얼굴에서 우성표준용모를 도출하고 관련문헌을 중심으로 성혼 선생 용모특징을 찾아내어 성리학자로서의 품격을 담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성혼 영정의 복식은 이재 영정, 이채 영정 그리고 심의를 착용한 조선중기 영정들을 참조하여 제작하였다. 성혼 영정의 표현기법은 조선시대 전통 영정기법을 충실히 따라 제작하였는데, 비단(畫絹)이라는 독특한 재질을 살려내는 배채법(背彩法)과 피부질감 표현법인 육리문법(肉理紋法) 그리고 적선법(積線法) 등을 활용하여, 얼굴표정에서 배어나오는 전신사조(傳神寫照)와 정치하고 꾀진한 초상화 품격을 살려내는데 주력하였다.

영정의 표정과 자세는 이율곡과 양대 학맥을 이루며 활발하게 학문을 연구했던 60대의 풍모로 제작된 반신좌상자세. 작품크기는 가로 83cm, 세로 130cm 크기의 견본채색 작품이며 석천(石川) 윤여환(尹汝煥)의 작품이다.

#### [ 참고문헌 ]

- 《우계집(牛溪集)》
- 《우계연보(牛溪年譜)》
-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
- 《석담일기(石潭日記)》
- 《우계학보(牛溪學報)》
- 《파주군지(坡州郡誌)》
- 《파주시지(坡州市誌)》
- 《파주의 인물(坡州의 人物)》
- 《파산서원지(坡山書院誌)》
- 《용주서원지(龍洲書院誌)》
- 《휴암 백인걸의 생애와 사상(休庵 白仁傑의 生涯와 思想)》
- 《성우계사상연구논총(成牛溪思想研究論叢)》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양주



## 조선 중기의 문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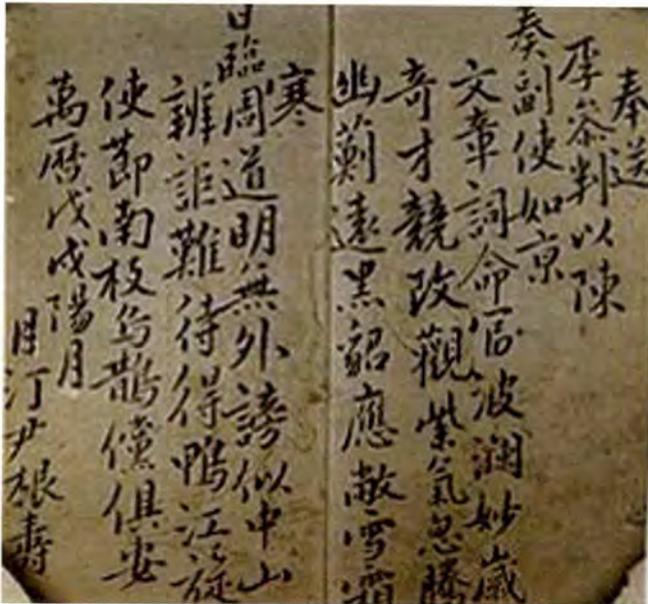
해평부원군 월정 윤근수 (海平府院君 月汀 尹根壽)

박재홍 | 양주문화원 사무국장



### 보검과 옥

선조는 차고 있던 보도(寶刀)와 조각한 옥을 풀어 윤근수에게 주며 말하기를 “이것은 내가 평소에 손안에 가지고 있던 물건이다. 경은 이것을 차고 언제나 나를 생각하라.” 하였다.



월정 수적서첩

## 해평부원군 월정 윤근수(海平府院君 月汀 尹根壽)

박재홍 | 양주문화원 사무국장

윤근수의 본관은 해평(海平), 자(字)는 자고(子固)이며 호(號)는 월정(月汀)·외암(畏菴),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중종 32년(1537년) 5월 20일 숙천(肅川) 관아에서 태어났으며 영의정 윤두수의 동생이다.

할아버지는 사용(司勇)을 지낸 윤희림(尹希林)이고, 아버지는 군자감정(軍資監正)을 지내고 사후 의정부영의정에 추증된 지족암 윤변(尹忭)이며, 어머니 현씨는 부사직(副司直) 현윤명(玄允明)의 딸이다.

윤근수는 지족암 윤변(尹忭)의 넷째아들로 어려서부터 천부적으로 총명하고 영특한 자질을 타고나서 겨우 10세 때 벌써 《효경(孝經)》, 《소학(小學)》, 《사서(四書)》 등의 서적을 통달하고 역대의 사적을 잘 알았다. 의정공을 따라 삼척부(三陟府)에 가서 있을 때 의정공이 일찍이 『사문유취(事文類聚)』 문자를 열람하고 있는데 그것을 공이 다 암기하므로 그중에 한두 가지를 뽑아 물어보니 어김없이 척척 대답하였다. 의정공은 더한층 기특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부인에게 말하기를, “이 아이는 반드시 대성할 터이니 나는 비록 미쳐 보지 못하더라도 부인은 당연히 봉양을 누릴 것이오.” 하였다. 윤근수가 13세 되던 1549년에 부친상을 당하였다.

학업에 전념하여 김덕수(金德秀)의 문하에서 수학하다가 이황(李滉)을 찾아가 문하에서도 수학하였다. 이후로도 이황과 계속 서신을 주고받고 의문점이 있으면 연락하여 꼭 답을 얻고는 하였다. 스승 이황과 담론한 내용으로는 주로 조식, 주자, 육구연(陸九淵) 등의 학문이었다.

명종 13년(1558) 문과(文科) 별시(別試)에 급제하여 승문원 권지부정자(承文院權知副正字)에 보임되고, 명종 15년(1560) 승정원 주서(承政院注書)와 춘추관 기사관(春秋館記事官)에 임용되었는데, 그 해 9월 19일 명종 임금께서는 뛰어난 문필과 문장(文章)에 감탄하여 친히 임석하여 사연(賜宴)을 베풀었다. 이듬해에 마침내 자급을 고쳐 종품(從品)으로 낮추어 서임하여 봉상시 주부(奉常寺主簿)가

되고, 여름에는 모친의 봉양을 위해 지방 수령 자리를 청하여 연천현감(漣川縣監)이 되었다. 명종 17년(1562)에 들어와 홍문관 부수찬(弘文館副修撰), 경연관(經筵官), 검토관(檢討官), 정언(正言) 등을 역임하였는데, 기묘사화(己卯士禍) 때 극형을 받고 죽은 정암(靜庵) 조광조(趙光祖)의 설원(雪冤, 원통함은 풀음)을 강경히 주장하다가 훈구파의 비난을 받고, 그해 10월 19일에 과천 현감(果川縣監)으로 좌천되었다가, 다음해 8월 17일 파직 당하였다. 이때에도, 좌천 또는 파직을 당하게 된 사연을 살펴보면, 당시 임금의 총애를 받던 이조판서 이량(李樛)이 자기를 반대하는 자는 모두 추방하고 아부하는 자만을 중용하여, 대사헌 이감(李戡) 등을 사수하여 사화(士禍)를 일으키어 사림(士林)을 모두 숙청하려는 음모까지 꾸미던 일이 있었다고 한다.

결국 이량(李樛)이 그의 아들 정빈(廷賓)을 이조좌랑에 천거한 것을 형 윤두수와 박소립, 기대승 등이 반대하였는데, 이에 연루되어 대사헌 이감(李戡)의 탄핵을 받아 공(公) 뿐만 아니라 형 윤두수(尹斗壽)와 허엽, 기대승, 이문형, 박소립 등이 모두 관직에서 삭탈 당하였던 것이다.

그 후, 명종 18년(1563) 9월 영의정(領議政) 윤원형(尹元衡), 우의정(右議政) 심통원(沈通源)의 상계(上啟)로 인하여 죄가 없음이 밝혀져, 12월에 복직되어 승문원의 교검(校檢)에 임명 되었다.

명종 19년(1564) 형조·병조의 낭관, 지제교(知製敎)로 옮겼다가 가을에 어사(御史)로 관우(關右)에서 재상(災傷)을 살펴본 뒤에 직강(直講)·부교리(副校理)로 전임하였다. 이듬해에 이조 좌랑이 되고, 명종 21년(1566)에는 부교리 겸 교서관 교리(校書館校理), 한학교수(漢學敎授)가 되었으며 사신의 일행으로 연경을 다녀온 뒤에 이조 정랑(吏曹正郎)에 제수되었다. 다음 해에 호당(湖堂)에서 사가독서(賜暇讀書)하고, 검상(檢詳)·사인(舍人)·장령(掌令)·집의(執義)·사예(司藝)·부응교(副應敎)를 거쳐 또 재상 어사로 영남을 다녀왔다.

선조 3년(1570)에 흉년이 들어 호서(湖西)의 백성들이 크게 굶주릴 때 공은 구황어사(救荒御史)의 명을 받고 정성껏 구휼하여 그 힘으로 살아난 백성들이 많았다. 이로부터 공은 관각(館閣)을 나가지 않고 응교·집의·사간은 여섯 번, 사인은 열세 번, 전한(典翰)·직제학(直提學)은 두 번, 사복시 정(司僕寺正)과 사재감 정(司宰監正)은 각 한 번씩 역임하였다.

선조 5년(1572)에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올라 동부승지(同副承旨)가 되고, 우부승지·좌부승지로 승진한 뒤에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로 체직되었으며, 대사성(大司成)으로 옮겨가 인재 양성을 법도가 있게 하자 선비들이 앞다투어 분발하였다. 선조 6년(1573년) 2월에는 주청부사(奏請副使)로 연경에 가서 종계(宗系)를 변무(辨誣)하고 가선 대부(嘉善大夫)에 가자(加資) 되었다.

종계변무(宗系辨誣)에 관하여 전후의 경위를 살펴보면, 이 문제는 조선왕조(朝鮮王朝) 국초 이래 200여년 동안을 두고 말썽이 되었던 것인데, 즉 명나라의 태조실록(太祖實錄)과 대명회전에는 조선의 태조(太祖) 이성계(李成桂)가 고려 32대 우왕(禡王) 때 권신이었던 이인임(李仁任)의 아들로 잘못 기재되어 있어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이 종계변무(宗系辨誣)의 발단은 고려 말에 이성계가 국정을 맡아 볼 때 이성계에게 축출당한 이인임(李仁任) 일파와 윤이(尹彝)와 이초(李初)가 명나라로 도망쳐 들어가서 함부로 퍼뜨린 관계로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명나라 대명회전(大明會典)에 있는 조선국 주(註)에는 “이인임의 아들 이성계는 이름이 단(坦)이라는 자로서 홍무 6년(1375)부터 28년(1395)에 이르는 동안에 왕씨와 네 왕을 죽이고 나라를 얻었다.”라고 하였으니 네 왕이라는 것은 고려의 32대 우왕(禡王), 33대 창왕(昌王)과 그의 세자 석(奭), 그리고 34대 공양왕(恭讓王)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록을 개정하기 위하여 태조(太祖)와 태종(太宗) 때부터 개정을 요청하였으나 명나라에서는 그 잘못을 시인하면서도 그 기사가 명태조(明太祖)의 「유훈(遺訓)」이라고 하여 고치기를 꺼려했다.

그런데 중종(中宗) 초에 윤은필(尹殷弼)이 경연(經筵)에서 강력히 논술함으로서 이를 계기로 명종(明宗) 때 두 차례(명종 12년 5월, 18년 5월)에 걸쳐 주청사(奏請使)를 다시 보내어 전변의 약속을 이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명나라에서는 잘 알고 있다는 답변만 있었을 뿐이었다.

그 뒤 선조(宣祖) 때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는데 제1차로 선조 5년(1572) 12월에 주청사(奏請使)에 이양원(李陽元), 부사(副使)에 윤근수(尹根壽)를 파견하기로 하였다가, 이듬해 선조 6년(1573) 2월에 주청사(奏請使)에 이후백(李後白), 부사(副使)에 윤근수(尹根壽)를 명나라에 파견하였는데 이들 일행은 그 해 9월 16일에 돌아왔다.

이때 명나라에서는 황제의 칙유(勅諭)를 보내어 말하기를 “세종황제실록(世宗皇帝實錄, 명나라 세종의 실록)의 찬수(撰修, 편찬)가 끝나는 대로 시행할 것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선조(宣祖)께서 이 뜻을 종묘에 고하고 죄수들의 사면령까지 내리시었다. 말하자면 처음으로 종계 개정의 시초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후 이를 개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선조 7년(1574) 갑술년(甲戌年)에 한성 우윤(漢城右尹)에서 경상도 감사(慶尙道監司)로 나가 유자(儒者)를 존숭하고 선비를 예우하였으며 선현(先賢)의 사우(祠宇)를 지날 때는 반드시 제문을 지어 치제(致祭) 하였다. 이듬해에 임기가 끝나 교체되어 동지중추부사에 제수되고, 돌아오는 도중에 부제학(副提學)에 제수되었다. 선조 9년(1576)에는 대사헌(大司憲)과 판결사(判決事)에, 다음 해에는 경기감사(京畿監司)에 제수되었다.

선조 11년(1578)에는 경기도 관찰사로 재직하였는데, 호사다마(好事多魔) 격으로 형 윤두수와 조카 윤현(尹暉) 등의 뇌물 수수혐의사건인 세칭 삼윤(三尹) 사건이 일어나, 양사(兩司) 사간원, 사헌부)의 탄핵을 받았다. 이 사건은 동인(東) 서인(西人) 간 당쟁으로까지 확대되어 윤근수는 억울하게 파직을 당했다. 김계휘(金繼輝) 공이 대사간(大司諫)으로 있으면서 말하기를, “윤근수 형제는 재주와 학문이 모두 뛰어난데 사류에 대한 진퇴는 작은 일이 아니다. 확실하지 않은 일로 사람을 죄줄 수는 없다.” 하니, 사론이 그 말을 옳게 여겼다.

선조 12년(1579) 9월에 서복(叙復)의 특별 명령이 내리어 윤근수를 비롯하여 형 윤두수(尹斗壽)와 조카 윤현(尹暉)이 다 복직 되었는데 이때 윤근수는 강릉 부사(江陵府使)에 제수되었으나 아버지가 늙어 부임하지 않았다가, 다시 개성유수(開城留守)에 제수되었다. 개성은 풍속이 상업을 위주로 하여 문풍(文風)이 차츰 쇠퇴해갔는데 윤근수가 가서는 다시 일신시키었다. 선비 중에 글을 읽을 줄 알고 사리를 아는 자가 있으면 친히 객주(客主)의 예를 행하고 유람과 잔치를 열 때는 반드시 그들을 불러 한 자리에 어울렸으므로 많은 선비들이 윤근수를 위해 사문연(斯文宴)을 베풀어 서로 경하하기까지 하는 등 1년이 채 되기 전에 유가의 기풍이 성행하였다. 옛 도읍지라서 산수가 좋은 곳이 많아 윤근수는 공무를 보는 여가에 차비를 차려 찾아가 마음에 드는 곳을 만나면 곧 한가로이 목청을 길게 뽑아 흥얼거리며 즐기고 춘명문(春明門) 밖이라 하여 아득히 먼 지방으로 여기지

않았다. 개성 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윤근수의 성명을 거론해 마지않고 있다. 오음공도 윤근수와 함께 배척을 받아 연주부사(延州府使)로 있었는데, 연주에서 개성까지는 겨우 백리 거리였다. 경사로운 날과 좋은 철에는 모부인을 모시고 내왕하느라 가마가 줄을 이었고 술을 올려 축수하였으므로 당시 사람들이 이를 성대한 일로 여겨 서로 전하고 있다.

선조 14년(1581)에 임기가 만료되어 군직(軍職)에 제수되고, 이듬해에 좌윤(左尹)이 되었으며, 선조 16년(1583)에는 황해도 관찰사(黃海道觀察使)에 제수되었으나 아버지가 늙었다는 것으로 체직되고 다시 대사성과 대사헌(大司憲)이 된 뒤에 부제학(副提學)과 이조참판(吏曹參判)으로 전임되었다. 다음해 겨울에 모부인의 상을 당해 예(禮)에 지나치게 거상(居喪)을 잘하였으며, 선조 20년(1587)에 상기를 마친 뒤에 군직에 보임되고 좌윤(左尹)·공조 참판(工曹參判)·부총관(副總管)을 역임하였다.

선조 22년(1589)에 선조가 종무(宗誣)를 완전히 씻지 못하고 회전(會典)이 즉시 내려오지 않는다고 하여 윤근수를 종계변무 겸 진하사(進賀使)로 뽑아 연경(燕京, 북경)으로 보냈다. 연경(燕京)에 도착하여 7개월 동안이나 머물면서 황실과 요로(要路)에 대하여 능숙한 외교를 전개하여 분명하고 진실하게 진술하되 정성을 다하고 인사가 노련하니, 예부상서(禮部尙書) 우신행(于慎行)이 그 글을 보고 크게 기특하게 여겨 말하기를, “제후국에 인재가 있다.” 하였다. 황상(皇上)이 특명으로 내각(內閣)의 비사(祕史)에 실린 본국 세계(世系)의 원본을 보여주고 아울러 회전 전질을 반사(頒賜)하였으며, 황극문(皇極門) 안에서 칙서를 내리고 한림학사가 그 예식을 집행하였으니, 이는 특별한 대우였다. 《대명회전(大明會典)》을 사실대로 개록(改錄)을 시키고 《대명회전》 전질(全帙)과 황제의 칙서(勅書)를 가지고 그해 11월 22일 한양(漢陽)으로 돌아왔다. 조정에 돌아오자 선조는 가상히 여겨 기뻐하며 종묘(宗廟)에 그 성사를 고한 뒤에 공을 자헌대부(資憲大夫) 형조판서(刑曹判書)로 승진시키고, 전택(田宅)과 노비를 하사하였다. 이로써 조선 건국이래 2백년에 걸쳐 외교상 현안이었던 종계변무를 마무리 짓게 된 것이다.

선조 23년(1590) 5월에 대사헌(大司憲)을 거쳐 예조판서(禮曹判書) 겸 지경연춘추관사, 예문관제학(藝文館提學)과 동지성균관사(同知成均館事)에 제수되고, 7월에 「광국일등공신(光國一等功臣)」에 책록 되었으며, 정헌대부(正憲大夫)에

가자되고 해평군(海平君)에 봉해졌다. 얼마 후에 다시 대사헌(大司憲)과 예조판서(禮曹判書)가 되고 여름에 승정대부(崇政大夫)에 가자되어 의정부우찬성·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가 되었다.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조선 침략에 앞서 “명나라를 치겠다.” 하며 조선이 앞장설 것을 요구해 온 것이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왜국의 침략에 대비하기는커녕 그 다음해 2월에 건저(建儲:세자책립)의 문제를 놓고 조정에서는 일대 옥사(獄事)가 벌어지게 된다.

그 경위를 살펴보면 먼저 좌의정 정철(鄭澈, 서인)이 우의정(右議政) 유성룡(柳成龍, 동인), 부제학 이성중(李成中, 동인파), 대사간 이해수(李海壽) 등과 상의해서 건저(建儲)를 건의하기로 하고 영의정 이산해(李山海, 동인파)와도 날짜를 정하고 궐하(闕下, 대궐)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다. 그런데 이산해가 약속을 어기고 나타나지를 않았다. 그래서 다시 약속을 하였는데 역시나 이때도 약속을 어기고 나타나지를 않은 것이다. 그것은 이산해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선조에게는 의인왕후(懿仁王后) 박(朴)씨가 있었으나 대를 이을 왕자가 태어나지 못하였고, 공빈(恭嬪) 김(金)씨에게서 첫째 아들 임해군(臨海君) 진(璉)과 둘째 아들 광해군(光海君) 혼(瑄)이 태어났으며, 인빈(仁嬪) 김(金)씨에게서 셋째 아들 의안군(義安君) 성(城, 1588년 졸(卒))과 넷째 아들 신성군(信城君) 후(翊)가 태어났다. 물론 의인왕후 박씨의 소생이 있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여 후궁의 소생들이어서 여러 문제가 생겨났다.

특히 첫째 아들 임해군은 무식하고 매우 난폭한 사람이어서 그의 아우 광해군을 세자로 세우려는 것이 정철(鄭澈) 등의 생각이었고, 영의정 이산해(李山海) 등은 그 무렵에 선조가 가장 좋아하는 인빈(仁嬪) 김(金)씨 소생의 신성군(信城君)을 세자로 세웠으면 하여서 복잡한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일설에 의하면 영의정 이산해는 정철 등과 함께 건저를 건의하기로 해 놓고 뒤로는 자기 아들 경전(慶全)을 인빈 김씨의 오라비 김공량(金公諫)에게 보내서 “정철이 곧 건저를 청하고 뒤이어 신성군의 모자(母子)를 다 죽이려 한다.”라고 중상모략을 했다고 한다.

김공량이 그것을 곧 그의 누이 인빈 김씨에게 옮기니 김씨는 눈물을 흘리면서 선조 임금에게 애원을 했다. 그리하여 선조는 정철을 의심하게 되었다. 정철은

꿈에도 그런 모략이 있는지는 상상도 못하고 있었다.

선조 24년(1591) 2월에 이르러 정철 등은 경연(經筵)에서 선조에게 광해군(光海君) 세자(世子) 책봉(冊封)을 청하였다. 선조는 인빈 김씨가 말했던 것이 사실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버럭 화를 내며 “내가 아직도 건재한데 경이 세자의 책봉을 하자고 청하는 것은 어찌하려고 하는 것이오.”라고 서슬이 시퍼렇게 노하며 듣기도 싫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때 이산해는 아무 말 없이 물러가고 당초 정철과 건저(建儲, 세자책립)의 일을 같이 상의한 우의정 유성룡도 아무 말 없이 물러갔다. 이일을 계기로 정철 등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세자를 세우는 데에도 조정이 동(東)인과 서(西)인으로 나누어져 각각의 주장을 달리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인빈 김씨가 들려준 말이 있어서 선조는 두 말도 하지 않고 정철을 교체시켜 영돈녕부사(領敦寧府使)로, 유성룡을 좌의정(左議政)에, 이양원을 우의정(右議政)으로 삼았다.

이에 삼정승 가운데 영의정 이산해, 좌의정 유성룡이 동인이고, 우의정도 동인에 가까운 이양원으로 정해지고 보니 서인(西人)의 기세는 갑자기 떨어지고 설 자리를 잃었다. 이는 선조 22년(1589) 10월에 일어난 기축옥사(己丑獄事) 때 원한을 품었던 동인(東人)들이 서인(西人)들에 대한 보복의 기회로 포착하여 파직과 귀양(歸鄉)을 가게 된다.

기축옥사(己丑獄事)는 1589년(己丑年) 10월에 정여립이 역모를 꾀하였다 하여, 3년여에 걸쳐 그와 관련된 1천 여 명의 동인계(東人系)가 피해를 입은 사건이다. 발단은 1589년 10월 황해도관찰사 한준(韓準)과 재령군수 박충간(朴忠侃), 안악군수 이축(李軸), 신천군수 한응인(韓應寅) 등이 전 홍문관 수찬이었던 전주 사람 정여립이 역모를 꾀하고 있다고 고변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들의 고변에서 열거된 정여립의 역모죄상은 그가 벼슬에서 물러난 뒤, 전주와 진안·금구 등지를 내왕하면서 무뢰배와 공·사노비들을 모아 ‘대동계(大同契)’라는 단체를 만들어 매월 활쏘기를 익혔다는 것이다. 또 당시 민간에 유포되어 있던 도참설을 이용해 민심을 현혹시킨 뒤, 기축년 말에 서울에 쳐들어갈 계획을 세우고, 그 책임 부서까지 정해 놓았다는 것이다.

이 보고를 받은 조정에서는 선전관과 의금부도사를 황해도와 전라도에 파견하여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정여립은 안악에 사는 변승복(邊崇福)에게서 그의

제자였던 안악교생 조구(趙球)가 자복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아들 옥남(玉男)과 함께 도망하여 진안에 숨어 있다가 자결하였다.

그리고 옥남은 잡혀 문초를 받은 끝에 길삼봉(吉三峯)이 모의 주모자이고, 해서사람 김세겸(金世謙), 박연령(朴延齡), 이기(李箕), 이광수(李光秀), 변승복 등이 공모했다고 자백하였다. 그 결과 다시 이들이 잡혀가 일부는 조구와 같은 내용을 자백하고, 일부는 불복하다가 장살 당하였다. 정여립의 자결과 일부 연루자의 자백에 의해 그가 역모를 꾀했다는 것은 사실로 단정되었다. 이 사건으로 동인에 대한 박해가 더욱 심해지고 서인인 정철(鄭澈)이 옥사를 엄하게 다스려서 이발(李潑), 이길(李洁), 김우옹(金宇顙), 백유양(白惟讓), 정언신(鄭彦信), 홍종록(洪宗祿), 정인지(鄭彦智), 정창연(鄭昌衍) 등 당시 동인의 지도자급 인물들이 연루되어 처형 또는 유배당하였다. 그 가운데 이발은 정여립의 집에서 자신이 보낸 편지가 발견되어 다시 불려가 고문을 받다가 죽었으며, 그의 형제, 노모, 자식 까지도 모두 죽임을 당하였다. 같은 해 12월에는 호남 유생 정암수(丁巖壽)를 비롯한 50여 명의 상소로 이산해(李山海), 나사침(羅士忱), 나덕명(羅德明), 나덕준(羅德峻), 정인홍(鄭仁弘), 한효순(韓孝純), 정개청(鄭介淸), 유종지(柳宗智), 김우평(金宇宏), 윤의중(尹毅中), 김응남(金應男), 유성룡(柳成龍), 유몽정(柳夢井), 조대중(曹大中), 우성전(禹性傳), 남언경(南彦經) 등 30여 명이 연루되어, 처형되거나 혹은 유배되었다.

이때의 상소로 조정의 동인계 고관과 함께 호남지방 사류가 다수 연좌되었다. 그리하여 그 뒤부터 전라도는 반역향으로 불리게 되었고, 호남지역 사류간 반목과 대립이 후대에까지 이어져 여러 가지 문제를 낳게 되었다. 또, 진주에 거주하던 처사 최영경(崔永慶)은 모주인 길삼봉으로 지목되어 옥사하였는데, 그의 연좌 또한 지극히 모호한 내용이어서 많은 말썽을 불러일으켰다.

그 뒤 약 3년여 동안 정여립과 친교가 있었거나, 또는 동인이라는 이유로 처형된 자가 무려 1천 여 명에 이르는 대옥사로 발전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는 그 뒤 당쟁의 전개 과정에서 주요한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이 일을 계기로 동인(東人)계에서는 서인(西人)들에 대하여 논쟁을 벌여 그 해 윤 3월 16일에는 정철(鄭澈)과 사인(舍人) 백유함(白惟咸)이 파직되었고, 6월 23일부터 25일에 걸쳐 대사헌(大司憲) 이원익(李元翼)과, 대사간(大司諫) 홍여순

(洪汝諄)의 합계(合啓)에 의해 정철 및 백유함, 호조판서(戶曹判書) 윤두수(尹斗壽), 우찬성(右贊成) 윤근수(尹根壽),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홍성민(洪聖民) 등 수십 명이 귀양을 가게 되었다. 이리하여 서인(西人)들은 거의 세력이 몰락되어 가고 말았다.

이때 선조는 윤근수를 적극 감싸 주려고 애썼으나 시대적 배경이 허락하지 않았다. “풍문으로서는 무슨 소리는 없겠느냐. 병조판서 황정욱은 공훈이 많은 사람으로서 관직이 높은 사람인데 비루한 짓을 함부로 하였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고 승지 황혁(黃赫)이 비루한 짓을 하였다는 것도 풍문에 지나지 아니할 것이고 호조판서 윤두수(尹斗壽)와 아우 윤근수(尹根壽)는 원래 관후하고 지혜가 있고 진실로 쓸 만한 사람인데 어찌 간사한 사람들과 결탁하여 비루한 짓을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유근(柳根)은 문예에 능한 선비로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 이 사람들은 너그럽게 생각하여 죄주지 말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경등이 청한 대로 죄주도록 하라.” 하시었다.

그런데 이 일이 있는 지 사흘 후인 초 8일에 양사에서 연달아 또 상소를 올리게 되자, 임금께서도 결국 할 수 없이 이를 허락하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귀양 또는 삭탈관직을 당하게 되었다. 윤근수와 윤두수 형제도 함께 삭탈관직 되어 광주(廣州)의 촌사(村舍)로 물러나 살았다. 살림살이라고는 서책 상자만 놓여 있어 초라하기가 가난한 선비와 같았으므로 선묘가 본도로 하여금 윤근수를 위문하고 쌀과 콩을 주도록 하였다.

선조(宣祖)에 이르러 국내 상하가 모두 문약(文弱)에 흐르는데다가 당쟁(黨爭)만을 일삼고 있을 뿐 아니라 군정(軍政)마저 문란해지자 철인(哲人) 이이(李珣, 울곡)는 이 무방비 상태로 인해 왜적의 화를 입게 될 것을 염려하여 그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인 선조 16년(1583)에 왜란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10만 대군의 양병설을 주장하였으나 당시 동인(東人) 측이 우세하였으므로 서인(西人)으로 몰린 이이(李珣)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 질 리가 없었다.

이러한 무방비 상태에서 근 10년을 지내오던 임진년(壬辰年) 선조 25년(1592) 4월 14일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는 그가 품고 있던 대륙 정복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와 가토오 기요마사(加藤清正)를 수장(首將)으로 삼아 부산포에 기습 상륙하여 파죽지세로 각 고을을 함락시키

며 북상을 하였다.

위급한 전란(戰亂)의 상황이 발생하니 중신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하고 있었다. 이에 선조께서는 윤근수와 그의 형 윤두수(尹斗壽) 형제가 누구보다도 지략과 인물이 뛰어남을 알고 있었으므로 귀양에서 석방하여 소환할 것을 명하였다. 그러나 대간(臺諫)에서 부당하다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지만 선조는 이를 허락하지 아니하고 특명을 내렸다. 그리하여 윤근수는 4월 29일에 한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전세는 더욱 불리하여 선조는 4월 30일 도성을 버리고 서쪽 땅으로 파천(播遷)의 길을 떠나게 되었는데 윤근수는 아무런 직함이 없이 선비의 몸으로 대가(大駕, 임금의 타는 수레)를 호종(扈從) 하였다. 그 일행이 5월 1일 오후 늦게 개성에 도착하였는데 이때 선조께서 윤근수를 복직시켜 예조판서(禮曹判書)를 제수 받았다.

전세는 극히 불리하여 5월 3일에는 도성이 함락되고 철석같이 믿었던 임진강(臨津江)의 수비가 무너지고 이곳 수비를 담당하였던 도원수 김명원(金命元)의 패전 소식이 전해지자 보류되었던 명나라의 청병(請兵) 문제가 다시 대두되었다.

결국 이항복의 제의대로 5월 12일에 이덕형(李德馨)을 정원사(請援使)로 삼아 명나라에 파견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명나라에서는 국론이 일치되지 아니하여 쉽사리 결정을 보지 못하고 시일을 끌다가 급기야 12월 말에 이르러 이여송(李如松)이 대군을 인솔하고 압록강을 건너 내도(來道) 함으로써 비로써 본격적인 원병(援兵)이 시작되었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윤근수의 탁월한 외교가 주효(奏效)하였던 것이다.

임진왜란 중 공의 활약상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선조 25년(1592) 6월 1일에 명나라의 사신 임세록(林世祿)이 우리나라에 왔는데 윤근수가 그와 회견을 하고 원병의 필요성을 충분히 역설하여 납득시켰으며 명나라에 돌아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6월 8일에 일본군은 평양의 대동강 근처에 나타났는데 이때 선조께서 대동관(大同館)에서 임세록을 접견하고 있었다. 그런데 임세록이 연관정(緣光亭)에 올라가 적기(敵旗)가 옆으로 달리는 모양을 멀리 바라보고 하는 말이 “이는 참말로 왜적들 이외다.” 하고는 유숙하지도 아니하고 허둥지둥 그대로 돌아가 버렸다. 조정에서는 생각하건데 명

나라에서 만일이라도 힐문(詰問)하는 일이 있다면 응대할만한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예조판서인 윤근수를 명나라에 파견하기로 하였다.

이 무렵 전황은 매우 불리하여 선조께서는 평양성을 윤두수(尹斗壽)에게 맡기고 왕과 그 일행은 6월 11일에 소리없이 평양을 버리고 북쪽으로 향해 초라한 모습으로 떠나게 되었다. 이때 평양성을 지키고 있던 유수장 윤두수 공과 그 휘하에 있던 김명원(金命元)은 6월 13일 일본 고니시(小西行長) 군의 주력 부대가 대동강에 이르자 이를 기습하는 등 치열한 전투를 벌였으나 역부족으로 평양성은 적의 수중에 들어가고 말았다.

선조 25년(1593) 6월 14일 전세 위급 상황에서 명나라의 관존보(寬尊保)의 차인(差人) 유괴(劉魁)가 참장 동양정(修養正)의 글을 가지고 의순관(義順館)으로 윤근수를 찾아와 원병(援兵)에 대한 문제를 의제로 삼아 면담을 하였는데, 이 석상에서 유괴로부터 진수총병(鎭守總兵) 양소훈(楊紹勳)이 곧 발병(發兵)하여 의주에 와서 군무를 협의하게 될 것이라는 확약과 아울러 “명군의 일부가 6월 15일에는 압록강을 건너 올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부총병(副總兵) 조승훈(祖承勳)도 금명간 도강할 것이다.”라고 부언 하였다. 이때 선조는 영변을 떠나 박천(博川)에 이르렀는데 윤근수로부터 이 소식을 전해 듣고 군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 명나라 군대의 출동 소식을 모든 군사에 알리라고 명령 하였다.

윤근수는 심희수(沈喜壽)를 대동하고 압록강을 건너 탕참(湯站)에 가서 명나라의 독전참장(督戰參將) 대조변(戴朝弁), 유격(遊擊) 사유(史儒) 두 장군을 만나고 돌아왔는데 이때 사유가 군사 1천 명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왔다. 그런데 병수(兵數) 등에 관한 협의를 하기 위하여 윤근수는 다시 도강하여 요동에서 동양정(修養正) 장군을 만나 협의를 하였다.

이때 선조께서는 6월 18일 정주(定州)를 떠나 곽산(郭山)을 거쳐서 선천(宣川)에 이르렀는데 이날 명나라의 유격 사유가 군병 1천을 이끌고 임반관(林畔館)에 이르렀으므로 선조가 친히 가서 만나 치하를 하였다.

그런데 이때 지휘권 문제로 논란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대신들이 “명나라 군사를 조선의 도원수 지휘 하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자 사유 등은 “조선의 군신이 다 무례하다.”고 욕하며 돌아서서 의주로 돌아갔다. 그야말로 자기들은 천병(天兵)이라 하여 조선의 군신을 얹잡아 보고 크게 교만을 띤 것이다.

그처럼 기대했던 명나라의 군사가 돌아가자 선조께서는 의주에 있는 윤근수에게 그 경위를 전하는 한편 계속하여 교섭할 것을 지시하고 이튿날 아침 선천을 떠나 철산(鐵山)으로 가고 윤근수는 의주에서 계속 교섭하였다.

이 무렵 명나라의 원임참장(原任參將) 곽몽징(郭夢徵), 유격 왕수관(王守官)이 6월 17일 밤에 군사 오백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 의주에 왔다는 전갈이 왔다. 그리고 계속하여 18일에는 명나라의 부총병 조승훈이 군사 1천3백 명을 거느리고 의주에 건너 왔는데 이러한 움직임이 원병의 첫 서막이 되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전세를 살펴보면 앞서 개성에서 함경도를 향해 떠난 가토(加藤清正) 휘하의 적군은 강음(江陰) 및 우봉(牛峯), 평산(平山), 곡산(谷山), 이천(伊川) 등을 거쳐 6월 17일에는 안변(安邊)에 이르고 그 이튿날인 6월 18일에는 함흥(咸興)에 이르렀다. 이때 가토(加藤清正) 등은 조선의 두 왕자 임해군(臨海君), 순화군(順和君)이 함경도(咸鏡道)로 피난했다는 말을 전해 듣자 이를 추격하기 위하여 주력부대를 이끌고 곧 북청(北靑)에 이르렀으며, 곧이어 갑산(甲山), 산수(山水), 단천(端川) 등 더 북쪽으로 진격하고 있었는데 7월 23일 회령(會寧)에서 두 왕자가 사로잡히고 말았다.

그러는 한편 선조 25년(1592) 6월 15일에 평양성을 완전히 점령한 고니시(小西行長) 등은 분곡의 훈령(訓令)을 대기하여 평양에서 더 북상하지 아니하고 주변의 진지만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이 무렵 중부 이남에는 관군(官軍), 의병(義兵)의 활동이 자못 활발해져 여기저기서 격전이 벌어졌다. 특히 곽재우(郭再祐) 등 여러 인사들은 의병 일천 명을 모아 낙동강(洛東江)을 왕래하면서 근처의 왜군을 닦치는 대로 무찔렀다. 또 남해에서는 이순신(李舜臣) 장군의 활동이 활발해졌으며, 7월 8일에는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함대가 왜선을 한산도(閑山島) 앞바다로 유인하여 전선 73척을 일시에 격침시켰고, 그 이튿날인 7월 9일에는 이를 지원하러 나온 왜선들을 안골포(安骨浦)에서 모두 격파하였다. 이순신 장군 등의 이러한 승리가 왜군 측에 큰 충격을 줌으로써 독전(督戰)차 조선에 건너오려던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도선(渡船)을 좌절시킨 결과를 가져왔다.

한편 6월 23일 의주에 도착한 선조는 여전히 명나라의 군사적 지원에 크게 기대를 걸고 있었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명나라의 움직임이 매우 소극적이고 요동에서 건너온 군사들 2천여 명은 의주에 와서 머무르면서 공연한

횡포만 일삼았다. 선조 25년(1592) 7월 2일에 이르러 예조판서(禮曹判書)인 윤근수를 대동하고 명나라 사신인 하시(夏時) 황응양(黃應陽), 서일관(徐一貫) 등을 용만관(龍漫官)에 불러 간곡한 말로 내원(來援)을 청하는 한편 7월 10에는 탕참(湯站)에 윤근수를 파견하여 명의 총병(摠兵) 양소훈(楊紹勳)을 만나 청병에 관한 협의를 하게 하였다. 이때 윤근수는 우승지 홍진(洪進)을 대동하였는데 양소훈이 말하기를 “정병(精兵) 3천9백 명을 발병할 것이다.”라고 하고 또 “예비병도 8만 7천 명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 무렵 우리 조정에서는 전군의 필요한 군량을 수집하기 위하여 종사관을 각 지방에 보내어 파악을 하고 있는 중 이었는데 명나라 유격 사유(史儒), 참장 대조변(戴朝弁)이 조선 역관(譯官:통역)에게 말하기를 “내일이라도 압록강에 진주하게 되면 지체 없이 도강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 보고를 받은 선조는 군량이 부족한 것을 민망히 여겨 예조판서 윤근수와 공조판서 한응인(韓應寅)으로 하여금 양소훈의 군사가 압록강을 건너오는 것을 잠깐 중지하도록 연락하게 하였다. 상황이 다급하여 원병을 애타게 기다렸지만 식량의 문제로 아주 곤란한 일이 전개되었다. 참으로 답답하고 한심한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리하여 의주에 건너온 명나라의 군사는 부총병 조승훈(祖承訓) 휘하의 군사 1천명, 유격 왕수관(王壽官) 휘하의 군사 1천명, 참장 대조변(戴朝弁)의 군사 1천명, 총병 양소훈 휘하의 천총(千摠)이 이끄는 가정 달자(家丁 達字) 5백 명 등 모두 3천5백 명이였다. 왜군 15만 명에 비하면 수적으로 보면 매우 열악한 병력에 불과하였다.

이때 요동(遼東)에서 다시 총병 양소훈이 건너와 먼저 건너온 장수들을 모아 놓고 다례(茶禮)를 행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부총병 조승훈이 먼저 말하기를 “내일은 길일(吉日)이니 꼭 청천강(淸川江)을 건너 평양으로 진격하고 싶다.” 하였다. 그리하여 청천강에 부교(浮橋)를 만들어 놓고 명나라 장수 조승훈은 군사 5천을 인솔하고 이윽고 의기양양하게 의주를 떠나 평양으로 향하였다. 이때 조선에서는 도원수 김명원이 장수를 보내서 군사 3천명을 이끌고 따라 가게 하였다. 그런데 왜군을 앞잡아 보았던 명나라군은 의외로 강한 고니시(小西行長) 군대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쳐 7월 17일에 패전을 당하고 압록강을 건너 퇴각하고 말았다.

명나라로 퇴각한 조승훈은 자신의 패전을 조선 탓으로 돌리기 위하여 명나라

조정에 말하기를 “조선군이 내응(內應)을 하고 투항을 하였기 때문에 패전을 하였다.”고 허무맹랑한 보고를 하였다. 이 보고를 받은 총병 양소훈은 크게 화를 내며 조선 조정에 대하여 힐난(詰難)을 벌여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조정에서는 윤근수와 그의 형 윤두수로 하여금 이를 변명하게 하여 애를 먹기도 하였다.

명나라와 일본의 첫 싸움인 이 평양 싸움에 무참하게도 조승훈이 패주하자 원병(援兵)에 대한 문제가 자못 미묘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감이 있었다. 이에 조선 조정에서는 백방으로 원병에 대하여 노력하였으나 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다. 그것은 명나라 조정의 의견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서였는데 그 하나는 조선에 출병하자는 의견과 다른 하나는 조선이야 어찌되든 말든 일본군이 명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게 압록강에서 왜군을 막기만 하자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상황에 선조 25년(1592) 7월 25일에 선조는 예조판서인 윤근수를 불러 평양 패전의 경위와 아울러 앞으로의 문제를 명나라 군부와 타협을 강구하는 한편 신속한 원군의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윤근수는 명나라의 동정군(東征軍:원병)의 적극적인 출동 단행을 촉구하기 위하여 요동(遼東)을 사랑방 드나들 듯이 드나들며 외교활동을 하여 결국 선조 25년(1592) 12월 24일 제독 이여송(李如松)이 주력부대 4만3천여 명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 의주에 이르게 되었다.

이여송(李如松)은 선조 26년(1593) 정월 9일 평양을 수복하고 계속해서 한양을 수복하려고 진군하다가 고양군 벽제관에서 일본군에게 패배를 당하고 평양성까지 후퇴를 하게 되었다. 그 이후 강화조약(講和條約)이 논의되는 등 양상이 달라졌는데 윤근수는 이에 반대운동을 전개하였으며, 명나라 병부시랑 송응창에게 누차에 걸쳐 진군을 촉구하였다. 그런데 동년 2월 26일에는 일본군의 대(大) 부대가 행주(幸州)로 내습하여 왔으나 권율(權慄)이 이끄는 우리 군의 분전으로 대승을 거두고 일본군은 대패를 당하고 말았다. 이것이 그 유명한 행주대첩이다.

명나라 군대의 파병으로 평안도(平安道)와 함경도(咸鏡道) 방면의 일본군은 모두 퇴각하여 선조 26년 2월 말에 한성에 집결하게 되고 이때 남해에서는 이순신(李舜臣) 장군이 이끄는 수군(水軍)의 연승으로 일본군은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다. 설상가상 일본군은 군량미가 부족한데다 질병이 유행하고 평양 패전 이후 사

기를 잃어 일본의 장수들은 강화(講和)를 절실히 원하게 되었으며, 또한 명군(明軍)도 벽제관에서 대패한 이어송의 경략(經略) 송응창(宋應昌)과 협의한 결과 강화교섭을 재개할 뜻을 갖게 되다보니 일본군과 강화교섭이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일본군은 바로 이에 응하여 선조 26년(1593) 4월 18일부터 서울을 철수하기 시작하였고 충청도와 강원도에 주재하였던 일본군도 철수를 시작하여 경상도의 남쪽으로 철수하게 되었다. 선조는 장차 옛 도성으로 돌아갈 예정으로 있는데 윤근수는 접반하는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대가(大駕)를 따라가지 못하게 되자, 선조는 차고 있던 보도(寶刀)와 조각한 옥을 풀어 윤근수에게 주며 말하기를 “이것은 내가 평소에 손안에 가지고 있던 물건이다. 경은 이것을 차고 언제 나 나를 생각하라.” 하였다. 강화회담은 이에 앞서 수차례에 걸쳐 있었던 것으로서 그에 얽힌 이야기를 곁들여 윤근수의 활약상을 적어보려고 한다.

처음 조선과 일본 간의 회담은 평양전투가 있기 직전인 선조 25년(1592) 6월 9일에 대동강 배안에서 열리게 된 것인데 개전 이래 처음으로 양국 측에서 대표자가 서로 면담을 하였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었다. 그런데 당시 이덕형(李德馨)은 대사헌이고 윤근수는 예조판서였으므로 의당 윤근수가 대표로 나가야 할 것인데, 일본측이 윤근수를 꺼려하여 기피하고 이덕형을 지명하여 왔으므로 그가 일본 측의 겐소(玄蘇) 등과 회담하였다. 회담 내용은 조선 측의 항복을 권유하는 식이었으므로 결렬되고 말았다. 그런데 이때 윤근수를 기피한 것은 그의 학덕과 아울러 외교의 명수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선조 25년(1592) 7월 17일 부총병 조승훈(祖承訓)이 평양에서 벌어진 명·일(明·日)간의 첫 전투에서 패주하자 고니시(小西行長)는 더욱 교만하여 아군에 글을 보내 이르기를 “군양(群羊)이 일호(一虎)를 공격하다.”라고 하였으니, 양(羊)은 명나라 군사를 말함이고, 호(虎)는 일본 군사를 말함인데, 이와 같이 교만하여 저서 의주 사람들까지도 보따리를 싸들고 피난길을 떠나려하여 민심이 동요되기도 하였다.

이 무렵, 명나라의 유격(遊擊) 심유경(沈惟敬)이 선조 25년(1592) 9월 1일 평양에 들어가 고니시(小西行長)와 회담하는 자리에서 일본군 출동의 이유를 묻자, 고니시(小西行長)는 “명나라에 봉공(封貢)을 하여 명나라와 통호(通好)하려 하였는데 조선이 길을 아니 빌려주어서 조선에 건너왔다.”는 변명을 하였으며, 철

병 요구에 대하여서는 물러갈 생각은 없다고 말하였다. 윤근수는 심유경에게 이것이 다 이롭지 못한 일이라고 반대하자, 심유경은 “일본군의 진격을 지연시키어 시간적 여유를 얻자는데 불과한 것이다.”고 변명하였다.

심유경은 그해 11월 26일에 다시 평양으로 들어가서 고니시(小西行長)를 만나, 일본군의 철병을 요구하였으나 고니시는 오만불손하게도 “평양성의 서북쪽은 상국(上國: 명나라)에 양도할 것이며, 대동강의 동남쪽 땅에 대하여는 이 사람이 주관(主管) 할 것 이외다.”하여, 마치 조선을 분할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 결말을 얻지 못하였다.

심유경은 갖고 있던 모자(帽子)를 일본군에 선사함으로서 은연중에 이를 시인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예조판서 윤근수는 12월 3일 의주 용만관(童漫館)에서 심유경(沈惟敬)과 회담하는 자리에서 그에게 말하기를 “귀하와 고니시(小西行長)와의 회담에서 평양의 서북지방을 명나라에 양도하고 한강이남 4도를 일본이 관할한다.”라고 하는 설에 대한 진부를 따지는 동시에, 이러한 처사는 전란 수습에 도움이 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무익한 일이라고 역설하고, 이어서 “지금 압록강 연안에 주둔하고 있는 병마를 동원한다면 전란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니 곧 요동에 건너가 경략 송응창(宋應昌)과 의논하여택 장선병(擇將選兵)하여 원군을 출동케 하라.”고 촉구하였다. 그 후 윤근수는 요동본부(遼東本部)에 대하여 강화의 불가함을 촉구하였는데, 이때 요동본부의 경략(經略) 송응창(宋應昌)은 “만일에, 왜군이 모두 조선에서 일본으로 달아난다면 강화하여도 무방하지만, 만일에 조선의 일현일보(一縣一步)의 땅에서 머물러있다면 강화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는 또 선조에게 글을 보내기를 「유격 심유경이 전에 평양의 왜(倭) 군중에 들어가서, 장차 평양의 서북지방은 천조(天朝: 명나라)에 주게 한다는 말을 양언(揚言) 하였다는바, 대저 평양은 원래 조선의 토지로서 천조가 바야흐로 구원하려 하는 터 인테 어찌 남의 위험한 틈을 타서 남의 땅을 차지할 수 있으오리까. 절단코 이러한 도리는 없으니 전하께서는 마음을 평안히 가지시고 유언(流言)을 믿지 마시기 바라나이다.」 하였다.

이는 윤근수의 끈질긴 반대론에 대한 회답인 동시에 심유경과 고니시(小西行長) 사이에 있었던 조선 분할론을 부인한 것이다. 이때는 동정군(東征軍)의 대군

이 요동에 집결하여 출발하기 직전이었다.

벽제관 전투에서 패한 이여송(李如松)의 평양까지 후퇴는 위에서도 말하였거니와, 평양에 머무르고 있던 명나라 제독 이여송(李如松)은 부총병 사대수(查大受)가 전한 일본군의 서신을 보고, 그들에게 화의(和議)의 뜻이 있는 것을 알고 유격 심유경 등과 의논한 끝에 안주(安州)에 머무르고 있는 명(明)의 경략 송응창에게 이 사실을 전하자, 송응창도 강화의 성공을 도모하는데 급하였던 참인지라 일본의 봉공(封貢)과 일본군에 포로가 되어있는 두 왕자와 대신을 돌려보낸다는 것을 조건으로 강화하려는 뜻을 굳히고, 선조 26년(1593) 3월 15일 용산(龍山)에서 일본과 명나라와 2차 회담을 하게 되었다. 이때 조선의 조정에서는 이것은 일본군이 원군을 얻으려는 술책이라고 단정하고 좌의정 윤두수(尹斗壽), 우의정 유흥(兪泓)을 경략 송응창에게 보내어 반대를 하려 하였으나, 시간이 없어서 우선 접반사(接伴使)로 나가있는 예조판서 윤근수에게 지령을 내리어 송응창과 회담을 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윤근수는 송응창과 회담에서 「일본군이 강화를 제의한 것은 그들이 지원군을 기다리기 위한 술책이라고 역설하고, 이어서 우리나라는 왜(倭)와는 불공대천(不共戴天)의 원수가 되어 있는 터이어서 화(和)의 한 글자만은 죽어도 받아드릴 수 없소이다.」라는 뜻으로서 극진(極盡)을 하였다.

이때 일본 측이 명나라에 제시한 7개 강화조항 중에는, 「조선의 4도(京畿, 忠淸, 全羅, 慶尙)는 일본이 차지하고 나머지 도는 조선에 반환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전해지는데, 명나라 측은 당시 이를 부인하고 있었지만, 왜군의 야망을 뒷받침 하는 것으로서, 강화 교섭이 진행 중임에도 그해 6월 일본군은 진주(晉州)성을 공격, 함락시킴으로서 왜군의 야욕을 여실히 드러내고 말았다. 조선은 계속해서 윤근수를 위시하여 여러 중신들이 명(明)·일(日)간의 강화가 무익함을 역설하였다. 명나라 조정에서는 선조에게 강화가 득책이라는 서신을 만들어 명(明)의 참장(參將) 호택(胡澤)으로 하여금 휴대하게 하였는데, 호택은 수비(守備) 이대간(李大諫) 등을 거느리고 동년 4월 25일에 한성(서울)에 들어오니, 윤근수가 그를 객사(客舍)인 남별궁(南別宮)으로 찾아가서 “일본군은 간교(奸巧)하여 반복이 무상하며 남쪽 연안에서 끝내 물러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역설하였다.

이때 선조에게 보낸 글의 내용은, 일본군이 항복을 청하고 또 봉공(封貢)을 구하오니, 명나라는 이들의 봉공을 허락하여서 명나라의 외신(外臣)으로 삼고저 하

오니 조선도 이를 용인하고 분(憤)을 풀고 군사를 쉬게 한다면 귀국구원지계(貴國久遠之計)가 되는 것이오니 그리 알고 조선에서도 협력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호택(胡澤)은 동년 5월 7일 윤근수를 찾아와서 “일본을 위하여 귀국 조정에서 명나라 황제에게 일본의 봉공(封貢)을 허하라.”고 요구하였다. 윤근수는 그 자리에서 “의(義)로 볼 때, 이는 절대로 불가하다.”는 뜻을 역설하며 이를 반대하였다. 호택은 그달 11일에 남별궁에서 선조와 접견하는 자리에서, 조선이 일본의 봉공(封貢)을 주청하여 줄 것을 아뢰었으나 선조 역시 승낙하지 않았다. 그러나 명나라는 그 후 끈질기게 이를 요청하였으므로 조정에서는 봉왜주청사(封倭奏請使) 허옥(許頊)을 명나라에 보냈다.

말하자면 일종의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명나라는 선조 27년(1594) 12월 30일 일본 봉공(封貢)의 책봉사(冊封使)를 임명하였는데, 정사(正使) 도독첨사(都督僉事) 이종성(李宗誠), 별사(別使) 도지휘(都指揮) 양방정(楊方亨)은 유격 심유경과 동행하여 선조 28년(1595) 1월 30일에 북경(北京)을 떠나 4월 28일 한성(서울)에 들어왔다. 이들 일행들보다 앞서 4월 8일 한성에 들어온 유격 심유경은 명나라의 병부상서(兵部尙書) 석성(石星)이 해평부원군 윤근수에게 보내는 서한(書翰)을 휴대하고 왔다. 그 요지는 조선 조정에서 협조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그때 심유경은 선조와 접견하는 자리에서 선조에게 아뢰기를 “해평부원군(海平府院君) 윤근수(尹根壽)와 동행하여 왜군 진중에 들어가서 왜장 고니시(小西行長)를 선유(宣諭)한 다음, 왜군(倭軍)을 모조리 철회케 할 것이오며, 그런 연후에 윤근수(尹根壽)로 하여금 국왕에게 명나라 조정에 아뢰도록 하시옵소서. 이 사람은 먼저 요동포정(遼東布政)에게 청하여 왜군의 진영을 사찰한 다음 천사(天使)의 입경(入京)을 청하고, 그들과 같이 일본으로 가려는 것이오는데 귀국에서는 일본군은 교활하여 물러가지 않을 것이라는 유언(流言)이 돌고 있지만, 이는 실없는 말이오니 천만 의심치 마시옵소서. 만약에 일본이 꼭 한강 이남의 4도(京畿, 忠淸, 全羅, 慶尙)를 점령하고자 한다면 어찌하여 한성에 주둔하지 않고 남해안 쪽으로 철퇴 하였으리까.” 하였다.

이리하여 심유경은 한성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동년 4월 11일에는 좌의정 김응남(金應南)과 우의정 정탁(鄭琢)이 그를 찾아가서 그가 요구한 윤근수(尹根壽)를 일본 진영(陣營)에까지 동행 시킬 수 없다고 하자, 그는 매우 불쾌한 빛을 띠

우면서 “해평부원군 윤근수를 일본 진영까지 동행케 한다는 것은 병부상서 석성(石星)의 부탁이오니 그대로 봉행토록 하여주소.”라고 강요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겨우 납득 시켰다. 대신 조정에서 뽑아 놓았던 문학(文學)인 황신(黃愼)으로 하여금 따라가게 하였다.

이는 명나라의 병부상서 석성이 이미 윤근수의 학덕과 역량이 뛰어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배석을 요청하여 온 것이지만, 강화를 원치 아니하는 조정으로서 는 그러한 자리에 중신을 파견하기를 꺼렸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심유경이 계속 강요함으로 윤근수는 도원수 권율(權慄)의 진중까지만 동행을 하였다. 그런데 책봉사 일행은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4월 28일 한성에 들어온 이후 그대로 체류하고 있다가, 동년 9월 4일에 한성을 떠나 남원(南原) 등지에서 머무르고, 동년 11월 22일에 겨우 부산(釜山) 일본군영에 들어가 고니시(小西行長) 등과 회담을 하고 시일을 보내고 있던 중 명(明)의 정사 이종성(李宗城)의 탈주 사건이 일어났다.

선조 29년(1596) 5월에 명나라에서는 양방형(楊邦亨)을 정사(正使)로 심유경을 부사(府使)로 삼고, 조선에서는 돈령돈정(敦寧敦定)인 황신(黃愼)을 정사로 대구(大邱)부사 박홍장(朴弘長)을 부사로 삼아 명나라 사신과 같이 가게 하였다. 이에 가토(加藤清正)와 고니시(小西行長)는 전후하여 일본으로 건너갔다. 명나라 사신은 동년 6월 16일에, 조선의 사신은 8월 4일에 부산을 떠났는데 동년 9월 2일에 대판성(大坂城)에서 일본의 관백(關白)인 도요토미 히데요시(豐臣秀吉)와 회견하고(조선 사신은 만나지 않고) 동년 12월 21일 부산에 돌아왔으며, 한성을 거쳐서 명나라 서울인 북경에 들어간 것은 선조 30년(1597) 2월 16일 이었으니, 실로 책봉사를 임명하여 돌아올 때까지 꼭 2년 두 달 반이 걸린 셈이다. 그런데 대판성 회견에서 명나라 측은, 심유경이 보고한 강화조건인 입공(入貢)과 봉왕(封王) 가운데서 봉왕만을 허 한다 하여 ‘자특봉이(茲特封爾) 위일본국왕(爲日本國王)(너를 일본국왕으로 봉한다.)’ 명나라 황제의 유시와 금으로 만든 왕인(王印)과 관복을 보냈을 뿐이고, 일본의 요구 조건이라는 ‘할지(割地, 한강 이남의 서도(四道)를 일본이 차지한다는 것)’와 납녀(納女, 명의 황녀를 일본의 비로 삼는 것) 등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으므로, 4년간을 두고 사신만 왕래한데 그친 화의(和議)는 최종 결렬을 보게 되었다.

대판성 회견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豐臣秀吉)는 볼모를 보내지 않았다고 크게 화를 냈을 뿐만 아니라 “너를 일본의 국왕으로 봉한다.”는 책서(冊書)를 내던지면서 “내가 왕이 되려면 그대로 왕이 되는 것이지 구태여 명나라 놈의 봉(封)을 기다릴 것인가.” 라고 하며 명나라 사신 심유경을 당장 옥에 가두라고 명령을 내리며 고니시(小西行長)를 불러서 목을 치라고 호통을 쳤으나, 시신(侍臣)들의 만류로 겨우 그쳤다 한다.

이렇게 하여 명·일간의 강화 교섭이 깨어지자 일본의 도요토미는 다시 재침의 명령을 내려 다음해 정월에 이를 관행하니 이를 정유(丁酉)재란 이라고 한다.

선조 31년(1598) 8월 18일에 일본의 관백(關白)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병사하자 그 후 일본군은 조선에서 철수를 시작하였다.

이에 앞서 선조는 선조 27년(1594) 4월 4일에 선위(禪位)를 빨리 하겠다는 뜻을 빈청대신(賓廳大臣)에게 전하니, 다음날 5일에 유성룡(柳成龍)이 2품(品) 이상의 조신을 거느리고 선위의 불가를 아뢰었다.

5월 27일에 다시 선위의 뜻을 비변사(備邊司)와 영의정에게 전하고, 뒤이어 6월 3일에도 비변사, 양사(司憲府, 司諫院)의 고위층을 인견하고 선위의 뜻을 하교하니, 조정에서도 하는 수 없이 8월 16일에 이르러 “주청사(奏請使) 윤근수(尹根壽)로 하여금 세자의 책봉(冊封)을 명나라 황제에게 주청한다.”고 결정을 내리고 이를 왕에게 품하여 허락을 받았다. 그리하여 윤근수는 이미 결정되었던 주청사의 임무 외에 세자 책봉 주청의 임무를 겸하여 가지고, 그해(선조 27년) 8월 20일 한성을 떠나 명나라의 서울인 연경(燕京)으로 향하였다. 요동(遼東)을 거쳐 연경에 들어간 윤근수는 명나라 예부(禮部)를 비롯하여 각계에 걸쳐서 교섭을 전개하고, 다음해인 선조 28년(1595) 3월 27일 명나라 황제의 칙서(勅書)를 휴대하고 귀국하였는데, 왕은 백관을 대동하고 서교(西郊)까지 납시어 그를 영접하였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온 칙서의 내용은 세자 광해군(光海君)으로 하여금 군무를 총독(總督)하게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후 왕세자로 하여금 군무(軍務)를 결재하게 하였다.

윤근수는 두 차례에 걸쳐 종계변무(宗系辨誣)의 주청사를 제수받아 외교무대에서 활약한 결과, 그동안 여러 주청사들이 해결하지 못한 『종계변무(宗系辨誣)』 즉 명나라 황실에 비치되어 있는 대명회전(大明會典)에 잘못 기록되어 있는 조선

의 태조 이성계(李成桂)의 세계(世系)를 바로잡아 광국일등공신(廣國一等功臣)의 작호를 받은 외교의 명수로서, 그 역량을 임진왜란 중에도 요동(遼東)을 무대로 삼아 외교전을 아낌없이 발휘하여 명성을 떨쳤다.

대략적이거나 그 전모를 살펴보면,

선조 25년(1592) 6월 1일 의주에서 명나라 사신 임세록(林世祿)과 원군에 대한 면담을 한 후, 6월 14일에는 명나라 참장(參將) 통태정(修泰正)과 원군(援軍)에 대한 회담을 하고, 6월 16일에는 통태정(修泰正)과 함께 탕참(湯站)에 가서 장군 사유(史儒)에게 원병을 청했다. 그리고 18일에는 명나라 부총병 조승훈(祖承訓)과 원병에 대한 협의를 하고, 7월 2일에는 선조임금을 수행하여 명나라 사신과 회담을 하고, 4일에는 명나라 사신 사번(篩蕃)과 회담, 7일에는 명나라 총병(摠兵) 양소훈(楊紹勳)을 의주에서 맞이하여 원군에 대한 전반문제를 기탄없이 논의하고 적극적인 요청을 했다. 7월 11일에는 탕참(湯站)에 가서 양소훈과 원병(援兵) 수에 대한 회담을 하고, 8월 2일에는 적강(狄江)에서 통태정과 청병에 관한 회담을 하고, 7일에는 중로(中路)에서 명나라 유격대장 침유경(沈惟敬)과 회담을 하고, 우리의 충정을 호소했다. 요동으로 건너가 총병(摠兵) 사대수(查大受)와 원병문제를 논의하고 계속해서 9월 8일에는 명나라 유격대장 심유경에게 원병 7만을 속히 도강시킬 것을 요청했다. 9월 21일에는 협강(夾江)에서 명의 참장 낙상지(駱尙志)와 회견하고 진병에 대한 밀담을 하였고, 10월 4일에는 낙상지와 총병 통태정이 도강하여 의주에서 밀담을 하였으며, 10월 5일에는 요동으로 건너가 15일에 귀환하였는데 명나라 제독 이여송(李如松)이 파견 된다는 사실을 임금에게 보고했다. 그리고 10월 말에 다시 요동에 건너가 병부시랑(兵部侍郎) 송응창(宋應昌) 외에 여러 장성과 회담을 거듭하여 급속한 내원을 요청했다. 12월 3일 4일에 걸쳐 의주에서 유격 심유경(沈惟敬)과 회담, 명·일(明·日) 강화의 무익함을 역설하고 반대했다. 그리고 10일부터 시작하여 14일까지 며칠에 걸쳐 요동의 도사(都司) 장삼곤(張三昆) 등과 전략에 대한 밀담을 하며 원병에 대하여 모든 대책을 논의하였다. 12월 21일에는 조선 출병의 총책임자인 병부시랑(兵部侍郎) 송응창(宋應昌)이 내도하고, 25일에는 제독 이여송(李如松)이 대군을 인솔하고 도강함으로써 그간의 원병에 대한 모든 노력이 성과를 거두게 되어 큰 환성

이 하늘을 진동시키었다.

그런데 제독 이여송(李如松)이 선조 26년 정월 27일 벽제관 전투에서 패하고 평양까지 후퇴하여 요동의 송응창을 만나 진군을 요청하였고, 그해 3월 7일에는 왕(王)을 수행하여 이여송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속히 진병을 요청했다. 그리고 그 해 3월 26일과 4월 4일은 송응창에게 명일 강화의 반대를 역설하고, 5월 7일에는 명나라 사신 호정(胡淨)의 제의인 일본의 봉공(封貢) 문제를 거부하고, 5월 27일 28일에는 안주(安州)에서 송응창과 회담을 하고, 6월 6일 7일 9일 10일에는 제반 문제에 대해서 송응창과 협의를 거듭하여 일본군의 완전철수를 요망했다. 7월 3일, 7월 5일에는 송응창과 강화에 대한 논의를 했다. 그리고 8월 4일에는 송응창과 협의하여 명(明)군의 유병(留兵)을 재삼 확인하고, 8월 12일에는 송응창의 요동귀환을 만류시켰는데, 10월 6일에는 송응창과 동행하여 요동에 건너가 제반사를 논의하고 돌아왔다. 이때 부산을 왜지(倭地)로 한다는 낭설을 극렬 변명했다.

선조 27년 5월 7일에는 명나라 사신 호정(胡淨)과 회담하고, 8월 20일에는 세자책봉 주청사로서 요동을 경유하여 명나라 연경(燕京)에 갔다가 선조 28년 3월 27일 귀환하였는데 백관들의 영접을 받았다. 그리고 4월 7일에는 유격 심유경(沈惟敬)이 고니시(小西行長)를 회유시키기 위하여 일본군 진영에 동행하자는 것을 거절했는데, 그 후 심유경의 강요로 도원수 권울(權慄)의 진중까지 동행을 하는 등 전란 중 실 날 없이 연속적인 외교활동을 전개했다.

이상 말한 것을 종합하여 보면,

명나라 사신과의 회담이 네 차례, 명나라의 장성급과의 회담이 21회, 특히 조선출병 총책 송응창과의 회담이 20여 차례이고, 제독 이여송과의 접촉도 세 차례에 달할 뿐만 아니라 북경 왕래가 두 차례, 광녕(廣寧)에 세 차례, 요동(遼東) 왕래가 6차례나 되는 등 눈부신 외교전을 전개하여 임진왜란을 승리의 길로 이끌게 된 것이다.

1608년(광해군 즉위년) 선조가 죽자 왕의 묘호를 조(祖)로 칭할 것을 주장하여 이를 실현시켰다. 광해군의 세자 책봉을 적극 주청한 덕에 광해군 집권 초반 서인들 중 상당수가 숙청당했는데도 그와 그의 아들들, 서자들은 계속 관직에 있을

수 있었다. 광해군 즉위 초반에는 원로대신으로 조정에 참여할 수 있었다. 1610년 기로소에 들어갔다. 윤근수는 관료생활 중에도 퇴청 후에는 서당을 열고 후학을 가르쳤고, 만년에도 후학 양성과 시문으로 소일 하였다. 그의 문하에서는 포저(浦渚) 조익(趙翼) 등이 배출되었다.

윤근수는 자신의 모든 능력과 열정을 나라에 바친 반면, 실생활에 있어서는 넉넉하지 못하였다. 나라에서 내리는 녹봉으로 겨우 생활을 영위하였을 뿐만 아니라 허영을 절대로 배격하였다. 이것으로 윤근수가 얼마나 근검(勤儉), 청백한 생활 철학의 소유자 였는지를 가름해 볼 수 있다.

그 한 예로 80노경에 이르러 임금께서 궤장(几杖)을 하사 하는 것을 받지 않았다. 궤장이야말로 충신에게 내리는 최대의 예우다. 그러나 윤근수는 이를 굳이 사양했다. 그 이유는 모든 허영을 배격하는 청렴 정신의 발로이다. 윤근수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항상 공손하고 검박함을 즐겨하며 청백을 신조로 하는 생활 철학을 가진 인물로, 집에서 식사를 할 때에도 여러 찬을 놓지 않았으며, 손님에게도 마찬가지로 대접 했다. 임진왜란 이후에는 저택마저도 마련 못하다가, 형 오음 공이 자금을 도와주어 집을 마련했다고 한다. 이야말로 보기 드문 청백리로서 만백성의 규범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광해군 8년(1616) 8월 초 우연히 득병하여, 임금께서 시의(侍醫)를 파견하여 치료에 임하였지만 끝내 일어나지 못하고 8월 20일 80세를 일기로 서거하였다. 부음이 전해지자 임금께서는 조회를 이틀간 철폐하고, 예관을 보내어 많은 부의와 사제를 내리어 장례를 치르게 했다. 이 부음이 세상에 전해지자 위로는 임금으로부터 천민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탄식을 하며 “어진 재상이 세상을 떠났다.”며 애도의 뜻을 표하였다. 후일 영의정에 추서 되었으며 시(諡)는 문정(文貞)으로 증시되었다.

다음은 《광해군일기》에 수록된 윤근수의 졸기(卒記)이다.

사람됨이 청백(清白) 간솔(簡率)하고 문장이 고아(古雅)하며, 필법이 굳세고 힘찼다. 추대되어 예원(藝苑)의 종장(宗匠)이 되었고, 평생을 선비들과 지내며 선행을 좋아하고 후진을 도와주기를 좋아했다. 중국 사신을 맞아 일을 잘 처리하여 명예로운

명성이 매우 드러났다. 젊었을 때부터 청고한 의논을 견지하여 청직(淸職)과 현직(顯職)을 두루 거쳤고, 만년에는 문사(文史)로 혼자 즐기면서 교유에 뜻을 끊고 지냈다. 재능 있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시골구석이라도 반드시 찾아보았고 광국(光國)공신과 호성(扈聖)공신에 책록 되었다. 나라의 중요한 지위에 있는 지 30년이 지났지만 집안이 청빈하고 깨끗하며 마치 한미한 선비처럼 생활했다. 나이 여든에 세상을 떠나자 왕이 의원을 보내어 병환을 묻고 장례를 예에 따라 치르게 했다. 인조반정 이후 문정(文貞)이란 시호를 하사했다.



### 윤근수 사당(양주시 향토유적 제16호)

현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776-2에 위치한 윤근수 사당은 원래 사당이 소실되어 주춧돌만 남아 있던 것을 1990년 10월에 다시 지은 것이다. 삼문의 솟을대문에는 태극 문양이 그려져 있고 대문 좌우로 붉은 벽돌담이 둘러져 있다. 공의 시호를 딴 '문정문'이란 현판이 걸려 있는 삼문을 지나면 본당인 사당이 위치하고 있다. 사당은 정면 4칸, 측면 3칸 규모의 팔작 지붕으로 건축되었다. 현판에는 공의 호를 따 '월정사'라 하였다.

[저서 (著書)]

- 《월정집(月汀集)》
- 《월정만필(月汀漫筆)》
- 《사서토석(四書吐釋)》
- 《조천록(朝天錄)》
- 《한문질의(漢文質疑)》
- 《경조창수(京朝唱酬)》

[역사서 (편집)]

- 《마한사초(馬漢史抄)》

[향토지 (편집)]

- 《송도지(松都志)》

[작 품]

- 윤감정변묘갈(尹監正忤墓碣) / 장단
- 이판서윤경묘비(李判書潤慶墓碑) / 양주
- 윤연령부인박씨갈(尹延齡夫人朴氏碣) / 상주
- 윤연령부인박씨갈(尹延齡夫人朴氏碣) / 장단

월정집(月汀集)

月汀先生集朝天錄(월정선생집조천록)

- |                  |                                       |
|------------------|---------------------------------------|
| 十日遼陽鬢欲華(십일요양빈욕화) | 열흘 요양 길에 귀밑머리 세려 하는데                  |
| 懶從牆外聽琵琶(나종장외청비파) | 나른하게 담밖에서 들려오는<br>비파 소리를 듣고 있다        |
| 閑愁滿眼無人問(한수만안무인문) | 한가한 시름이 눈에 가득하나<br>(어떠냐고) 물어 줄 사람 없으니 |
| 看到歸鴉閃暮霞(간도귀아섬모하) | 저녁놀 속에 언뜻언뜻 돌아오는<br>갈가마귀를 보노라         |

[ 시(詩) ]

奉送李參判以陳奏副使如京(봉송이참판이진주부사여경)  
진주부사로 연경에 가는 이참판을 전송하다

文章詞命富波瀾(문장사명부파란)	문장과 외교사령은 파도처럼 풍부하고
妙歲奇才競改觀(묘세기재경개관)	젊은 시절 뛰어난 재주는 다투어 다시 보았네
紫氣忽勝幽蔬遠(자기홀승유소원)	자줏빛 기운은 문득 머나먼 유주와 계주에 홀연히 피어오르고
黑貂應蔽雪霜寒(흑초응폐설상한)	검은 표범 가죽은 차가운 눈서리에 응당 찢어지리라
日臨周道明無外(일림주도명무외)	태양은 넓은 길에 임해 끝없이 밝고
謗似中山辨詎難(방사중산변거난)	모함은 중산과 같으나 큰 어려움을 해결하리라
侍得鴨江施使節(시득압강시사절)	압록강에서 돌아오는 사절단을 기다릴 테니
南枝鳥鵲當俱安(남지조작당구안)	남쪽 가지에 앉은 까막까치는 모두 평안하길

送義嚴上人還金剛山(송의암상인환금강산)  
금강산으로 돌아가는 의암상인을 보내며

飄然杖錫去如飛(표연장석거여비)	표연히 지팡이 짚고 나는 듯이 떠나는데
坐廳鐘聲出翠薇(좌청종성출취미)	(나는)앉아서 종소리를 듣고 있고 (그대는)취미대를 나서네
更上毗盧山頂望(갱상비로산정망)	다시 비로봉에 올라 산정에서 바라보니
南天空闊曉嵐微(남천공활효람미)	남쪽 하늘은 드높고 새벽 산기운이 흐릿하게 끼었네

[ 참고문헌 ]

- 《명종실록(明宗實錄)》  
《신조실록(宣祖實錄)》  
《광해군일기(光海君日記)》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  
《조선사(朝鮮史)》  
《해평윤씨인맥(海平尹氏人脈)》  
《국역 월정집·월정 윤근수 연구》  
《월정집(月汀集)》

여 백

동두천



강명(剛明) 청절(淸節)의 명성(名聲) 높았던  
화곡(禾谷) 정사호(鄭賜湖) 공(公) 전기(傳記)

鄭琦鎬 | 사단법인 한국어문화 명예이사장

# 延城大捷碑

昔在萬曆辛卯 上謂羣臣曰日本國亦吾疆海內諸島皆其屬若我統帥天啓慶自領出不通語其族語焉遂折其母好再其明年庚戌人  
 走呼有寇來來踏釜我乘騎而涉湖而馳而馳腹內持順之爾遂天啓我自臨時則有若李統帥臣以舟師拒關山挫其鋒上有若金即慶時敵以孤軍  
 平陽抗難而引有若李招討廷說以我撥守延安魯忠毅前有若精元師東以南軍鎮平州擊其後命 天朝大將軍李提督如松提督五萬禁設軍機  
 生勇張五萬將有以能復我三原非金八路 天子忠之良 勳勳金有差是天下將救者感一會言曰武夫戰勇獨若區而而而後十三年也 上於  
 輔帥實又後四年成申延安久許所以戰則垂永者東國結金歸不可謹按故領意大夫知中拒有事 始勳忠仗義協力宜武功臣當政大夫議政當由  
 成惠判我軍府事 世子武師知 舒廷春秋館成均館書月 君子云謹廷德宇 仲章敦高史官奏議時 王上西巡以公為廷察前守關城守忠本  
 命留鎮之廷察充與兄同守及臨津師帶公擢形便為分守守以庚申八月二十二日至延安府中長傑有未德開關光庭寄張健百餘里自心前思慮在本  
 土包圍活我公笑曰吾今日得死西矣即入城察得五百餘人提補以勒之曰略能為我當回門鑄時坐甲發即使賊不敢近城時管我城或言  
 隨才部分說聚議於墩利奎孫傷老幼趨事有能言職一十八日賊首長政劫掠殺信者那攻隨城外以兵三千餘人與江陰之賊悉銳而來城中已廢有欲  
 出陣計者公曰我欲與各底約同死生陷民自濟巧不也及陣甚者在負賊城不攻物也一軍感願死守日既具賊進圍三面俄有一賊即周城外營  
 而過勢益振甚門將雖使一前洞奇而死成氣死石不也輕出別將西城以將下賊城中以砲神之則亂投人皆因中多草草入營心內難入及回風大  
 起烟燭外層射無奈何俄頃舍城墮地士陵城軍內城附之少知不可為力生結勢我其子皆曰城陷可自焚則者成漁一力別發免如是身凡四  
 日賊亦死傷過半是夜即賊已死屍屍盡矣之望朝乃解圍去我軍僅斬一十八級亦生向九十餘匹軍糧一百三十餘石 朔連關公被圍上下受在及  
 捷至只言賊以其日開城以某日解去一無狀望 語計者感言却賊功充箱 上特加 勳善為本道都巡察使文武將官皆聽公前制營將諸將  
 有差公之在兵 申閩西徐龍騰除亦持重兵撥營到營黃連徑在除危勳前直趨關西長政始解海濱放兵四劫南路阻公一戰而可善將諸將  
 滿汗自戰勢不敢近公城下海西十三州皆復為我有二南勳 王之土由牙山江餘渡龍同達 衍在泰開有路無礙之力也公慶州人與余同  
 自出捐者事十八日申厚二十一明經及第武成郡邑民呼召壯及常餘備世期姚宋餘事文章亦多鳴世不幸亂亂功也疏勳并見中書冊并竹樓餘數  
 尊軍前 元祀恩直和先事戰無止戰金忠孝內有大武臣人如公定維大夫 聖功臣大匡輔國寺被大夫議政府左議政兼領 徑監監奏教節事 世子傳授城府院君李國福  
 推恩 勳善 勳忠 勳勇 勳誠 勳協 勳榮 勳 聖功臣大匡輔國寺被大夫議政府左議政兼領 徑監監奏教節事 世子傳授城府院君李國福

萬曆三十六年五月 日 大 軍 行 大 砲 司 衛 上 詳 軍 大 知 司 製 金 尚 書 監

## 연성대첩비 탁본

화곡의 필적을 확인할 수 있는 연성대첩비(延城大捷碑)는 이항복의 글, 화곡의 글씨, 김상응 전(篆)으로 세운 이정암의 왜란대첩비로 북관대첩비(北關大捷碑)만큼이나 유명한 비다.

# 강명(剛明) 청절(淸節)의 명성(名聲) 높았던 화곡(禾谷) 정사호(鄭賜湖) 공(公) 전기(傳記)

鄭琦鎬 | 사단법인 한국어문회 명예이사장



## 1. 《화곡집(禾谷集)》 서(序)

정사호(鄭賜湖) 공(公)은 조선 명종 8년(1553)에 나서 광해군 8년(1616) 64세로 돌아갔다. 본관 광주(光州) 자(字) 몽여(夢與) 호(號) 화곡(禾谷). 다른 호는 없으며 만년에 오고간 시문(詩文) 서간(書簡) 등에서 친지들은 화옹(禾翁)이라고 많이 불렀다.(본고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화곡(禾谷)으로 쓴다.) 공이 돌아가고 150년 가까이 지난 영조 38년(1762)에 충민(忠敏)이란 시호(諡號)를 내려 문중 후손들은 충민공(忠敏公)이라 한다.

15세 된 1567년 6월 명종이 재위 22년으로 승하하고 선조가 즉위한다(음력으로 기록된 자료에 따라 한국 셈법의 연령(年齡)을 쓴다.). 선조 6년(1573)에 생원(生員) 진사(進士) 양장(兩場) 합격하고 25세 선조 10년(1577) 별시문과(別試文科) 병과(丙科)로 등제(登第), 승문원(承文院)에 선입(選入)된 이후 재위(在位) 41년의 긴 선조 시대, 내·외직을 역천(歷踐)하면서 강명(剛明) 청절(淸節)의 명성을 떨쳤으며 혼조(昏朝)라 하는 광해군 시대 오로지 충군(忠君) 애국(愛國)으로 기강을 바로 세우는데 힘쓰다 광해군 7년(1615) 형조판서(刑曹判書)를 마지막으로 물러나 청주 화곡(지명)에 병복(屏伏, 세상을 피해서 숨어 삶), 이듬해 1616년 돌아가니 금년(今年) 2016년 공이 돌아간 지 꼭 400년이다.

400년, 화곡(禾谷)은 조선중기 명현(明賢)으로 칭송되어 왔다. 판서로 벼슬은 끝났으니 정1품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에 오르지는 못했다(물론 판서도 지금의 장관격의 높은 벼슬이기는 하다.). 그러나 반드시 상공(相公)이어야 명현(明賢)인 것은 아니다. 화곡(禾谷)과 같은 시대 이이첨(李爾瞻) 정인홍(鄭仁弘) 등은 재상이었지만 명현(明賢)이라 하는 사람은 없다. 퇴계(退溪) 율곡(栗谷)은 상공(相公)

은 아니었지만 조선 명현의 대표다. 화곡(禾谷)이 명현(明賢)으로 칭송되는 것은 아마도 그의 학문, 문장과 서(書)·교유(交遊)·성경(誠敬)으로 일관한 이직(莅職)의 공적과 가도(家道)에 바탕한 인물 성격 등의 공동 종합 평가에서 아닌가 생각된다.

화곡(禾谷)은 어떤 인물이었으며 어떻게 평생을 살아 명현(明賢)으로 숭앙되는가를 살피고 정리하는데 제일의 자료는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이하 《실록(實錄)》)이 있다. 근래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발행한 활자본 마지막 제48권 뒤의 ‘총색인’에 보면 ‘정사호(鄭賜湖)’는 《선조실록(宣祖實錄)》 권 16, 15년 6월 갑오(甲午)에서, 《광해군일기(光海君日記)》 권 92, 7월 갑자(甲子)까지 89회가 보인다. 89는 나타나는 페이지 수다. 한 페이지에 거듭 나타나기도 하니 나타나는 이름의 빈도는 훨씬 높을 것이다. 90이라 하더라도 《실록(實錄)》의 그 출현 수가 그렇게 단순한 것은 아니다. 《실록(實錄)》에서 90회 이상 나타나는 인명의 수를 헤아려 보기는 쉬운 일 아니지만 정씨(鄭氏)만을 살펴보면 대략 2,500명 정도, 그 가운데 90회 이상 나타나는 인명(人名)이 50명 쯤 되니 0.5%이다. 물론 정씨(鄭氏)만을 대상으로 논의 할 수는 없으나 실록에 나타나는 인명 빈도의 대략은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안다.

이 《실록(實錄)》에 적힌 사실은 33년 간 정7품 승정원주서(承政院注書)에서 정2품 형조판서(刑曹判書)에 이르기까지의 관직의 임면(任免)과 교체(交遞)를 비롯해 계(啓) 차(劄) 소(疏) 등으로 나타나는 직무 수행의 모든 움직임이다. 한 왕조의 체제 속에서 그 체제를 지탱하는 엘리트의 공생활(公生活)의 총체인 것이다. 이 밖에 인조 때의 이름난 유학자이며 임진란 때 의병장으로 활약한 조정남(趙慶男) 편찬의 《난중잡록(亂中雜錄)》, 순조 때 돌아간 대학자 이긍익(李肯翊) 편찬의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등 야사의 몇 줄이 공기록(公記錄)에 나타나지 않은 화곡(禾谷)의 인물과 성격의 편모를 말해주고 있으나 자료로서 《실록(實錄)》에 견줄 바는 아니다.

국가라는 기구 속 구성원으로서의 동향(動向)을 기록한 것이 《실록(實錄)》이라면, 이와 달리 개인을 구심점으로 혈연 학연 등을 띠(帶)로 한 생각, 느낌, 사회적 인간관계의 모든 체험(體驗)이 나타나는 것이 개인 문집내용이다. 《실록(實錄)》이 외적 자료라면 문집은 내적 자료라 할 것이다. 개인의 시(詩) 부(賦) 각 형

태의 문을 비롯해 계(啓) 사(辭) 소(疏) 차(筴)는 물론 서(書) 서(序) 발(跋)에 본인이 지은 다른 사람의 행장(行狀) 비명(碑銘) 그리고 다른 사람이 지은 본인의 비문(碑文) 행장(行狀) 같은 모든 글이 수록된다. ‘사후문장(死後文章)’이라 하니 그래서 조선조 지식인은 누구나 죽으면 곧 후손들이 문집을 편찬 간행하였다. 조선조 출판물의 태반이 문집이라는 통계도 있다.

화곡(禾谷) 문집에 《화곡집(禾谷集)》이 있다. 첫 페이지에 “세무술(歲戊戌)맹동일(孟冬日)대광보국(大匡輔國)승록대부(崇祿大夫)치사(致仕)봉조하(奉朝賀)송근수(宋近洙)서(序)”가 있다. 송근수(宋近洙)는 순조(純祖) 18년(1818)에 나서 고종 광무 7년(1903)까지 살았으며, 정1품 품계로 치사(致仕), 나이가 많아 벼슬을 사양하고 물러남 봉조하(奉朝賀, 의식 있을 때만 참여하고 녹봉받는 벼슬)하고 있을 때 쓴 것이니 ‘세무술(歲戊戌)’은 송근수(宋近洙) 만년 1898년 화곡(禾谷) 돌아가고 282년 뒤에 비로소 나온 문집임을 알게 한다. 화곡(禾谷)의 유문(遺文) 거의 산실(散失)되어 잔편(殘編) 얼마 되지 않는 알팍한 《화곡집(禾谷集)》에서 무엇보다 3백년의 긴 시간의 공백을 생각하지만(자세한 것은 뒤에 적음) 그러나 “곤산(崑山) 편옥(片玉)이 꼭 많아서 귀한가 - (序)에서” 《실록(實錄)》의 기록들과 종합되어 화곡(禾谷)의 명현(明賢)됨을 알아보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료다.

“나라 인물의 성황(盛況)이 선조 시대만한 때는 없었는데 화곡(禾谷) 정충민공(鄭忠敏公)은 그 때에 나시어...” 《화곡집(禾谷集)》 서는 이렇게 시작된다. 그리고 “일찍 과거에 올라 중외의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문한(文翰) 재서(才諳)로 일대(一代) 명인들 사이 추중(推重)되었는데 그 중에도 백사(白沙) 이항복(李恒福), 월사(月沙) 이정구(李廷龜), 상촌(象村) 신희(申欽), 추포(秋浦) 황신(黃愼) 제공(諸公)과 더불어 막역(莫逆)했다.”고 화곡(禾谷)의 ‘인물’을 기술하며 “벼슬 40년 애군(愛君) 우국(憂國)이 하루 같아 형조판서(刑曹判書)에 이르렀다.” 하고 이어 화곡문집(禾谷文集)의 의의를 적은 뒤 마지막으로 화곡(禾谷)이 청명(淸明) 직절(直節)로 당대에 이름 높았던 광주정씨(光州鄭氏)라고 끝맺는다.

《왕조실록(王朝實錄)》과 더불어 화곡 전기의 기본자료인 《화곡집(禾谷集)》 서는 화곡(禾谷)의 화곡(禾谷)됨 소이위화곡(所以爲禾谷)을 집약한다.

## 2. 화곡(禾谷)의 선계(先系)

화곡(禾谷)은 어느 계기에 돌연히 출세하여 ‘명(名)’을 이룬 풍운아가 아니라 《화곡집(禾谷集)》 서(序)에도 기술되어 있는 바와 같이 청명(淸明) 직절(直節)로 이름 높은 광주정씨(光州鄭氏)의 9세로 1세 시조(始祖)의 8대손이다.

시조의 휘(諱) 신호(臣虬). 고려 말 봉은사(奉恩寺) 진전직(眞殿直)이었다는 가보(家譜)의 6자밖에 부모가 누구라든가 언제 출생해서 언제 돌아갔다가 어떤 인물이었다든가 어떻게 해서 시조가 되었다든가 하는 기록은 전혀 없다. 봉은사는 태조 왕건의 진영(眞影)을 모신 불교국 수도 개성의 국찰(國刹)이었다. 일찍이 소실(燒失)되어 없어졌지만 그 국찰의 진전(眞殿)의 ‘직(直)’이었다면 아마도 왕가와 매우 끈끈한 인연의 귀족이 아니었을까 짐작해 볼 수 있을 뿐이다. 돌아간 뒤 삼중대광(三重大匡) 문하찬성사(門下贊成事) 판판도사사(判版圖司事)에 추증되었다 한다. 고려 멸망과 함께 광주정씨(光州鄭氏)의 시조가 된 듯하다.

2세 휘(諱) 윤부(允孚). 양촌(陽村) 권근(權近, 1352~1409)의 《양촌집(陽村集)》 속 홍무(洪武) 23년 9월 추(秋)라는 일기(日記)가 붙어 있는 ‘용안성조전기(龍安城漕轉記)’에 “전개성윤정윤부전판사나진감영산지축(前開城尹鄭允孚前判事羅璉監榮山之築)”이라 보인다. 홍무(洪武)가 1368년 개원(改元)한 명(明)의 연호(年號)이니 23년이면 1390년 고려말 우왕(禑王) 2년, 그때 이미 개성부윤(開城府尹)을 지내고 나주에 내려와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고려 수도 개성시장이었다니 지체 높은 집안이었음은 틀림없다. 그러나 시조 2세 양대(兩代)는 묘소도 없고 이밖에 전신(傳信)도 없어 자세한 사실은 전혀 알 수가 없다.

2세 윤부(允孚) 2남이 이으니 맏이 휘(諱) 인진(麟晉), 다음 휘(諱) 구진(龜晉). 구진공(龜晉公)이 화곡의 6대조이다. 《고려사(高麗史)》 권 제28, 선거(選舉) 2 우왕 8년 5월 “취정구진등생원일백인(取鄭龜晉等生員一百人)…”이라고 있다. 고려 과거(선거)는 생원 진사시 뿐이었고 그것이 조선조에서와 같이 문과의 자격시험은 아니었다. 그 과거에서 첫 머리 이름이 오르는 것은 장원 합격임을 말한다. 조선조에서 사헌부집의(司憲府執義), 대사간(大司諫), 대사성(大司成), 강원도관찰사(江原道觀察使)를 지냈으며 문장으로 이름 높았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광산현(光山縣) ‘인물’에 이름이 올라있고 남원부(南原府) ‘제영(題詠)’에 부사

(府使) 때의 시(詩)가, 평창군 '제영(題詠)'에 관찰사 때 객사에서 지은 시가 소개되어 있다. 구진공(龜晉公)이 역사적 인물로 기록되면서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시조.(中) 2세가 되는 광주정씨(光州鄭氏) 일족이 출발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구진공(龜晉公) 장남 휘(諱) 지당(之唐), 태종 5년 5월 복시(覆試)에 제3인으로 합격하니 광주정씨(光州鄭氏) 조선조 첫 문과다. 곧 군사감직장(軍資監直長)으로 임명되었는데 10년 뒤인 태종 15년 5월 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 정4품) 때 올린 소(疏)가 태종의 뜻을 거스른 바 되어 문외출송(門外黜送), 그 뒤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다. 대간(臺諫)들 소(疏)로 인해서 파직되는 일이 많은데 보통 곧 복직된다. 그런데 지당공(之唐公)은 한번 파직되고는 다시는 벼슬길에 돌아오지 않았다. 광주정씨(光州鄭氏)의 기개를 본다. 무후(無後). 일녀 고성(固城) 이질(李堉)에 출가했는데 광주 본향으로 내려가 일생을 마친 아버지 지당공(之唐公) 시봉(侍奉) 한듯 근래(近來) 나타난 비문에 그런 시사(示唆)가 있다.

화곡은 구진공(龜晉公) 차남 휘(諱) 지하(之夏)의 5대손이다. 진사(進士)였던 지하공(之夏公) 학행(學行)으로 천거되어 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에 올랐다. 세조 원년 정난(靖難)의 마무리인 듯 모든 관료에게 서훈하니 공도 좌익공신(佐翼功臣)에 자리했다. 구진공(龜晉公)과 지당(之唐)·지하(之夏) 2남의 묘는 양주 천천(泉川, 샘내)에 있다. 시조와 2세의 묘를 잃은 광주정씨(光州鄭氏) 경파(京派) 문중의 상조 묘다.

지하공(之夏公)은 조우(祖禹)·종우(宗禹)·계우(繼禹)·찬우(纘禹) 등 4남을 두시니 현(現) 구진공(龜晉公) 문중은 이 4남의 후손들이다. 이 4남 가운데 제4남 휘(諱) 찬우(纘禹) 곧 화곡의 고조이시다. 과제(科第)의 기록은 없으나 《실록》에 김제군수(金堤郡守)로 부임하신 기사가 보이고 가보에는 청도군수(淸道郡守)를 지내셨으며 찬성(贊成) 추증(追贈) 되셨다고 했다.

공의 배위(配位) 동래(東萊) 정자순(鄭子順) 여(女) 봉원군(蓬原君) 양도공(良度公) 양생(良生)의 증손녀(曾孫女). 여류시인으로 이제신(李濟臣)의 <청강시화(淸江詩話)>에 작품과 함께 상세한 소개가 있다. 3남 5녀를 기르셨는데 장남이 화곡의 증조이신 휘(諱) 순인(純仁), 성종 14년(1483) 식년(式年) 진사시(進士試) 3등, 아산현감(牙山縣監)을 지내셨다. 진주유양(晉州柳壤)의 사위이시니 처남이 중정반정 1등 공신 영의정 유순정(柳順汀). 연산 4년 중종묘정에 배향(配享)된 명문

가다. 차남 휘(諱) 인인(麟仁), 연산 4년(1498) 식년문과(式年文科) 장원으로 야사류(野史類)에서는 이름대신 정장원(鄭壯元)으로 칭한 당대의 수재였다. 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 홍문관전한(弘文館典翰) 등 대간(臺諫)으로 또 경연관(經筵官)으로 연산의 폭정을 제어하다 갑자사화(甲子士禍)에 ‘능상멸주(凌上蔑主)’ 죄로 처형되셨다. 중종반정으로 복작(復爵), 참판(參判)에 추증(追贈)되시니 고(考) 찬우공(欒禹公) 찬참(參贊) 추증은 이에 따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제 삼남 휘(諱) 후인(厚仁) 무후(無后). 장녀 창원군(昌原君) 성(晟)에게 출가. 부(父) 덕진군(德津君) 활(濊) 조(祖) 세조대왕. 차녀 성종 25년(1494) 별시문과 장원인 청주한훈(淸州韓訓)에게 출가. 고려 말 조부 구진공(龜晉公), 백부 지당공(之唐公)(제3인이라는 것도 갑과)에 차남 사위까지 과거 장원들의 집안이다. 한훈(韓訓)도 갑자사화(甲子士禍)에 피해. 제3녀 뒤에 영의정을 지낸 구성군(龜城君) 준(浚)에게 출가. 부 임영대군(臨瀛大君) 구(瑬). 제4녀 구산군(龜山君) 계남(繼男)에게 출가. 부(父) 부원군(富原君) 진(鎭). 양녕대군(讓寧大君) 지(禔) 증손. 제5녀 화산군(花山君)에게 출가. 부 태종 제10남 희령군(熙寧君).

5녀 중 1녀가 문과 장원에게 가고 그 밖의 4녀는 모두 왕가 며느리로 갔다. 보통 인연으로는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다. 왕손들에게 출가한 것은 찬우공(欒禹公) 따님들만이 아니라 4형제 가운데 제1 조우공(祖禹公) 2녀 중 1녀, 제2 종우공(宗禹公) 1녀 제3 계우공(繼禹公) 2녀 중 1녀도 효령대군(孝寧大君)가(家) 태종 12남 익녕군(益寧君)가(家)로 들어갔으니 광주정씨(光州鄭氏) 구진공가(龜晉公家)와 조선 초 왕가와와의 관계가 어떠했는가를, 광주정씨(光州鄭氏)의 가(家)격(家格)이 어떠했는가를 생각하게 된다. 조선조로 넘어선 고려 왕씨 측근 가문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

화곡의 조부 휘(諱) 경(敬). 《사마방목(司馬榜目)》에 보면 중종 8년(1513) 식년(式年) 진사시 합격, 거주지는 ‘경(京)’이었다. 그러나 진사가 되고서 곧 춘천 소양강 가로 내려가 유유자적 동료들의 부러움을 샀다. 외숙 유순정(柳順汀) 그 밖의 많은 왕족 고모부들이 출사를 강권했으나 그것을 불쾌하게 생각하고 만나지도 않았다고 후대 비문에 적혀 있다. 묘소가 춘천 서면(西面)에 있다.

경공(敬公) 장남 휘(諱) 이우(以虞). “아버지 은거하여 벼슬을 아니 하셨는데 아들이 어찌 나아가랴” 하고 경공(敬公) 따라 소양강변에 은거 평생을 보냈으나

차남 휘(諱) 이주(以周)는 경(京)에 남아 성균관(成均館) 유생으로 생원·진사. 명종 13년(1558) 식년(式年) 문과에 갑과 제3인으로 등제(登第)하니 곧 화곡 선고(先考)이시다. 갑과 3인도 장원이라 한다. 호(號) 성재(醒齋). 등과(登科)하고 의영고직장(義盈庫直長)에 임명되었다가 몇 달 뒤 7품직 예문관검열(藝文館檢閱)로 옮겼는데 이런 승진은 조선조에서 두 번째라고 신도비에 적혀 있다.

성재공은 기호(畿湖) 학자 그룹 속에서 매우 높이 평가되었고 서로의 사귀어 깊었다. 대사성 초당(草堂) 허엽(許曄)이 공과 함께 글을 읽다가 “세상에 이렇게 큰 선비 있는 줄 처음 알았다.”고 찬탄했다는 말은 널리 알려져 있으며 조선 사대 문장(四大文章)의 한 사람으로 일컬어지는 장유(張維)의 《계곡만필(谿谷漫筆)》에는 공이 율곡과 한 동아리였다는 일화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 율곡이 입산했을 때 혹은 머리를 깎았다하기도 하고 혹은 아니라 하기도 한다. … 김장생(金長生)은 “낙발(落髮)한 것 같기도 하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 하면서 김현성(金玄成)은 “율곡이 산에서 내려온 지 얼마 뒤 과거에 응시하려고 서울로 들어왔기에 가보니 … 여러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빗고 있었는데 머리길이가 땅에 끌리어 … 머리를 깎았다가 기른 사람이라면 결코 이같이 길 수가 없는 것이다.”고 하였고 정이주(鄭以周)도 “율곡이 산에서 내려왔을 때 함께 하룻밤 같이 잤는데 상투 크기가 주먹 같았으니 세상에 전하는 낙발설은 헛된 말이다.” 하였다. 김장생은 비록 율곡문하에서 친히 배웠으나 엄하여 감히 입산 때의 일을 물어보지 못하고 다만 세속에 유전되는 말을 듣고 그렇게 믿은 것이었고 김현성(金玄成) 정이주(鄭以周) 두 분은 모두 율곡과 더불어 가까이 사귀어 벗으로 모두 망언할 사람이 아니었으니 그 말이 가히 믿을 만하다.

신도비 끝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공의 시대 사회를 겪은 뒤라 좀처럼 이학(理學) 공부를 하려드는 사람 없었는데 공은 발분(發憤) 망식(忘食) 연구를 거듭하여 《대학장구(大學章句)》, 《근사록(近思錄)》 같은 성리서(性理書)에 매우 조예가 깊었다.



화곡 정사호 신도비

공(工)·형(刑)·예(禮) 삼조(三曹) 좌랑(佐郎)을 지내고 성절사(聖節使) 서장관(書狀官)으로 북경에 다녀왔는데 돌아올 때 행낭에 중국 향(香) 한 가지, 책 한 권이 없었다 한다. 정언(正言) 세 번, 지평(持平) 세 번, 장령(掌令) 여섯 번 발령을 받아 기강(紀綱) 언론(言論)의 책임을 조정이 공에게만 지운다고 들었다. 한번은 외척 한 사람이 등과(登科)했다고 임금이 친임(親臨)하여 창명(唱名, 이름 불러 인사시킴)하는데 대소신료(大小臣僚)들이 다투어 나아가 절을 하여 뒷자리가 빌지 경이 되어도 공만 선채로 움직이지 않아 이로써 상의 마음에 거슬리어 평안도사(平安都事)로 쫓겨나기도 했다. 그러나 곧 다시 대간(臺諫)으로 돌아왔다. 단엄(端嚴) 간묵(簡默)하여 친구 사이에서도 농담하는 일이 없었으며 공의 웃는 모습 한 번 보기를 금옥보다 더 소중하게 알았다 한다. 강직(剛直)으로 일관하여 권신(權臣)들의 미움을 받아 정주목사(定州牧使)로 나갔다가 직을 마치고 선고(先考) 백씨(伯氏)가 은거했던 춘천 ‘오두막’으로 돌아갔다. 신흠(申欽)이 지은 묘지에 이런 말이 있다.

… 벼슬을 내놓고 돌아 갈 때 새로 마련된 장롱 두 바리가 있는 것을 보고서는 노하여 곧 태워버리게 하고 집에 가서는 이웃에서 양식을 꾸어다가 비로소 밥을 지으며 안연(晏然)했다. …

선조 16년(1583) 2월 이주공(以周公) 53세로 돌아가 가평 원남(遠南, 지금의 춘천시 서부)에 안장했다. 3남 1녀를 두었는데 장남이 화곡(禾谷).

차남 휘 명호(明湖) 화곡보다 6년 뒤인 명종 14년(1559) 생으로 선조 13년(1580) 문과 급제, 백사(白沙) 이항복(李恒福)과 동방(同榜) 친상(親喪)에 애휼(哀

毀) 지나쳐 종상(終喪) 전(前) 1585년 졸(卒), 나이 27세였다. 이 때 남은 아들 두 원(斗源) 겨우 5세. 화곡이 거두어 기르시니 광해 4년(1612) 생원 진사 합격. 광해 8년(1616) 문과 급제. 이(吏)·호(戶) 양조판서(兩曹判書)에 올랐으며 두 번 중국에 사신으로 다녀왔는데 서양사자(西洋使者)로부터 천리경, 자명종 등 신문명 기기와 천문서, 서양국풍속기 등 도서를 받아와 우리나라 근대화의 계기를 지었다. 우의정에 추증되어 민충(敏忠)이라 시호내렸다.

3남 휘(諱) 운호(雲湖), 명종 18년(1563) 생. 광해 3년(1611) 문과 급제, 형조 참판(刑曹參判)에 이르렀으며 인조 4년(1626) 사신으로 북경에 다녀왔다. 인조 17년(1639) 졸(卒). 춘천시지(春川市誌) 인물편 '성재(醒齋) 정이주(鄭以周)'에서는 춘천시 서면 성재봉(醒齋峯)이 이주공(以周公)의 기거에 연유한 봉우리 이름이라 했다. 3남 운호(雲湖)는 참판을 끝으로 '성재봉' 아래 '누운 늪'으로 돌아와 호를 와빈(臥濱)이라 하고 그곳에서 돌아갔으며 지금 춘천시 일원에는 운호(雲湖)공 후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누운 늪' 위 방동(芳洞)에 와빈 가묘(家廟) '와빈사(臥濱祠)'가 있고 가묘비가 서있다. 성재공 1녀 온양(溫陽) 정희(鄭晦)에 출가하여 슬하에 부사(府使) 정익경(鄭翼卿), 호를 동명(東溟)이라 한 명문 두경(斗卿), 승지(承旨) 인경(麟卿) 3남이 있다.

성재공과 3남 1손 5인이 문과 급제다. 광주정씨(光州鄭氏) 문과 급제는 이북이고향이라는 한 사람 제하고 32명인데 근래 인구조사에서 알 수 있는 광산인(光山人) 3천명 포함 광주정씨(光州鄭氏)는 약 1만8천명. 인구 비례로 볼 때 결코 적은 수는 아니다. 32人인이 거의가 임진란 이전에 급제한 자요 임진란 이후는 10人인도 안 되는데 임진란 광해 혼조(昏朝) 병자호란 등을 겪고 출사할 대의(大義) 없다고 산림(山林)에 묻혔기 때문. 그 속에 5인 전 가족이 문과 급제라는 것은 조선조 광주정씨(光州鄭氏)의 빛나는 가족사이다.

### 3. 화곡(禾谷)의 입조(立朝)

화곡은 조선 명종 8년(1553) 음력 10월 12일 서울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성재공(醒齋公) 꿈에 신인(神人)이 “만호(萬戶) 태어난다.”하여 자(字)를 만호(萬戶)라고 지었다가 뒤에 몽여(夢與)라고 고쳤다. 예조판서를 지낸 이호민(李好閔) 병조

판서 김신원(金信元) 승지 신응거(申應渠) 군수 고상안(高尚顔) 등이 동년생인데 ‘동경계(同庚契)’로 모인 입의(立議) 좌목(座目)이 《화곡집(禾谷集)》에 실려 있다. 행장(行狀) 비문(碑文) 등에 일컬어진 ‘막역(莫逆)’의 명사들 이항복(李恒福)은 3년, 황신(黃愼)이 7년, 이정구(李廷龜) 11년, 신희(申欽) 13년 등 모두 연하이다.

21세 선조 6년(1573) 생원시 2등, 진사시 2등이었다. 이 《사마방목(司馬榜目)》의 기록밖에 출생에서 20년 성장 과정에 대한 기록은 아무것도 없다. 명사들 흔히 행장(行狀) 비문(碑文) 같은데 ‘나면서 총명했다’ 든가 ‘재주 과인했다’ 든가 하고 ‘학업에 힘써 성취에 뛰어났다’ 같은 수사가 있는데 한 글자도 없는 공백이다. 그리고 사마시 합격 4년 뒤인 선조 10년(1577) 별시문과(別試文科) 병과(丙科)에 합격하여 승문원에 들어갔다는 기록이다.

문과 등제가 입조(立朝)의 출발이다. 승문원(承文院) 선입(選入)이라고는 했으나 무슨 일을 했는지는 자세하지 않다. 종9품직으로 교린(交隣)의 문서 정리를 했을 것 같이 생각된다. 관료 사회의 규율을 익히면서 5년, 선조 15년(1582)에 승정원 정7품직인 주서(注書)가 됐다. 왕명의 출납을 관장하는 승정원은 정3품의 도승지 아래 종3품 여러 승지가 있고 그 4품계 아래 주서(注書)가 있다. 이 때 이발(李潑)이 승지였는데 뒷날을 도모하는 사당(私黨)을 모아 똑똑한 사람을 자기와 맞지 않는다고 물리쳐 내쫓고 있었다. 이발(李潑)은 화곡(禾谷)보다 나이로는 10여년 위, 알성문과(謁聖文科) 장원으로 대사헌에 오른 인물인데 파당을 꾸려 북인의 우두머리 노릇을 하며 정여립(鄭汝立)의 모반에 가담하여 장살(杖殺)된 죄인이다. 화곡은 나라 기강을 어지럽힌다고 상사(上司) 이발(李潑)을 면척(面斥)했다. 젊은 화곡(禾谷), 강명으로 이름 높은 집안의 훈도(薰陶) 속의 화곡의 기개를 본다. 그러나 이발(李潑)이 어떤 사람인가. 대각(臺閣)을 움직여 화곡을 탄핵 파직시킨다. 선조 15년(1582) 6월 기해(己亥) 《실록(實錄)》 기록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사헌부(司憲府)계(啓)왈(曰)… 홍주목사(洪州牧使)임추(任樞)용열(庸劣)청체(請遞)  
 … 주서(注書)정사호(鄭賜湖)경망(輕妄)청체(請遞) … 답(答)왈(曰)의계(依啓)

아무개는 용열(庸劣)하고 … 정사호(鄭賜湖)는 경망(輕妄)하니 그 직(職)을 바

꾸시라는 사헌부(司憲府) 계(啓)에 임금이 계(啓)대로 하라고 명한다. 물론 《실록》의 태반(殆半)은 대각(臺閣)을 비롯한 언론(言論)의 계(啓) 소(疏) 등이고 아무리 충신(忠臣) 열사(烈士) 명인(名人)이라 해도 계(啓)의 ‘탄핵’에서 벗어나지 못하니 여기 한 번의 정사호(鄭賜湖) ‘경망(輕妄)’을 탓할 것은 못되나 이 탄핵이 뒤에 있는 역신(逆臣)의 사주(使嗾)에 의한 것이라면 똑바로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화곡의 출사(出仕)는 이렇게 출발하고 평생이 그러했다 할 수 있다. 《화곡집(禾谷集)》에서는 파직에 ‘사림다탄석(士林多歎惜, 선비들 크게 아쉬워하는 사람 많았다.)’이라고 했다.

다음해 선조 16년 성재공(醒齋公) 졸(卒). ‘복(服)’을 마치고 18년(1585) 승문원박사(承文院博士)로 복직 ‘예(例)’에 따라 겸(兼) 내자시주부(內資寺主簿), 곧 호조좌랑(戶曹佐郎)으로 송도에서 근무했다. 선조 20년(1587) 고산현감(高山縣監)으로 나갔다. 첫 외직이다. 법대로 다스려 백성들이 편안했다 전한다. 그 때 왜구 침입, 녹도(鹿島) 만호(萬戶)가 전사함에 공도 병마(兵馬)를 징발했는데 장병의 군율이 엄하여 모두 놀랐다. 임금 물음에, 오직 호남(湖南) 고산병(高山兵)만 군율이 정연했다고 병조판서 정언신(鄭彦信)이 답했다 하니 규범에서 벗어나지 않는 공의 면목 약여하다. 그 때 역적 정여립(鄭汝立)의 형 여복(汝復)이 고산에 살아 전주에 있었던 여립(汝立)과 왕래를 함에 아직 여립 중망(重望) 있었던 때라 관민이 문안하고 했으나 공은 그러지 않았고 관찰사 따라 편의를 봐주는 일도 없어 여립의 원망이 컸다. 이듬해 여립이 모반(謀反) 복주(伏誅) 되었는데 여립이 “먼저 고산현감을 죽이고 거사해야 했던 것을 잘못했다.”고 했다 한다. 여립의 옥사(獄事)를 다스리는데도 연루자가 많아 민심이 흉흉했으나 잘잘못을 잘 가려 오직 고산은 안연(晏然)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역적이 죽이고자 했던 것이 공인데 공의 치옥(治獄)이 가장 관대하고 공정하였다고 했다 한다.

선조 23년(1590)에 다시 내직으로 들어와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에서 곧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으로 옮기니 공의 아버지 일찍이 지평으로 간신(諫臣)의 풍모 있던 바라 사헌부 옛 관헌, 거리의 부로(父老)들, 지금의 지평 옛 지평의 아들인데 어찌면 저렇게 풍채가 같으냐고 말했다고 한다. 지평으로서 공이 이발(李潑, 1852~1928)의 옥사(獄事)를 마무리하는데 1년 전 이미 복주(伏誅)한 발(潑)의 모자 아직 옥에 있는 것을 알고 그 부당함을 좌상 유성룡(柳成龍)에게 이르니

성룡이 꺾여 고쳐 앉으며 잘못되었다고 했다 한다. 발(濊)은 처음 공이 주서(注書)였을 때 공을 탄핵했던 인물로 역적과 더불어 죽으며 아쉬워하는 사람 없는데 공 홀로 그 가족의 뒤를 돌본 것이다.

일본통신사로 가 일본의 동향을 살피고 이듬해 돌아온 정사(正使) 황윤길(黃允吉)은 토요도미히데요시(豐臣秀吉)가 매우 위험한 무인이라 일본 침공(侵攻)에 대비해야 한다 하고 부사(副使)였던 김성일(金誠一)은 걱정할 것 없다고 대답되는 보고를 했다. 당시는 동인의 세가 강해 부사 김성일의 보고가 채택되고 서인 황윤길(黃允吉) 정사(正使)의 보고가 배척되어 나라의 앞날에 대한 걱정이 퍼졌다. 왜사(倭使) 평의지(平義智)가 다시 왔는데 예조정랑(禮曹正郎) 조헌(趙憲)이 “참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장차 화를 면하지 못할 것이라” 소를 올렸으나 왕이 듣지 않고 조헌(趙憲)을 파직했다. 공 이때 예조좌랑(禮曹左郎)으로 왜사(倭使)를 푸대접했다고 잠시 옥에 갇혔다가 금성현령(金城縣令)으로 밖으로 나갔으며 송상현(宋象賢)이 동래부사(東萊府使), 권율(權慄)이 의주부윤(義州府尹)으로 나가고 고경명(高敬命), 김천일(金千鎰)은 파직. 공과 가까이 지낸 한 때 청류(淸類)들의 진퇴(進退)가 어수선했다.

이듬해 선조 25년(1592) 임진 4월 왜병이 부산에 상륙하여 40일에 서울에 쳐들어오는 미증유의 국난이 일어났다. 선조가 평양으로 몽진하고 두 왕자도 북으로 피했다. 그때 통신사 김성일의 잘못된 보고가 논란이 되었으나 같은 퇴계(退溪) 문하의 동인 유성룡(柳成龍)의 적극 변호로 화를 면한 김성일은 경상도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가 되었다. 화곡은 난중에도 당리당략(黨利黨略)을 앞세우는 것을 크게 걱정했다.

북으로 북으로 난을 피해가는 사녀(士女)도 몇 만명. 금성현(金城縣) 앞 대천(大川)이 장마로 홍수되어 길이 막혀서 모두 적에게 잡힐 지경에 이르렀다. 화곡은 뗏목을 만들어 피난민들을 건너게 하고 먹을 것도 마련해 위험을 넘겼다. 그리고 백의(白衣)로 충청감사(忠淸監司) 윤승훈(尹承勳)의 종사관(從事官)이 되어 전선(前線)을 돌았다.

선조 27년(1594) 난중에 사복시첨정(司僕寺僉正)으로 취임, 곧 연안부사(延安府使) 발령을 받았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선조 28년 5월 난을 피하여 온양정회(溫陽鄭晦) 사위집에 머물렀던 모부인(母夫人)이 돌아갔다. 반장(返葬)하지 못하

고 상당산(上黨山) 화곡(지금 청원군 미원면)에 안장 묘하에 여막(廬幕)을 짓고 시묘(侍墓)했다. 이어 8월에는 초취(初娶) 인천채씨(仁川蔡氏)가 돌아갔다. 기록이 전혀 없으니 알 수 없으나 화곡이 벼슬하다가 모부인 상을 당해 상당산(上黨山) 아래에서 시묘하던 중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채씨(蔡氏)는 경제(京第)에서 돌아갔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지금의 묘소 동두천시 안흥동 명호공(明湖公) 묘 아래 안장했을 것으로 짐작이 된다(안흥동 묘소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적는다.). 아들 딸 낳아 기르지 못했다. 뒤 화곡(禾谷)은 측실(側室)에서 장원(長源) 광원(廣源)의 2남과 1녀를 둔다.

‘복(服)’을 마치고 선조 29년(1596) 8월 정4품 사복시정(司僕寺正)이 되었다. 이듬해 1월 한 번 물러갔던 왜적이 다시 쳐들어왔다. ‘정유재란(丁酉再亂)’이다. 사헌부집의(司憲府執義)로 옮겨있던 화곡(禾谷)은 7월 안동부사 명을 받고 8월에 부임했다. 때에 안동에는 경리(經理) 양호(楊鎬) 통솔하는 10만 명의 명병(明兵)이 왜 가토기요마사(加藤清正) 군과 대치하고 있었는데 영남에서 징발해야 할 군량미 10만석을 비롯해 군수물자의 태반을 안동부에서 담당해야 했다. 그런데 난중이라 사람들 피해 달아난 전장(戰場) 민생의 황폐가 말이 아니었다. 6.25 전란 때 이른바 ‘중공군’과 ‘UN’군이 대치했던 어느 고을을 생각하면 될 그런 양상이다. 화곡은 오도가도 못하는 토호(土豪)들을 동원하고 그 집 가노(家奴) 장정(壯丁)들을 징발하여 군량미 군수물자 수송에 당하게 하였으며 권세를 믿고 부사에게 완강하게 저항하는 유성룡(柳成龍) 집 가노(家奴) 둘을 처벌하였다. 안동은 유성룡(柳成龍)의 본향(本鄉), 토호들도 모두 유성룡 아래의 것들이다. 부사에게 반감을 가진 유성룡이 관찰사를 움직여 화곡(禾谷)을 파면시켰다. 며칠 공을 보지 못한 양경리(楊經理)가 공의 파직을 알고 크게 놀라 접반관(接伴官) 이덕형(李德馨)을 불러 화곡(禾谷)의 파면은 잘못이라 하고 공의 ‘진심국사(盡心國事)’를 임금께 아뢰라 하니 이를 듣고 임금이 통정대부(通政大夫)의 가자(加資)를 내리고 그 직을 계속하라고 명했다.

그 얼마 뒤 명 진중(陣中)에 화살에 묶인 투서가 날아들었다. 부사가 왜장과 통혼(通婚) 얘기를 하고 있다. 군량미를 왜군에게 보내고 명군 정보를 넘기고 있다는 내용. 부사가 간첩이라는 고발이다. 한 때 마귀(麻貴) 이하 제장(諸將)이 고발에 어리둥절했지만 양경리(楊經理)만은 이 참언(讒言)을 단호하게 물리쳤다. 실

제로 당시 화곡(禾谷)에게 자녀 없었으며 그 정사(政事) 매우 엄정했던 것 등과 적군의 진지가 멀지 않은 곳에 있었으며 전세가 그들에게 불리했던 것 등으로 적의 조작이요 계략이었음을 모두 알게 되었다. 그러나 얼마 전 TV 드라마로까지 제작되어 한껏 성가를 높인 《징비록(懲毖錄)》에서 유성룡은 전쟁에 대처하여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은 부사(府使) 화곡의 군정(軍政) 치적(治績) 충군애국(忠君愛國) 진심국사(盡心國事)에는 한마디 언급 없이 근거 없는 ‘간자(間者)’설만 적어 정유재란 때의 안동의 상황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아쉬움을 남긴다.

유성룡(柳成龍)은 임진왜란에 도체찰사(都體察使) 영의정으로 국난을 타개한 위대한 정치가이며 지략가라는 평을 듣는다. 그러나 ‘인간’ 유성룡은 화곡(禾谷)에게는 또 다른 면모를 보인다. 화곡(禾谷)의 사적(事蹟)을 살피기 위해 《실록(實錄)》을 찾다가 문득 다음과 같은 ‘유성룡’이 눈에 띈다.

《선조실록》 권 106, 31년 11월 갑오(삭(朔) 임오(壬午))

정언(正言) 문홍도(文弘道) 계(啓)하여 가로되 신(臣) 영남에 살고 있어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 유성룡(柳成龍)의 간사하고(回邪), 남의 재주를 시샘하여 이기려고만 하고(忌克), 나라의 앞날을 그르치고(誤國), 백성을 병들게 하는(病民), 죄 싫도록 듣고(飽聞) 있습니다. … 성명(聖明) 홀로 듣지 못하시겠지만 초야(草野)에 묻혀있는 신은 분통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

그리고 연일 같은 ‘계’가 헌납(獻納) 사간들에게서 올라온다. 같은 달 정유(갑오에서 사흘 뒤)에는 화곡(禾谷)이 포함되는 ‘사간원(司諫院)’의 계가 있다. 좀 길지만 화곡(禾谷) 전기를 살피는데 필요할 것 같아 인용해 본다.

사간원(司諫院) 계(啓)하여 가로되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 유성룡(柳成龍) 사녕(邪佞)한 사람으로 재주 있는 사람을 물리치고 명자(名字) 작위를 제 것으로 하며 남을 해치는데 남은 그것을 모르게 하고 세상을 속이되 세상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 <중략>… 광주의 사전(私田)은 백성들을 부려 갈고 김매며 단양에 마련한 새 농장에는 죄 짓고 도망한 놈들을 모아두고 안동 본집에는 기름진 논밭을 넓게 차지하여 요역(徭役, 정부에서 부역 대신으로 시키던 노동)을 알지 못합니다. 부사(府使) 정

사호(鄭賜湖)가 그 호(戶, 유성룡 일족의 가구)에 역사(役事)를 배정하려 하자 뒤에서 친한 관리를 시켜 내쫓으니 영남의 유식한 사람들이 짐 뺀고 욱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후략〉…

이어 사헌부(司憲府) 계(啓)가 올라온다. 유성룡(柳成龍)의 죄상에 대한 내용, 유성룡을 파직시키라는 내용은 앞의 계와 똑 같다. 《실록(實錄)》의 사간원(司諫院) 사헌부(司憲府) 상계(上啓)의 기록이니 유성룡에 대한 비방 폄훼(貶毀)의 목적이나 왜곡은 있을 수 없으며 유성룡의 ‘인간됨’을 알 수 있는 사실의 기록이라 할 수 있다. 4백년 전 유성룡 시대 GNP의 몇 백배에 이르는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도 안동 유성룡 구거(舊居)에 가보면 유성룡 형제를 비롯한 일족의 고대광실(高臺廣室)에 눈이 휘둥그레진다. 4백년 전에 이런 ‘별천지(別天地)’를 이루고 살면서 광주에 사전(私田)이 또 있고 단양에 신장(新庄)을 마련하고 그것을 백성들을 동원하여 노역시키고 ‘청백(淸白)한…’이라 하다니. 《실록》의 상계(上啓)를 읽으면서 상계가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부사(府使)가 군정(軍政)을 수행하기 위해 반항하는 가노(家奴)를 처벌했다고 파면시키는 권세도 그렇다. 화곡(禾谷)의 선고(先考) 성재공(醒齋公) 관직을 물려나서 춘천 ‘오두막’으로 돌아갔다. “자손들을 위하여 한 패기 받을 장만하거나 하지도 않았다.”고 비문은 전한다. 화곡 또한 자손을 위한 사전(私田) 같은 것이 있었다거나 그것을 경작했다거나 한 기록은 없다. 일생을 살아가는 법에서 유성룡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안동부사로 부임하여 1년, 선조 31년(1598) 8월에 왜추(倭酋) 도요도미히테요시(豐臣秀吉)가 죽고 왜군이 물러난다. 7년에 걸친 임진왜란의 종결이다. 왜란 끝에 명군과 왜군의 총력이 대치했던 안동부에서 그 병참(兵站)을 담당하고 전투를 지원하느라 부민(府民)과 함께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은 화곡(禾谷)은 왜군의 철수와 함께 부사(府使)에서 물러나 청주 모부인(母夫人) 묘하 화곡(오늘의 화장리)으로 돌아온다. 모부인도 부인도 돌아가고 자녀도 없는 46세의 홀몸, ‘경제(京第)’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 없었을 것이다.

화곡은 화장리(禾倉里) 경승(景勝)을 좋아했다. 3면이 산으로 둘러싸이고 동쪽으로 시내가 흐르는데 그 시내 북쪽 양지에 ‘당(堂)’을 짓고 ‘유연당(悠然堂)’이라 했다. 화곡이 마련한 유일의 소소한 ‘별업(別業)’이다. 체소재(體素齋) 이춘영(李

春英) 지은 ‘유연당기(悠然堂記)’는 다음과 같이 유연당(悠然堂)을 지은 화곡의 마음을 전한다.

내 벗 정시랑(鄭侍郎) 몽여(夢與)가 유연당기(悠然堂記)를 나에게 부탁하며 말한다. … 화곡을 둘러 짠 산 사이 동쪽으로 시내 흐르는 경승(景勝), 석인(碩人, 대인군자) 고반(考槃, 은거실을 지어 마음대로 즐기는 일)의 곳이라 일찍이 마을 사람들 모이던 곳 어찌다 내가 얻어 즐긴다. … 물 북쪽 양지에 당을 짓고 뜰에 푸른 솔 심고 황국(黃菊)으로 울타리 둘러… 머리 들어 앞 산 바라보니 도연명(陶淵明)의 유연시(悠然詩) 느껴져 유연당(悠然堂)이라 이름지었다. 나 본디 성격 강(剛)하고 재주 졸(拙)하여 세속에 맞을 자질(資質) 아니라 어찌다 진망(塵網, 해탈하지 못한 세계, 속계)에 빠져 근 30년 … 몸을 빼어 ‘귀거래(歸去來)’를 부르니 이 내 평생의 뜻이라 …

화곡(禾谷)은 아마도 도연명(陶淵明) 본으로 벼슬길에서 떠나 자연과 벗하며 화곡(禾谷) 유연당(悠然堂)에서 생을 마치려 했는지도 모른다.

실제로 유연당(悠然堂)을 지은 뒤(유연당기(悠然堂記)의 첫머리 오우(吾友) ‘시랑(侍郎)’ 몽여(夢與)…에서 유연당기(悠然堂記)를 지은 것은 화곡이 참관에 오른 선조 33년(1600)임을 알 수 있으니 유연당(悠然堂)을 지은 것은 그 1~2년전 안동부사에서 돌아온 직후였을 것임에 틀림없다.) 화곡은 호를 화곡(禾谷)이라 하면서 평생 이 호만을 쓰며 여기서 서원 학자들과 학문을 닦아 송재(松齋) 한충(韓忠), 규암(圭菴) 송인수(宋麟壽), 서계(西溪) 이득윤(李得胤), 이유당(怡愉堂) 이덕수(李德洙), 만주(晩州) 홍석기(洪錫箕) 등과 함께 ‘낭성(琅城, 청주의 옛이름) 8현(八賢)으로 불리기도 한다. 뒤에 유연당(悠然堂) 옆에 수락서원(壽樂書院)이 세워져 이곳에서 향사(享祀) 되었는데 대원군 휘철령으로 폐원된 뒤 재건되지 못하고 있다.

화창리(禾倉里) 유연당(悠然堂)에 문혀 일생을 보내고자 했던 화곡(禾谷)이지만 이어지는 조정의 부름을 어쩔 수 없어 안동에서 돌아온 이듬해 2월 호조참의(戶曹參議)로 나가고(이때 참관이 월사(月沙) 이정구), 이듬해 6월 중2품 가선대부(嘉善大夫) 호조참판(戶曹參判)에 오른다. 그리고 이듬해 선조 34년(1601) 5월에 대사헌(大司憲)에 임명된다.

대사헌(大司憲)은 사헌부(司憲府)의 수장(首長)이다. 사헌부(司憲府)는 홍문관(弘文館) 사간원(司諫院)과 함께 삼사(三司)의 중심 관아로 정치를 논의하고 백관(百官)을 감찰하여 기강과 풍속을 바로잡으며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등의 일을 하는 기관이다. 상대(霜臺)라는 별칭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서릿발’ 같이 무서운 관아다. 언제나 하는 일이 모든 관료들의 잘잘못을 논하는 일이라 사헌부 직원들을 언관(言官)이라고 하며 언관들의 계(啓), 간(諫), 소(疏) 등을 언론(言論)이라 한다. 그 우두머리가 대사헌(大司憲)이니 대사헌은 곧은 관료의 표상이요 화곡(禾谷)이 맡아야 할 직임(職任)이었다 할 것이다.

처음으로 대사헌(大司憲)이 된 뒤 화곡은 다음과 같이 10년 동안 벼슬의 거의를 대사헌으로 보냈다.

앞에서 성재공이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 세 번 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 여섯 번 발령을 받아 “기강 언론의 책임을 조정이 공에만 지운다.” 고들 했다고 소개한 바 있는데 그 아들 화곡이 받은 대사헌 발령은 헤아릴 수도 없다. 이렇게 대사헌직을 수행한 관료가 또 있는지, 이 부자를 빼고 조선조의 강명(剛明) 청직(淸直)의 본을 어디서 또 찾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이 대사헌직 만으로도 화곡은 명현(明賢)으로 칭송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당연하지만 대사헌으로 화곡은 소를 많이 올렸다. 그 가운데는 대사헌으로서 좀더 충실하지 못했다는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한 피혐소(避嫌疏), 책임을 진다는 인혐소(引嫌疏) 등 사소(辭疏)도 있지만 기강의 문란에 따른 소가 많다.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 퇴계(退溪) 이황(李滉) 두 선정(先正)을 헐뜯은 정인홍(鄭仁弘)에 대한 변척소(辨斥疏), 정온(鄭蘊)의 견책(譴責)을 변호하는 소 등에서 강명과인(剛明過人, 실록에도 도처에 이 평이 보인다)한 화곡의 면모는 잘 나타난다.

선조 35년(1602) 3월 화곡은 사은사(謝恩使)로 북경에 갔다가 8개월 만인 11월에 복명(復命)한다. 선고(先考) 성재공(醒齋公)도 서장관(書狀官)으로 다녀온 길이며, 아우 운호공(雲湖公)도 부사(副使)로 다녀왔고, 조카 두원(斗源)은 두 번이나 다녀 오면서 문명기기와 새로운 서적들을 가져와 우리나라 근대화의 획기를 지었다(앞에 적음). 일가 모두 그 때의 선진 대국 명에 나라를 대표해서 다녀온 것이다. 그만큼 집안의 근대를 여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실록(實錄)에서 보는 화곡(禾谷) 정사호공(鄭賜湖公) 대사헌(大司憲) 임명

政尹承勳為議政府右議政擢為禮部判書韓應寅為兵曹判書成泳為漢城府判尹鄭賜湖為司憲府大司憲宋英奇為司諫院司諫洪遵為侍講院副善洪慶巨為成均館

光復 卷一百三十七 三十四年五月丙子

선조 34년  
신축(辛丑) 5월

歸之計乎願安心勉留終始輔國○傳曰鄭仁弘右贊成除授○以鄭仁弘為右贊成兼輔養宜鄭賜湖為大司憲金信元為少曹判書無知經筵事世子左賓客李廷龜為無知春秋館事同知成均館事世子右

光復 卷六 鄭賜湖傳 鄭賜湖

광해 즉위년  
무신(戊申) 7월

平朴思齊並命遺差答曰依俗○以李光其為廣高左水使○甲戌以鄭賜湖為大司憲○國勢危殆判書各判唯有一

光復 卷五 鄭賜湖傳 鄭賜湖

광해 즉위년  
무신(戊申) 10월

有祖宗朝舊例○茲殿以未行此禮之故傷痛久矣不可不舉行○以李高按為史曹判書鄭賜湖為大司憲洪履祥為禮曹參判鄭協為副提學閔德男為司諫李忠養

光復 卷二十一 元年正月 鄭賜湖

광해 원년  
기유(己酉) 2월

好閔為延陵府院君兼知春秋館事金信元為原判書兼府事尹承吉為兼知春秋館事鄭賜湖為大司憲其禮部為兼同知春秋館事李忠養為司憲府掌令李穡為世子

光復 卷二十一 元年正月 鄭賜湖

광해 원년  
기유(己酉) 10월

李林而章為同知春秋館事韓德遠為戶部參判李必榮為漢城府右尹鄭賜湖為大司憲鄭協為世子副賓客李慶涵為京畿觀察使李

光復 卷二十四 二年正月 鄭賜湖

광해 2년  
경술(庚戌) 정월

必吉亦其以也惟在自上酌定器使耳傳曰李時言壯兵使徐規遠星適授大將○以鄭賜湖為大司憲鄭英滿執義李核董東武為掌令李海朴汝樑為持平南以俊為

光復 卷二十四 二年正月 鄭賜湖

광해 3년  
신해(辛亥) 2월

承宗馬左副賓客宜有源馬兵曹參議林世都承旨金時敏馬禮曹參判鄭賜湖馬大司憲崔東武馬掌令林景雨馬持平李志完馬左副承旨趙杜馬知義禁府

光復 卷二十四 三年正月 鄭賜湖

광해 3년  
신해(辛亥) 8월

間不過一箇凡宜體子惠安心調從待春和以出若有大事當今社稷而決疑勿為更持惟思共貞○以鄭賜湖為大司憲其義剛大司諫閔德男兼養李季持平曹昭正

光復 卷四十七 三年正月 鄭賜湖

광해 3년  
신해(辛亥) 11월

이듬해 9월 황해감사로 부임했다. 《실록》에는 도정(道政)과 관련된 감사(監司) 화곡(禾谷)의 상계(狀啓)치계(馳啓)가 많이 기록되어 있다. 재임 중 전란으로 황폐한 울곡(栗谷)의 석담서원(石潭書院)을 중수하고 여러 곳 향교(鄕校)도 중수했다. 이 해에 가평 원남(지금의 춘천시)에 묘를 쓴 선고(先考) 성재공(醒齋公)과 청주 상당산 아래 안장한 선비(先妣)를 동두천시 안흥동 아우 명호공(明湖公)과 부인 인천채씨(仁川蔡氏) 묘 쓴 아래로 옮겨 합장하고 간이(簡易) 최립(崔嵬)의 비문을 받아 직접 글씨를 써 묘도에 신도비를 세웠다.

선조 40년(1607) 1월 경상감사(慶尙監司)로 부임했다. 안동부사에서 돌아온 지 10년에 다시 경상도로 나간 것이다. 부임하면서 곧바로 동래로 가서 임진왜란 때 전사한 부사(府使) 송상현(宋象賢)의 묘(廟)를 세우고 제문을 지어 제사했으며 진주 창열사(彰烈祠) 사액(賜額)을 받고 김천일(金千鎰) 황진(黃進) 최경회(崔慶會)의 업적을 칭송하는 글을 지어 걸었다. 떠난 뒤 영남유생들이 화곡을 칭송하는 소를 올렸다. 화곡에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일보다 더 거룩한 것은 없었다. 송상현(宋象賢) 묘(廟)와 창열사(彰烈祠)의 삼열사(三烈士) 제문(祭文)은 《화곡집(禾谷集)》에 실려 전한다.

선조 41년(1608) 정월 내직으로 돌아와 동지의금부사(同知義禁府事) 예겸(例兼) 이조참판(吏曹參判). 이때 임해군 옥사가 일어났다. 백사(白沙) 이항복이 영의정으로 위관(委官)이 되어 동지의금부사(同知義禁府事)였던 화곡(禾谷)도 함께 옥사를 다스리게 되어서 임해군을 진도(珍島)로 귀양 보내는데 참여하게 되었는데 뒤에 광해가 임해군을 강화로 옮겨 끝내 사사(賜死)하고 특명으로 위관(委官) 이하 금부당상(禁府堂上)을 녹훈(錄勳)하여 화곡이 효충분의익사공신(效忠奮義翼社功臣) 광성군(光城君)이 되었다(공신인 채로 광해군 시대에 돌아가 화곡 묘표(禾谷墓表)는 ‘-공신(一功臣) 광성군(光城君)’이라 되어 있고 이 때 다시 세운 선고(先考) 성재공(醒齋公) 묘표(墓表)도 순충보조공신(純忠補祚功臣) 광성부원군(光城府院君)으로 된 채로 있다.). 그러나 참익사훈(參翼社勳)은 화곡의 뜻이 아니라, 화곡 돌아간 지 8년 뒤 인조반정으로 임해군은 자연히 신원(伸冤)되고 공의 서훈도 자연 파훈(罷勳)되었다.

선조가 2월에 승하하자 동지춘추관사(同知春秋館事)를 겸하여 《선조실록》 편찬에 참여했다. 광해군이 즉위한 뒤 8월 예조 병조 참판을 지내고 광해 2년

(1610) 11월 정2품 품계 자헌대부(資憲大夫)에 올라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로 있다가 광해 4년(1612) 2월에 평안감사로 나갔다. 평안감사가 되어서는 기자묘(箕子廟)를 수축(修築) 묘비를 세우고 기자전(箕子殿)을 숭인전(崇仁殿)으로 고쳐 사적을 정리해서 후대에 전할 것을 청하는 소를 올려 윤허를 얻었고 5영(營)을 설치하여 전수(戰守)에 편하도록 하였으며 안주성(安州城)을 쌓아 서북 관문을 공고히 하였다.

광해군 초, 혼조(昏朝). 서(庶) 제2남으로 출생한 광해는 즉위하자마자 형 임해군을 죽이고도 또 적자(嫡子) 영창대군의 존재로 편안하지 못했다. 이 사이를 대북(大北) 소북(小北)이 이용하는 음모와 술수싸움이 계속되어 피비린내 나는 옥사가 일어났다. 광해 5년(1613) 4월 조령(鳥嶺)에서 박응서(朴應犀) 등 명가 서출의 이른바 ‘죽림칠우(竹林七友)’가 은상(銀商)을 죽이고 많은 은을 약탈하다 붙잡혔는데 정권욕에 사로잡힌 일파가 영창대군을 옹립하기 위한 자금 마련이었다고 공술하면 살려주겠다 유혹하여 날마다 이어지는 친국(親鞫)에 ‘적구(賊口)’에 오른 많은 학자 문인이 추방되었다. 5월 영창이 폐서인(廢庶人)되고 영창의 외할아버지 김제남(金梯男)은 6월에 사사(賜死)되었다. 계유옥사(癸酉獄事)다.

화곡도 ‘죄인’ 정협(鄭浹)이 “김제남이 빈회(宴會)에 많은 재신(宰臣)을 모아놓고 영창을 임금으로 세우려 한다고 했다.” 공술(供述)한 그 재신(宰臣) 가운데 이름이 들어 있었다. 이로 해서 사간원 등의 파직하라는 논계(論啓)도 자못 시끄러웠다. 그러나 화곡은 이 때 평안감사로 평양에 있었으며 이정구(李廷龜) 등의 적극 변호 그리고 무엇보다 공의 충성을 잘 아는 광해의 판단으로 무사할 수 있었다. 광해 5년(1613) 6월 서울로 돌아와 오위도총부도총관(五衛都總府都總管)이 되었다가 이듬해 광해 6년 봄 한성판윤(漢城判尹)으로 옮겼고 4월에 경기감사가 되었다.

광해 7년(1615) 6월 경기감사(京畿監司)에서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로 들어왔다가 7월 형조판서(刑曹判書)에 올랐다. 예겸(例兼) 경연관춘추관사(經筵春秋館事) 동지성균관사(同知成均館事), 곧 이조판서(吏曹判書) 명을 받았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광해 초 혼조(昏朝), 대북과의 횡포가 날로 더하고 있었다. 화곡은 이에 직을 물러나겠다 세 번 정사(呈辭)하고 유연당(悠然堂)으로 내려가 두문(杜門), 다시 나오지 않았다. 애군우국(愛君憂國)의 지성으로 일관한 입조 40년이었다.

#### 4. 화곡(禾谷)과 화곡가(禾谷家)

난중(亂中) 42세에 부인 인천채씨(仁川蔡氏)가 자녀없이 돌아가고, 화곡은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창원(昌原) 유필영(俞必英) 따님과 재혼했다. 남양(南陽) 홍처후(洪處厚)에게 출가한 장녀가 선조 임인(壬寅 1602) 생이라 하니 그보다 2~3년 전인 1599~1600경(화곡 47~48세)이 아닐까 생각된다. 광해군 8년(1616) 10월 64세로 돌아가니 부인 유씨와 8세 장자(1609생) 현원(玄源), 5세 차자(1612생) 성원(星源)이 남았다. 1녀는 '생관(甥館)에서 화곡의 혼도를 받았다'는 홍처후(洪處厚) 전설이 있으니 이미 출가한 듯 하고 측실 남녀 소생은 모두 독립했었을 것이다.

앞에서 서술한 대로 《화곡집(禾谷集)》이 간행된 것은 근세(화곡 서거 300년 후)에 명현(明賢)의 면모를 찾아보고자 한 10여대 후손들에 의해서다. 생전의 유고 유품들을 정리해서 간행하고 관리하여 후대에 전하는 것은 차대의 일이요 책임인데 8세 유아로는 감당할 일이 못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광해 초 윤강(倫綱)의 문제로 중신 원로들을 비롯해서 많은 선비들이 처형되고 유배되어 배소에서 죽고 하는 세상, 뜻있는 많은 선비들이 몸을 숨기고 붓을 쥐고 주변의 것을 치위 없애는 세상이었다. '병복불사(屏伏不仕)' 뒤에 돌아간 강직(剛直) 청명(淸明)으로 이름 높았던 화곡의 유고들을 모아 간행할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화곡이 돌아갔을 때 유족들은 이제 시끄럽고 불안하고 어려운 일들 정리하고 생계를 꾸리는데 마음 쓰자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화곡의 연보조차 영성한(25세 등과(登科)까지는 공백, 그 뒤도 실록에 근거한 관직 연도뿐) 《화곡집》은 '시(詩)' 20수, 부(賦) 1작품밖에 없으며, 실록 읍지 등을 뒤진 소(疏)·계(啓), 그밖에 서간·행장, 시상(諡狀), 비문 등 알팍한 것으로 정작 화곡 자신의 묘지(墓誌)도 없다. 화곡의 생애 학문을 체계화할 자료는 도저히 아니다. 그러나 화곡의 관력 등 행장이나 비문의 기록에 당시의 학계 중추 인물이나 '가(門)' 단위로 구성되었던 사회에서의 혼인 관계, 다른 사람들의 글 속에 보이는 화곡기록과 《화곡집》 속의 자료들을 더하면 화곡이 서 있던 자리를 짐작해 볼 수는 있다.

기호학파(畿湖學派)의 종(宗)이라 할 수 있는 울곡(栗谷)과 화곡(禾谷) 아버지 성재공(醒齋公)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앞에서 인용한 바 있다. 파주 울곡(栗谷) 묘

역(墓域)에 광주정씨(光州鄭氏) 묘가 있는데 울곡의 손부로 화곡의 측실 딸이다. 울곡가는 적자없어 측실 남 경림(景臨)이 이었는데 그 아들 제(穉, 울곡의 손)가 화곡의 사위인 것이다.

화곡이 돌아갈 때 8세였던 장남 현원(玄源)은 뒤에 월사(月沙) 이정구(李廷龜)의 사위가 되었다. 세칭 관동세가(館洞世家) 당대 굴지의 명가로 월사(月沙)는 말 할 것도 없고 아들 2 한(漢) 손자 8 상(相) 11인 가운데 10인이 문과출신인 명가. 그리고 차남 성원(星源)은 청백리(清白吏) 대사헌 신경진(辛慶晉)의 손서(孫壻)가 되었다. 아버지 없이 가난하게(당시 '청한선비'를 내세웠던 집안) 자랐어도 화곡의 위광은 그만큼 컸다.

현원의 딸은 계곡(谿谷) 장유(張維)의 손부로 갔다. 화곡의 측실 남 광원(廣源)은 울곡(栗谷) 문의 적통 김장생(金長生)의 손녀를 맞았다. 이 또한 적자가 없었던 김장생(金長生)의 장남 신독재(慎獨齋) 김집(金集)의 측실녀이며 울곡(栗谷)의 외손녀다. 당시 측실 자녀들은 사대부 사회의 일원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관계에 나가지도 못했지만 통혼은 명가끼리 하여 가문의 권위를 유지했다. 성재공(醒齋公) 묘지명을 지은 신희(申欽)와 아울러 생각하면 울곡이나 그의 적통 김장생(金長生), 그리고 이른바 사대가라 한 월사 이정구, 상촌 신희, 계곡 장유, 택당 이식(李植), 화곡 연하로 정두원(鄭斗源)과 막역한 관계로 미루어 보아 화곡의 위치가 어떠한가도 알 수 있다. 행장에는 특히 이항복(李恒福), 황신(黃愼), 이정구(李廷龜), 신희(申欽)과의 막역지교를 적고 있다.

화곡의 경력 종유(從遊) 혼맥(婚脈) 등에서 화곡이 기호학파의 중심에 있었을 것임은 미루어 알 수 있다. 불행하게도 자료가 제대로 남지 않아 전하지 못하여 화곡의 학문을 체계화할 수 없는 것은 더할 수 없는 아쉬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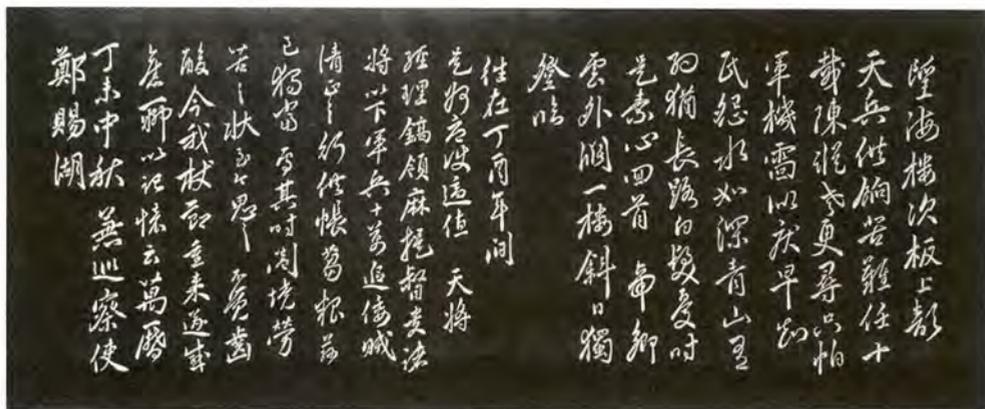
화곡은 명필이었다. '뵈근진인서(逼近晉人書)'라 전하니 왕희지 글씨에 가까웠다는 말이다. 그러면서도 그 글씨마저 지금 집안에 전하는 진본 한 점도 없으며 세상에 알려진 전본(傳本)도 그리 많지 않다. 1600년 의인왕후(懿仁王后, 선조비 박씨) 승하했을 때 그 위패를 썼다는데 그것은 당대 제1의 명필이었다는 말이기도 하다. 황해감사 때 울곡의 석담서원(石潭書院)을 중수(重修)하면서 그 동서재(東西齋) 강당(講堂) 제액(題額) 모두 공이 썼다 한다. 그러나 그 글씨들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 전하는 필적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황해도 연안에 있는 전술(前述) 연성대첩비(延城大捷碑)다. 그 비가 연안에 아직 있는지 없는지는 알 길이 없으나 다행히 그 탁본이 서울에 있다. 화곡이 황해도관찰사(黃海道觀察使)로 있었을 때 이 항복의 글을 받아 다음해 대사헌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글씨, 김상용(金尙容)의 전(篆)으로 세운 ‘이정암(李廷菴)의 왜란대첩비’로 지난번 일본에서 찾아온 ‘북관대첩비(北關大捷碑)’ 만큼이나 유명한 비다.

화곡은 최립(崔岬)이 지은 선고(先考) 성재공(醒齋公)의 신도비문도 썼다. 그 비는 지금 묘소 신도에 그대로 서 있지만 마멸되어 글씨는 한 자도 판독할 수가 없다. 후손들에 전하는 유일한 진적(眞蹟) 이었는데 그나마 보존하지 못하니(마멸에 따른 보전책을 미리 해 왔어야 하는 것인데) 후손들의 죄 만사에 당한다.

화곡의 증손 치상(致相)이 1718(숙종 44)년 하양현감(河陽縣監)으로 부임 도중 안동에 들러 화곡이 안동부사 때 지어 쓴 판상시(板上詩)가 걸려있는 망해루(望海樓)에 올랐는데 이 때 시봉(侍奉)하던 중자(仲子) 임기(林基)가 이를 탁본하여 보장(保藏)해온 것이 있다(치상은 이미 61세의 고령이었다.). 지금 이 탁본은 임기(林基) 사당인 도곡재(陶谷齋)에 걸려 있는데 비록 탁본이나마 후손가에 있는 유일한 화곡의 필적이다. 안동 망해루는 훼손되어 지금 없다. 이런 전본 필적들 외에 서첩(書帖) 등에 실려 알려진 간찰이 몇 점 있다.

다음에 ‘망해루차판상운(望海樓次板上韻)’을 본다. 화곡의 글씨와 함께 글에 나타나는 임란 때 안동전 상황, 고난과 충절을 읽을 수 있다.



‘망해루차판상운(望海樓次板上韻)’ 탁본

망해루차판상운(望海樓次板上韻)

명나라 병사들의 뒷바라지 고난의 일이었다.

십년 그 옛 자취를 늙어 다시 찾았다.

다만 군기(軍機) 우레 같았음을 두려워했고

민원(民怨) 깊은 물 같았음을 일찍 알았다.

푸른 산 기약이 있으니 길 오히려 멀고

백발(白髮)에 시(時)를 걱정하니 이 소심(素心)이라

머리 돌려 서울을 바라보니 구름 밖이 아득한 데

저녁해 기울어진 망해루에 홀로 올랐다.

지난 정유(丁酉)년간(1597)에 (나) 이 고을 부사였었다. 그때 마침 명나라 장군 양호(楊鎬) 경리(經理) 거느리는 마귀(麻貴) 제독(提督) 이하 10만 군병이 왜적 가토기요마사(加藤清正)의 군행(軍行)을 쫓고 있었는데 장막(帳幕)의 설비 군병의 식량을 이 고을에서 모두 맡아야 했었으니 그 때의 이 고장 모든 이의 괴롭고 힘들었던 상황은 지금 생각해도 저절로 이가 시려움을 느낀다. 이제 나 왕명을 받든 길에 다시 와 옛일 생각에 문득 이렇게 회포를 적는다.

정미(丁未, 1667) 중추(中秋) 겸(兼) 순찰사(巡察使) 정사호(鄭賜湖)

## 5. 화곡의 묘소

화곡의 묘소는 경기도 동두천시 안흥동에 있다. 1호선 전철 북쪽 종착지인 동두천역의 서쪽 출구(②번)로 나와 마차산 쪽으로 안흥교를 지나 신흥중고등학교 앞을 지나신천 서쪽 강변로를 1km쯤 북행하면 '신천로 231번길'이라는 규격 표지가 전신주에 붙어 있는 삼거리에 '광주정씨영원(光州鄭氏瑩苑)'이란 거대한 표비가 서 있는데 그 영원(瑩苑)이라는 대문자아래 '향토유적 제6호 정사호선생묘소(鄕土遺蹟 第6號 鄭賜湖先生 墓所)'라는 작은 문자가 보인다.

'영원'은 강변로 삼거리에서 '신천로' 표시 따라 왼쪽으로 난 언덕길을 오르면 마차산 동쪽줄기 구릉의 끝자락(정확하게 안흥동 산 21번지)에 있는데 여기에는 화곡 정사호공(鄭賜湖公)만이 아니라 화곡의 전후부인 아버지 정이주공(鄭以周公)과 부인, 동생 명호공(明湖公)과 부인, 2010년 포천 일동에서 천장한 정사호

공(鄭賜湖公)의 증조 정순인공(鄭純仁公)과 부인 그리고 가장 위에 2015년 포천 일동에서 옮겨 모신 화곡의 고조(高祖) 찬우공(纘禹公)과 부인 묘소가 함께 자리하고 있다. 표비가 '영원'으로 되어 있는 연유다. 화곡가(禾谷家)의 묘소는 시조 2세 찾지 못하고 5대 6대 양주 샘내 그리고 화곡(禾谷)의 고조 아래(화곡 조부만 춘천) 모두 안흥등에 모여 있다.

여기에 처음 묘소를 쓴 것은 1585년(선조 18년 을유) 1월 정이주공(鄭以周公)의 차남이며 화곡 바로 아래 아우 명호공(明湖公)이다. 1559년(명종 14년)생인 명호공(明湖公)은 1580년(선조 13년) 약관 20세로 문과급제, 승문원정자(承文院正字)에 임명된 수재였는데 1583년(선조 16년) 친상(이주공 졸)으로 여막(廬幕)에 살며 애도 지나쳐 종상(終喪) 한 달 전 27세(만)로 급서했다. 전설에 따르면 화곡이 춘천 성묘 길(아버지, 할아버지) 소요산에 들렀다가 상경하면서 신천 건너 마차산 구릉에 명당이 눈에 띄어 자신의 묘자리로 복(卜)했던 곳인데 아우가 갑자기 돌아감에 따라 아우를 먼저 쓰게 되고, 임진난 중 부인 채씨(蔡氏) 돌아감에 명호공(明湖公) 아래 쓰고, 그 10년 뒤 가평의 선고(先考) 성재공(醒齋公)과 청주의 선비(先妣) 동래정씨(東萊鄭氏)를 옮겨 그 아래 합장하고, 화곡(禾谷) 자신이 그 12년 뒤 돌아가 채씨(蔡氏) 옆에 그리고 그 20년 뒤 계부인 창원유씨(昌原俞氏) 돌아가 화곡 옆에 쓰게 된 것이다.



화곡 정사호 묘역(오른쪽 향토문화재 안내판 있는 단 위쪽 가운데 묘)

여 백

가평



# 가평과 어우(於于) 유몽인(柳夢寅)

김 철 | 가평문화원 사무국장

寅)



## 가평과 어우(於于) 유몽인(柳夢寅)

김 철 | 가평문화원 사무국장

### 1. 들어가며

유몽인은 명종 14년(1559년)에 태어나 인조 1년(1623년)에 생을 마감하였다. 본은 고흥 류(柳)씨 이름 몽인(夢寅), 자는 응문(應文), 호는 어우자(於于子) 간암(艮庵) 또는 묵호자(默好子)라 하였다. 할아버지는 사간 충관(忠寬), 아버지는 주부 탕(檀), 어머니는 여흥 민씨, 부인은 고령 신씨(신숙주의 6세손)이다.

살아생전에 미리 자신의 장지(葬地)를 경기도 가평군 진평리(현, 가평군 가평읍 하색리 산 80번지)에 마련하고 영면(永眠) 하였다. 부인 신씨가 1619년에 먼저 죽었기 때문에 부인의 묘에 합장을 하였다.

이는 당시 유몽인이 역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묘소를 별도로 마련하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면, 부인과의 합장 외에 다른 장소를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유몽인은 조선시대 광해군 때 이조참판을 지낸 고위관리이자 외교관, 문학가이다. 당시 이례적으로 명나라에 사신으로 세 번이나 다녀올 정도로 뛰어난 외교력과 문장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당쟁과 고루(固陋)한 가치관에서 벗어나 정치적 균형과 자유롭고 창의적인 문학을 추구하려 노력하였다. 이 때문에 광해군 때는 인목대비 폐위를 지지하지 않아 정권(북인)에게 파직 당했고, 인조반정 때는 반정세력(서인)에 동조하지 않아 누명을 쓰고 아들과 함께 처형되었다. 그러나 그의 진정성과 문학성은 훗날 정조(正祖)로 부터 절개 있는 ‘참 선비’란 극찬을 받으며 관직이 복권됐다. 그의 대표작이자 조선시대 최초의 야담집 가운데 하나인 《어우야담(於于野譚)》은 당시 관습과 달리 왕실에서 부터 천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간군상의 삶을 재미있게 다뤄 호평을 받고 있다. 당시 주류 양반들과는 다른 관점에서 백성들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유몽인은 가평인 이일민의 모정(茅亭)과 화악산을 즐겨 찾았고, 가평 조종면

출신인 월사 이정구(李廷龜, 1564~1635, 조선 4대 문장가)와 교류 하면서 당파 싸움으로 혼탁한 조정의 현실을 함께 걱정 하였으며, 이러한 인연과 생각들을 글로 표현한 것은 어우집을 통해서 엿볼 수 있다. 또한 자신이 마련한 가평 선영에 대한 애착은 여러 기록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으며, 자신의 제2의 고향이 가평이라고 은연중 밝히고 있다.

“천주산은 합하게서 가평(加平)에 새로 옮긴 선산 근처입니다.”…〈중략〉…“이 때문에 몸이 이미 늙어 시서(詩書) 속에서 지극한 즐거움을 누릴 날도 많이 남진 않았지만, 가평의 무덤에 묻히기 전에 나의 일을 갑절로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네.”

이처럼 자신의 소원대로 사후(死後) 가평의 선영에 묻히게 되었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처형 직전 유언으로 가평 하삼익골(下三益谷, 지금의 가평군 하색리)에 묻어 달라고 하면서 묘자리가 명당자리라는 것을 누설하지 말고, 세 손자가 과거를 보더라도 따로 따로 보라고 하였다. 그런데 손자들은 유언을 잊고 함께 과거에 응시하여 모두 합격하였다. 그들의 성적이 우수하고 인품이 출중하여 필시 명문가의 자손이라고 짐작하여 그 가문을 캐어 보니, 반정의 역신으로 몰려 처형된 어우 유몽인의 손자들이었다.

그 묘소를 파 보니 승천 직전의 용의 꼬리가 명주실에 얽혀 승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용을 당고개(성황당이 있는 고개) 마루에 묶어 두고, 쇠먹이골(또는 쇠목이 골)에서 씻물을 끓여다가 용을 태워 죽였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가평주민들은 유몽인의 억울한 죽음을 잊지 않고자 용묘전설을 만들어 근 4백 년 동안 구전시켜왔다. 지금도 그 자리를 능골이라 부르는 지명까지 생겨난 것으로 보아, 유몽인은 가평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 할 수 있다. 이렇듯 가평과 연관성이 있는 기록을 어우집에서 발췌, 게재하여 유몽인이 가평을 유독 사랑했던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

#### 《어우집(於于集)》

1) 유몽인, 〈가평(加平) 이일민의 모정(茅亭)에서 묵다. (宿加平李逸民茅亭)〉, 《於于集》 권1 詩○畿甸暗行錄, 한국문집총간 63,305면.



어우아담

“客行衷繡入山村。村婦寧知柱下尊。馬豆逢木柄。僮眠草席要錢文。休憂邑鼓擘擘急。須播田毛勤。好占林泉安契闊。會見花縣得潘君。”

2) 서유방(徐有防), <諡狀>, 《於于集》後集 권6, 한국문집총간 63,603면.

“공의 친척이 공의 유골을 엄하여 가평(加平) 진평리(榛坪里) 유좌(西坐) 언덕에 장사 지내었다.(公之親屬。斂公遺骸。葬于加平榛坪里西坐原.)”

3) 유몽인, <천주산인 종영의 시축에 제한 서(題天柱山人鍾英詩軸序)>, 《於于集》 권 4, 한국문집총간 63,380면.

역주 : 장맛비가 두 달째 쏟아지던 천계 원년(1621, 광해군13) 6월, 나는 서호(西湖)<sup>1)</sup>의 교사(僑舍, 타향에서 임시로 사는 집)에서 머물고 있었다. 천주산(天

1) 서호(西湖) : 양주(楊州) 서산(西山)을 가리킨다. 현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송추계곡 및 일영계곡 근방이다. 옛날에는 서산 가마골이라고 했는데 일영봉이 상봉인 서산(西山)이 양주의 서쪽에 있어서 그렇고 가마골은 도자기 가마가 많아서 붙은 이름이라 한다. 참고로 양주 서산은 유몽인 집안의 선영(先塋)이 있는 곳으로 훗날 백형 유몽사(柳夢獅)가 죽은 후 이곳에 묻혔으며, 유몽인도 수학기에 양주 서산에 소재한 수종사(水鍾寺)에서 독서했고, 1599년 임진·정유전쟁이 끝나고 4월에 모친상을 당한 이후에는 이곳에서 삼년상을 치렀다. 뿐만 아니라 유몽인의 말년인 1623년(인조1)에도 7월에 광해군 복위계획에 가담했다는 무고로 체포되어 사형되기 직전까지도 금강산을 거쳐서 6월부터 양주 서산 무덤가에서 우거하고 있었다. 이처럼 양주 서산은 젊은 시절의 독서공간으로부터 형들과 모친의 죽음 및 급기야 자신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여러모로 유몽인과 관련이 깊은 공간이라 하겠다.

柱山) 사미 인견(印堅)이 그 스승 종영(鍾英)을 이끌고 비를 무릅쓰며 찾아와 소매에서 몇 개의 시축(詩軸)을 꺼내 나에게 주며 말하기를, “천주산은 합하께서 가평(加平)에 새로 옮긴 선산 근처입니다. 빈도는 사미를 통해 합하의 시 수백 자를 얻었습니다. 사미의 소개를 받아 합하께서 한가하실 때를 틈타 한 말씀 청합니다.” 하였다.

내가 말하길, “그대는 내가 강호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한가롭다고 여기는가? 그렇지 않다네. 내 나이는 70세에서 일곱 살이 적으니 앞으로 얼마나 더 살겠는가. 나는 더위와 추위가 이르지 않고 공무가 없어 날마다 문장을 짓지만 천백 년 후에 누가 지금 세상에 내가 있는 줄 알겠는가. 결국은 유속(流俗)과 함께 다 민멸될 것이라네. 이 때문에 내가 사문(斯文)에 급급하기를 마치 거자(擧子)가 괴황(槐黃)<sup>2)</sup>의 계절에 과거 응시에 바쁘고 관료가 권세를 좇는 것에 바쁘며, 목마른 말이 시냇물을 마시느라 바쁘고 굶주린 승려가 반종(飯鐘)<sup>3)</sup>에 바쁜 것처럼 하는 것이라네. 내가 조정에서 쫓겨난 지 4년째이네. 첫 해에는 《좌전(左傳)》을 읽고 다음 해에는 두시(杜詩)를 읽고 《두평(杜評)》을 저술하였네.<sup>4)</sup> 그 다음 해에는 두시를 외기를 올해까지도 변함없이 하고 있다네. 그리고 틈이 나는 대로 제자서(諸子書)를 열람하고 또 수창하거나 저술한 장단편의 시 3백 수십 편과 서(序), 기(記), 사(辭), 설(說), 비(碑), 갈(碣), 문(文), 장문의 대책(大策) 40여 편 및 소설 백여 편을 지었다네. 여가에 한가로이 경치를 감상하고 음주가무를 일삼을 겨를도 없다네. 이 때문에 몸이 이미 늙어 시서(詩書) 속에서 지극한 즐거움을 누릴 날도 많이 남진 않았지만, 가평의 무덤에 묻히기 전에 나의 일을 갑절로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네. 내가 예전에 보니, 당신들은 곡식을 끊고 솔잎을 먹으며 면벽을 하고 고생하면서 이번 생에서는 단지 다음 생에 천당에 오르고 지옥을 면하는 응보만을 바라고 있네. 그러나 이는 당신이 눈앞에서 목도하지 못한 바이고

2) 괴황(槐黃) : 괴화황(槐花黃)의 약칭으로, 당(唐)나라 때 유생(儒生)들이 응시 준비에 바빴던 계절을 말한다. 당나라 때 장안(長安)의 응시생들 중에 낙제한 자들이 6월 이후에는 도성(都城)을 떠나 고향에 돌아가지 않고 흔히 조용한 묘원(廟院)이나 주택을 빌려 거주하면서 작문을 연습하여 바로 그해 7월에 새로 지은 문장을 재차 헌상(獻上)하는데, 이 과정을 통틀어 과하(過夏)라고 하며, 이때가 마침 왜나무 꽃이 한창 노랗게 피는 무렵이므로 이 말이 있게 되었다는 고사가 있다.

3) 반종(飯鐘) : 승사(僧舍)에서 식사 시간을 알리기 위해서 치는 종을 말한다.

4) 두평(杜評)을 저술하였네 : 지금은 일실된 《어우두평(於于杜評)》을 가리킨다.

또 필시 훗날에도 이와 같은 일은 없을 것인데도 오히려 이렇게 하고 있네. 그렇다면 지금 내가 부지런히 힘쓰는 것도 이런 게 아니겠는가. 죽은 뒤에 복리(福利) 따윈 없을 터인데도 살아생전에 애태우며 근심하고 있으니 스스로 비웃을 만하네. 비록 그렇지만 예전에 윤결(尹潔, 1517~1548)이라는 시인이 있었다네. 그는 젊은 나이에 건강하여 시 안에 ‘병(病)’자(字)가 하나도 없음을 매번 안타까워했지. 하루는 학질을 심하게 앓아 이불을 끌어안고 덜덜 떨면서 말하기를 “이제부터 내 시도 병(病)자를 얻게 되었으니 다행이구나.”라 하였다네. 지금 나는 비록 맑은 조정에서 죄를 얻어 못가에서 오래 굶주리고 있지만, 그로 인해 시에서 새로 얻은 ‘강호(江湖)’라는 글자를 사랑할 따름이네. 그러하니 나는 실로 한가하지 못하다네. 그대는 떠나시면 자주 오지 말게. 나는 시 짓고 책 쓰기를 아직 다 마치지 못했기에 손님이 싫다네.”하였다.

이에 시축의 율시 두 편을 차운하여 선사가 비를 무릅쓰고 먼 길을 찾아 온 수고에 사례하고자 한다.

淫霖連月苦(음림연월고)	장맛비 두 달째 괴로워
江莫開懷(강막개회)	강가 늪은이는 회포 풀지 못하네
懸釜魚兒出(현부어아출)	매단 솥에서 물고기 튀어 나오고
翻巢燕羽差(번소연우차)	뒤집힌 둥지에서 제비 날개 들쭉날쭉 하네
衆吾獨避(중오독피)	모두들 좇는 것 나는 홀로 피하니
眞境往誰偕(진경왕수해)	진경(眞境)에 간들 누구와 함께 하리
綺語西僧藝(기어서승예)	기어(綺語) <sup>5)</sup> 는 서쪽 승려의 재주이니
庭柯夕鳥(정가석조)	뜰 나뭇가지에 저녁 새 재잘거리네
天柱隣新卜(천주인신복)	천주산(天柱山) 인근에 새로 집 지으니
雲烟日夕通(운연일석통)	구름과 안개 밤낮으로 드나드네
茅齋魚鳥有(모재어조유)	초가집에 물고기와 새는 있으나
荒綺紈空(황기환공)	황량한 무덤가에 부귀한 집안 자제는 없다네

5)기어(綺語): 원래는 불교의 신(身), 구(口), 의(意) 삼업(三業)에 해당하는 열 가지 죄악 가운데 하나로 교묘하게 꾸며서 아름답게 만든 말인데, 여기서는 문장에 있어 화려하고 아름다운 말을 일컫는다.

羈夢玄洲月(기몽현주월)    현주(玄洲)<sup>6)</sup>의 달에 나그네 꿈꾸고  
 歸帆汶水風(귀범문수풍)    문수(汶水)<sup>7)</sup>의 바람에 돌아가는 때  
 楓林秋賞晚(풍림추상만)    단풍 숲 가을 구경은  
 華嶽與君同(화악여군동)    화악산<sup>8)</sup>에서 그대와 함께 하리

일사 이정구(1564-1635)에게 보낸 글

〈贈李聖徵廷龜令公赴京序(증이성징정구영공부경서)〉

《於于集》 권 3, 한국문집총간 63,357면

이 글은 1604년(선조 37년) 음력 3월에 쓰인 것인데, 이 해에 일사 이정구가 세자 책봉주청사(世子冊封奏請使)로 연경에 갔다. 《조선왕조실록》 선조 171권, 37년(1604 갑진) 2월 13일 기사 참조) ‘성징(聖徵)’은 이정구의 字이다. 그는 선조연간의 ‘목릉성세(穆陵盛世)’에 문장으로 이름을 떨쳤으며 상촌(象村) 신흠(申欽, 1566~1628), 계곡(谿谷) 장유(張維, 1587~1638), 택당(澤堂) 이식(李植, 1584~1647)과 더불어 한문사대가 중 일인으로 일컬어 졌다.

(聖徵)乎! 聖人以朋友齒五倫, 其義顧不重乎? 莫大者死生, 猶或爲朋友許身, 矧其餘乎? 余未知今之世重斯義乎? 是何朋友之多歧乎? 自朝家士論相携, 朋友之道, 能皆可保終始乎? 交之道一也, 緣何而爲二乎? 二猶不幸, 緣何而爲四爲五乎? 其爲一爲四五者, 自比而遂私, 能無負於一人乎? 入於一者, 各自爲一, 與四五敵, 爲一人者, 其不孤乎? 一之勢盛, 則一之勢衰, 守於一而爲進退, 自以爲節義, 其節義可移於一人乎? 黃者自黃, 青者自青, 其青黃果其性乎? 問于甲, 則是甲而非乙, 問于乙, 則是乙而非甲, 其俱是乎? 其俱非乎? 其甲乙不能相是乎?

성징(聖徵)이여! 성인께서 붕우를 오륜의 하나로 나란히 하셨으니, 그 의리가 어

6)현주(玄洲): 북해(北海) 가운데 있다는 섬 이름인데, 여기에는 신선들이 살고 금지옥초(金芝玉草)가 많이 있다고 한다.

7)문수(汶水): 벼슬을 그만두고 은거하는 땅을 가리킨다. 계씨(季氏)가 공자의 제자인민자견(閔子騫)을 비(費)땅의 수령으로 삼으려 하자, 민자견이 “다시 한 번 나를 부르러 온다면, 나는 필시 노(魯)나라를 떠나 제(齊)나라의 문수(汶水)가에 있게 될 것이다.[吾必在汶上矣]”라고 말한 고사에서 유래한 것이다. 《論語 雍也》

8)화악산(華岳山): 경기도 가평군 소재 산.

찌 중하지 않겠는가. 사람에게 더없이 큰일은 죽고 사는 것인데도 때로는 봉우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기도 하니, 하물며 그 나머지의 일이겠는가. 나는 알지 못하겠다. 지금 세상이 이 의리를 중하게 여기는가. 그렇다면 어찌 이리도 봉우의 갈래가 많아졌는가. 조정의 사론이 서로 나누어진 뒤로, 봉우의 도를 마침내 모두 끝까지 보전할 수 있게 되었는데, 교우의 도는 하나인데 어찌하여 둘이 되었는가? 둘도 불행하거늘, 어찌하여 넷이 되고 다섯이 되었는가. 그 하나이던 것이 넷이 되고 다섯이 된 것은 자기들끼리 편당하여 사당(私黨)을 이룬 것이니 일인(一人)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한 편에 들어간 자는 각자 하나가 되어 넷, 다섯과 대적하니, 일인이 어찌 외롭지 않겠는가. 하나의 세력이 강성해지면 다른 하나의 세력은 쇠약해지는 법인데, 한 편을 고수하면서 나아가기도 물러나기도 하는 것을 가지고 스스로 '절의가 있다'라고 여기니, 그 절의가 일인에게 옮겨질 수 있겠는가. 누런 것은 본래 누런 것이고, 푸른 것은 본래 푸른 것인데, 그 누렇고 푸른 것이 과연 그것의 본성인가. 갑에게 물으면 갑은 옳고 을은 그르다 하고, 을에게 물으면 을은 옳고 갑은 그르다하는데, 그 모두가 옳은 것인가. 그 모두가 그른 것인가. 그 갑과 을이 서로 옳을 수는 없는 것인가.

余獨也。視今之士，其有若余獨乎？以獨而行于世，交之道，豈泥于一乎？一之不泥，於四於五，皆吾友也，則吾之倫，不亦博乎？其寒凝冰而吾不慄，其熱焦火而吾不灼，無可無不可，惟吾心之從，而吾心之所歸，惟一人而已，則其去就豈不綽有裕乎？

나는 혼자다. 요즘 선비들을 보건대, 그들 중에 나처럼 혼자인 자가 있는가. 혼자서 세상을 살아가니, 사귀는 도가 어찌 한 편에 얽매이겠는가. 한편에 얽매이지 않아 넷, 다섯에 있어서 모두가 나의 벗이니, 나의 무리가 넓지 않은가. 그 차가움은 얼음을 얼릴 정도라도 나는 떨지 않고, 그 뜨거움은 불을 태울 정도라도 나는 애태우지 않으며, 가(可)함도 없고 불가(不可)함도 없이 오직 내 마음만을 따를 뿐인데, 내 마음이 귀의하는 바는 오직 일인(一人)일 뿐이니, 그 거취가 어찌 느긋하게 여유가 있지 않겠는가?

(聖徵), 少時友也。游泮而始親，登朝而彌篤，升宰列而愈益密，或者其志與余同乎！人心日薄，世道萬變，風波一起於平地，雖兄弟莫保始終，而與(聖徵)相愛，白首如初，相愛者何？愛其不私於一而不負于一人乎！

성징은 젊은 시절의 벗이다. 성균관에서 유학하면서 처음 친해졌고, 조정에 등용되고 나서는 더욱 돈독해졌으며, 재상의 반열에 오르자 더더욱 친밀해졌다. 이는 아마도 그의 뜻하는 바가 나와 같아서리라. 인심은 날로 각박해지고 세도는 수도 없이 변하여, 풍파(風波)가 평지에 한번 일어나면 비록 형제라도 한결같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데, 성징과 서로 아끼는 것은 머리가 세도록 한결같으니, 그 서로 아끼는 것은 무엇인가? 한편에만 사사로이 하지 않고 일인(一人)을 저버리지 않는 바로 그 점일 것이다!

雖然, 有一焉. 肝肺同臟而性不同, 耳目同面而官不同. 吾之炙秦之炙同味, 羽之白雪之白同色, 強其異者而同之, 則不同, 順其同者而同之, 則自同. 如同

其同也, 可不以死生許之乎? 可不與父子兄弟而倫之乎? 或不然, 自私其一而後一人, 吾將任其獨而從其博乎! (聖徵)將赴京, 余無驢, 請以此爲驢, 可乎?

비록 그러하나 한 가지 할 말이 있다. 간과 폐는 같은 장기지만 그 성질은 같지 않고 귀와 눈은 같은 얼굴이지만 그 맡은 기능은 같지 않으며, 내가 먹는 구운 고기가 진나라 사람이 먹는 구운 고기와 그 맛이 같고 깃의 흰 색이 눈의 흰색과 그 색이 같다고 하여 그 다른 점을 억지로 해서 같게 한다고 해도 실은 같지 않고, 그 같은 점을 그대로 따라 같게 하면 절로 같아질 것이다. 만일 그 같은 점을 같게 한다면 목숨이라도 바칠 수 없겠으며, 부자 형제의 관계와 비등해지지 못하겠는가. 혹 그렇게 하지 않고 한 편만을 사사로이 하고 일인(一人)을 뒷전으로 돌린다면 나는 장차 그 홀로 있으면서 넓게 교유를 맺을 것이다. 성징이 연경으로 가려는데 나는 전별할 만한 노자가 없으니, 청컨대 이 글을 노자로 삼고자 하니 괜찮겠는가.

〈자료제공 및 발췌 :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및 가평의 전설 어우 유몽인〉

## 2. 어우 유몽인의 세계관

### 1) 정치가로서 유몽인

유몽인은 증광문과에 장원 급제했으며, 1592년 질정관(質正官)으로 명나라를 다녀오던 중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임진왜란 중에 세자 광해군을 도와 명나라 사신(요동경략 송응창, 주지번, 황백룡) 등을 상대, 외교관으로서 명성을 크게 떨쳤

다. 그 후 벼슬이 예문관 홍문관제학, 이조참판에 이르렀다. 성격이 강직해 광해군시대 화두인 인목대비 폐위를 반대하니 조정의 중심세력인 대북파들이 들고 일어났다. 혼탁해진 조정에 염증을 느낀 유몽인은 벼슬을 초개와 같이 버리고 낙향했다.

인조반정이 일어나자 유몽인이 광해군을 복위시키려 한다는 무고(誣告)가 새로 선 조정(인조)에 들어왔다. 국문장에 잡혀온 유몽인에게 국문관이 왜 역모를 꾀하고 상부시(孀婦詩)를 지었느냐고 묻자, 유몽인은 상부시에서 밝힌 것과 같이 못난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식은 힘을 다하지 않을 수 없듯이 군주가 못났더라도 신하는 목숨을 바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절개를 굽히지 않았다. 국문관이 유몽인의 절개를 의롭게 여겨 석방을 건의했으나, 반정세력들이 유몽인을 살려주면 그의 절개와 충의를 따르는 무리가 많을 것이니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유몽인은 새로 선 조정에 출사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이를 거부하고 은나라 주왕(紂王)을 절개와 의리로 지킨 백이숙제(伯夷叔齊)처럼 광해군의 마지막 충신이 되어 아들 약(淪)과 같이 참형을 당했다.

## 2) 문장가로서 유몽인

임진왜란 당시 명신 유성룡은 유몽인(31세)의 과거시험의 문장을 보고 백년 이래 처음 보는 기이한 문장이라고 극찬한 것에서 증명하듯 유몽인은 어우야담에 임진왜란의 처참한 현실과 그 시대의 민중의 삶을 사실적으로 기술했다. 주목할 것은 어우야담에 수록되지 않았으면 알 수 없었던 수많은 선인들의 발자취(남강의 논개 등)를 통해 역사학연구, 문화사연구, 국문학연구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문집으로는 어우집(80권)이 있다.

이처럼 유몽인과 관련된 역사적 일화는 다 나열할 수가 없다. 정조대왕이 김시습의 절개가 설악산 같다면 유몽인의 절개는 금강산이라고 말했듯이 유몽인의 정신과 업적은 우리 후손들만의 것이 아니다.

특히 일부 지식인들이 양지를 찾는 현실에서 새삼 유몽인이 생각나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하니 답은 명백하다.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유몽인의 강직한 정신이다. 이 정신이 우리 삶의 자양분이 될 때, 각박해진 작금의 현실에 생기가 돌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 3) 서예가로서 유몽인

오세창(葦滄 吳世昌, 1864~1953, 독립운동가, 서예가) 선생의 《근역서화징》에 기록되듯, 조선조 서예가들이 중국의 서예가(왕희지, 구양순)의 필력을 임모해 자신들의 필력을 완성했으나 유몽인은 달랐다. 멀리 있는 것은 배우기 어렵고 가까이 있는 것은 배우기 쉽다는 자주적인 정신으로, 우리나라의 유명한 서예가 최치원(孤雲 崔致遠), 김효인(金孝印), 백광훈(玉峯 白光勳) 등의 서체를 임모, 자신의 독창적인 필력을 완성했다. 이는 사대주의에 물든 조선조의 사대부를 멀리하고 민족의 자긍심을 높이는 필력이라 볼 수 있다.

KBS 진품명품(2009. 5. 17)에서 고서 감정위원 김영복이 유몽인의 유묵(遺墨, 54쪽)에 담긴 전서, 예서, 초서, 해서 등의 필력을 고증 했다.



KBS TV쇼 진품명품 제709회 <어우공 유묵>편

### 3. 유몽인의 사후

#### 1) 가평문화원, 향토문화재로 지정 신청

1794년 정조대왕께서 유몽인을 이조판서 겸 의정공으로 추증했지만 직계 후손이 절손되어, 봉사손(정조대왕이 세움)으로 유몽인의 묘역을 200년 동안 근근이 관리해왔다. 하지만 봉사손도 경제적으로 힘들어 묘역관리를 유몽인의 조고(祖考, 사간공) 종중에 위임했다. 결국 방계후손들이 385년이 지난 2008년 10월이 되어서야 성금을 조금씩 걷어 방치된 묘역을 조성하고 비문을 지어 비석을 세웠지만, 고증학자의 고증을 제대로 받지 않고 묘역을 조성하는 어리석음을 범했다. 그리고 8년이 지난 뒤인 2016년에 가평군에 향토문화재신청을 냈으나, 묘역 원형훼손과 문인석, 상석고증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문화재로서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고 보류했다.

이에 가평문화원과 종중은 가평군의 문화재 보류사항에 의거, 묘역 고증과 석물고증에 관한 학술세미나를 열기로 결정했다. 다행히 가평문화 창달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가평문화원이 주최가 되어 장소 제공과 발표자 3명의 교수, 토론자 3명의 교수를 초청하여 개최하고자 한다.

#### 2) 《어우야담》의 인어이야기 드라마 방영 ‘푸른 바다의 전설’

SBS에서 어우야담의 인어이야기를 드라마로 만들어 2016년 11월 16일부터 방영 되었다. ‘푸른바다의 전설’은 많은 화제작을 낳은 박지은 작가와 여주인공 전지현 남주인공 이민호의 출연만으로도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박지은 작가는 칼잡이 오수정, 내조의 여왕, 역전의 여왕, 넝쿨째 굴러온 당신, 별에서 온 그대, 프로듀사 등을 집필하여 작품성 뿐만 아니라 인기(시청률) 면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탑클래스에 속하는 유명 작가이다.

‘푸른바다의 전설’은 우리나라 최초 야담집인 어우야담의 인어이야기를 모티브로 만든 20부작 드라마이다.

인어이야기.....

김담령이 흙곡현의 현령이 되어 일찍이 해변에 있는 어부의 집에 묵은 적이 있었

金聃齡，爲歙谷縣令，嘗行〈春〉청·국·고·강宿于海上漁父之家，問若得何魚，對曰：“民之漁·得人魚六首，其二則創瘡청·고而死，其四猶生之之。청·국·강”出視之，皆如四歲兒，容顏明媚，鼻梁聳，耳輪郭，其具청·고·강鬚黃黑髮。청·국·고·강被額，眼白黑照皙而。청·국黃瞳子瞳子黃。청·국·고·강體或微赤，或全白，背上有淡黑文。男女陰陽一如人，手足指指。청·국·고·강蹠，掌心皆皺文，及抱膝而坐，皆與人無別。對人無別聲。청·국·고·강，垂白淚如雨，聃齡憐之，請漁人放之。漁人甚惜之曰：“人魚取其膏甚美，久而不敗，不比鯨油日多而臭腐。”聃齡奪而還之海，其逝也，如龜鼈鼈。청·국·고·강之游焉。聃齡甚異之，漁人曰：“〈人〉청·국·고·강魚之大者，大如人，此特其小兒耳。”

曾聞杆城有魚樹。국·강，得一人魚，肌膚雪白如女人，戲則而。청·국·고·강，魚笑之有若縹緲者。遂放之洋中，往而復返者，再三而後去之。

余嘗閱古書，人魚男女狀如人，海上人擒其牝，畜之池，相與交合。청·국·강，亦如人焉。余竊笑之，豈於東海上土。청·국·고·강復見之？

《어우야담》 '인어이야기'

다. 어부에게 무슨 고기를 잡았느냐고 물으니 대답했다.

“제가 고기잡이를 나가서 인어 여섯 마리를 잡았는데, 그 중 둘은 창에 찔려 죽고 나머지 넷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나가보니, 모두 네 살 난 아이 같았는데 얼굴이 아름답고 고왔으며, 콧마루가 우뚝 솟아 있었고, 귓바퀴가 뚜렷했으며, 수영이 누르고, 검은 머리털이 이마까지 덮였으며, 흑백의 눈은 빛났으며, 눈동자는 노랬다. 몸은 흑 얼은 적색이었으며, 흑은 온통 백색이기도 하였다. 등위에 얼은 흑색의 문양이 있었으며, 남녀 사이의 음양관계가 사람과 한결같았다. 손바닥과 발바닥의 한가운데 주름살 무늬가 있는 것, 무릎을 껴 안고 앉은 것까지 모두 사람과 다름이 없었다. 사람과 대하여 있어도 별다름이 없는데 흰 눈물을 비처럼 흘렸다.

담령이 가련하게 여겨 놓아주자고 청하니, 어부가 아까워하며 말했다.

“인어에게서 기름을 취하면 무척 품질이 좋아, 오래 되어도 상하지 않습니다. 날이

갈수록 부패하여 냄새를 풍기는 고래 기름과는 비교할 수 없지요.”

담령이 인어를 빼앗아 바다로 돌려보내니, 그들이 가는데 마치 거북이나 자라가 유명하는 것처럼 해엄쳐 갔다. 담령이 무척 기이하게 여기니, 어부가 말했다.

“큰 인어는 사람 크기만 한데, 이들은 작은 새끼일 뿐이지요.”

일찍이 들으니 간성에 어만이 있어, 인어 한 마리를 잡았는데, 피부가 눈처럼 희고 여자 같은지라, 장난을 치니까, 인어는 마치 견권한 정이라도 있는 것처럼 웃었고, 마침내 바다에 놓아주니, 갔다가 돌아오기를 세 차례를 반복하더니 갔다고 한다.

내가 일찍이 고서를 보니 인어남녀는 모습이 마치 사람 같아 바닷가 사람들이 그 암컷을 잡으면 못에 기르며 더불어 교접했는데 마치 사람 같다하여 남몰래 웃었었는데 동해에서 그것을 다시 보게 될까.

〈자료발췌 : 가평의 전설 어우 유몽인〉

### 3) 유몽인의 묘지

무덤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준다. 당신도 조만간 이와 같이 흙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웅변해 주는 것도 그렇고 부귀영화가 한낱 꿈결과 다름없다는 점을 가슴 깊이 새겨 주는 점도 그러하다.

어화청춘 소년들아 또 한 말 들어보소.  
꽃이라도 낙화되면 오턴 나비 아니오고  
나무라도 고목되면 오턴 새도 아니오고  
비단 옷도 헤어지면 물걸레로 돌아가고  
좋은 음식 쉬어지면 수채 구멍 찾아가네.  
세상사를 굽어보니 만사 일시 몽중(夢中)이라.

가평읍 상색리 회다지 우리 지지(地誌)를 만들어 보자는 처음 의도와는 달리 자꾸 무덤 쪽으로 시선이 가는데 대한 변명으로 들어 주시기 바란다. 그러나 그 대상은 소위 말하는 길지(吉地) 위주가 아니라 주로 역사적 인물들에 국한될 것임을 다짐해 둔다.

### ‘개평’에서 유래 설

개평이란 말이 있다. 노름판에서 구경꾼이나 잃은 자에게 공으로 돈 좀 주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이 가평(加平)에서 나왔다는 지명(地名)에 관계된 농담이 있다.

옛날 과거 보러 가던 사람들이 서울 인근인 가평에 도착해서 요기를 하게 되는데 이때 떡을 사먹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워낙 가평 떡 맛이 시원치 않아 그 대신 텀으로 떡을 더 얹어 주는 것이 관례화 되었다는 것이다. 그 일이 전화(轉化)되어 개평이 되었다는 얘기가. 이것은 물론 실없는 소리다. 하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 하나는 산골(가평은 토지의 95%가 산지 임)에 소금이 귀하여 음식 맛이 좀 심심하고 그것이 맛있는 것으로 알려졌을 것이라는 점이다. 또 하나는 산골 사람들이 가지는 순박성과 순후한 인심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허기진 사람이 먹는 모습은 언제나 아름답다. 그에게 떡을 더 얹어 준다. 가평 사람이 아니면 잘 할 수 없는 일이다. 오늘은 그런 가평을 간다.

처음 가평읍에 관심을 가진 곳은 세 곳, 보납산과 자라목(일반기록에는 자라목, 가평 측 기록에는 자라목으로 되어 있음), 어우당 유몽인의 산소, 그리고 일반 읍내 거리다.

유몽인은 조선 중기의 정치가이자 학자로, 대동야승(大東野乘)에 실려 있는 민간의 야담과 설화를 실은 그의 어우야담(於于野談)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잡다한 기록을 모아 놓은 어우집(於于集)도 실학자들이 그들의 글, 예컨대 연려실기술이나 성조사설(星潮僊說) 등에서 자주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미 당대부터 문명(文名)을 날렸던 사람인 모양이다. 그는 일찍이 우계(牛溪) 성혼(成渾)의 문하로 유능함은 인정받았으나 사람이 경솔하여 스승의 가르침을 거역하다가 쫓겨났다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상당히 강박한 성격이었던 모양이다.

아니나 다를까, 그의 무덤 또한 풀 한포기 나지 않은 황토 뿐인 봉분이었고 그의 무덤 바로 아래 있는 아들 무덤 역시 시뻘건 흙덩이조차 견디지 못한 평토(平土)상태였다. 성호사설(星湖僊說) 만물문(萬物門) 작조(雀條)에는 유몽인의 선영에 대한 흥미로운 기록이 하나 나와 있다. 작당이란 빛이 깨끗하고 구슬처럼 생긴 달콤한 이슬을 말한다. 일종의 감로(甘露)인 셈이다. 참새들이 맛있게 찍어 먹는 참새들의 엿과 같은 이슬이라 하여 작당이란 이름이 붙은 모양인데 여기(戾氣)라고도 한다. 감로가 내리면 모두들 좋은 징조라고 여긴다. 그러나 과연 그럴

까? 이익(李穰)의 지적대로 예나 지금이나 재앙(災殃)이나 상서(祥瑞) 따위는 이치로도 분별하기가 어렵다. 징조를 알아맞히는 것은 그 사람의 됬됨이에 따를 뿐이다. 송나라 때 한림학사 두호(杜鎬)는 도성 밖에 분암장(墳庵庄)을 두었다. 하루는 감로가 숲에 내렸다. 당연히 그의 식구들은 놀라서 기뻐했으나 두호는 맛을 보더니 슬퍼하면서 “이것은 작당이다. 아름다운 징조가 아니니 우리 가문이 피폐할 것”이라 하였는데, 한해를 지나자 두호가 죽고 여덟 사람이 잇따라 죽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세종 때에 황주와 연평, 영흥 등지에 감로가 내렸다. 빛은 백랍과 같고 맛은 달았다. 신하들이 경하를 올렸으나 역시 세종은 성군이다. 그는 자신이 하늘을 감동시킬 만한 일을 한 것이 없으므로 “상서(祥瑞)가 내릴 시기가 아니므로 나는 재앙(災殃)으로 생각한다.”고 하였다.

광해군 말기, 흥양(興陽)에 있던 유몽인의 선영에 있는 우거진 송죽(松竹) 숲에 향기로운 이슬이 많이 내렸다. 찹쌀술처럼 손에 닿으면 짹짹 들러붙고 해가 비치면 빛이 났으며 달기가 꿀과 같으므로 사람들은 모두 나무를 붙잡고 활기까지 하였다. 당시 유몽인의 벼슬과 지위가 높아지자 이것을 자랑하며 상서로 여겼으나, 또한 얼마 못가서 그의 친족은 멸망하고 말았다. 인조 때 역모사건에 연루되어 도망 다니다가 양주에서 잡혀 아들과 함께 처형된 사실이 있다. 이 고사로 미루어 보더라도 그는 좀 경박한 데가 있었던 모양이다. 그러나 정조 때 신원되어 시호를 받고 이조판서까지 추증된 것을 보면 보통의 인물은 아니었음에 틀림없다.

사람 됬됨이에 따라 그의 무덤을 찾기 위한 길 역시 다른 역사적 인물 산소가 그런 것처럼 캄캄한 어둠속이다. 가평읍에서 하색리 찾기까지는 간단하다. 그 다음에는 전혀 방법이 없다. 오직 어우당무덤을 관리하는 신용출(申鏞出, 45) 씨의 안내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도리가 없다. 하색에서 능골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조그마한 다리가 나오고 그 곁에 이방실 장군이라는 표지석이 서있다. 그것을 따라 다리를 건너면 왼쪽으로 농가가 보이는데 그곳이 신씨 집이다. 어우당 산소로는 올라가는 길도 없어 잡목 숲을 헤쳐 가야한다. 반면 이방실 장군 묘로 가는 길은 잘 닦여 있고 무덤아래 충렬사(忠烈祠)가 세워져 있고 무덤에는 비석과 석물로 번듯하다.

신용출 씨가 낫을 들고 앞장을 선다. 밭둑을 돌아 야산을 오르자 빨건 봉 분 세 개가 나타난다. 단지 문인석 2기와 상석 뿐, 묘비도 없다. 흙을 저다 날라야 잔디



유몽인 묘역 다음 지도(가평군 가평읍 하색리 산 80번지)

를 살릴 수 있는데 도저히 개인 힘으로는 그런 일을 해낼 수 없어 안타깝지만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안(朝案) 방향은 복잡하면서도 끊겨 있다. 일은 많고 사람의 시선은 끄는데 결과가 언제나 좋지 않은 형상이다. 그리고 황토의 토양에서는 으레 양기 탕천하는 법인데 이곳은 좀 음산하기까지 하다. 사람에게도 이런 성격이 있다. 워낙 소심하여 모든 일에 성심을 다하고 정을 많이 주지만 돌아오는 공이 없는 경우이다. 잘 해주고도 고맙다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오히려 더 잘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만 듣는다. 이런 사람은 곁에서 보기에 안타깝다. 유몽인의 산소에서 느낀 앞쪽 산세(山勢)는 바로 그런 사람을 대하는 느낌이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나의 느낌과는 달리 전해지는 풍수 설화는 이곳이 큰 명당이란 것이다.

가평 사람들은 유몽인의 산소를 용묘(龍墓)라고 부른다. 그는 처형되기 전에 자신을 이곳에 묻되, 손자 셋은 과거를 보더라도 결코 한꺼번에 응시하지 말고 따로따로 보라는 내용의 유언을 내린다. 세 손자는 공부를 열심히 하여 조부의 유언을 깜박 잊고 같은 해 과거에 응시하여 모두 어전대과(御前大科)에 장원으로 급제한다. 기이 여긴 왕실에서는 그들의 선영을 조사케 하였고, 그 결과 그들 조



가평군 가평읍 하색리 유몽인 묘역(상)

부와 선친이 바로 역적모의에 가담하여 처형된 유몽인과 유약임이 드러나는 한편, 산소가 백대천손(百代千孫) 삼대정승(三代政丞)의 천하 명당임이 밝혀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 세 손자는 물론이고 그들의 팔촌까지 관직을 박탈하고 산소는 파묘(破墓)를 하게 된다.

관을 여니 유몽인이 막 용이 되어 풍운서광(風雲瑞光)을 일으키며 일어나는 것이었다. 다만 엄지발가락 하나만 용이 되지 않고 있었다. 관원들이 그 용을 따라가 죽여 능지처참을 하였으니 지금도 그 자리가 능골이라 불린다. 그래도 안심이 안되어 쇠물을 들어부어 확실히 죽이니 그 자리는 지금 쇠매기라 불린다는 것이며, 이곳 흙이 붉은 것은 용의 피가 뿌려져 그런 것이라고 한다. 이상이 대체적인 용묘의 전설인데, 신용출 씨는 좀 다른 얘기를 하였다.

즉 쇠매기는 일본놈들이 유씨 자손에 큰 인물이 나지 말라고 산등성이에 쇠말뚝을 박아서 된 이름이라는 것이다. 또 자신이 어릴 때 유몽인의 무덤 뒤쪽에 용이 뛰쳐나간 동그란 구멍이 있는 것을 보았다는 얘기도 했다. 그 구멍은 아마도 도굴의 흔적이었을 것이다.

산 아래 진동마을에 사는 신옥균(申玉均, 66) 할머니는 이 전설 꼬트머리에 재



유몽인 묘역을 지키는 작우 석상

미있는 이설을 첨부한다.

즉 용이 되어 날아가려는데 수의(壽衣)로 해 입힌 명주가 엄지발가락에 걸려 등천에 실패했다는 내용이다. 원래 삼베로 수의를 입혀 달라고 유언했으나 자식들이 더 잘해준다고 명주를 입히는 바람에 망해 버렸다는 얘기였다.

이것은 확실히 새겨들 얘기였다. 지금도 수의로는 우리 땅에서 나는 삼베가 최상의 선택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느라고 명주나 심지어는 중국산 비단으로 수의를 짓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이것은 잘못이다. 명주는 4백 년이 지나도 땅속에서 썩지 않는 예까지 있다. 시신은 곱게 썩어 서두르지 않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순리다. 간혹 시신이 썩지 않는 생시혈(生屍穴)이란 것이 나오는데, 그것은 풍수가 금기시하는 바이다. 흙에서 나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란 것이 풍수가 지니고 있는 사람의 과정이다.

뿐인가, 외국산 기화요초와 석재까지 수입하여 조경을 하고 석물을 꾸미는 경우까지 있는데, 이런 짓은 망하자고 고사를 지내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 땅에서 나와 이 땅 위에서 살다가 이 땅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풍수적 삶일진대, 풍토가 다른 외국의 식물, 옷감, 석재가 도대체 말이나 되는가.

#### 잘려진 자라의 목

신씨 할머니는 또 다른 이상한 얘기도 덧붙였다. 마을에 과부가 많다는 것이었는데, 산제당산(山祭堂山)에 있던 소나무를 베고 거기에 송전탑을 세워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고 있었다. 공사 때 인부가 한 명 죽었고, 금년에는 마을에서 세 사람이 좋지 않은 일로 죽었다는 말도 하였다. 물론 인과관계가 닿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당이나 당산나무를 훼손하는 것은 사람의 심성을 그만큼 황폐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삼가는 것이 옳다. 신씨 할머니가 젊었을 때까지만 해도 가평읍에서 산제당산의 소나무는 의연하게 바라보였다고 한다. 지금은 아니다. 고향의 자부심과 상징성이 없어진 것에 다름 아니다. 이리하여 마을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자긍심과 순박성까지 잃어가게 되는 것이다.

1789년 가평읍 인구는 1천276명, 지금은 1만7천 여 명. 상전벽해의 변화이다. 산골의 소 중심지였던 이곳도 공동체적 삶이 뿌리 뽑힌 것은 이미 오래 전이다. 도로는 혼잡하고 기차소리까지 요란하다. 보납산과 자라목을 답사하기 위하여 거리를 걷다보니 갑자기 도시의 잡담이 발길을 붙든다. 멀리서 보납산을 바라보고 잘린 자라목의 비참을 관망하는 것으로 대신하기로 마음을 먹는다. 읍내에 있는 현대사진관에 걸려 있는 가평읍 전경의 사진이 좋았던 옛날을 회고하고 현대를 아파하는 듯싶다. 참 묘한 사진인데, 가평읍을 지나는 사람들은 꼭 한번 보기를 권한다. 가평군립도서관 자리에는 영연방참전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군의 참전 기념물인데, 김포 공항에 안내 표지판을 붙인다면 그 나라 관광객은 꼭 이곳을 찾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입장을 바꾸어, 우리가 멀리 있는 어떤 나라를 찾았을 때 거기 우리나라 사람에 관한 기념비가 있다면 왜 가보고 싶지 않겠는가.

〈신문컬럼 발췌 : 경향신문, 1993. 12. 4, 풍수지리학자 최창조 교수〉

#### 4) 유몽인의 신도비명

선생은 고흥 류씨, 이름은 몽인(夢寅), 자는 응문(應文), 호는 어우자(於于子) 간암(艮庵) 또는 묵호자(默好子)라 하였다. 고흥 류씨는 고려 충렬왕 때의 시중(侍中) 비(庇)를 시조로 한다. 할아버지는 사간 충관(忠寬)이며, 아버지는 주부 탕(檀)이요, 어머니는 여흥 민씨다. 명종 14년(1559)에 출생하였다.

어려서 김현성(金玄成)과 신호(申濩)에게서 공부하였다. 자라서 부인 고령 신씨를 맞이한 뒤에는 부인과 인척관계가 있는 성훈(成渾)에게서 수학하였다. 24세에 진사에 합격하고 31세에 문과에 장원했다. 당시에 문학대가인 이항복(李恒福), 이정구(李廷龜), 권협(權洽), 이춘영(李春英)은 선생이 절간에서 공부할 때에 함께 지냈던 사이였다.

과거에 오른 뒤에 예문관 검열 강원도 도사 등을 지냈고, 신묘년(1591)에 질정관(質正官)으로 명나라에 사절로 갔다가 이듬해 돌아올 때에 임진난을 만나서 의주 피난 중에 있는 선조에게 복명하였다. 이 때 광해군은 세자로서 후방에 분조를 설치하고 있었는데 선생은 분조를 따라 이천(伊川)과 성천에서 활동을 하다가 다시 의주로 갔다. 명나라에서 파견된 병부상서 겸 요동경략(遼東經略) 송응창(宋應)이 안중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송은 학문을 좋아하여 군무의 여가에 조선의 군신과 경전을 강론할 것을 요청하므로 선생은 왕명에 의하여 이정구(李廷龜), 황신(黃慎)과 함께 7개월 동안 토론에 참가하였다.

왜란이 종식된 뒤, 선생은 삼도순안어사(三道巡按御史)를 위시하여 함경, 평안, 충청 등 각도의 어사로 파견되어 민간의 고통사정을 조사하고 위무를 베풀었다. 선조 때에 도승지, 대사성, 예조참의, 황해감사, 대사간을 역임하였다. 광해군 때에는 북경에 사절로 갔다오고 남원부사에 임명되어 잠깐 머물러 있다가 고향인 흥양에서 3년간 은거하였다. 다시 서울에 올라와서 임란 때에 선조와 광해군을 호종한 공으로 가선대부의 관계에 올랐다가 곧바로 가의대부에 오르고 영양군(瀛陽君)에 봉하였다. 계속하여 한성좌윤, 이조참판, 홍문관과 예문관의 제학 등을 두루 거쳤다.

광해군 때는 매우 불안한 시기였다. 당파를 위한 암투가 치열하였고 왕의 측근에는 대북 일파가 정권을 잡고 횡포가 자행되었다. 선생은 61세인 기미년(1619)에 벼슬에서 물러나 금강산 표훈사에 들어가서 기한을 기다리기 어려운데도 참으며 지내다가 계해년(1623)에 서인(西人)들이 혁명을 일으키어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가 왕위에 올랐다는 소식을 듣고 산에서 내려와서 양주 서산에 머물러 있었다. 이 때 죄를 지은 자들은 모두 잡히거나 달아났고 관료들은 다투어 새 임금 앞에 나타나 하례를 드리는데 선생만이 조정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대하여 선생은 “내가 나아가면 벼슬을 하라 할 것인데, 내가 물러난

임금을 30년 동안 섬겼으니 그가 잘했든 못했든 간에 나는 신하로서 못한 죄책이 있는데 이제 와서 새임금 밑에서 다시 부귀를 누리려는 것은 나의 마음에 허락되지 않는다.” 하고 “늙은 과부”라는 시를 지어 자기의 뜻을 말했다. 그 시는 “수절하는 늙은 과부가 좋은 신랑감이 있다는 말에, 새로 얼굴에 화장을 하고 나선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꼴이겠느냐?”는 뜻이었다.

마침내, 선생이 광해군의 복위를 도모한다는 무고를 당하여 아들 약과 함께 문초를 받았다.

선생은 “복위운동이란 있을 수 없는 일어요, 다만 옛 임금을 섬기던 몸으로 새 임금을 섬기지 않으려는 것 뿐이라.”하고 ‘늙은 과부’의 시를 들려주었다. 선생의 논지는 명백하여 당당하였다. 그러나 아들은 고문에 못 견디어 죽고, 선생은 이 해 8월 5일에 화를 당하여 65세로 일생을 마쳤다. 그로부터 172년 후인 갑인년(1794)에 선생의 종후손 화가 선생이 억울하게 화(禍)를 당한 것을 바로 잡아 달라는 탄원을 제출하여 정조(正祖)는 선생의 늙은 절조를 다시 인정하고 벼슬을 복직하고, 다시 이조판서의 직과 의정(義貞)이라는 시호를 추증하고 약에게도 당시의 벼슬인 수찬을 복직시키고, 화를 봉사손으로 정하여 제사를 받들게 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전남지방의 후학들이 선생에게 문청(文淸)이라는 사시(私諡)를 올리고 또 고흥 운곡서원에 선생의 화상을 모셔놓고 해마다 제사를 받들었다. 이상은 생전과 사후에 있었던 선생의 사적의 대략이다. 처음에는 국난을 당하여 난중과 난후의 말은 바 중책에 정성을 다하였고, 뒤에는 혼란한 정국에 처하여 정쟁에 휘말리지 않고 오직 정의에 입각하여 곧고 맑은 절조를 지켰고, 광해군이 물러난 뒤에는 혼자서 옛 임금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것을 알 수 있다.

선생은 문학에 있어 한 시대에 우뚝한 존재일 뿐 아니라, 몇 백 년을 두고도 찾아보기 어려운 대가였다. 선생의 문장은 옛 사람을 모방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의 틀을 만들어냈으며 문장마다 새로운 착상과 청신하면서도 기발한 표현력을 발휘하였고, 풍부한 상상력을 구사하였다. 용어는 진부한 고유의 어구를 쓰지 않고 적절한 새로운 말을 만들어 활용하였으며 우리의 민간 속어도 거리낌 없이 훌륭한 한문으로 소화시켰다. 이런 것은 후대의 박지원(朴趾源)에게서나 볼 수 있는 새로운 시험이었다. 문장뿐 아니라 시도 문장에 못하지 않은 높은 경지에 이르렀고 글씨도 또한 대가의 수준이었으며 특히 초서에 능했다. 선생은 자기의 작품에

대하여 직접 모두 정리하여 후세에 전하려 하였다.

현재 전하는 선생의 문집은 임진년(1832)에 간행한 전집 6권, 후집 6권과 어우야담 4권이 세상에 전한다.

선생이 아들과 함께 화를 입을 당시에는 자질은 아무도 없었고 종손들이 유해를 거두어 가평군 진평리에 선생보다 4년 앞서 세상을 떠난 부인 신씨 묘에 합장하고 아들 약은 선생의 묘 아래에 묻었다. 아직까지 비를 세우지 못했는데 류씨 종중에서 묘비를 세우기로 의견을 모으고, 종후손 제한(濟漢) 씨를 통하여 나에게 비문을 청하였다.

나는 일직 경문사에서 어우집을 영인할 때에 그 해제를 쓴 바 있으며 또한 선생의 비명에 이름이 없히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어 사양하지 않고 이상과 같이 자료를 정리하고 칭송하는 몇 구의 글을 써서 끝을 맺는다.

“높은 산 맑은 물은 님의 정신이며 굽어지지 않는 푸른 대는 님의 절조로다. 삶과 죽음에 있어서 하늘과 땅에 한줌의 부끄러움이 없었으며, 위대한 문장 또한 천추에 영원하리라.”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소장 후학 임창순 지음〉

#### 4. 맺으며

##### 1) 세상과 소통한 선비

관직은 정6품~정5품으로 세자(世子)에게 글을 가르쳤다. 이이첨(李爾瞻) 등 대북파(大北派)와 교유하며 중북(中北)의 영수가 되었고, 선조 말년에 황해도관찰사, 좌승지, 도승지를 지내고 1612년(광해군 4) 이조참판이 되었다. 인목대비(仁穆大妃, 조선 제14대 선조의 계비로 영창대군의 어머니) 폐모론 때 가담하지 않아 1623년 인조반정(仁祖反正) 때 화를 면하였으나 관직에서 물러나 방랑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그가 광해군의 복위를 도모한다는 현령 유응경의 모함으로 체포되어 국문을 받고 역률(逆律)로 다스려져 사형되었다.

그는 조선시대 중기의 문장가·외교가로서 이름을 떨쳤으며 글씨에도 능하였다. 정조 때 신원(伸冤)되고,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흥양(興陽)의 운곡사(雲谷

祠)와 고산(高山)의 삼현영당(三賢影堂)에 배향되었다. 저서로는 '어우야담', '어우집'이 있다.

## 2) 여당 속의 야당, 의기의 선비 어우당

광해군 시절 유몽인은 당시 집권 여당인 북인(北人)의 유력인사였다. 그러나 북인들이 이른바 대론(大論), 또는 대절(大節)이라는 명분으로 인목대비의 폐모론을 밀어붙일 때 유몽인은 반대쪽에 서 있었던 것이다. 안처인(安處仁)·안후인(安厚仁) 형제가 관련된 역모가 고변되어 시끄럽던 해에도 유몽인은 처사촌 정희(鄭晦)와 남산 기슭에 올라 봄 경치를 즐겼다고 한다.

이때 하인이 달려와 추국(推鞠)에 참석할 시간이 되었다고 일렀다. 그러자 유몽인은 “이처럼 좋은 시절에 어떤 도깨비 같은 자가 감히 익명(匿名)으로 고변하여 나에게 이 즐거움을 만끽하지 못하게 한단 말인가”라 하곤 대궐에 들어가면서 중얼거리던 시를 국청에서 붓으로 옮겨 썼는데 이 시가 문제였다. “성 안에 가득한 꽃, 버들과 봄놀이를 즐기는데/ 옥같이 고운 손, 잔을 놓고 백주장을 부르네/ 장사가 홀연히 장검을 짚고 일어서/ 취중에 늙은 간신의 머리 찍으려 하네.” 문제의 시어는 ‘백주’(栢舟)와 ‘늙은 간신’(老姦)이었다. 유몽인이 폐모된 인목대비의 고통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었다. 늙은 간신은 인목대비 폐위를 밀어붙인 대북의 대신들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유몽인은 동시에 자신이 현재의 옥사(獄事)에 대해 살펴보니 대단한 것은 아닌 듯 했다면서, “어떤 자가 이런 재앙을 만들어내어 100명씩이나 연루되는 옥사가 이뤄졌는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고 광해군에게 토로 했듯이 대북 일당 전제의 경색된 정국에서 잇따르는 옥사에 불만을 가졌음도 시인했다. 광해군은 사직을 청하는 유몽인에게 “아경(亞卿·참판)은 건성으로 처리할 직임이 아니고 국청은 시를 짓는 장소가 아니다. 일이 해피하기 그지없으니 물러가 공의(公議)를 기다리라.”고 일단 유보적인 조치를 취했다.

## 3) 벼슬을 구걸하지도, 벼슬에 연연하지도 않은 선비!

광해군 때 배척 받았던 사람들이 대거 몰려 벼슬자리를 구했다. 그러나 유몽인은 달랐다. 영은사의 두 승려가 “지금 새로운 성군께서 나라를 다스리자 벼슬을

구하는 자들이 시장에 물려드는 것 같은데, 왜 증로에 배회하십니까?”라고 묻자 “내가 산에 들어온 것은 세상을 가볍게 여김이 아니라 산을 좋아했기 때문이고, 지금 산을 떠나는 것은 관직을 위해서가 아니라 식량이 떨어졌기 때문이다.”라고 답하며 역시 출사를 거부했다.

그러나 그는 소극적으로 출사만을 거부하는 것으로 광해군에게 절개를 바친 것이 아니었다. 인조 즉위 석 달 뒤인 인조 1년(1623) 7월 선산이 있는 양주(楊州)로 내려가 있던 유몽인에게 금부도사가 들이닥쳤다. 그의 아들 유약 등과 함께 광해군을 복위시키려 했다는 혐의였다. 유몽인은 국문에서 아들이 자신이 지은 ‘청상과부의 탄식’이란 ‘상부탄(孀婦歎)’을 좋아해 일을 저질렀다고 시인했다.

일흔 살 늙은 과부가  
 혼자서 규방을 지키는구나  
 사람마다 개가를 권하는데  
 무궁화 꽃 같은 멋진 남자였네  
 여사의 시 자주 들었기에  
 태임(太妊·주 문왕의 모친)·태사의 훈계 조금은 알았지  
 흰 머리에 젊은 얼굴로 단장한다면  
 어찌 분가루에 부끄럽지 않겠는가?”

인조는 ‘무궁화 꽃 같은 남자’지만 자신은 끝내 광해군에게 절개를 지키겠다는 뜻의 시였다.

“떠나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알고 떠나가는 이, 그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광해군 12년(1620) 8월 원접사(遠接使) 이이첨(李爾瞻)이 김상헌·장유 등 서인계 인물들과 함께 유몽인이 ‘문예(文藝)에 매우 뛰어나다’며 다시 등용할 것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예문관 제학에 임용되었으나 그는 출사하지 않았다. 결국 유몽인은 63살 고령으로 금강산으로 들어간다.

“신선과 부귀를 모두 갖기는 어렵네/ 세월은 흐르고 인간 세상의 계획은 어그러졌네”라고 속세를 떠나 출가하는 심정을 밝히는 시도 썼다. 금강산에서 홀독한

병을 앓으며 한겨울을 난 유몽인은 이듬해(1622) 보개산으로 저처를 옮겼다고 한다. 그런데 바로 그해 정변이 일어나 광해군이 쫓겨나고 인조가 즉위 했다. 유몽인은 이때의 심경에 대해 이렇게 토로하였다고 한다.

“지난 가을 구월 내가 금강산에 들어온 것은 노년을 마치고자 함이었다. 지난 10월에 집안사람들이 서울에서 산사로 온 것은 나의 위중한 병을 치료하기 위함이었다. 구군(舊君)이 폐위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나 내가 크게 놀라지 않은 것은 이미 조짐이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은 밝혀지는 법’ 역사평론가 이덕일의 말을 빌면 유몽인도 광해군의 실정에 대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차마 신하된 자로서 임금을 쫓아낼 수는 없었던 것이다. 반정에 성공한 인조의 조정은 결국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반정의 일등공신 이귀(李貴)는 인조에게, “유몽인이 한 번 백이(伯夷)에 관한 설을 주창하자 학식이 있는 사람까지도 따라서 화답하였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당시 서인들의 쿠데타에 불만을 품은 많은 인사들은 유몽인이 백이숙제처럼 광해군을 위해 절개를 지키겠다고 맹세한 것에 큰 영향을 받았던 것이다.

이렇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지조 있는 선비 유몽인의 억울함은 정조에 의하여 풀어졌다. 정조는 18년(1794)에 유몽인을 일러 “혼조(昏朝·광해군) 때는 바른 도리를 지켜 은거하였고, 반정(反正)한 후에도 한번 먹은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그 절개를 높이 샀다고 한다.

#### 4) 《어우야담》에 실린 이야기

유몽인 스스로 호를 ‘어우(於于)’라 하였다. ‘어우(於于)’란 《장자(莊子)》〈천지(天地)편〉에 나오는 말로 밭을 돌보는 노인이 공자의 제자 자공(子貢)에게 공자를 빗대 “허망한 말로 세상을 속이고(於于以蓋衆) 홀로 악기를 연주하며 슬픈 노래를 불러 천하에 이름을 파는 사람 아닌가(獨弦哀歌以賣名聲於天下者乎)”라고 비웃으며 “밭가는 일을 방해하지 말고 가라.”고 조롱한 데서 나온 말이라 한다. 이는 유교를 통치의 이념으로 삼고 있는 조선에서 공자를 비웃은 ‘장자’의 한 구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세상에 떠도는 이야기를 기록하여 책을 엮고 책의 이름을 《어우야담(於于野談)》이라 한 것은 바로 유몽인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보려하였는지를 가늠케 한다.

《어우야담》에는 온갖 삶의 군상들이 들어있다. 군신, 부자, 부부, 장유, 봉우의 이야기뿐 아니라 노비, 배우, 창기, 승려, 무격 등의 이야기들이다. 이 밖에도 일상사의 제도와 문물에 대한 온갖 이야기들이 고스란히 담겼다. 차이에 대한 인정이 소통의 기본임을 생각할 때 어우당이 야담집을 엮은 뜻이 소통과 화합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知知之不知不知之’

묘비도 없는 유택의 돌레에서 고사리들이 지천으로 자라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그 곳에 이르는 산비탈에 사연 많은 은방울꽃이 지천인 것은 또 무슨 까닭일까? 살아서 여당 속 야당으로 살더니만 경기도 땅 한 모퉁이에서 ‘어우’, 경기도의 혼으로 스미어 있다. 지금도 유몽인은 이렇게 묻고 이렇게 답한다.

燕燕作何辭(연연작하사)

제비는 무슨 소리를 내나?

知知之不知不知之(지지지부지부지지) 지지지 부지 부지지 하고 울지.

(유몽인 작, 연연(燕燕) 중)

꼭 한번 가평군을 찾아가 보시라. 정말 이상하지만 하색리의 제비들은 ‘지지지 부지부지지’ 한다.

〈경기일보, 2008. 6. 13〉

##### 5) 광해군에겐 유몽인이 있었다

《어우야담》의 저자로 유명한 유몽인(柳夢寅·1559~1623)은 왜란 때 광해군이 이끄는 ‘작은 정부’(분조 分朝)를 따라다니면서 활약했다. 이런 인연으로 광해군 즉위 후 이조참판을 거쳐 대제학에 올랐다. 당대의 문장가였던 그는 은을 채굴하고 화폐를 사용하며, 선박과 수레를 사용하고 상설점포를 개설하자는 등 32가지의 경제개혁안을 바탕으로 여진족을 방어해야 한다고 건의한 실사구시적 경제가였다. 하지만 광해군이 영창대군을 죽이고 인목대비를 서궁(현 덕수궁)에 유폐시키는 난맥상을 보이자 초개같이 벼슬을 버렸다.

그는 고사리로 연명한 백이숙제의 옛 이야기를 따라 산속에 은거했다. 그림에

도 인조반정 후 유몽인은 제주 광해군에게 절의를 지키려 했다 하여 역적으로 몰려 처형된다. “흰 머리에 젊은 태로 꾸민다면 어찌 연지분이 부끄럽지 않으랴”고 당시 그가 읊은 상부사(孀婦詞)는 특히 유명하다. 후일 정조는 유몽인을 복권시키면서, 세속의 명리를 헌신짝 보듯 보는 백이숙제와 같은 인물로 추켜세웠다. 정조는 단종 때의 김시습이 웅장한 설악산과 같다면, 광해군 때의 유몽인은 화려한 금강산과 같다고 평했다. 하나는 살고 하나는 죽었으며 하나는 강개하고 하나는 조용하다는 차이가 있지만, 원칙을 굳게 지킴과 마음의 정성스러움은 같다는 것이다.

(훗날 복위된)단종을 위해 원칙을 지키면서 할 말을 제대로 한 김시습만이 후세 역사에서 복권되고 충신으로 기록되는가, 아니다. (복위되지 못한) 광해군을 위해 원칙을 지키면서 할 말을 제대로 한 유몽인 역시, 후세 역사에서 복권되고 충신으로 기록된다. 전통시대 조선 사람들이 지켜낸 역사공동체는 이런 수준이었다.

〈조선일보, 2003. 2. 27, 특집〉

#### 6) 불사이군(不事二君)

광해군은 외교에는 뛰어났지만 내치에는 서툴렀다. 모든 당파를 초월해 각당의 당론(黨論)을 조절해야 했지만 스스로 복인 임금으로 자처했다. 재위 5년(1613)의 계축옥사 때 인목대비의 아들 영창대군과 친정아버지 김제남(金悌男)까지 사형시키고도 이이첨(李爾瞻) 등 대북(大北) 강경파들이 대론(大論) 또는 대절(大節)이라 불렀던 인목대비 폐위론에 동조한 것이다. 국가 발전과는 무관한 이념 논쟁에 불과한 폐모론으로 날이 새고 지는 형국이었다. 야당이었던 서인과 남인은 극력 반대했고, 여당인 복인 중에서도 기자헌(奇自獻)과 정온(鄭蘊) 등이 반대에 대북만이 찬성했다. 그러나 광해군과 대북은 다른 정파를 모두 축출하고 재위 10년(1618) 인목대비 폐모를 강행했다. 이런 상황에서 인조반정이 일어나자 대북에 대한 정치 보복이 거셌다. 반정 당일 이천(利川)의 시골집으로 도주했던 이이첨 등이 체포되어 사형당하면서 폐모론에 참여했던 인사들은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 『어우야담(於于野譚)』의 저자였던 유몽인(柳夢寅)의 처신은 남달랐다. ‘당의통략(黨議通略)’이 ‘유몽인이 정온을 도와서 중북(中北)이 되었다.’고 기록한 것처럼 인목대비 폐위에 반대했다. 또한 광해군 10년 파직된 후

산중에 은거했다. 인조반정 후 그가 머물던 보개산영 은사의 승려가 “벼슬을 구하는 자들이 시장에 몰려드는 것 같다.”며 새 정권 참여를 권유했으나 거부했다. 되레 그는 광해군 복위를 도모했다는 이유로 아들 유약과 함께 체포되었다. 조익(趙翼)의 《포저집(浦渚集)》에는 ‘자신(유몽인)의 시를 공술하면서 폐주(廢主)를 위해 복수하려 했다고 말하기까지 하였다.’고 적고 있다. 절개를 노래한 청상과부의 탄식이란 뜻의 <상부탄(孀婦歎)>이 그의 시이다. 광해군 말년 정계를 떠나 은거했던 유몽인은 광해군 복위운동에 가담했다가 사형당하는 불사이군(不事二君)을 실천했다. 당선자 측에 선을 대려는 현 정권 고위직들에 대한 보도가 있따르고 있다. 다른 성격의 정권이 들어섰으면 자기 성찰과 주변 정리에 들어가는 것이 옳다. 그것이 한때 자신이 이끌었던 시대에 대한 예의다.

〈조선일보, 2008. 1. 14, 이덕일 역사평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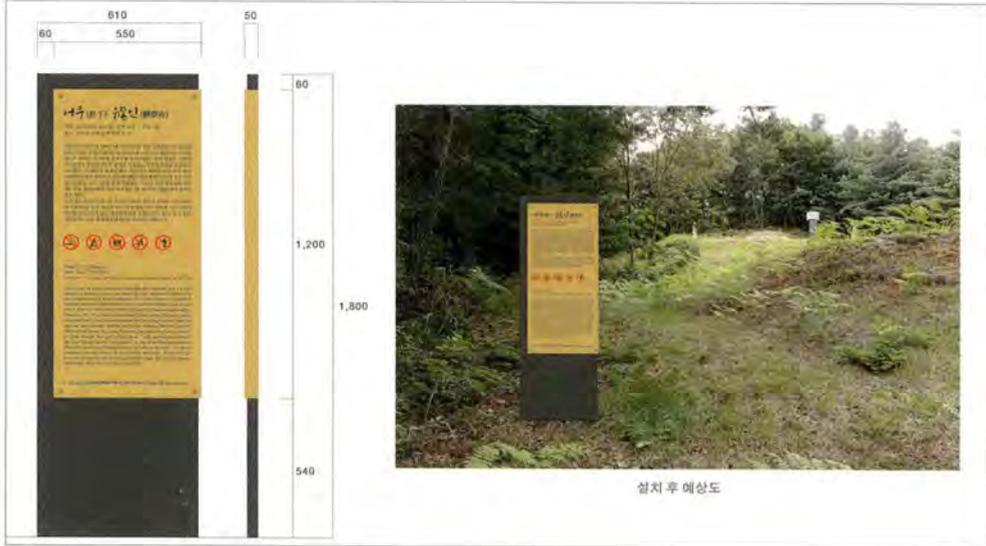
#### 7) 상부시(孀婦詩)

七十老孀婦(칠십로상부)	칠십이 된 늙은 과부가
單居守空壺(단거수공곤)	외로이 빈방을 지켜왔다
慣讀女史詩(관독녀사시)	여자로서 가질 교양을 상당히 받아
頗知妊似訓(파지임사훈)	옛 훌륭한 부인들의 교훈을 잘 알고 있다
傍人勸之嫁(방인권지가)	다른 사람은 그에게 재혼을 권하며
善男顏如槿(선남안여근)	잘 생긴 미남자가 있다고 하지만
白首作春容(백수작춘용)	늙은 얼굴에 모양을 내다니
寧不愧脂粉(영불괴지분)	연지분이 도리어 부끄럽지 않으랴?

1623년 3월 인조반정이 일어나자 주변에서 유몽인에게 새로 등극한 인조에게 하례를 권했으나 듣지 않고 자신의 절개를 내포한 상부시를 보개산 절벽에 지어 놓았다.

〈역자 : 후학 임창순〉

참고1) 어우 유몽인 묘소 지주 간판(안)



어우(於于) 유몽인(柳夢寅)

시대 : 조선(1559~1623, 명종 14년~인조 1년)

장소 : 경기도 가평군 하색리 산 80

유몽인은 조선시대 광해군 때 이조참판을 지낸 고위관료이자 외교관, 문학가이다. 당시 이례적으로 명나라에 사신으로 세 번이나 다녀올 정도로 뛰어난 외교력과 문장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당쟁과 고루한 가치관에서 벗어나 정치적 균형과 자유롭고 창의적 문학을 추구하려 노력했다. 이 때문에 광해군 때는 인목대비 폐위를 지지하지 않아 정권(북인)에서 파직됐고 인조반정 때는 반정세력(서인)에 동조하지 않아 누명을 쓰고 아들과 함께 처형됐다. 그러나 그의 진정성과 문학성은 훗날 정조(正祖)로 부터 절게 있는 '참 선비'란 극찬을 받아 관직이 복권됐다. 그의 대표작이자 조선시대 최초의 야담집 가운데 하나인 <어우야담(於于野譚)>은 당시 관습과 달리 왕실에서 부터 천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간군상의 삶을 재미있게 다뤄 호평을 받고 있다. 당시 주류 양반들과는 다른 관점에서 백성들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Name : Yoo, Mong-in

Born-Died : 1559-1623

Location : Gyeonggi province, Gapyeong county, Hasek-ri, M.t 80

Yoo, Mong-in was a prominent high official, diplomat, and a writer during the Joseon Dynasty. He served as vice-minister of Interior in the administration of King Gwanghae. He was also known as a talented diplomat who had visited Ming Dynasty of China three times as a King's envoy. But he is best remembered for his political balance and creative literature. Mr. Yoo tried to keep away from chronic factional strife which led him to disciplinary dismissal by the ruling fraction (Buk-In) and was later executed with his son by the opposite fraction (Suh-In) which seized power in a coup. However, his status was later reinstated by King Jeongjo who praised him as an "truly gentleman(scholar)". Mr. Yoo's major novel 'Au-yadam' is one of the first masterpiece of unofficial historic books(Yadam) in Joseon dynasty. The book contained not only stories on royal family and noble, but also on the lives of various people including the low class. He viewed people differently than other nobles of his time.

여 백

의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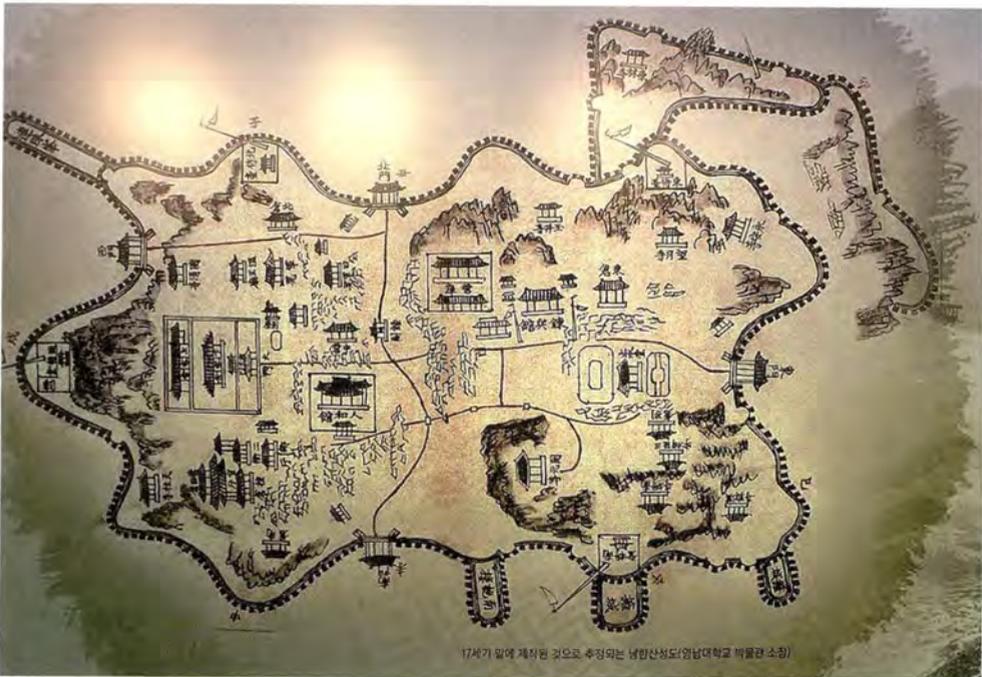


# 완풍부원군 월봉 이서 이야기

최영희 | 의정부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장



이서 묘역(의정부시 고산동 구성마을)



남한산성도(영남대박물관 소장)

## 완풍부원군 월봉 이서 이야기

최영희 | 의정부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장

### I. 들어가며

의정부 고산동 구석(構石)마을은 조선 태종의 둘째 아들인 효령대군의 손자인 윤림도정 이핍(李幅, 1396~1486)의 후손들이 살았던 곳으로, 마을로 들어가거나 나올 때 입구에 있는 '구석(構石, 꾀돌백이)'이라는 돌을 딛고 말을 타거나 내려서 걸어갔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요즘에는 구석말이 변음되어 '구성말'이라고도 한다.

이 마을에는 명선대부 윤림도정 이핍(李幅)의 묘역을 비롯하여, 그 후손들과 이서의 부친인 완녕부원군 이경록(6대)의 묘와 신도비, 완풍부원군 이서(7대손)의 묘와 신도비가 부용산 끝자락 여기 저기 한 마을에 위치해 있다.

경기북부 인물지(人物志) 발간 소식을 듣고, 우리고장에 그리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국가와 민족을 위해 업적을 남기신 역사문화 인물을 선정함에 있어 망설임 없이 완풍부원군 이서를 택하였다. 그는 남한산성 수축에 기여하고 무관이면서 《마경언해(馬經諺解)》, 《화포식언해(火砲式諺解)》 등을 저술하여 당시 전장에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병자호란 당시 남한산성에서 임금을 모시고 말은바 책무를 다하다 숨을 거두었다.

남한산성이 2014년 6월 22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으니, 산성 수축에 공이 많은 이서 장군도 자주 언급될 것이고, 그의 무덤을 찾는 이들도 점차 늘어날 것이다. 의정부 고산동 구성마을 부용산 끝자락, 생가 뒷골에 잠들어 있는 월봉 이서를 이번 기회에 세상에 알리는 기회를 만들고자 한다. 따라서 아직 향토문화재 지정이 되지 않는 않았으나 앞으로 그쪽 연구도 계속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 II. 완풍부원군 월봉 이서(李曙)

### 1. 생애 및 활동사항

◇ 1580년(선조 13) 11월 22일

이서는 아버지 이경록(李慶祿, 1543~1599년)과 어머니 덕수 이씨 사이에서 차남으로 태어났다. 그는 어려서는 총명하였고, 성장하면서 문재(文才)를 보여서 일찍이 우계 성혼(成渾, 1535~1598)<sup>1)</sup>의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나,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선업(先業)을 이어받아 학문을 버리고 무관의 길을 가기로 결심한다.

◇ 1603년(선조 36)

이서는 24세 되는 해에 무과에 급제하여 행사용(行司勇)<sup>2)</sup>을 시작으로 공직생활을 하게 된다. 일찍이 백사(白沙) 이항복(李恒福, 1556~1618)<sup>3)</sup>의 체부막(體府幕)의 비장<sup>4)</sup>으로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항복이 이미 이서를 큰그릇으로 여겨 특별히 그 대우가 남달랐다.

남포(藍浦, 현 마산시 구산면)의 현감이 되어서는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데 뜻을 두어 치적(治績)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의 구함(構陷)<sup>5)</sup>을 받아 배척되어, 양주 대탄(大灘)<sup>6)</sup>가에 물러가 은거하였는데, 집안 형편이 심히 쪼들려도 편안해 하였다.

1)성혼(成渾) : 조선 중기의 문신·학자이다. 자는 호원(浩原)이고, 호는 우계(牛溪)·묵암(墨庵)이며, 시호는 문간(文簡), 본관은 창녕이다. 기묘명현인 성수침(成守琛)의 아들로 명망이 높았으나, 임진왜란 때 임금을 따라가지 않은 것과 일본과 화의를 주장한 것이 논란거리가 되었다. 서인들이 집권한 숙종 7년(1681)이 돼서야 이이와 함께 문묘에 배향되었다.

2)행사용(行司勇) : 사용(司勇)은 조선시대 오위(五衛)의 정9품 관직이다. 조선시대 품관과 관직의 불일치를 보완하고자 하는 행수법 실시로, 관직이 품계보다 낮은 경우를 '行', 관직이 품계보다 높은 경우를 '守'라 하였다. 직함을 쓸 때 '行' 또는 '守'를 품계 뒤 관사명 앞에 쓰게 되어 있었다.

3)이항복(李恒福) : 백사 이항복은 조선시대에 특히 친숙한 인물이다. 그의 이름이 낮설더라도 오성과 한음이라고 말하면 금방 알아챌 것이다. 오성은 오성부원군 이항복이고 한음은 한원부원군 이덕형(李德馨)이다.

4)비장 : 조선시대 감사·절도사 등 지방장관이 데리고 다니던 막료(幕僚)를 말한다.

5)구함(構陷) : 계획적으로 남을 엮어매어 죄를 덮어씌우는 것을 말한다.

6)양주 대탄(大灘)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을 흐르는 한탄강의 옛 이름이다.

얼마 뒤에 장련(長連)<sup>7)</sup> 현감이 되었고 절충(折衝)장군<sup>8)</sup>으로 승진하였다. 그곳의 폐단이 제거되고 정사를 잘 수행하니 장련의 백성들이 따르고 좋아했다.

고과(考課)에서 최고의 점수를 얻었기에 황해도 곡산(谷山)군수로 발탁되었다. 그가 임지로 가보니 관가 창고 안에 쌓여 있는 병기는 모두 숫자만 채워져 있을 뿐 하나도 쓸모가 없이 남아 있었다. 이서는 곧 육방관속들을 불러 병기를 방치해 둔 채 고치지 않은 연유를 물었다. 그러자 관속들은 “병기를 고칠 재정이 없고 그렇다고 지방 유지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도 없으니 별 수가 없다.”고 아뢰었다. 며칠 동안 고민하던 이서는 새로 만들기로 계획하고, 아전을 불러 다음과 같은 방을 붙이게 했다.

“만일 내가 지키는 대로 날천산(捺川山) 아래서 이틀씩 일을 해주는 사람에게는 1년 동안 부역을 면제하여 줄 것이다.”

방이 나붙자 백성들이 구름처럼 모여 들었다. 군수는 먼저 백성들을 산으로 올려 보내 큰 나무를 잘라 내려 보내게 하였다. 그리고 그 재목들을 황주(黃州)·봉산(鳳山) 지방에 내다 팔아 생긴 돈으로 그곳에서 흔한 면포를 많이 구입하여 다른 지역에 팔도록 하였다. 이리하니 목재와 면포에서 많은 이문이 남게 되었다. 이서는 이익금의 일부를 백성들 부역의 품삯으로 보상해 주고, 남은 돈으로는 목수와 병기 만드는 공인, 대장장이들을 불러 모았다. 활 만드는 사람은 활을 만들고, 화살을 만드는 공인은 화살을 만들게 하니 얼마 안 되어 활이 1천개나 되고 화살촉이 1만개가 넘었으며 조와 쌀을 저축한 것도 천 석이 넘었다. 이 일이 조정에게 알려져 이서는 가선대부(嘉善大夫)<sup>9)</sup>로 품계가 올랐다.

이후 진도(珍島) 군수가 되었다. 섬 백성들을 잘 어루만지니 백성이 부모같이 여겼으며, 그곳에서 임기가 만료되어 조정으로 돌아왔다.

7) 장련(長連) : 황해도 서북부에 있는 은률군 장명진(長命鎭)과 연풍장(連豐莊)이 합하여 생긴 지명

8) 절충(折衝)장군 : 조선시대 무신 정3품 당상관의 품계명이다.

9) 가선대부(嘉善大夫) : 조선시대 종2품(從二品)의 문관과 무관에게 주던 품계이다.

◇ 1606년(선조 39)

이서는 궁궐의 선전관(宣傳官)이 되었다. 선전관이란 어가(御駕) 앞에서 훈도(訓導)하는 임무를 맡은 무관을 말한다. 선전관은 근시(近侍)의 직임을 가지므로 서반승지(西班承旨)로 지목되어 청요직(淸要職)으로 간주되었다. 특히 선전관 가운데 당상관·당하관을 막론하고 4인을 승전기(承傳岐)로 정하여 전명을 전담시켰는데, 그들은 6개월 만에 전직되도록 되어 있었지만, 가장 핵심적 존재였다.

한편, 선전관은 장차 무반의 중추적 존재로 성장할 인재들이라는 점에서 무재(武才)가 있으며 굳세고 용맹한 사람을 뽑아 임명하고, 끊임없이 무예와 병법을 연마시키기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선전관에 임명되는 사람은 승진(陞進)과 가계(加階)에 상당한 특전을 입을 수도 있었다.

◇ 1618년(광해군 10)

무오년에 대북파에서 국모(인목대비)<sup>10)</sup>를 폐하기 위하여 정청(庭請)하기로 의논하였다. 이서가 그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국모를 폐하자고 하나 의리상 정청에 참여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노친이 계시니 장차 어찌하오리까.” 하였다. 어머니가 말하기를, “너의 뜻이 그러하면 나를 생각하지 말라.” 하니, 그가 마침내 참여하지 않았다. 사헌부에서 이서를 중형에 처하기를 청하였다. 이 일로 이서는 태안(泰安) 바닷가로 물러가 조용히 살면서 명을 기다렸다. 얼마 후 그는 모친 상(喪)을 당하여 바닷가로 옮겨가서는 벼슬에 대한 뜻을 끊고 여생을 그곳에서 마감하려 하였다. 그 무렵에 친분이 있던 신경진(申景禎)<sup>11)</sup>과 만나면, 더불어 서로 세상을 개탄하고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였다.

10)인목대비 : 선조는 1567년 16세 나이로 즉위, 2년 만에 의인왕후를 맞아들였으나 왕비는 3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고 1600년 병으로 죽음을 맞게 된다. 선조는 50살에 19살 계비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녀가 인목대비다. 그녀는 영창대군을 낳았으나 25살에 홀몸이 되었다. 그때 광해군이 즉위했는데 인목대비보다 9살이나 많았다. 인목대비는 선조의 적자 영창대군을 낳았으나 시대의 악운에 아들을 잃고 대북세력들에 의해 ‘폐모론’까지 거론, 경운궁에 유폐된다. 즉 대북세력들은 그녀의 아버지 김제남과 역모를 꾸민다는 투서를 보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전상인들을 동원해 폐모론을 주장한 것이다.

11)신경진(申景禎) : 1575(선조 8)~1643(인조 21). 조선 중기 무신. 광해군이 즉위하여 대북파(大北派)가 정권을 장악하자 관직에서 물러나 있던 중, 1620년(광해군 12) 김류(金瑬)·이귀(李貴)·최명길(崔鳴吉)·구인후(具仁厚) 등과 모의, 그와 인척 관계에 있는 능양군(綾陽君; 仁祖)을 추대하기로 하였다.

◇ 1620년(광해군 12)

이서가 모친 삼년상복을 벗으니 장단(長湍)부사 겸 경기 방어사로 제수(除授)되었다. 제수란 시험이나 천거 등의 임명절차를 거치지 않고 왕이 직접 벼슬을 내리는 일을 말한다. 원래는 현재의 관직을 해임하고 새로운 관직을 내려 취임시킨다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왕이 관리를 임명하는 모든 행위를 제수라고 하였다.

◇ 1623년(광해군 15) 3월 12일

임금이 대신 금부당상, 포도대장을 부르게 하고, 또 도승지 이덕형(李德炯), 병조판서 권진을 입직하게 하였다(이반의 상소를 올렸으나 왕이 여러 여인들과 어수당(魚水堂)에서 연회를 하며 술에 취하여 오랜 뒤에야 그 상소를 보았는데, 역시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겼다. 이에 유희분·박승종이 두세 번 비밀리에 아뢰어 속히 조사하게 할 것을 청하였으므로 이 명을 내렸다. 대신 이하 관원들이 대궐에 나갔으나 대궐문이 벌써 닫혔으므로 비변사에 모였는데, 비변사 당상들도 와서 모였다.). 도감대장 이흥립(李興立)은 군사를 거느리고 궁성(宮城)을 호위하게 하고(흥립은 박승종의 사돈으로서 그의 추천으로 직임을 제수 받았는데 이 때 은밀히 반정군과 합세하였다.), 천총 이확(李廓)을 보내어 창의문(彰義門) 밖을 수색하게 하였다(이반이 문 밖에 반정군이 주둔해 있다고 고했기 때문이었다. 이확이 명령을 받고 즉시 시행하지 않았는데 이 때 이미 밤 자정이 지났다.). 이날 능양군은 연서역(延曙驛) 마을에 주둔하였는데, 대장 김류(金鑾, 전 강계부사(江界府使)로 집에 있었다.), 부장 이귀(전 평산부사로서 논핵을 받아 명을 기다리고 있었다.) 등은 최명길(崔鳴吉, 전 병조좌랑), 김자점, 심기원(유생) 등과 홍제원(弘濟院) 터에서 모였고, 장단방어사(長湍防禦使) 이서(李曙)는 부하 병사를 거느리고 왔고, 이괄(李适, 북병사(北兵使)에 제수되었는데 떠나지 않았다.)…〈중략〉… 계축옥사<sup>12)</sup>로 서인과 남인은 대부분 조정에서 쫓겨나고 대북파가 정권을 장악하였다. 서인일파는 사림세력의 이러한 불만을 이용하여 정변을 꾀했다. 김류, 이귀, 최명길, 장유, 심기원, 김자점 등이 모의에 참여하면서 더욱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들은 1622년(광해군 14) 가을에 이귀가 평산부사로 임명된 것을 계

12) 계축옥사(癸丑獄事) : 칠서지옥(七庶之獄)이라고도 한다. 1613년(광해군 5) 대북파(大北派)가 영창대군(永昌大君) 및 반대파 세력을 제거하기 위하여 일으킨 옥사.

기로 군사를 일으키려 했으나 사전에 발각되었다. 하지만 대간(臺諫)이 이귀를 잡아다 문초할 것을 청하였으나 심기원과 김자점이 후궁에 청탁을 넣어 사건은 흐지부지되었다. 그 뒤 반정세력은 장단부사로 있던 이서가 덕진(德津)에 산성을 쌓는 것을 감독하게 되자, 그곳에 군졸을 모아 훈련시키며 정변을 준비하였다.

반정세력은 이듬해 1623년 음력 3월 12일을 거사일로 정해 준비하였다. 그리고 훈련대장 이흥립(李興立)을 한편으로 끌어들이고, 장단부사 이서와 이천부사 이중로(李重老) 등이 군졸을 이끌고 모여들었다. 하지만 이이반(李而旼)이 그 사실을 고변하여 정변계획은 사전에 발각되었다. 그래서 정변이 예정되었던 3월 12일 저녁에 박승중 등은 추국청(推鞠廳)을 설치해 고발된 모든 사람을 체포하려 했다. 하지만 후궁과 연회를 벌이던 광해군은 이를 재가하지 않았고, 붙잡았던 이흥립마저 풀어주었다. 결국 이이반의 고변으로 상황이 더욱 급박해진 반정세력은 예정대로 정변을 추진하기로 했다. 능양군<sup>13)</sup>은 친병(親兵)을 이끌고 연서역(延曙驛)으로 가서 이서 등과 합류하였는데, 무리가 1천4백여 명이 되었다. 이들은 삼경에 창의문 빗장을 부수고 도성으로 들어가 곧바로 창덕궁으로 갔다. 이흥립은 궁궐을 지키던 병사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내응하였고, 초관(哨官) 이항(李沆)이 돈화문을 열어 반정세력을 궐 안으로 끌어들이면서 정변은 손쉽게 성공하였다. 인조반정이 일어나자 광해군은 도망하여 의관 안국신의 집에 숨었다.

《광해군일기》

◇ 1623년(인조 1) 3월 13일

능양군이 반정을 일으켜 왕대비(인목대비)를 받들어 복위시킨 다음, 대비의 명으로 경운궁에서 임금(인조)으로 즉위하였다. 이후 광해군을 폐위시켜 강화(江華)로 내쫓고 이이첨(李爾瞻) 등을 처형한 다음 전국에 대사령을 내렸다.

이서는 반정 1등 공신으로 책록되어 분충찬모입기명륜정사공신(奮忠贊謨立紀明倫靖社功臣)의 호(號)를 받고 완풍군(完豐君)에 봉해졌다. 《인조실록》

13)능양군(綾陽君, 후에 인조) : 선조의 손자이고 아버지는 정원군(定遠君, 원종으로 추존), 어머니는 인헌왕후(仁獻王后)이다. 비는 한준겸(韓浚謙)의 딸 인열왕후(仁烈王后), 계비(繼妃)는 조창원(趙昌元)의 딸 장렬왕후(莊烈王后)이다. 1607년(선조 40) 능양도정(綾陽都正)에 봉해졌다가 후에 능양군(綾陽君)으로 진봉되었다.

◇ 1623년(인조 1) 3월 17일

이서(李曙)를 호조판서로 삼았다. 이서는 본래 무인으로 문사(文辭)에 통달하고 강개하며 제책이 있었다. 폐조 때 오랑캐의 서신에 답하는 일로 수의(收議)하자 이서만이 거절하자는 뜻을 진술하였으므로 식자들이 훌륭히 여기었다. 김류·이귀와 함께 의거를 공모할 때 장단(長湍)의 임지로부터 군사를 거느리고 달려왔으므로 군사들이 마음속으로 그를 믿고 두려워하지 않았다. 정사(靖社)의 공로에 크게 기여하였다. 반정 초기에 호조의 사무가 매우 많고 어지러웠으나 이서가 칼날 같이 해결하니 교활한 아전이 기무(欺誣, 깔보고 업신여김)하지 못하였다. 장차 비용을 절검(節儉)하고 부세를 감하는 큰 조치가 있었는데, 모리배가 그 사실이 밝혀짐을 꺼리어 방언(謗言, 헐뜯는 말)으로 선동하니 이서가 드디어 사직하였다. 곧바로 경기관찰사에 제수되었는데, 순선(旬宣)하는 직임에 무인(武人)을 등용한 것은 특이한 은수(恩數)<sup>14)</sup>였던 것이다. 《인조실록》

◇ 1624년(인조 2) 1월 3일

이서(李曙)를 경기감사로, 김시언(金時言)을 부수찬으로, 윤황(尹煌)을 응교로 삼고, 개성유수(開城留守) 이귀(李貴)를 불러 의정부 우찬성으로 삼았다. 《인조실록》

◇ 1624년(인조 2) 1월 14일

경기감사 이서(李曙)가 상차하여, 궁성 안팎을 신칙하여 시위(侍衛)를 엄중히 하고 또 상벌을 명백히 하여 균율을 엄하게 할 것을 청하니, 상이 가납하고 이어 해조에 내렸다. 병조가 회계하기를, “경기 감사 이서의 차자 사연을 보건대, 모두가 근심하는 정성이었습니다. 세 감영을 설치하는 방책은 지극히 상세하니, 본조가 호위대장(扈衛大將)과 상의하여 모두 차자의 사항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인조실록》

◇ 1624년(인조 2) 3월 9일

임금이 자정전에 나아가 완풍군 이서를 인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이 지

14) 은수(恩數) : 공(功)이 높은 사람에게 임금이 베푸는 특별한 은전(恩典)을 말한다. 높은 벼슬과 후한 봉록, 또는 주찬(酒饌)과 초피(貂皮)·의복·화(靴)·대(帶) 등의 특산물을 하사했음.

난번 출사(出師)했을 때 길에서 분주하기만 하고 적봉(賊鋒)과 마주치지 않았던 것이 한스러웠다.”하니, 이서가 아뢰기를, “신이 명을 받고 출사하였으나 종묘사직이 파천하게까지 하였으므로 죄책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죄를 씻어주시는 은혜를 입었으니, 황공하고 감격하여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하고, 또 아뢰기를, “경기의 군사는 모두 쓸 만한 병졸이지만, 장관(將官)이 적당한 사람이 아닌 것이 걱정입니다. 이제부터 1천명을 한 영(營)으로 하고 먼저 그 고을에서 무재(武才)가 있는 자를 뽑아 그 장령(將領)으로 삼고 각 아문(衙門)과 감사(監司)·병사(兵使)의 군관으로 삼지 말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군사는 반드시 포쏘는 기술을 익히고 전마(戰馬)를 갖추어야 쓸 수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전마를 어떻게 마련할 수 있겠는가?”하니, 이서가 아뢰기를, “경기 출신으로서 전마를 갖춘 자는 부방(赴防)하는 역을 면제시킨다면 반드시 앞다투어 말을 살 것입니다. 평소에 하던 용맹하고 씩씩한 자의 전례에 따라 마료(馬料)를 주어 먹이게 하면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마를 가진 자는 으레 사복(司僕)에 실차(實差)하면 역시 말을 사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단병(短兵)으로 접전할 때에는 궁시(弓矢)를 쓸 수 없을 것이니, 편곤(鞭棍)을 가르쳐야 할 것이다.”하니, 이서가 아뢰기를, “포위를 뚫고 적진으로 돌진하는 데에는 편곤만한 것이 없습니다. 이번에 역적 이괄의 마군(馬軍) 7백인이 모두 편곤을 썼는데, 이 때문에 당할 수 없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남한산성의 형세가 어떠한가?”하니, 이서가 아뢰기를, “사면의 둘레가 2천3백 칸이고, 성안의 논은 10여 석의 곡식을 파종할 만한데 지금 경작하고 있는 곳은 반이 넘습니다. 남북은 가깝고 동서는 먼데 동서를 남북에 견주면 3,4배가 됩니다. 사면이 모두 높은 산과 험한 봉우리인데 성 밖에는 들여다 볼 만한 봉우리가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형세는 좋으나, 어떻게 성을 쌓겠는가?”하니, 이서가 아뢰기를, “3천석의 쌀로 일꾼을 사고, 벌을 주어야 할 포수(砲手)들을 아울러 쓰면, 폐해가 백성에게 미치지 않고 일을 끝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도원수의 말은, 도감(都監)의 포수는 본디 놀고먹는 사람이므로 별주기 위해 부방시키는 것은 괜찮으나 부역시키는 것은 마땅하지 않을 듯하다.”고 하였다. 이서가 아뢰기를, “신의 누이의 아들 이목(李穆)이 정탐하다가 적을 만나서 잡혔는

데, 이괄이 신이 있는 곳과 군사의 형세를 물었으나 이목이 끝내 말하지 않고 죽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매우 가상하다.” 하였다. 《인조실록》

◇ 1624년(인조 2) 5월 26일

완풍군 이서에게 명하여 경기의 군사를 조련하게 하였다. 이서는 본도의 감사를 역임하여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비국이 경기의 군사를 담당하게 하기를 청하니, 따른 것이다. 《인조실록》

◇ 1625년(인조 3) 1월 3일

총융사 이서(李曙)가 경기 각 고을에 군관 및 도감의 기고관(旗鼓官)을 보내어 조련하는 방법을 가르치게 할 것을 청하니, 상이 윤허하였다. 이때 이서가 바야흐로 경기 이내의 군대를 총괄하는 임무를 겸하면서 군병을 뽑아 총융군이라 이름하고 7영(營) 12부(部)를 만들어 각 고을로 하여금 마음을 다해 훈련시키도록 하였는데, 수령들이 모두 문관이거나 음관(蔭官)이어서 군무(軍務)를 이해하지 못했으므로 이렇게 청한 것이다. 사신은 논한다. 장수에게는 삼군(三軍)의 사명(司命)과 한 나라의 안위가 걸려 있으니 신중하게 책임자를 가리지 않으면 안 된다. 주상께서 즉위하신 초년에 군사에 관한 정사를 이서에게 일체 위임하였는데, 이서가 마음을 다해 봉공(奉公)했으나, 천성이 편협하고 생각이 부족하여 일을 해 가는 사이에 인정을 크게 거슬렀다. 아, 인화(人和)는 얻지 못한 채 한갓 말절(末節)인 훈련에만 힘을 쏟으니 또한 잘못되지 않았는가. 청석동(靑石洞)에서 머뭇거리다가 달아나고 군사들이 흩어진 것이 이유가 있다 하겠다. 《인조실록》

◇ 1625년(인조 3) 2월 16일

승록대부 행 한성부판윤(崇祿大夫 行漢城府判尹) 이서가 아뢰기를, “삼가 아뢰옵니다. 신은 우둔한 무변(武弁)으로서 요행히 각별한 대우를 받아 여러 차례 차지해서는 안 될 자리를 차지하였는데, 판윤, 총융(摠戎), 훈련도감, 군기시 제조, 별조청(別造廳)의 직임은 모두 기무(機務)가 바쁜 자리입니다. 신의 재주와 능력으로 말자하면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겸찰(兼察)하는 일이 다섯, 여섯 가지에 이르니, …〈중략〉… 더구나 겸관(兼管)하는 일이 많은데 정신은 한정이 있고

근력은 미치지 못하는 데야 더 말할 것 있겠습니까. 삼가 재주와 분수를 헤아려 볼 때, 명하신 자리를 감히 다시 맡아 대역(大役)을 지체시키고 그르쳐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자애로우신 성상께서는 매우 간절한 마음을 굽어 살피시어 겸관하라는 명을 환수하신다면,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천만다행이겠습니다. 재결을 바랍니다.”라는 판윤 이서의 차자(劄子)<sup>15)</sup>에 답하기를, “차자를 보고 경의 간절한 마음을 잘 알았다. 경의 재주가 진실로 이 직임에 적합하니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하였다. 《승정원일기》

◇ 1625년(인조 3) 2월 19일

좌의정 윤방(尹昉), 우의정 신흠(申欽), 예조판서 이정귀(李廷龜), 완풍군 이서(李曙), 형조판서 오윤겸(吳允謙), 능성군 구굉(具宏), 낙흥군 김자점(金自點), 호조판서 이경함(李慶涵), 병조참판 윤선(尹愐)이 아뢰기를, “나라에서 법을 적용하는 것은 죄와 율(律)이 서로 걸맞은 뒤에야 합당하게 되었다고 이를 것입니다. 이공(李珙)<sup>16)</sup>이 폐모(廢母)를 주장하는 것이 종척(宗戚) 가운데서 가장 심하게 하였으니, 신들이 외방에 내보내 안치하기를 청한 것은 실로 가볍게 처벌하는 형전입니다. 지금 만약 삭직(削職)만 하고 버젓이 사제(私第)에서 살게 한다면, 이것은 윤기(倫紀)에 관계된 죄를 대수롭지 않고 작은 일로 여긴 것이 되고 마니, 어떻게 강상(綱常)을 일으켜 세워 백성에게 밝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신들이 백료(百僚)를 이끌고 합문(閣門)에서 호소하며 간청할 줄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만, 그렇게 할 경우 조사(詔使)가 나온다는 기별이 이미 와 있는 상황에서 모든 관청이 직무를 보지 않는다면, 그 손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밝으신 성상께서는 종사(宗社)의 대계(大計)를 깊이 생각하시어 죄율(罪律)이 합당하게 되도록 하시고 속히 윤희를 내려 주소서.” 하니, 답하기를, “삭직하기로 한 것 또한 군정(羣情)에 쫓겨 한 것이니, 이외에 어찌 더 죄줄 것이 있겠는가. 외방에 내보내 안치하기를 청한 것은 결코 들어줄 수 없다. 경들은 부디 다시는 번거롭게 하지 말고 나의 마음이 안정되도록 하라.” 하였다. 《인조실록》

15) 차자(劄子): 신하가 왕에게 올리는 간단한 양식의 상소문.

16) 이공(李珙): 인성군 이공(李珙)은 선조의 일곱째 서자이며 호는 백인당이고 어머니는 정빈 민씨이다. 묘역은 의정부 금오동 천보산 자락에 있다.

◇ 1625년(인조 3) 7월 9일

완풍군 이서가 상차<sup>17)</sup>하기를, “삼가 아뢰입니다. 신은 작년 봄에 좌변포도대장(左邊捕盜大將)에 제수되었고, 얼마 안 있어 다시 기보 총융(畿輔 摠戎)에 제수되었는데, 내직과 외직을 겸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탐전(楊前, 임금의 자리 앞)에서 사면을 청하여 개차(改差) 되었습니다. 지금 총융의 직임을 아직 맡고 있는데, 다시 우변포도대장(右邊捕盜大將)에 제수되었습니다. 앞으로 순찰을 나갈 날이 머지않았고, 또 남한산성의 역사를 감독하기 위해 내일 당장 나가야 합니다. 사소하지 않은 순찰이라는 중요한 자리를 하루도 겸하여 행할 수 없으니, 신이 맡고 있는 우변포도대장을 속히 체차하여 숙위(宿衛)를 엄중하게 하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재결하여 주소서.”하니, 답하기를, “차자를 보고 잘 알았다. 경은 사직하지 말라.”하였다. 《승정원일기》

◇ 1625년(인조 3) 7월 19일

총융사 완풍군 이서가 상소하기를, “신이 일찍이 배사(拜辭)하던 날에 포도(捕盜)의 중책을 지방에 있는 자가 겸대할 수 없다는 뜻으로 대략 차자를 올려 말씀드렸는데, 성상께서 사직하지 말라고 하교하시는 바람에 신은 은혜에 감격하여 감히 다시 말씀드려 변덕스럽게 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물러나왔습니다. 산성을 수축하는 큰 공사가 거의 완성되어 가는 지금 공사를 감독하는 것이 바로 신의 직분입니다. 더구나 농사일이 이미 정지되었으니 병사들의 유무를 점고(點考)하고 기계를 단단히 점검하는 것은 바로 지금 할 일입니다. 그런데 문서를 보내어 호령을 하며 군무(軍務)를 총괄하여 다스리는 것은 서울에 있으면서 거행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신이 바야흐로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중략〉… 신이 헛되이 자리를 겸대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임시로 직무를 보게 해야 되겠습니까. 신이 구인후와 정분과 의리가 매우 절실하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바인데, 어찌 털끝만큼이라도 거짓으로 사양할 리가 있겠습니까.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속히 신의 직책을 개차하고 실제 책임자에게 주

17)상차(上箚) : 관료가 임금에게 차자(箚子)를 올리는 일. 차자는 소장(疎章)의 일종으로 일정한 격식을 갖추지 않고 간단히 사실만을 기록하여 올리며, 상소보다는 형식은 간단하면서도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 표현하는 이점이 있음. 소처럼 단독으로 올리는 경우도 있고 연명으로 올리는 경우도 있음.

는 것을 허락하신다면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신은 성상을 우러러보며 황송하고 간절한 마음 견딜 수가 없어, 삼가 죽음을 무릅쓰고 아뢰입니다.”하니, 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경은 사직하지 말라.”하였다.

《승정원일기》

◇ 1625년(인조 3) 10월 2일

이식이 호패청의 말로 아뢰기를, “본청의 유사당상(有司堂上) 2사람 중에 완풍군 이서가 총융사(摠戎使)로 열읍(列邑)을 돌아보러 나갔으니, 판윤 김신국(金薰國)을 유사당상에 더 차하(差下)하여 그로 하여금 전념하여 직임을 살피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승정원일기》

◇ 1626년(인조 4) 4월 16일

행 형조판서 이서(李曙)가 상차하기를, “삼가 아뢰입니다. 신은 본래 용렬한데도 맡고 있는 직명은 모두 군무(軍務)에 관한 중요한 직임입니다. 밤낮으로 분주하게 일하지만 일을 그르칠까 두렵기만 합니다. …〈중략〉… 총융청(摠戎廳)은 도성을 숙위(宿衛)하는 지위이니 하루라도 비워 두어서는 안 되는데, 신은 호위대장(扈衛大將)이라 순차적으로 총부에 체직(替直)할 수가 없으니 형세 상 그렇다고는 해도 매우 편치 못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신의 사정을 살피시어 신의 본직과 총관(摠管)을 우선 체차하심으로써 신이 전적으로 호위청(扈衛廳) 입직과 호패 유사(號牌 有司)의 직임을 맡을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재결을 바랍니다.”하니, 답하기를, “차자(箠子)를 보고 잘 알았다. 총관은 경의 뜻에 따라 주겠으나 본직은 사직하지 말라.”하였다. 《승정원일기》

◇ 1627년(인조 5)

정묘호란의 난리에 임금이 강화도로 피난가면서 이서에게 명하여 남한산성을 지키게 하였다. 적이 물러가니 형조판서 겸 오위도총관 겸 훈련도감·원유사·복시·군기시의 제조(提調)<sup>18)</sup>가 되었고, 얼마 있다가 판의금부사를 겸임하게 되어

18)제조(提調) : 제조는 도제조의 다음 가는 벼슬로서 도제조를 두지 않는 곳에서는 제조가 수반이 된다. 잡무와 기술계통 즉 조달, 제작, 접대, 어학, 천문, 어학, 천문, 지리, 음악 등 당상관 이상의 관원이 없는 관아의 관직으로 배속되어 각 관아를 통솔하였다. 도제조는 정1품, 제조는 정2품 이상으로 규정했

이서(李曙)가 마음을 다하여 공무를 받들어 좌우가 모두 적합하게 하였다.

형조에는 송옥(訟獄)이 다스려졌고 금오(金烏)<sup>19)</sup>에는 의언(議讞)<sup>20)</sup>이 평온해졌으며 태복시<sup>21)</sup>에서는 마축(馬畜)이 번성하여졌고 무고(武庫)에는 무기가 날카로워졌다. 임금이 이서의 근로를 인정하고 더욱 중하게 여겼는데, 이때부터 그가 병을 앓게 되었다. 또한 명나라 장수 유흥치(劉興治)<sup>22)</sup>가 가도(假島)에서 반역하자, “이 사람은 중국의 역적이니 치지 않을 수 없다.”하고, 이서(李曙)에게 명하여 가서 치게 하였더니, 마침 섬 가운데 여러 장수가 모여 유흥치를 쫓아 버렸다.

이서가 병이 더욱 심해져서 면직을 청하였더니 총융사는 면직하고, 어영 제조로 제수하여 겸직(兼職)은 옛날과 같게 하였다. 본 병조(本兵曹)에 장관이 결위(缺位)되자 조정이 의논하기를 그가 비록 병이 들었으나 그가 아니면 합당한 자가 없다 하니 드디어 이서를 천거하여 대사마(大司馬, 병조판서)<sup>23)</sup>로 삼았다.

무신으로 병조판서가 된 것은 이서(李曙)로부터 시작되었다. 그가 병을 무릅쓰고 나가 사은숙배<sup>24)</sup>하고 행정을 함에 힘써 공정한 길을 좇으니 물정(物情)<sup>25)</sup>이 훌륭하게 여겼다. 얼마 되지 않아 병으로 사임하여 체직되었다. 후에 인조가 김자점(金自點)과 이서(李曙)를 인견한 뒤에, 각각 붉은 칠을 한 환도(環刀) 1병(柄, 자루)을 사급하였다.

---

다. 동반(東班)관아는 제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서반(西班)관아는 초기에는 제조가 없다가 후기에 생겨났다.

19)금오(金烏) : 해가 뜨는 곳을 말하며, 태양의 별칭(別稱)으로도 쓰임. 태양 속에 세 발 달린 까마귀가 있다는 전설에서 유래한 말임.

20)의언(議讞) : 죄의 경중을 평의하여 정함.

21)태복시(太僕寺) : 궁중의 승여(乘輿)·마필(馬匹)·목장(牧場) 등의 일을 관장하던 관청이다. 오늘날 목장(牧場)을 말함.

22)유흥치(劉興治) : 명나라 장수 유흥치(劉興治)의 군대가 의주성(義州城)을 노략질함. 가도(假島)의 명나라 군영에서 난이 일어나 유흥치(劉興治), 진계성(陳繼盛)을 죽임.

23)대사마(大司馬) : 병조 판서(兵曹判書)를 달리 이르는 말. 《주례(周禮)》에 따르면 중국 주(周)나라의 통치조직은 천관(天官)·지관(地官)·춘관(春官)·하관(夏官)·추관(秋官)·동관(冬官)의 육관(六官)으로 구성되어었는데, 대사마는 하관의 장관으로 군사의 일을 맡은 데서 유래함.

24)사은숙배(謝恩肅拜) : 관료로 처음 임명된 자가 궁중에서 임금에게 국궁사배(鞠躬四拜)하여 왕은(王恩)에 감사함을 표시하는 것을 말함. 삼가 공손히 절함. 임금의 은혜를 감사히 여겨 경건하게 절함.

25)물정(物情) : 세상의 인심을 말함.

◇ 1627년(인조 5) 3월 28일

완풍부원군 이서(李曙)가 상소하기를, “신은 위급한 날을 당하여 총융(摠戎)의 직명을 띠었으면서도 화살 하나를 쏘거나 한 명의 적을 베어 신하로서 죽는 절의를 바치지도 못하였으니 신의 죄가 큼니다. 삼가 원하건대 신이 띠고 있는 기보총융(畿輔摠戎)·비국당상(備局堂上)·호위대장(扈衛大將)의 호를 삭제하여 어리석은 저를 편안케 해 주소서.” 하니, 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경의 간절한 뜻을 모두 알았다. 경이 지키던 곳은 적진과 멀리 떨어져 있었으니 적을 토벌할 수 없었던 것은 사세가 진실로 그렇게 된 것이니, 경은 공사(控辭)하지 말라.” 하였다.

《인조실록》

◇ 1627년(인조 5) 11월 25일

완풍군 이서(李曙)가 아뢰기를, “새로 번을 드는 군사들이 장차 올라올 것인데 응당 돌보고 불쌍히 여기는 일이 있어야 할 듯합니다. 공장(工匠)의 가포(價布)로 1백여 명을 고립(雇立)하여 새로 번을 드는 군사들의 환심을 얻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병포(兵布)와 가포가 전혀 없다고 한다.” 하였다. 이서가 아뢰기를, “공장의 가포를 거두어들인 것이 30여 동(同)입니다. 이것으로 1, 2개 번(番)의 매우 힘든 곳에 3, 40명을 고립하면 거의 새로운 군사의 바람을 위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일은 작년에 하려 했으나 난리로 인해 정지되었었다. 몇 군데에 고립하고자 하는 뜻을 일찍이 이미 말하였으니 해조로 하여금 다시 헤아려 처리하게 하라.” 하였다.

《승정원일기》

◇ 1629년(인조 7) 1월 9일

병조판서 이귀(李貴)와 완풍부원군 이서(李曙)의 건의로 능마아청(能磨兒廳)<sup>26)</sup>을 개설하고 총융부(摠戎府)·훈련원(訓練院)의 낭청(郎廳), 내삼청(內三廳)의 금군(禁軍) 또는 각 대장의 군관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 제도는 나무를 깎아 우상(偶像)을 만들어 진(陣)의 형세로 배치하여 놓고는 한 달 내에 2일과 7일이 들어가는 날짜에 한 곳에 모여 앉아 그동안에 학습한 것을 뽑아 시험보인 다음 금군에게는 상사(賞仕)를 내리고 그 나머지는 1년 치를 통산하여 등급을 매

26)능마아청(能磨兒廳): 조선 시대에 무관에게 병학을 강의하고 시험 보던 곳. 인조 때 병조판서 이귀(李貴)의 건의로 창설(創設)되었음. 고종 19년(1882)에 폐지됨.

저 시상하되, 성적이 부진한 자로서 실직(實職)인 경우는 체직시키고 금군과 혼련원 봉사 이하는 출사한 날짜를 깎아 쳐주지 않았다. 《인조실록》

◇ 1629년(인조 7) 5월 5일

완풍부원군(完豐府院君) 이서(李曙)가 차자를 올리기를, “이번에 온 왜사가 이미 국왕의 사신이라고 칭한 이상, 국서가 없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러므로 신의 생각은 필시 의성(義成)이 그 이름을 빌어 자기 신분을 높이려고 한 말일 것이므로 그 말을 믿고 일정한 격식을 경솔히 무너뜨려 우리에게 전에 없던 폐단을 열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해조가 아뢴 내용을 보니 그들이 말한 일들이 꽤 근거가 있는 듯하고, 또 관백이 칭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이는 분명히 관백의 지휘를 받고 우리나라를 엿보러 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찾는 것 중에는 오랑캐들의 활과 칼 그리고 말안장 등이 있었다니, 이는 저들의 기계 성능이 어떠한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그들을 대하는 방법을 종전처럼 소홀히 보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더구나 오늘의 사세는 평소와 달라 태산처럼 무겁게 여겨질 만한 형세는 없고 좌우에서 침노하는 걱정만 있는데, 무엇을 믿고 객사를 가볍게 보아 그들로 하여금 감정을 품게 할 것입니까. 그들의 하는 말이 하나는 이웃 나라 응원을 오겠다는 것이고, 하나는 황조에 충성을 바치겠다는 것으로, 뜻은 꼭 그렇지 않을지라도 말인즉 근거가 있으니 우리가 대의명분을 내세워 물리치더라도 별도로 사의를 표하는 것이 옳을 듯싶습니다. 지금 금국에서 온 차사는 정전(正殿)에서 대우하고 금백(金帛)까지 주는 것이 당연한 정의가 있어서겠습니까. 이 역시 시기의 경중에 따라 부득이해서 한 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사를 대할 때의 임시변통이 호사를 대할 때와 달라야 할 까닭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저들이 칭하고 있는 것이 승(僧)과 악(樂)과 문(文)인데, 불교 문체에 있어서는 일찍이 유정(惟政)이 왕래했던 일도 있었으니 지금 당장 허락한다고 하여도 이는 오랑캐로 오랑캐를 대하는 도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명의 중을 보내 주기로 허락하고 이 기회에 그들의 정세까지 염탐하여 오게 한다면 사리에 아무런 해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방이 국서는 없을지라도 스스로 관백의 명령을 받고 왔다고 했기 때문에 예조가 연향할 때도 추장의 사신으로 대우하지 않았던 것이니, 그럴 바에야 애당초 사실대로 말하기

를 '처음에는 국서가 없었기 때문에 도주의 차사로 생각했던 것인데 지금 네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관백이 시켜서 온 것임을 알았다.' 하고서 예우를 조금 더해 주고 접대도 좀 후하게 했어야 옳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갈 때는 한 번 불러 접견하시어 저와 이를 똑같이 대하고 있다는 성인의 큰 덕화를 알도록 하소서." 하였다. 이에 대하여 비국이 복계하기를, "차자 내용이 임시변통의 방법을 깊이 있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 한 명을 보내주는 일도 무방할 듯합니다. 다만 현방이 돌아갈 때 함께 보내려고 하면 기일 안에 보내지 못할까 염려되니, 후일 천천히 논의하여 들여보내도록 하소서,"하니, 상이 따랐다. 《인조실록》

◇ 1632년(인조 10) 1월 15일

상이 완풍부원군 이서, 병조판서 김시양을 소견하였다. 상이 이서에게 이르기를, "전에 경의 차자를 보니 깊은 의견이 있어 보였다. 지금은 의논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서 경들을 소견한 것이다. 병조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하니, 김시양이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서로(西路)의 명을 받았기 때문에 관서(關西)의 일을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안주(安州)에는 성(城)은 있으나 군사가 없어 수비가 매우 허술합니다. 이서의 뜻은 반드시 군사를 모으고자 하는 것이나 본주(本州)에는 민정(民丁)이 매우 적어서 반드시 첨방(添防)하는 군사를 얻은 연후에야 지킬 수 있습니다."하고, 이서는 아뢰기를, "신도 본주의 민정이 매우 적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평소 15세 이상 50세 이하인 사람을 뽑아 의식(衣食)을 지급하다가 급한 일이 생길 경우 그들의 부모와 처자를 거느리고 성으로 들어가게 하면 성을 지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하고, 김시양은 아뢰기를, "이서가 먼저 황주(黃州)에서 시험해 보고자 한 것은 의도한 바가 있습니다. 반드시 내지(內地)에서 먼저 시행해서 효과가 있는 연후에야 바야흐로 안주에서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설령 백성을 모집하더라도 변방에는 쓸 수 있으나 안주에는 쓸 수가 없다."하니, 김시양이 아뢰기를, "서로(西路)의 병정(兵丁)이 적고 약하니, 이는 반드시 변통해야 할 일입니다."하였다. 《인조실록》

◇ 1634년(인조 12) 1월 26일

완풍군 이서(李曙)의 상소에 답하기를, "경의 상소를 보니 마음에 매우 염려된

다. 맡고 있는 총융(摠戎)의 직임을 우선 경의 뜻에 따라 주어 마음 편히 조섭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승정원일기》

◇ 1636년(인조 14) 12월 18일

이서(李曙)가 청대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은 무슨 일을 이야기하려고 왔는가?” 하니, 이서가 울면서 아뢰기를, “신들이 무능하여 오늘의 변고를 초래하였으니, 삼가 바라건대 신을 주륙하여 백성에 응대하소서.” 하자, 신익성이 아뢰기를, “이서의 말이 심히 그롭니다. 평소에 나라의 두터운 은혜를 받아 군사를 이끌고 장수가 되었으나, 끝내 적 때문에 군부(君父)를 버리고 대장의 몸으로 일도 모하지도 못한 채 부질없이 눈물만 흘리면서 처량한 신세를 슬퍼하고만 있으니, 이것이 어찌 장신(將臣)의 일이겠습니까.” 하니, 이서가 아뢰기를, “적병은 많지 않은 듯하지만, 성안의 양식이 이미 부족하고 외창(外倉)의 곡식이 미처 들어오지 않았으니, 이것이 걱정입니다.” 하였다. 신익성이 아뢰기를, “교전(交戰)은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어제 화친을 맺는다는 소식을 듣고 무장(武將)들이 두려워하지 않으니, 이러한 무리로서 적의 예봉(銳鋒)을 꺾고 적진을 함락시킬 수 있겠습니까. 예부터 장수는 으레 초야(草野)에서 나오는 것이니, 귀한 집 출신의 장수는 결코 부릴 수가 없습니다.” 하니, 정광경이 아뢰기를, “이 말이 참으로 옳습니다. 부귀가 이미 극에 달하면 그것을 잃지나 않을까 걱정하는 법이니, 결코 임무를 맡기기가 어렵습니다.” 하였다. 신익성이 아뢰기를, “예부터 패망한 국가는 사세(事勢)가 불행한 것에 연유했으니 훗날에 오늘날을 돌아본다고 해도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오늘 화친의 성사 여부를 살펴보고서 문벌과 명망에 구애받지 말고 장수를 모집하여 적을 치도록 해야 합니다.” 하였다.

이서가 아뢰기를, “우리나라가 지성으로 사대(事大)하여 크고 작은 일이 중국 관내의 번방(藩邦)과 차이가 없고, 지금 중국을 대신하여 받은 침략이 이처럼 혹독하다면 비록 조금 굽히더라도 무엇이 부끄럽겠습니까. 군병이 성첩(城堞) 위에서 밤을 새우며 매우 심하게 기한(飢寒)에 시달리고 있으니 우선 성에서 내려와 밥을 지어 먹은 뒤에 다시 올라가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비록 그렇지만 성첩을 비워 둘 수는 없다.” 하였다. 정광경이 아뢰기를, “아련 일이 모두 긴급하지 않으니, 물러가게 하소서.” 하였다. 이지항(李之恒)과

김홍욱(金弘郁)이 나와서 아뢰기를, “신들이 적간하는 일로 성 위에 갔는데 군심(軍心)이 모두 고무되어 있으니, 전투를 치르게 한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니, 정광경이 아뢰기를, “우려스러운 점은 장수가 겁을 낸다는 것입니다. 군병은 겁이 없습니다.” 하자, 이서가 아뢰기를, “군사들은 겁이 없습니다.” 하였다.

김홍욱이 이서에게 말하기를, “겁을 내는 장수는 누구입니까?” 하니, 이서가 답하지 않고 물러났다. 《승정원일기》

#### ◇ 1636년(인조 14) 12월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이서는 인조를 모시고 남한산성으로 들어가 총융대장으로서 산성의 북성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서가 포위된 성중(城中)에서 북문을 지키면서 자주 출병(出兵)하여 살획(殺獲, 죽이고 사로잡음)이 매우 많으니 사람들이 다 이서 장군을 의지하여 중하게 여겼다. 그는 쇠질(衰疾)이 심한 데도 풍설(風雪)을 무릅쓰고 오고 가며 경수(警守)하기를 병이 없는 사람 같이 하니 간혹 이서를 위하여 근심하는 자가 있어 말을 하거늘 그가 이르기를, “나라의 위급함이 이와 같은데 어찌 몸을 돌보겠는가?” 하였다.

체찰사(體察使)가 이서와 함께 출병을 의논하는데 이서가 대풍(大風)<sup>27)</sup>에 부닥쳐 갑자기 땅에 넘어져 들것에 태워 성중의 촌사(村舍)로 갔는데 병환이 날로 위독하였다. 그는 병이 위독한 상황에서도 “내가 죽어도 한이 없으나 눈을 감을 수 없는 것은 오랑캐에게 당한 치욕 때문이다.”라고 할 정도로 나라 걱정하는 마음이 지극하였다. 병자호란이 끝난 뒤, 인조는 국가가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산성 덕택이라며 이서의 공로를 치하하는 동시에 그의 죽음을 슬퍼하였다.

## 2. 장례(葬禮)에 관한 기록

인조는 이서의 죽음을 애통해 하고 객사한 그의 시체를 본가에 모셔 들여오도록 하는 은전을 베풀었다. 당시에는 성 밖에 나가서 죽은 사람의 시체는 성 안으

27)대풍(大風) : 문둥병, 여풍(癩風), 장자절론(長刺節論)에서 “골절(骨節)이 무겁고 수염과 눈썹이 빠지는 것을 대풍(大風)이라 한다(骨節重, 鬚眉墮, 名曰大風).”라고 하였다. 한의학에서는 나병(癩病)을 대풍이라 한다.

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국법이였다. 훗날 이서의 낮은 인조의 위패와 함께 인조묘정(仁祖廟庭)에 모셔져 죽은 뒤에도 군신의 의(義)를 나누었다. 후에 영의정에 추증되고 충정(忠定)이라는 시호(諡號)<sup>28)</sup>가 내려졌다. 이서의 묘와 신도비는 생가 뒷산인 의정부시 고산동 구성마을에 있다.

◇ 1637년(인조 15) 1월 2일

완풍부원군 이서(李曙)가 군중(軍中)에서 죽었다. 상이 그를 위하여 통곡하였는데 곡성이 밖에까지 들렸다. 의복과 명주를 하사하여 염습하게 하고 7일 동안 소선(素膳) 하였으며, 도성에 돌아온 뒤에는 빈소를 그 집안에 들이도록 특별히 명하였다. 《인조실록》

◇ 1637년(인조 15) 1월 4일

약방이 아리기를, “삼가 듣건대, 완풍부원군 이서(李曙)가 졸서(卒逝, 사망) 하였으므로 7일 동안 소찬을 올리도록 명하셨다고 합니다. 성상께서 훈구대신(勳舊大臣)을 생각하시는 것이 지극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 날 소찬을 드신다면 옥체가 반드시 손상될 것이므로 신들은 지극히 구구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7일 동안 소찬을 올리도록 한 명을 정지해 주소서.” 하니, “지나치게 우려하지 말라.” 고 답하였다. 《인조실록》

◇ 1637년(인조 15) 3월 1일

왕이 전교하기를, “완풍부원군 이서를 법도대로 예장(禮葬)하라. 그 상구(喪柩, 시신을 넣은 관)는 경저(京邸)<sup>29)</sup>로 들여와 염빈(殮殮)<sup>30)</sup> 하도록 하고, 3년 상 동안 제전(祭奠)에 쓰일 물건은 연흥부원군(延興府院君)<sup>31)</sup> 때의 예대로 매달 제급하라.” 하였다. 《승정원일기》

28) 시호(諡號) : 왕이나 사대부들이 죽은 뒤에 그 공덕을 찬양하여 추증하여 내리던 호(號)를 말한다.

29) 경저(京邸) : 조선시대 한양에 둔 지방 각관(各官)의 분실공서(分室公署)를 말한다.

30) 염빈(殮殮) : 장사지내기 전에 시신을 관에 넣어 일정한 곳에 안치하는 일.

31) 연흥부원군(延興府院君) : 선조의 계비인 인목대비의 친정아버지로 김제남을 말한다.

◇ 1637년(인조 15) 3월 13일

호조가 아뢰기를, “예장(禮葬)<sup>32)</sup> 하는 일은 재정이 미치지 못하니, 완풍부원군 이서의 상례는 거의 다 거행하되, 그 나머지는 약간의 장례 물품만 적절하게 제공하도록 하는 일과 관련하여 본조가 초기를 올리니, “장만하기 어려운 물건을 주지 않는다면 예장이라 할 수 없으니, 그중 절실하게 쓰이는 물건은 모두 갖춰 주도록 하라. 또 역량(役糧)<sup>33)</sup> 10석은 너무 약소한 듯하니, 등급을 나눠 마련해서 제공하도록 하라.”고 전교하셨습니다. …〈중략〉… “예장등록(禮葬騰錄)에는 있지만 고례(古禮)에는 실려 있지 않은 것은 비록 쓰지 않더라도 무방할 듯합니다. 게다가 지금은 사세가 이와 같으니, 절가(折價)하여 제공하면 장례와 제사에 쓰일 물건을 장만하는 데 도움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청홍수안(靑紅繡鞍, 청홍실로 수놓은 안장)과 같이 위의(威儀)<sup>34)</sup>를 꾸미는 데 쓰이는 물건은 장만할 수 없더라도 예장을 해야 할 사람에게 내외의 관곽(棺槨)<sup>35)</sup>과 역량 10석을 적절하게 제공하는 것은 선왕조의 구례와 오늘날의 재정으로 보아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약소한 듯하니, 등급을 나눠 마련하라.’고 전교하셨으니, 2, 3등을 따질 것 없이 모두 내외 관곽을 주되, 2등은 역량 15석을 주고 3등은 10석을 주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역군 값을 이미 마련하였고 예장하지 말도록 이달 12일에 윤허를 받았는데, 김상용(金尙容) 집안은 이미 11일에 받아갔으므로 이때는 절반으로 정한 해조의 규정대로 제공하였지만, 이서의 집안에는 전교대로 횡간(橫看)에 맞춰 제공하겠습니다.”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승정원일기》

◇ 1637년(인조 15) 3월 14일

정원이 아뢰기를, “이달 3일에, 완풍부원군 이서의 상구(喪柩, 시신을 넣은 관)

32)예장(禮葬) : 종친·공신(功臣)·종1품 이상의 분·무신이 죽으면 나라에서 예를 갖추어 장사 지내주는 일.

33)역량(役糧) : 역사(役事)할 때 쓰이는 양식.

34)위의(威儀) : 위엄이 있는 몸가짐이나 차림새를 의미한다.

35)관곽(棺槨) : 죽은 사람을 땅 속에 묻을 때 시체를 넣는 널. 관은 속널로서 형태에 따라 상자식관·배형태관·사람형태관 등으로 나누어지고 재료에 따라 도관(陶棺)·목관(木棺)·석관(石棺)·금속관(金屬棺) 등이 있으며, 곱은 길널로 관을 담는 궤로 목재가 많음.

를 경저(京邸)에 들여와 염빈(殮殮)하도록 전교하셨습니다. 범인(凡人)의 상구를 지방에서 성안으로 들여와 염빈하는 것은 규례가 없습니다. 만일 본가가 전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성안으로 들여와 염빈하게 되면 아주 온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 밖에 와서 염빈하도록 분부하소서. 감히 아뢰입니다.”하니, 전교하기를, “경저로 들여와서 염빈하는 것은 조종조(祖宗朝)의 옛 규례가 있으니 번거롭게 품의하지 말라.” 하였다. 《승정원일기》

◇ 1651년(효종 2) 6월 14일

상이 하교하기를, “선왕(先王)의 묘정(廟庭)에 배향할 신하들을 이미 의정(議定)하긴 하였으나, 한편 생각하면 지난날 어지러움을 다스려 반정할 당시 두세 명의 무장(武將)의 공이 어찌 한두 원훈(元勳)에 미치지 못했겠는가. 그런데도 모두 참여되지 못했으니, 내 마음에 미안할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선왕의 훈령도 반드시 섭섭해 하실 것이다. 마땅히 변통하는 길이 있어야겠으니 해조로 하여금 다시 여러 대신과 의논하게 하여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하니, 영중추부사 이경여(李敬輿)가 헌의하기를, “평성부원군 신경진(申景禎)은 거사를 계획할 당시 맨 먼저 큰 계책을 정하여 공이 그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고, 완풍부원군 이서(李曙) 또한 일을 성사시킨 공로가 어찌 경진보다 크게 못하겠습니까. 다만 성명께서 여러 의논을 물어서 취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살펴 정하시기에 달렸습니다.”하고, 영의정 김육과 좌의정 이시백은 헌의하기를, “당초 의정할 때 두 신하는 점수가 많지 않은 이유로 인해 참여되지 못하였으나 바깥의 말들이 다 성조(聖朝)의 흠전(欠典)이라고 거론하였는데, 이번에 성상의 분부가 이와 같아 실로 못사람의 마음을 흠족하게 하였습니다. 두 신하를 다 배향하는 열에 넣는 것이 좋겠습니다.”하였는데, 김육과 시백의 헌의대로 따를 것을 명하였다. 《효종실록》

◇ 1688년(숙종 14) 2월 26일

임금이 산성(山城)은 바로 온조왕(溫祚王)이 나라를 개창(開創)한 땅인데, 완풍부원군(完豐府院君) 이서(李曙)가 성(城)과 못[지(池)]을 수선(修繕)한 공이 있다고 하여 관원을 보내어 치제(致祭)하게 하였다. 이서는 일찍부터 이미 온조왕의 사당에 배향(配享)되었다. 《숙종실록》



완풍부원군 이서 묘역

### 3. 이서(1580년~1637년) 묘역

의정부 고산동 구성마을에 안쪽에 있는 이서 묘역은 생가(生家) 뒷산인 부용산 끝자락 양지바른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경부인 해남 윤씨와 쌍분으로 원형봉토분이다. 쌍분 앞 중앙에 묘갈, 혼유석, 상석, 향로석이 있고 좌우로 망주석(望柱石)<sup>36)</sup>과 문인석 등의 석물을 각각 배치하였다.

이서의 묘비(墓碑)명에는 「증 대광보국승록대부 의정부영의정 겸영 경연홍문 관예문관춘추관관상감사 세자사 행분충찬모입기명륜정사공신 보국승록대부완풍부원군 겸 판의금부사병조판서 증 시충정공 이공서지묘 정경부인 해남윤씨부우」라 쓰여 있다.

36)망주석(望柱石) : 망주석은 무덤을 꾸미기 위해 무덤 앞, 양 옆에 하나씩 세우는 돌기둥으로 멀리서 바라보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한 표지의 기능을 가진다. 한국에서는 현존하는 왕릉과 상류층의 묘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망주석은 크게 기둥 부분과 대석(臺石)으로 나뉘어 있는데, 기둥의 윗부분이 보주형두(寶珠形頭)로 되어 돌받침 위에 올린다. 망주석은 혼이 놀려 나갔다가 되찾아 들어올 수 있도록 무덤 양 옆에 세운 돌기둥이다. 이때 혼은 망주석에 새겨진 도롱뇽을 타고 드나든다고 한다.



완풍부원군 묘비

망주석에는 세호(細豪)<sup>37)</sup>가 조각되어 있으며, 문인석의 모습은 금관조복을 하고 두손으로 홀<sup>38)</sup>을 받쳐든 모습이다. 묘역 내에 신도비가 있는데 4각 대석 위에 한식기와 팔작지붕을 하였으며 비신의 높이는 187cm, 폭 88cm, 두께가 48cm이다. 신도비명은 오도일(吳道一)이 찬(撰)하고, 남취명이 전(篆)하였으며, 남한명이 글씨를 썼다. 묘역 한편에 있는 신도비 말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서가 역책(易箒)<sup>39)</sup>을 하니 수(壽)가 58세이다. 6일 전에 큰 별이 성중(城中)에 떨어져서 사람이 이상하게 여겼다. 부음(訃音)이 알려지자 임금이 슬퍼하여 소식(素食)을 하고, 염습을 하는데 의금(衣衾)<sup>40)</sup>을 주고 초상으로부터 임시 매장에 이르기까지 중사(中使)<sup>41)</sup>에게 명하여 가서 보게 하고, 관찰사가 호상(護喪)<sup>42)</sup>하게 하였다. 뒷날

37)세호(細豪) : 망주석 3분의 2 지점에 새겨진 작은 다람쥐 형상을 가리켜 세호라 한다. 사대부 묘소의 망주석에서는 세호 대신 도롱뇽이 새겨져 있다.

38)홀(笏) : 신하들이 관복을 입고 임금을 뵈 때 예를 갖추기 위해 손에 들던 것.

39)역책(易箒) : 《예기(禮記)》 단궁편(檀弓篇)에 증자(曾子)가 죽을 때를 당하여 대자리를 바꾸었다는 고사에서 유래한 것으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의 죽음을 이르는 말.

40)의금(衣衾) : 의복과 금침(衾枕)을 말한다.

41)중사(中使) : 궁중에서 임금의 명령을 전하던 내시.

42)호상(護喪) : 상례를 거행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절차를 제대로 갖추어 잘 치를 수 있도록 상가 안팎의 일을 지휘하고 관장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 호상으로는 죽은 사람과 상주의 집안사정 및 인간

계빈발인(啓殯發鞠)<sup>43)</sup> 하는데 한양에 들어와 빈소를 마련하라고 특명을 내리니 참으로 세상에 드문 영광이다. 4월에 양주(현 의정부) 선산(先山)에 환장(還葬)하였다. 이보다 먼저 이서의 남한 축성을 비방하는 자가 있더니 난리에 미쳐서는 사람들이 그 누침(壘堞)이 완고하고 무비(武備)가 수리(修利)된 것을 보고 이서의 선견지명에 탄복하고 다 말하기를, “공의 공로는 마땅히 온조(溫祚)와 짝이 된다.”하니, 임금의 드디어 남한산성에 사당을 짓고 이서의 위패를 배향하게 하였으니 공론을 따른 것이다.

#### 4. 서적 편찬

이서는 실록에서 ‘무인(武人)으로서 문사(文辭)에 통달하였다.’고 기록할 만큼 문무를 겸한 인물이었다. 무인의 길을 걸으면서도 책읽기를 좋아하였고, 《마경언해(馬經諺解)》와 《화포식언해(火砲式諺解)》를 편찬 간행하였을 뿐 아니라 전국의 목장을 소개한 목장지도를 제작하기도 하였다. 이 같은 저작물은 한결같이 군사적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 1) 《마경언해(馬經諺解)》

《마경언해》는 이서가 1635년(인조 13)에 간행하였는데, 중국의 마사문이 지은 《마경대전(馬經大全)》과, 조준 등이 편찬한 《신편집성마의방》에서 주로 말의 질병과 치료방법에 대한 내용을 발췌하여 《마경(馬經)》을 간행한 후 이를 다시 요약하여 한문 원본과 함께 한글로 풀어 쓴 것이다.

책에는 말의 탄생 과정을 비롯하여 관상법, 진맥법, 양마법(養馬法), 방목법, 행침법(行針法), 골명도(骨名圖), 다양한 질병의 원인과 증세 및 처방, 말이 죽을 수밖에 없는 증상 등 115개 항목이 수록되어 있다. 또 정확한 이해를 위해 말의 신체를 정밀하게 그린 삽화를 첨부, 각각의 부위에 이름을 붙이고 해설을 곁들임

---

관계를 잘 아는 친척이나 친우 가운데서 상례절차를 잘 알고 또 절차에 따른 일들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을 골라 모신다. 그렇게 하여 상주가 다른 일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단지 상주로서의 의무만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구실을 하기 때문에 호상이라고 부른 것으로 보인다.

43) 계빈발인 : 상례(喪禮)의 한 절차. 발인할 준비로서 관을 꺼내기 위해 빈전(殯殿)에 나아가 빈소(殯所)를 여는 것.



《마경언해》 책 내부(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으로써 관료층은 물론 목자나 일반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는 일찍이 마필(馬匹) 관리의 중요함을 인식하고 중국 마의학서인 《마경(馬經)》을 구해 《신각참보침의마경대전》을 간행하였으며, 원래 전해내려 오던 『신편집성마의방』을 우리말로 번역한 《마경초집언해(馬經抄集諺解)》도 간행하였다. 《마경초집언해》는 이서가 말의 질병과 치료방법에 대한 기록을 발취하여 《마경》 4권을 간행한 후 이를 다시 요약하여 언해한 책이다.

무엇보다 한자로 된 어려운 수의학 서적을 한글로 쉽게 풀이하여 보급했다는 점이 특이할 만한데, 말을 관리하는 대부분의 백성들은 한자를 배우지 못하는 신분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서의 마의학 서적 한글번역 보급이야말로 우리 땅의 말과 사람을 모두 이롭게 한 위대한 출판사업의 하나였다고 하겠다.

또한 이서는 사복시(司僕寺), 즉 조선시대 왕실의 가마, 말, 마구간과 목장 등 말의 사육과 방목을 맡았던 기관의 제조(提調)를 지낸 인물이다. 무과 출신의 이서는 왕에게 건의해 남한산성을 수축하고 마필을 번성케 하였으며 무기를 정비하여 왕으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 (청암 장기만, 군사문화재순례)

## 2) 《화포식언해(火砲式諺解)》

《화포식언해》는 임진왜란이 끝난 지 30여년이 지난 1635년(인조 13), 이서(李曙, 1580~1637)에 의해 발행됐다. 화포식언해의 편찬과정은 분명하지 않다. 다만 경기방어사·총융사·병조판서 등을 역임하면서 군무에 정통했던 무인(武人)인 이서의 주도하에 발행됐다는 점에서 내용의 신뢰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각 화약무기 별로 화약 사용량, 탄환이나 화살 등 피사체의 규격과 수



《화포식언해》 책 내부와 표지

량, 사정거리를 일목요연하게 해설하고 있다. 특히 임진왜란 당시에 등장한 혁신적 신무기인 비진천뢰의 구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한 점도 특기할 만하다. 화포 발사에 필요한 약선(藥線)의 제작법과 한중일 3국 화약의 성분 차이를 구체적으로 비교한 것도 독특하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천자총통 등 주요 화약부기의 구경이나 무게, 길이 등 기본적인 제원이 누락돼 있다는 점이다.

《화포식언해》는 한글로 쓰여진 책이다. 이해하기 힘든 고어(古語)체 한글로 된 화포식언해를 현대문으로 번역한 이는 충무공수련원의 최두환 연구실장이다. 최 실장이 1996년 이후 임진왜란 당시 조선군의 주요 화약무기를 복원, 발사 시험을 실시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화포식언해》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1635년 최초 간행 이후 1685년(숙종 11)에 황해병영(黃海兵營)에서 재 간행 했으며 손으로 베껴 쓴 필사본도 다수 존재한다. 그만큼 조선 후기에 널리 보급된 책이라는 이야기다. 그 덕에 장서각, 규장각, 국립중앙도서관 등 여러 곳에서 《화포식언해》의 조선시대 판본을 소장하고 있다.

〈청암 장기만, 군사문화재순례〉

### 3) 《신전자취염초방언해(新傳煮取焰硝方諺解)》

1635년(인조 13)에 이서가 염초, 곧 화약의 원료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한 책으로, 무고(武庫)인 군기시(軍器寺)에서 편찬하여 간행하였다. 목판본으로 『화포식언해(火砲式諺解)』와 합철되어 있다.

염초 제조는 곧 화약 제조를 의미했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염초 제작법은 비밀에 속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고려 말 최무선에 의해 여초 제조기술이 확보됐



《신전자취염초방언해》

지만 그것으로 모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효율성이 너무 떨어졌기 때문이다.

염초 제작은 지붕 처마 밑이나 화장실 주변의 흙 등 특수한 토양을 채취, 물에 녹인 후 가열해서 결정을 채취하는 과정으로 이뤄졌다. 군대에 소속된 장인들이 염초 재료 확보를 위해 가정집에 진입, 흙을 퍼가는 과정에서 언쟁이나 소동이 벌어지는 일도 흔했다. 권세 있는 양반 가문의 경우 흙 채취를 거부하다가 법적 문제로 비화되는 사례가 있을 정도였으며 심지어 벼슬살이하는 관료가 자기 집에서 흙 채취를 거부하면 파직시키는 규정까지 마련될 정도였다.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화약이 대량으로 소모되고 재능있는 염초 장인이 전쟁 중 다수 사망한 탓에 화약이나 염초 확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그동안 부족한 염초를 명나라에서 수입해서 충당했지만 1634년 명나라가 염초 무역을 중단시키자 조선은 비상이 걸렸다.

해결책은 염초 제조 공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길밖에 없었다. 이런 위기감 속에 조선은 효율성이 더 높은 명나라의 염초 제작 기법을 확보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결국 성공한다. 특히 일개 하급 무관인 성근이 중국에 유랑한 조선인이나 명나라 피난민을 일일이 만나며 기술 확보에 결정적 공헌을 했다.

그 결과물을 정리한 책이 바로 1635년에 간행되고 1685년에 재간행된 《신전자취염초방언해》다. 편집자인 이서는 《신전자취염초방언해》 서문에서 “기존 방법에 비해 새로운 염초 제조 기술이 노력은 절반 정도지만 성과는 백배나 나오는 방식”이라고 자랑한다. 현재 《신전자취염초방언해》는 서울대 규장각, 장서각 등에 소장돼 있다.

〈청암 장기만, 군사문화재순례〉

### Ⅲ. 천혜의 요새인 남한산성 이야기

#### 1. 남한산성 축성 총지휘자 월봉 이서(李曙)

완풍부원군 이서의 가장 큰 업적은 남한산성을 축성하고 군량을 확보하는 등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여 군비를 증강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도립공원이자 사적 제57호인 남한산성은 광주시 중부면 일장산(日長山)과 계곡을 둘러싸고 있는 산성으로 북한산성과 함께 한양을 방어하기 위한 시설이다. 성벽의 바깥은 급경사를 이루지만 내부는 경사가 완만하여 방어에 유리하고, 논의 있어 자체적으로 식량 생산이 가능할 뿐 아니라 일 년 내내 물이 풍부하다는 것 등 한마디로 ‘하늘이 만든 성’이라 할 만큼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일찍이 온조왕 때 쌓은 성이라는 의견도 제기되었지만, 신라 문무왕 때 흙으로 쌓은 주장성(晝長城)에 뿌리를 두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주장성 혹은 일장산성은 이곳의 산세가 높은 대신 산성 주위가 평지여서 일찍 해가 뜨고 늦게 지기 때문에 낮이 밤보다 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그 뒤 몇 차례 축성이 있었지만 현재 견고한 석축(石築)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조선시대 들어와서이다.

이미 조선초기부터 산성 수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남한산성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광해군 때에도 남한산성이 도성을 지키는 이른바 보장지지(保障之地, 군사상 중요한 요충지역)로서 산성 수축론이 제기되었으며, 이괄의 난 이후 후금의 침입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남한산성의 축성이 재차 강조되었다.

이에 이귀·이원익 등의 주장으로 1624년에 총융사 이서를 총 책임자로 하고, 벽암대사 각성(覺性)을 팔도 도총섭으로 삼아 전국의 승군을 동원하여 산성의 서북쪽을 축성하게 하는 한편, 이회(李晦)에게는 성의 동남쪽 축성을 맡게 하였다. 그리하여 남한산성은 공사 시작 2년여 만에 완공을 보게 되었으며, 이 때 이서의 모습은 몸이 파리하고 피로가 겹쳐서 수염과 머리가 하얗게 세어 노옹(老翁)으로 변해버렸다 한다. 또한 이서는 남한산성을 유사시 왕실의 피난처로 삼고자 행궁 건축을 건의하여 230여 칸을 건설해 완성하였으며, 이후에도 산성에는 여러 시설물들이 계속 축조되었다.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이서는 인조를 모시고 남한산성으로 들어가 총융대장으로 산성의 북성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일찍이 청나라의 침입에 대비하여 자신이 성을 쌓고 군비를 마련하는 데 힘을 쏟았던 이곳 남한산성에서 치욕스런 항복만은 보고 싶지 않았던 것일까. 이듬해 정월 초순에 청나라 군사가 산성을 포위하고 항복을 재촉하는 와중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병이 위독한 상황에서도 “내가 죽어도 한이 없으나 눈을 감을 수 없는 것은 오랑캐에게 당한 치욕 때문이다.”고 할 정도로 나라 걱정하는 마음이 지극하였다.

병자호란이 끝난 뒤 인조는 국가가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산성 덕택이라며 이서의 공로를 치하하는 동시에 그의 죽음을 슬퍼하였다. 후에 영의정에 추증되고 충정(忠定)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 2. 남한산성의 특징

### 1) 종묘와 사직을 갖춘 조선시대 유일한 행궁

서울에서 동남쪽으로 약 24km 떨어진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에 있는 남한산성은 행정구역상 광주시, 하남시, 성남시에 속해 있다. 광주는 고려 태조가 이름 짓기 이전까지 한강 남쪽의 넓고 오래된 땅 한산(漢山)이었다. 하남이라는 지명은 한강의 남쪽, 성남은 남한산성의 남쪽에 면했다고 해서 붙여졌다. 서울과 한강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남한산성의 지리적, 공간적 존재감을 알 만하다.

남한산성은 전란이 일어났을 때 왕의 안전을 담보하는 보장처였다. 왕의 선택지는 대개 강화섬이 아니면 남한산성이었다. 남한산성에 대한 기록은 주로 광주행궁이라고 남아 있다. 조선시대 전국 각지에는 23곳에 이르는 행궁이 있었다. 이를 별궁 또는 이궁이라고도 했다. 전란에 대비한 행궁으로는 광주행궁, 양주행궁(북한산성), 강화행궁, 전주행궁이 있다. 능행을 목적으로 한 행궁에는 화성행궁, 이천행궁, 파주행궁, 고양행궁, 풍덕행궁을 지었다. 왕은 질병 치료와 휴양차 온양행궁, 청주행궁, 목천행궁, 고성행궁, 전의행궁 등에 행차했다. 온양행궁 가는 길인 과천행궁과 수원행궁에도 머물렀다.

그러나 종묘와 사직을 갖춘 행궁은 남한산성이 유일했다. 국가에 전란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한 임시 수도로서의 위상이다. 조선시대 5군영 중 하나인 수어청

의 근거지였으며 광주부가 1917년 경안동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290년 동안 광주부 관아가 있던 조선시대 최대의 산악 군사행정 도시였다.

남한산성이 몽골과 청은 물론 일제에 항거한 외세 저항의 본거지였던 사실은 별로 알려지지 않았다. 1895년 명성황후시해사건 이후 광주, 이천, 여주 지역의 의병 1천6백명으로 이뤄진 연합의병부대가 주둔하면서 삼남지방 및 강원도 지역의 의병 3천명과 합세해 서울로 진격하기로 한 을미의병의 주요 거점이었다. 이후 1905년 을사늑약 체결에 항거한 을사의병과 1907년 고종 강제퇴위와 군대 해산령에 반발한 정미의병도 이곳에서 일어났다. 일제는 산성 안 행궁과 사찰을 불태우고 철저히 파괴했으며 광주읍성도 성 아래로 옮겨버렸다.

## 2) 단 한 번도 뚫린 적 없는 난공불락 요새

남한산성은 가운데가 평평한 반면 밖으로 높이 솟아오르는 등 그 에워싼 형세가 치밀하기 그지없는 웅혼한 자태를 보여 주고 있으며, 산 정상에 능선들로 이어져 높은 지세에 웅거하면서 평평한 지대를 포용하고 있다. 또한 성 안에 샘이 많아 겨울이건 여름이건 마르는 날이 없이 계곡을 흘러 대간(大澗)으로 합쳐져 동쪽 수문(水門)을 통해 빠져 나간다. 문의 바깥으로는 깊이를 알 수 없는 계곡들이 곳곳에 서려 있고 양의 창자처럼 꼬불꼬불한 길이 몇 십리를 두고 이어져 있다. 산세는 사방이 온통 깎아지른듯하여 올라갈 길이 없는데, 오직 동남쪽 모퉁이 산기슭만은 약간 경사져 있을 뿐이라서 포루(砲樓) 세 곳을 설치해 놓았다.

남한산성은 안쪽은 낮고 얇으나 바깥쪽은 높고 험하다. 청나라 군사들이 처음 왔을 때 병기라고는 날도 대보지 못하였고, 병자호란 때도 성을 끝내 함락시키지 못하였다. 그런데도 인조가 성에서 내려온 것은 양식이 부족하고 강화도가 함락되었기 때문이었다. 남한산성은 한성백제, 통일신라, 고려, 조선을 거치면서 단 한 번도 뚫린 적이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였다. 13세기 전 세계를 휩쓴 무적 몽골군의 두 차례 공격과 병자호란 당시 12만 대군을 이끈 청 태종의 파상공세도 47일간 막아냈다. 해발 400m를 넘나드는 험준한 지형을 따라 본성과 외성을 합쳐 11.7km가 넘는 성벽을 쌓았는데 내부는 넓고 평평했다. 우물이 80곳, 연못이 45개로 물이 풍부해 군량미와 소금만 잘 비축하면 수만 명의 병력이 장기농성 할 수 있는 철벽의 금성탕지였던 것이다.



산성 내 행궁

이중환의 《택리지》에서도 “남한산성은 안쪽은 낮고 얇으나 바깥쪽은 높고 험하여, 적이 처음 왔을 때 병기라고는 날도 대지 못하였고, 병자호란 때도 성을 끝내 함락하지 못하였다.”고 적고 있다.

남한산성에는 5개의 용성(성문을 보호하기 위해 성문 밖으로 한 겹을 둘러싼 이중의 성벽)이 있다. 이곳은 장경사 신지용성에 2개의 포루가 설치돼 있어 화포 공격도 가능하다. 용성 전체에 20개가 넘는 포루가 설치돼 있었다. 성벽에는 동서남북 4개의 문 이외에 지형과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암문(暗門)<sup>44)</sup>이 설치되어 있다. 남한산성에는 모두 16개나 되는 많은 암문이 있었다. 물이 풍부했던 남한산성 안에는 축성위치에 따라 물이 모이게 되는 지점에 별도의 작은 수구문을 설치했다. 배수를 원활하게 해서 성벽이 변형되는 것은 막기 위해서다. 성안에서 가장 높고, 지휘와 관측이 용이한 곳에 장대가 있었다. 수어장대는 남한산성내 다섯 장대 중 현재, 유일하게 남은 서쪽 장대다. 전투시 장군의 지휘소였던 장대는 지금도 그 위용을 자랑한다. 적에게 한 번도 함락된 적 없다는 철옹성인 남한산성의 그 당당한 역사 속에는 이름 모를 숭한 사람들의 피와 땀이 스며있다. 그들의 노고 위에, 천혜의 자연환경과 최고의 축성술이 더해져, 산성의 걸작, 남한산성이 만들어졌다.

남한산성의 수비는 처음에는 총융청에서 맡았다가 성이 완성되자 수어청이 따로 설치되었다. 성문은 홍예문(虹霓門) 위에 성가퀴를 두르고 단층(單層) 문루(門

44)암문(暗門) : 성벽에 누(樓) 없이 만든 문. 적의 관측이 어려운 곳에 설치한 성문의 일종으로, 물자를 운반하고, 지원병을 받고 역습을 하는 통로였다.

樓)를 위엄 있게 올려 세웠다. 수어사(守禦使) 이시백(李時白)이 축성 뒤에 처음으로 유사시에 대비할 기동훈련의 실시를 건의하여, 1636년(인조 14)에 1만2천7백 명을 동원하여 훈련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그 해 12월에 막상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여러 가지 여건으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성문을 열어 화의(和議)하고 말았다. 결국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서 쌓은 성이었으나 제구실을 하지 못한 뼈아픈 역사(役事)였다. 1963년 사적 제57호로 지정되었으며, 2014년에는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 3. 이서, 온조왕의 사당 ‘승렬전’에 배향되다

승렬전은 백제의 시조 온조왕의 위패를 봉안하고 제사를 드리던 사당이다. 처음에는 인조 16년에 온조왕묘(廟)로 건립했다. 이후 남한산성을 수축하고 병자호란 때 싸우다 죽은 수어사 이서를 함께 배향하였다. 1795년 정조 19년에 왕이 사액(賜額)하여 「승렬전」으로 그 이름을 바꾸었다. 남한산성 성곽의 북서쪽 산능선 아래 남향으로 지어진 작은 건물이다. 담장 안에는 근래에 새로 복원한 강당과 그 북쪽에 담장으로 막아 구성한 사당구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1972년 5월



승렬전

4일 경기도의 유형문화재 제2호로 지정되었다.

온조왕과 이서의 위패는 대체 어떤 연유로 한 사당에 모셔지게 된 것일까. 병자호란 중 인조의 꿈에 온조왕이 나타나서 자기의 사당을 세워 준 것에 고마워하며, “산중에 혼자 있기가 너무 적적하니 이서 장군과 함께 있도록 해주소.”라고 하였다한다. 공교롭게도 다음날 이서가 세상을 떠나자, 온조왕이 이서를 데리고 간 것이라 믿고 사당에 그의 위패를 함께 모시게 되었다는 설화가 전한다. 그런데 이서는 온조왕묘를 짓기 이전인 1636년에 세상을 떠났으니 이서를 추모하는 마음들이 모여 이러한 설화를 만들어 낸 것이리라.

그 후 병자호란 때에 성안에서 적과 싸우다가 병사하였으니 남한산성을 있게 하고 남한산성에 목숨을 바친 분이다. 물론 산성을 직접 쌓으며 희생되었던 분, 외적의 침입을 막으려다 숨진 영령들, 그 모두를 대신하여 모셔졌다는 것쯤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 IV. 맺으며

앞에서 우리는 이서의 생애와 관료생활 등 변모를 살펴보았다.

이서는 왕조실록에서 ‘무인(武人)으로서 문사(文辭)에 통달하였다.’고 기록할 만큼 문무를 겸한 인물이었다. 무인의 길을 걸으면서도 책임기를 좋아하였고, 《마경언해(馬經諺解)》와 《화포식언해(火砲式諺解)》를 편찬 간행하였을 뿐 아니라 전국의 목장을 소개한 목장지도도 제작하기도 하였다. 이 같은 저작물은 모두 군사적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서의 이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이서 장군은 남한산성을 쌓을 때의 총 책임자였기 때문이다. 험한 산에 돌로 성을 쌓는 일을 맡아서 2년여 만에 완공했다. 그 후 병조판서에도 올랐던 이서는 병자호란 때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자 함께 들어가 방어 전략을 지휘했고 과로로 쓰러져 이듬해 초 숨을 거둔다. 그는 사위 채유후에게 “나는 죽어도 한이 없으나 눈을 감을 수 없는 것은 청에 패하여 당한 치욕이다.”라는 유언을 남겼다.

이서는 인조로부터 각별한 신임을 받았는데, 이서를 경연특진관으로 삼아 국방문제를 항상 상의하였고, 그의 죽음에 인조가 통곡할 정도로 남달랐다. 이서가

인조에게 신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실록이 기록한 대로 그가 지조가 있고, 주어진 일에 강명(剛明)하고 부지런하게 마음을 다해 봉직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생전에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일하고, 병자호란으로 남한산성이 포위되었을 때에 마지막까지 나라를 걱정하며 사망하였기에, 임금이 환도한 뒤에 고향 집으로 옮기도록 윤허하였는데, 이것은 인조의 특별한 은혜였던 것이다. 당시에는 성 밖에 나가서 죽은 사람의 시체는 성 안으로 들여오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서가 사망한지 380여년이나 지났지만, 우리지역에서 그를 위해 행한 선양(宣揚)사업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지역에 잠들어 계신 위대한 선조들을 찾아 후세들이 현창하고 숭모(崇慕)의 마음으로 존경을 표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그들의 삶을 후세들에게 전해줄 의무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역사에 부끄럽지 않겠다.

### [ 참고문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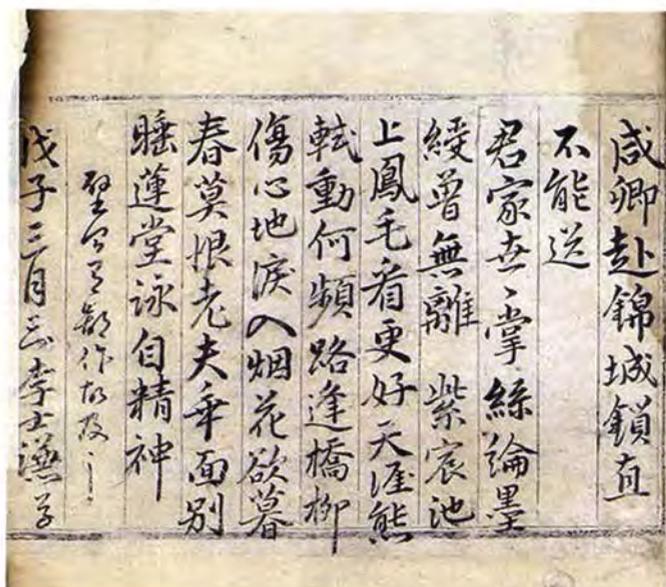
-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 종합 DB」에서 인용.
- 《조선왕조실록》 「선조실록, 광해군일기, 인조실록, 효종실록, 숙종실록」 번역본.
- 《국조인물고해제》 번역본.
- 《연려실기술》 별집 제8권, 관직전고(官職典故), 총용청, 이금익(李肯翊), 1966년.
- 《옥담시집》 「옥담유고」, 남한산성 중수, 이응희(李應禧), 2009년.
- 의정부시, 《의정부지명유래집》, 2007년.
- 오성·김세민 譯, 《重訂 南漢志》 번역본, 하남역사박물관, 2005년.
- 청암 장기만, 군사문화재순례 제99회, 제105회.
- 최두환 역주해, 화포식언해, 해군사관학교, 1997.
- 한영우, 《조선의 집, 동궐에 들다》, 열화당, 2006년.
- 관직명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11년.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한국고전용어사전, 2001. 3. 30, 세종대왕기념사업회.

남양주



# 지암 이행진 선생의 생애와 문학

이형섭 | 남양주문화원 사무국장



이행진 선생의 필적



이행진 선생 묘비 전, 후, 측면

# 지암 이행진 선생의 생애와 문학

이형섭 | 남양주문화원 사무국장

## 1. 생애와 특징

### 1) 생애의 정리

이행진(李行進, 1597~1665년, 선조 30~현종 6) 선생은 본관이 전의(全義)로 고려시대에 태사(太師)를 지낸 도(棹)의 후예이다. 9대조는 휘가 정간(貞幹, 1360~1439년, 공민왕 9~세종 21년)으로 효자로 이름났으며 시호가 효정(孝靖)이고, 고조부는 휘가 문성(文誠, 1503~1575년, 연산군 9~선조 8년)으로 병사(兵使)를 지냈다. 증조부는 휘가 제신(濟臣, 1536~1583년, 중종 31~선조 16년)으로 문과(文科)에 급제하고 북병사(北兵使)를 지냈으며 청백리에 뽑히고 영의정에 추증되었는데 호가 청강(淸江)이다. 조부는 휘가 기준(耆俊, 1555~1584년(명종 10~선조 17년)으로 승문원 정자(承文院正字)를 지내고 좌찬성에 추증되었다. 아버지는 휘가 후기(厚基)로 장악원 정(掌樂院正)을 지내고 이조참판에 추증되었고, 어머니는 의령 남씨로 정부인(貞夫人)에 추증되었다.

효자와 청렴한 관리가 대대로 배출된 집안의 전통이 면면히 이어왔으므로 그의 성품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는 자가 사겸(士謙)이고 호는 지암(止庵)으로 1597년(선조 30) 2월 24일에 한성부 남부 훈도방 주자동(薰陶坊 鑄字洞, 지금의 서울 중구 주자동 대한적십자사 본사 근방)에서 출생하였다. 일찍부터 과거 공부에 힘썼지만, 광해군의 폭정으로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다가 반정으로 인조가 등극하자 비로소 과거에 응시하였다. 27세가 된 1623년(인조 1) 9월, 처음 본 과거에서 그는 진사시(進士試)에 장원급제하였으나 시험의 부정부패로 인해 이때 시행한 모든 종류의 과거를 무효로 하게 되어 입격자 발표가 취소되었다. 그러나 이에 굽히지 않고 이듬해 8월 28일에 다시 시행한 갑자(甲子) 증광시(增廣試)에서 생원에 합격하고 성균관에 들어가 문과 시험을 준비하게 된다.

이때 그는 유생의 신분으로 인조대왕이 자신의 생모 상사(喪事)를 격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한 것의 부당함을 세 번이나 상소하는 등 현실 사회에 비판적으로 참여하였다. 이어서 동궁전 세마(東宮殿洗馬)가 되었다가 부술(副率)이 되었는데 지나치게 재상을 비판하여 파면되었다.

그는 39세가 되던 1635년(인조 13) 을해(乙亥) 증광시(增廣試)에서 문과에 합격하여 명성을 얻게 된다. 이로 인해 청국 사신인 황감군(黃監軍)이 왔을 때 접반사(接伴使)로 뽑혔으나 임금이 예전의 일을 기억하여 임명하지 않게 된다. 하지만 3년 뒤인 1638년(인조 16)부터 그는 능력을 인정받아 6조의 실무를 관장하는 청요직(淸要職)인 정랑(正郎)에 오르게 된다. 공조정랑은 한 달 만에 파직되었지만 예조정랑을 발판으로 경기도사(京畿事), 군자감정(軍資監正)을 지내게 된다.

그가 50세가 되던 1646년(인조 24) 10월 12일, 10년마다 문무당하관에게 보이던 문과중시(文科重試)에서 을과로 급제하여 당상관으로 승급하게 되어 본격적인 출세 가도를 달리게 된다. 이듬해에는 삼사의 하나로 궁중의 문서 등을 관리하고 임금의 자문에 응하는 홍문관(弘文館) 부수찬이 되고, 다시 그 이듬해에는 통훈대부 행 홍문관 수찬, 지제교 겸 경연검토관을 제수 받게 된다. 그리고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 보덕(輔德)에 제수되는데 왕세자의 교육을 맡게 되어 후일



이행진 선생 증조부 청강 이제신 선생 신도비

의 출세를 기약하게 된다. 수찬, 교리, 응교, 검상사인, 사간, 집의를 두루 거쳐 통정(通政)에 올랐다가 승지에 제수되고 호·병·형조의 참의를 거쳐 세자(효종)가 등극하자 스승과 제자의 인연으로 인해 더욱 우대를 받게 된다.

57세가 되던 1653년(효종 4) 9월 17일, 창경궁에 있는 춘당대(春塘臺)에서 임금의 특명으로 당상관 이하 문신에게 보이던 문신정시(文臣庭試)에 합격하여 말을 하사 받는다. 이듬해 사간원(司諫院) 대사간(大司諫)에 임명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특별히 가선대부로 올랐다가 오늘날의 서울시 부시장에 해당하는 한성부 우윤(右尹)에 임명된다.

59세 때인 1655년(효종 6) 10월 28일부터 이듬해 4월 18일까지 동지겸사은사(冬至兼謝恩使) 부사(副使)로 청나라에 다녀왔지만 정사(正使) 이개운(李愷胤)의 불미스러운 일로 함께 탄핵을 받았다. 이후에 그는 형·호·병·이·예조 참판, 도승지, 대사헌을 거치지만 더 이상 높은 벼슬에 이르지 못한 것은 그를 아끼던 효종이 왕위에 오른 지 11년 만에 승하하였기 때문이다.

현종이 즉위했을 때 그는 나이가 이미 63세였지만 개성유수와 경기감사를 지냈고, 69세로 사망하기 직전까지 동지의금부사와 동지중추부사를 제수 받았다.

묘역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2리 산62-23번지 일원에 합장으로 위치하고 있다.



이행진 선생 묘역

## 2) 생애의 특징

그의 삶은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에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만, 후손가에 보관되어 온 87매나 되는 교지를 통해 매우 상세하게 재구성할 수 있다. 이들 자료를 통해 그의 삶을 몇 가지 중요한 업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첫째로 그의 삶에서는 특정한 사승(師承, 스승과 제자) 관계를 찾기 힘들다는 점이다. 누군가로부터 학문을 배우고, 같은 스승의 제자들이 모여 학파를 구성하거나 당파를 만드는 것이 당대의 일반적인 경향이라면 그에게서는 이런 학문과 결부된 정치적인 동류 그룹을 찾을 수가 없다. 물론 시문(詩文)을 통한 교류(交流)는 매우 흔하게 확인되지만 이 경우는 정치적인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행진 선생이 문우(文友)들과 시를 통해 교류한 것은 예술적인 교감이거나 단순한 안부 전달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견은 그의 삶이 비정치적이면서 문학적인 특징으로 규정된다는 것을 가리킨다. 벼슬길에 오르고 나서부터 솔하게 받았던 탄핵과 파직은 어쩌면 그가 뚜렷한 정치적 노선이 없었던 이유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그의 삶에서 주목할 것은 33번이나 지제교(조선시대 국왕의 교서(敎書) 등을 작성하는 일을 담당한 관직)를 역임하였다는 사실이다. 세종 시대 이후 집현전을 폐지하고 홍문관(弘文館)을 설치하면서 부제학(副提學, 정3품) 이하 부수찬(副修撰, 종6품)까지 지제교를 겸하게 하고, 따로 6품 이상의 문관을 뽑아 지제교를 겸직하게 하였다. 전자를 내지제교, 후자를 외지제교라고 불렀다.

이행진 선생은 문과에 급제한 후에 공조정랑, 예조정랑, 군자감정을 맡았을 때에 외지제교 뿐 만 아니라, 홍문관 부수찬, 수찬, 응교 그리고 세자시강원 보덕과 필선의 벼슬을 맡았을 때에도 내지제교를 겸하였다.

42세부터 시작하여 58세에 종2품인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오르기 직전까지 왕명 문서를 작성하는 지제교의 직임에 있었다는 것은 그의 학식과 문필의 수준을 조정에서 인정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정치적인 동료 그룹이 없었지만 효종의 배려가 있었고, 주변에서 인정하는 학식과 문필의 수준으로 인해 그는 참판과 도승지의 지위에까지 오른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 2. 문학적 의식과 상상력의 특징

이행진 선생이 남긴 글은 모두 흩어져 남은 것이 거의 없다. 그의 종5대손인 판서 이익회가 수집한 것으로 시가 200여 수, 명(銘)이 3편, 고시가 5편, 표(表)가 2편, 기타 각 2편이 있다. 하지만 이들 자료를 통해 그의 문학적 성취를 언급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다.

### 1) 가문과 자신에 대한 인식

이행진 선생의 작품에는 자기 집안에 대한 자부심이 늘 나타나고 있으며 자기 자신의 위치와 결부하여 항상 자각하는 의식이 자리 잡고 있어 주목된다.

吾家先代六監司(오가선대육감사) 우리 집안 선대에 여섯 명 감사 나와  
蔽葭甘棠有幾枝(폐불감당유기지) 우거진 팔배나무 몇 가지 (남았네)  
白首孱孫了倒甚(백수잔손료도심) 이 늙은 못난 자손 무력하기만 하여  
送君今日愧題詩(송군금일괴제시) 그대 보내는 오늘 시 쓰기 부끄럽네

〈7언절구 16. 박군을 이별하며 [奉別朴] 또 [又]〉

나무와 가지의 이미지는 가계나 가족을 비유하는 관습적 상징으로 전통적으로 활용되어 왔다. 이 작품에서 ‘우거진 팔배나무[蔽葭甘棠]’는 《시경(詩經)》 소남(召南)의 시구절로서 백성들이 주(周) 소공(召公)의 선정을 찬미하여 그를 사모하는 내용이다. 시경의 구절을 인유(引喻)하여 집안의 훌륭한 선조들의 업적을 환기시키는 장치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과거의 전통적 관습을 그냥 차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늙고 못난 자선’과의 대비 효과를 얻도록 한 번 더 형식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져 있다.

鬱鬱終南麓(울울종남록) 울창한 남산 기슭은  
吾童子所遊(오동자소유) 내 어렸을 때 놀던 곳  
白鬢臨澗壑(백빈림간학) 머리 희끗하여 계곡에 서니  
靑眼記林丘(청안기림구) 숲 언덕에서 놀던 기쁜 기억 떠오르네

誰道成安後(수도성안후) 누가 성안공의 후일을 말하는가  
 還教宅留相(환교택유상) 돌아와서 정승으로 머물렀던 곳일세  
 茅齋仍望月(모재잉망월) 띠집에서 달을 보노라니  
 事業在箕裘(사업재기구) 해야 할일은 가업을 전수하는 것이라네

〈5언율시 35. 정언 김사백에게 주다 [贈金正言 斯百]〉

이 작품은 자(字)가 사백(斯百)인 김석주(金錫胄, 1634~1684)에게 준 시인데, 백발이 된 나이에 자신의 고향인 남산 기슭을 찾아와서 느낀 감회를 표현한 것이다. 성안공(成安公, 상진(尙震), 1493~1564)이 같은 마을에 살았던 듯, 고향에 대한 자부심이 크게 부각되어 있다. 아마도 상 정승은 그의 삶뿐만 아니라 정치적 처신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그런데 첫 연의 회고적 발상이 두 번째 연에서는 현실적 다짐으로 전환된다는 것이 중요하다. 원문의 ‘기구(箕裘)’란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가업을 계승하는 것을 말한다. 당시의 일반적 관점에서는 유학을 실천하며 환로(宦路)에 나가 입신양명(立身揚名)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띠집에서 달을 보노라니’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전의이문(全義李門)의 전통인 청빈한 삶의 자세를 떠올리게 된다. 결국 시인은 고향에 돌아와서 과거의 회상에 머물지 않고, 삶의 자세를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제 그의 시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 읊은 작품을 검토해 보자

誰人說汝我能詩(수인설여아능시) 누가 나를 시 잘한다고 말했나  
 晝爾吟我夜費燈(주이음야야비등) 낮에는 시를 읊고 밤에는 등불을 허비 한다네  
 覓句難成休乞句(먹구난성휴길귀) 구절 만들기 어려우니 글귀를 구하지 말라  
 兩心相照炯如冰(양심상조형여빙) 두 마음 서로 비추니 얼음같이 환하네

〈7언절구 67. 도갑사 스님 시축의 운자를 빌다 [次道岬僧軸韻]〉

스님과 시로 소통하는 과정을 모티브로 쓴 작품이다. 제1행에서 설의법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은근히 드러내고, 제2행에서는 시인과 독서인의 양면 생활을 언급한다. 그러나 시라는 것은 억지로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님을 제3행에서

보여준다.

가장 절정은 마지막 4행이다. 3행에서 드러난 시 짓는 노력의 한계가 여기에 이르면 두 마음이 서로 비추는 이심전심의 단계로 전환되면서 질적인 도약을 이룬다. 제1행에서 제3행까지가 속세 시인들의 행태라면 제4행에서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시인과 스님을 대표하는 유불(儒佛)이 합일되는 경지인 것이다.

振翼嘶雲滅沒時(진익시운멸몰시) 날개 떨치고 구름 울리며 큰소리 칠 때  
滿城觀者歎其奇(만성관자탄기기) 성 가득 구경꾼들 기이하다 탄복했네.  
如今老病長楸集(여금로병장추집) 지금은 늙어 병들고 긴 고삐 매여  
驚馬先之淚自垂(노마선지루자수) 둔한 말이 앞서 달리니 눈물 절로 흐르네  
〈7언절구 64. 늙은 천리마를 탄식하며 [老驥歎]〉

천리마가 나타났다고 구경꾼들이 탄복했지만 이제 늙고 병들어 둔한 말보다 뒤쳐져 달리는 광경은 실제의 모습이 아니다. 그것은 문장으로 이름났지만 지금은 늙고 탄핵을 받는 시인을 알레고리화 한 것이다. 단순히 말(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시인 이행진의 사건을 비유적으로 연계시켜 해독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의 찬란했던 영광과 지금의 퇴보한 상황을 대비하여 시인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다.

記得先朝折桂辰(기득선조절계진) 선왕 때 계수나무 가지 꺾을 적 떠올리면  
賜花頭上賜花新(사화두상사화신) 머리에 꽃을 하사하셔서 그 꽃 새로웠지  
重名金榜當千佛(중명금방당천불) 금방에 거듭 이름 올려 과거에 뽑히고  
接武銀臺少一人(접무은대소일인) 승정원에 들어가니 젊은이는 한 사람이었네

前後主恩何報答(전후주은하보답) 전후에 받은 임금님 은혜를 어찌 갚을까  
弟兄親義且恭寅(제형친의차공인) 형제와 같이 친하고 또 공경하였지  
誰將六座同年會(수장육좌동년회) 누가 여섯 자리 동년 모임을 이끌어  
寫出宮壺醉裡臣(사출궁호취이신) 궁중 술에 취했던 신하 일을 써줄까

〈7언율시 23. 병술년 중시의 계첩에 쓰다 [題丙戌重試契帖]〉

이 작품은 1646년 증시에 함께 합격한 사람들의 계모임에서 읊은 것이다. 첫 연은 급제하던 날 자기 자신을 초점으로 묘사한 것이고, 다음 연은 동반 급제한 6인의 관점에서 표현하였다. 자기 능력에 대한 자부심보다는 그날의 감격을 묘사하고, 계원 사이의 친목에 대해 노래했다.

이행진 선생이 자기 능력에 대한 아쉬움을 다른 일부 작품들에서는 술을 통해 현실을 잊고자 하는 취락사상(醉樂思想)에 기우는 것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맹목적으로 현실의 고통을 잊으려고 도피하는 것이 아니다.

誰許狂生我(수허광생아) 누가 나 같은 미치광이 인정해줄까  
 人皆夫子人(인개부자인) 사람들은 모두 공자님 같은데  
 胸中一團世(흉중일단세) 가슴 속엔 세상일 한 덩어리 맺혔건만  
 渾是太和春(혼시태화춘) 모두가 화창한 봄날이로다

〈5언절구 12. 또 짓다 [又]〉

이 작품은 ‘눈을 혼자 보기 아까워 술을 찾다가 하정의 시운을 빌다(惜雪覓酒次荷亭韻)’는 작품의 연작이다. 시인은 현실의 아름다움과 술을 탐닉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공자님같이 모두 도를 논하는 사람들뿐이다. 시인은 세상 일로 가슴이 막혀 있는데 세상은 화창하기만 하다. 세상과의 불일치로 인해 시인이 괴로워하고 술에 탐닉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시인은 괴로워할지언정 자책(自責)하지는 않는다. 도학자연(道學者然) 하는 세상 사람들이 현실의 문제를 알고도 외면하는데 반해 시인은 그 괴로움이나마 솔직하게 토로한다.

## 2) 상상력과 표현력

문학작품이란 주제적인 의취(意趣)도 중요하지만 예술적인 형상화 방식도 소홀히 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이행진 선생의 작품은 예술적 기법을 이루는 상상력이 풍부하게 발휘되고 있다.

借問桃花泣(차문도화읍) 한번 물어보세 복숭아꽃이 어찌하여

如何細雨中(여하세우중) 가랑비 맞으며 우는지를  
 騷人臥病久(소인과병구) 소인이 병석에 누운 지 오래였는데  
 無意笑春風(무의소춘풍) 무심코 봄바람 맞고 웃는 것이라네

〈5언절구 3. 빗속에 핀 복숭아꽃을 읊다 [詠雨中桃花]〉

빗속에 핀 복숭아를 보고 어떤 사람은 울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병석에서 일어난 시인은 복숭아꽃이 정작 봄바람을 맞고 웃는 것이라고 한다. 슬픔을 인고(忍苦)의 기쁨으로 전환하는 것은 사물에 대한 통념을 뒤집는 상상력에서 연유한다.

이행진 선생의 상상력은 근본적으로 사물에 대한 치밀한 관찰과 감정이입을 바탕으로 작동하기 시작한다. 예를 들면 잠두봉의 돌을 늙은 석가의 모습으로 표현하거나(17.잠두봉의 돌을 읊다[吟蠶頭石]), 중앙절에 국화를 보고 비웃다가 절개가 같다는 점을 깨닫는 경우(23.중앙절[重陽]), 전쟁용 배[戰船]에 전령(傳令)의 역할을 부여하는 경우(19.무안에 재임할 때 전선을 가도에 보내며[在務安時送戰船假島]) 등은 의인화 기법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의인화와 함께 사물 사이의 관계와 통념을 새롭게 설정하는 방식도 치밀한 관찰을 통한 상상력의 소산으로 보인다.

養鶴雖稱愛(양학수칭애) 학을 기르며 비록 사랑한다고 말해도  
 元非愛鶴情(원비애학정) 학의 마음까지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  
 何如雲外放(하어운외방) 어찌할까? 구름 밖으로 풀어주어  
 烟月自飛鳴(연월자비명) 안개 낀 달을 스스로 날며 울게 하는 것이

〈21.이웃집 학 소리를 마음 아프게 듣다 [苦聞隣鶴]〉

月白風清夜(월백풍청야) 달 희고 바람 청량한 밤에  
 誰家鶴唳聲(수가학려성) 누구 집에서 학 우는 소리 들리나  
 愁人驚起坐(수인경기좌) 시름하는 이가 놀라 일어나 앉아서  
 憐爾九臯情(련이구고정) 네가 가련하여 마음 깊이 아파한다

〈22.또 짓다 [又]〉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학을 기르면서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모순이라고 시인은 말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학의 자유의지와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물이지만 학도 당연히 자신의 의지대로 살고 싶어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남은 아무렇지도 않은 학의 울음을 듣고 가슴 아파하는 시인은, 남의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사람이다. 그런 점에서 이행진 선생은 시인으로 남다른 위치에 있는 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행진 선생의 생애를 정리하고 시 작품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그는 관료로서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시인으로서 자신의 임무를 자각한 매우 드문 분이다.

앞으로 그의 청나라 사신 기록을 좀 더 물색하여 수십 편에 달하는 사행(使行) 시편(詩篇)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된다면 정사 이개윤의 행위로 인해 함께 폄하되었던 그의 외교적 업적과 문학세계를 더욱 완성도 높게 조명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지암유집(止庵遺集)

### 오언절구(五言絶句)

#### 1. 지평으로 가는 도중에 [砥平途中]

나귀 등에 타고 봄기운에 즐다보니  
푸른 산중을 꿈같이 지나가네  
석양녘에 어디에선가 피리소리 들리니  
길고 짧은 두 소리 세 소리

#### 2. 공포에서 밤을 읊다 [公浦夜吟]

넓디넓은 들판에는 나무들이 우거져  
어두침침한데 가을비마져 내리고  
도깨비불이 등잔처럼 빛나니  
눈앞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겠구나



3. 빗속에 핀 복숭아꽃을 읊다 [詠雨中桃花]

한번 물어보세 복숭아꽃이 어찌하여  
 가랑비 맞으며 우는지를  
 소인이 병석에 누운 지 오래였는데  
 무심코 봄바람 맞고 웃는 것이라네

4. 옥계정사에 대한 노래 열 편 [玉溪精舍十詠]

오악을 땀도는 구름 [烏岳歸雲(오악귀운)]

구름이 걷히니 산의 자태가 가까워지고  
 구름이 다시 오니 산 빛이 새롭구나  
 이렇게 무심히 스스로 오고가니  
 점검은 뒷사람이 하려무나

용담의 밤비 [龍潭宿雨]

어젯밤 산중에 비가 내린 것  
 오늘 아침 못가에서 알았노라  
 물기 머금은 구름은 아직 흠어지지 않았으니  
 용이 가는 길이 응당 더디기만 하겠지

화애의 새벽빛 [花崖曙色]

가파른 언덕이 수면에 닿아있고  
 여러 꽃들이 뒤섞인 채 피어있네  
 자욱하게 낀 안개 속에서  
 붉은 아침 해가 동쪽에서 솟아올라

나촌의 저녁연기 [蘿村暮烟]

마을 이름은 청라동(靑蘿洞)인데  
 집 앞에는 백옥 같은 시내가 흐르네  
 밥 짓는 연기가 안개처럼 길게 피어오르니  
 닭과 개들이 한 마을에 어리었네



도원의 붉은 노을 [桃源紫霞]

화려하게 핀 꽃밭이 이어지는 속에  
산은 비단 물결위에 높이 솟았네  
아마득한 노을[落霞]은 머물 줄을 모르는데  
외로운 집오리만이 홀로 날아 도는구나

송정을 덮은 그늘 [松停翠陰]

높고 울창한 소나무 그늘 아래  
한쪽에 치우쳐 바둑 한 판을 두네  
맑은 바람이 짙베 옷 사이를 씻어주니  
찌는 듯한 여름인 줄도 모르겠구나

연당에 저무는 향기 [蓮堂晚香]

대나무 책상을 앞에 두고 잠들다 문득 깨니  
못가에는 이미 석양빛이 가득하구나  
연꽃에는 다시 연잎이 섞이고  
물고기들은 뛰어올라 맑은 향기를 떨치네

풍안의 서리 [楓岸早霜]

단풍잎은 정말 불만도 하다  
단풍향기로 저녁밥을 대신할만하네  
가벼운 서리가 밤새 내리니  
소박했던 골짜기가 일시에 붉어지누나

남교의 남은 눈 [南橋殘雪]

모래밭 끝에 무지개가 걸리고  
기울어진 햇빛 사이로 눈이 내리네  
나귀 타고 가는 손님  
완전히 그림 사이에 보는 듯

동봉의 비갠 뒤 달빛 [動蜂霽月]

고요한 밤에 아무런 잡생각이 없고  
 맑은 하늘에는 밝은 달이 걸려 있네  
 동쪽 숲에서 한잔 술을 드니  
 마주 대하는 얼굴은 셋이로다

5. 육선생의 유고에 제하다 [題六先生遺稿]

만고(萬古)에 해와 달처럼 임금과 신하의 의(義)는  
 동방(東方)에 해와 달처럼 빛나며 걸려 있도다.  
 고사리를 캐는 것은 죽음을 늦추려는 것  
 맹렬하게 타서 충정의 불길이 어찌 앞에 있었던가

6. 벗에게 부치다 [寄友人]

내 마음은 가을 달과 같고  
 그대 마음은 가을 물과 같으나  
 가을 달이 가을 물에 비취듯  
 조용하고 편안하게 세상의 맛을 잊으리라

7. 노서에게 드림 [贈魯西]

백록(白鹿)의 인물들 가운데 누가 남아있는가  
 청우(靑牛) 탄 손(客)이 스스로 왔네  
 옛 서원에서 서로 만나니  
 담장에 핀 국화가 서리를 무릅쓰고 피었도다

8. 법천사에 제하다 [題法天寺]

법천사에 찾아가니  
 우선 기생못 경치에 취하였네  
 태수(太守)의 머리는 비록 희지만  
 풍류를 즐기는 마음만은 소년이로다

9. 술자리 즉석에서 짓다 [酒席口占]

날이면 날마다 봄바람에 취했네

이제 아침에도 또 오늘 저녁에도  
다만 술이 있는지 없는지만 논하니  
떠돌이 생활 모두 이 손(客)이로세

10. 또 짓다 [又]

떨어지는 해가 나무에 걸릴 무렵  
오늘 저녁에 또 서로 방문하네  
취기가 오르자 시를 지으라고 강권하니  
봄이 스스로 손(객)에게 오도다

11. 눈을 혼자 보기 아까워 술을 찾아서 하정에 차운한다 [惜雪覓酒次荷亭韻]

어제 먹은 술이 깨기도 전에  
또 오늘 아침에 술잔을 잡는구나  
흰 눈이 점점 잦아드니  
흰 머리는 몇 해나 견딜 것인가

12. 또 짓다 [又]

누가 나 같은 미치광이 인정해줄까  
사람들이 모두 공자님 같은데  
가슴 속엔 세상일 한 덩이 맺혔건만  
모두가 화창한 봄날이로다

13. 창강께 드리다 [奉贈滄江]

세상의 맛은 이에서 신물이 나게 하고  
누른 유자는 찬(餐)으로는 부족한데  
임금을 사랑하고 고기를 즐겨하지 않음으로써  
맑은 한기(寒氣)를 더하네

14. 동지에 문득 생각이 나 창강께 드리다 [至日偶吟贈滄江]

오두막집 동짓날  
쓸쓸하게 내리는 눈이 내에 가득 왔는데

높이 누워계신 깨끗한 이 곳  
팔죽 옆에서는 뜨거운 차에서 김이 나는구나

15. 삼척부사로 떠나는 종숙을 배웅하다 [奉別從叔三陟之行]

우리 조상이 7대에 걸쳐 수령(守令) 살던 곳  
잔손이 홀로 조상의 업적 본받지 못해  
그런 그대에게 무슨 유감 있으리  
죽서루에 태평으로 누웠네

16. 선조 청강선조의 친필을 보내준 데 대해 감사하며 드리다

[謝贈清江先祖親筆]

사람들이 말하기를 청강 선생의 필체는  
웅장하고 호방하여 일가를 이룬다고 하였는데  
못난 자손이 그 자취를 잊지 못하여  
지렁이가 용과 뱀의 뒤에 덧붙여진 꼴이네

17. 잠두봉의 돌 [吟蠶頭石]

한 조각 산의 머릿돌은  
마치 늙은 석가의 모습인 듯  
천년 동안 서쪽을 향해 서 있으면서  
헤아릴 수 없는 세월이 흘러갔다오

18. 병중에 읊다 [病中苦吟(병중고음)]

쌓인 눈이 희기만한 삼동(三冬)에  
홀로 불을 켜고 긴 밤을 밝히네  
화로를 감싸안고 근심에 잠 못 드니  
나의 병은 언제나 나오려나

19. 양파 상공께서 새 달력을 보내신 것에 감사드리다 [謝陽坡相公送新曆]

알밧기도 하다, 새해 달력이여  
살짝 부근의 흰 머리칼을 더욱 보태겠지

누가 침아(沈痾)든 사람에게  
추위와 따뜻함이 사시(四時)에 순응하는구나

20. 입춘에 정상국과 마주앉아 술잔을 기울이는 꿈을 꾸다 [立春夢鄕相國對酒]

하늘은 누워있는 동산을 깨우고  
봄은 북해의 술통을 여는구나  
오늘 밤 꿈에는  
곧바로 취해서 정신을 잃으리라

21. 이웃에서 학이 우는 소리를 멀미나도록 듣다 [苦聞隣鶴]

학을 기르며 비록 사랑한다고 말해도  
학의 마음까지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  
어찌할까? 구름 밖으로 풀어주어  
안개 낀 달을 스스로 날며 울게 하는 것이

22. 또 짓다 [又]

달 희고 바람 청량한 밤에  
누구 집에서 학 우는 소리 들리나  
시름하는 이가 놀라 일어나 앉아서  
네가 가련하여 마음 깊이 아파한다

23. 중양 [重陽]

누른 국화는 백발을 비웃고  
백발은 누른 국화를 비웃는다  
서로 마주 보며 서로 웃지 마라  
굽히지 않는 굳은 절개는 한 가지가 아니더냐?

24. 취해서 읊다 [醉吟(취음)]

하늘과 땅은 본디 아무런 뜻이 없거늘  
어찌하여 태어난 때를 논하는가  
사방에서는 내가 맞출 수 있다고  
백년이 지나도 다하지 못하리.

## 25. 어양교 [漁陽橋]

한 조각 어양석(漁陽石)은  
 천추에 그 이름을 길이 전하리  
 슬프다! 옥과 같이 맑은 물이 흐르는데  
 다리 위에 오랑캐는 이제 다 사라지고 없구나

## 26. 시제가 없음 [無題]

낙하(洛河)의 이름 높은 동산에는  
 갈대와 물억새꽃만이 쓸쓸하다  
 호수와 섬이 서로 응하니  
 날아가는 기러기의 행렬이 길게 짧게 기울어지는구나

## 27. 상국 정공이 청어를 보내주신 데에 감사드리다 [謝相國鄭公送青魚]

가난과 병이 근래에 더하여  
 명아주잎을 넣어 끓인 국도 여유가 없었던만  
 우리 어진 상국공이 아니시면  
 누가 이렇게 생선을 보내주실꼬

## 28. 육은에 차운하다 [次六隱韻]

하정(河亭)에 술이 없다고 말라  
 꽃피고 버들가지가 흔들리고 달이 밝을 때면  
 육은(六隱)과 함께 모여  
 바둑 한 판을 두는 일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으랴

## 칠언절구(七言絕句)

## 1. 박승종의 병풍에 제하여 [題朴承宗屏風]

마노 울리며 일산 끼고 티끌 세상 달리더니  
 강산을 훑쳐 베껴 주인이 되었구나  
 해 저물고 아침 되어 배 부르는 곳에선  
 흰 갈매기 웃으며 자주 오가네

2. 풍담에서 회포를 읊다 [楓潭詠懷]

비온 뒤 푸른 시냇물 백사장에 넘치고  
땃가지 단풍잎 그림자가 교차하여 어리네  
봄이 와도 처사의 대문은 늘 닫혀 있어  
나그네 시름겨워 떨어진 꽃만 밟는구나

3. 병중에 동양위의 만시를 짓다 [病中挽東陽尉]

동화거사 이분은 바로 도연명이니  
초서 예서 문장이 일대를 놀라게 했네  
절의도 은연하게 세상의 바른 도를 붙들었으니  
알겠도다 역사에 그 이름 높이 오를 짓을

4. 이군을 보내며 [送李]

서쪽으로 보내며 맞이하며 날은 아직 저물지 않았는데  
누가 오고 누가 가며 또 누가 머무는가  
흰 머리의 세마(洗馬)는 일편단심 있으니  
길이 먼 곳 그리며 눈물 절로 흘러리

5. 동주의 총수산에 차운하여 [次東州蔥秀韻]

그 이름 들었건만 모습은 못 보았는데  
세월 흘러 오늘에야 비로소 올라와 보네  
돌아갈 날은 서리 내린 후이니  
거울 속에서 응당 금수산을 쌓으리

6. 동주의 옥류천에 차운하여 [次東州玉溜泉]

술 마시고 주천에 갈 인연이 없어  
소갈병 든 지는 이미 여러 해  
다행히 학을 따라 경액을 찾아서  
석 잔을 마시고 나니 정신이 상쾌하이

7. 삼차하에서 고기잡이 집을 보고 [三叉河見有一漁家]

야니강물이 삼차하로 들어와

오랑캐 막는 한 줄기 강이 되었네  
 전란후 모래밭엔 전자들의 해골들  
 성 가득 가시나무 속에서 고기잡이 집이 있네

8. 만리장성 [長城]

만리에 뻗친 장성 누구의 공로인가?  
 유방과 항우도 그때는 남의 줄개였지  
 어떤 장사꾼이 이 여씨를 낳았는가?  
 과연 천고의 으뜸영웅이로다

9. 계문의 안개 서린 나무 [薊門烟樹]

계문 어느 곳에서 좋은 경치 찾으랴  
 오랑캐 목마장으로 다 들어가 버렸네  
 별목 금하지 않아 안개 서린 나무들 모두 없어져  
 그리려 하니 뉘푸른 경치를 잃었구나

10. 옥하관 [玉河關]

날마다 이상한 향기가 집에 가득하기에 물어보니 여관의 일꾼이 말하기를, 만세산에서 자라는 것은 대부분 측백나무와 소나무의 우뚝한 나무들인데 지금 그 늙어서 말라버린 것을 베어내었으므로 그 향기가 이와 같은 것이라고 하였다.

부엌불 지피는데 쓰는 향나무 등나무  
 모두 만세산에서 왔다 하네  
 삼백년 묵은 소나무 측백나무  
 지금은 푸른 연기 되어 오랑캐 먼지에 엉기네

11. 요동 [遼東]

요동의 성곽은 이제 흔적 없이 사라지고  
 그 많던 가게와 집들 전란 속에 빈 터만 남았구나  
 만약 옛날 이곳에 살던 정영위(丁令衛)가 다시 돌아와 이 광경을 본다면  
 화표 옆 모포 씌운 농막 얼마나 애처로울까

12.연대 [烟臺]

회칠한 벽돌 높이 쌓아 황금 즐기 같고  
오리나 되는 연대 제경까지 당췌네  
하루 저녁 평안하니 봉화 오르지 않아서인데  
아직도 중국 땅엔 오랑캐 먼지가 이네

13.통원보 [通遠堡]

사람의 물과 불은 서로 도움이 귀한 것  
나그네 보자 어찌 값을 달라 하는지  
떨나무와 물 없어 밥짓기 이미 늦어  
사신들 근심스레 앉아 날 밤기만 기다리네

14.도봉산 서재에서 취하여 심로 형제에게 드리다 [道峰書齋醉贈沈盧兄弟]

눈 내린 하늘 밤 되자 별이 빛나고  
취중에 그대 만나니 의기가 생기네  
돌아보니 세상에 그 누가 홀로 서있나  
도봉산 봉우리 천자나 드높이 솟아있네

15.박군을 이별하며 [奉別朴]

삼월의 흐드러진 꽃, 구월의 단풍이라  
흰구름 속에 남네는 오고 가네  
장차 옥같은 절기 선산에 올라  
선풍의 주금옹을 다투어 얘기하리

16.또 [又]

우리 집안 선대에 여섯 명 감사 나와  
우거진 팔배나무 몇 가지 (남았네)  
이 늙은 못난 자손 무력하기만 하여  
그대 보내는 오늘 시 쓰기 부끄럽네

17.벗에게 [寄友人]

영화와 몰락을 인간이 어찌할 수 있나?

원룡의 호기 지금도 대단하여라  
 평생 시경 삼백수를 하염없이 읽더니  
 취한 후에는 오히려 황곡가를 읊조리네

## 18. 또 [又]

그대와 나 평생 집안일 돌보지 않아  
 집에 짚뿔(擔石) 없는 것도 서로 자랑할 만하네  
 태창의 월급 지금은 쌀을 나누어 주는데  
 정노야는 어찌 많다 적다 비교하시는가

## 19. 무안에 재임할 때 전선을 가도에 보내며 [在務安時送戰船假島]

마음으로 말하노니 너 전선이여  
 어찌하면 주랑의 적벽풍을 얻을 수 있을까?  
 서쪽으로 봉래에 이르러 묻는 이 있거든  
 성군 향한 충성이 신하의 도리라 하게

## 20. 연당의 선생안에 제하여 [題蓮堂先生案]

중서 청선(淸選)은 문제도 많다.  
 형제가 어찌하여 차례로 오는가?  
 난리 후 고품이 온통 삭막한데  
 좌중의 누가 태평시대 이끌건가

## 21. 김포군에 있으면서 백헌상국에게 술을 보내며 [在金浦郡送酒白軒相國]

금릉태수는 술이 샘물과 같아  
 장안 흰눈 오는 곳에 오만히 누웠네  
 한 병을 나누어 넣어 어느 곳에 보낼까  
 산도와 왕용 옛적의 죽림칠현이었네

## 22. 제곡 정노야께 전거 5수를 올림 [奉呈濟谷鄭老 鏢爺田居五首]

도규 점검하기 중서(中書)에서 했으니  
 책상 가득 향기와 먼지는 약 짙은 나머지라

문득 생각하니 어촌에 장려병 많은데  
소합환 한 봉지면 한가히 지낼 수 있으리

23. 또 [又]

면양정 텅 빈지 벌써 90년 되었구나  
이 뒤에 누가 와서 앞사람을 이을까  
동파 홀로 구양수를 축하했으니  
높은 품격이 티끌 세상을 벗어났네

24. 또 [又]

바쁜 나랏일 아들들에게 맡기고  
홀로 강촌으로 가서 낚시줄 손보네  
밝은 시절 세상 벗어나 살고 싶다지만  
스스로 알겠네 근력이 이미 시든 것을

25. 또 [又]

노옹께서 연로하다 벼슬 버리고 귀향하시니  
기름진 발도 없어 머물 계책이 없네  
매번 서호의 높이 누운 곳을 부러워하나니  
설창의 매화와 학 저녁에 서로 의지하네

26. 무안의 광성구를 이별하며 [別郭務安聖龜]

강물고기 희디희고 대는 푸릇푸릇  
물 건너 뜰 문의 갈잎은 가벼워라  
나무 밑 까마귀는 한창 먹이를 쪼는데  
예전의 총마 타고 거드럭거리던 시절 뜬 영화일 뿐

27. 모란과 작약을 읊다 [詠牧丹芍藥]

외로이 집안에 누웠으니 오는 손도 없고  
모란과 작약은 서로 다투어 피네  
풍년들 좋은 비가 사흘이나 내리니  
나라 걱정이 사라져 술잔을 잡네

## 28. 남원의 영각 박대관에게 [寄朴大觀南原鈴閣]

국화가 비록 좋으나 서리를 어찌 이기리오  
 그윽히 생각하니 이별 후에 더 비통하네  
 어찌하면 광한루 달 밝은 밤에  
 그대와 함께 설아의 노래를 감상하리오

## 29. 담양에서 정운봉에게 주다 [潭陽贈鄭雲鵬]

그대 백면의 아름다운 선비  
 어느 곳에서 와서 어디서 머무는가?  
 맑은 바람 밝은 달 끝없이 좋은데  
 혹시 나를 따라 함께 노닐 수 있겠소?

## 30. 중양절에 감사하여 올림 [重陽謝呈]

삼년 병석에 중양절도 못 지내고  
 겨울 숙엔 헛되이 백발만이 길었네  
 서글피 예 놀던 종남산 바라보노니  
 뜰 가득 노란 국화 한 잔 술 향기롭다.

## 31. 중양절의 눈 오는 가운데 동궁에서 [重陽雪中 東宮]

화분에 심은 국화를 보내 주셔서 정귀 한 수를 지어 동료에게 화답을 구하며  
 오늘 국화는 만전 값어치인데  
 서연에서 옥같은 화분에 담겨왔네  
 아름다워라! 눈 속에서도 향기 오히려 진동하니  
 늙은 신하의 절개를 굳세게 하려 함이리라

## 32. 추석날 대궐에서 숙직하는데 비바람이 치니 남곡이 시로써 위로하기에 받들어 차운한다 [秋夕禁直值風雨南谷以詩相慰奉次]

늙으매 심사는 절로 가을이 서글픈데  
 하물며 이 좋은 날 함께 놀지 못하네  
 황하를 뒤집은 듯 비 내리고 구름은 먹같이  
 일 년 내내 한평생 시름겨워라

33. 또 [又]

궁중의 노란 잎새 이미 드높은 가을  
푸른 비단에 홀로 누우니 옛 놀이 그림네  
밝은 달 뜨지 않고 비바람만 몰아치고  
벽 틈에선 오직 구슬픈 풀벌레 소리뿐

34. 또 [又]

맹호연의 시를 읊으며 귀밑머리 이미 가을  
마치 대궐로 끌어와 함께 노니는 것 같네  
얄미운 비바람 사람을 속이니  
노선의 조각 밤만 쓸쓸한 건 아니라네

35. 중양절에 성중에서 짓다 [重陽省中題]

낙모(落帽) 좋은 때 하사주가 늦으니  
국화야 빈 술잔 비웃지 말아라  
은대에서 또한 청재일을 만나니  
신하들 취해서 실수할까 두렵네

36. 군자정 이유명이 생선을 보낸 데 감사하여 [謝軍資正李惟明送魚]

옛 벗의 높은 의리 얽은 층구름 같고  
창고지기 어찌 속된 아전의 무리이랴!  
얼음 눈 속에서 건져 온 싱싱한 강 물고기  
가난과 병 불쌍히 여긴 그대 고원한 생각이리라

37. 중양절에 탄상에게 감사하여 올리다 [重陽謝呈灘相]

높은 집에서 지난 날 대문을 지나며  
함께 얘기하던 친구들 모두 묘지에 묻혔네  
병든 이 몸은 일어나지 못하니  
좋은 때 누구와 향기로운 술잔을 마주하리오

38. 야당 김남동의 집에서 눈 덮인 소나무를 보고  
 몹시 기이하여 화답을 구하며 [野塘金南重家看松雪甚奇求和]  
 부슬부슬 내리는 눈비 푸른 산색을 가려  
 성을 두른 송백은 보이지 않네  
 물결 소리 적막하고 층층이 흰데  
 천 그루의 배꽃은 흩날리지 않네
39. 꿈을 기록하다 [記夢]  
 두 마리 용이 채색 구름 끝에서 나와  
 하나 되어 향아로 변해 나에게 다가왔네  
 말없이 손을 잡더니 도로 떨치고 가버렸는데  
 이슬 띠 푸른 사초는 모래 독을 돌렸더라
40. 당나라 화첩에 제하여 [題唐畫軸]  
 짙은 그늘 꽃과 대 모두 향기로운 때  
 그 많은 높은 대에서 취한 자 몇 사람인가  
 애석해라, 전당의 즐거운 놀이터도  
 하루 아침에 오랑캐 먼지 속으로 사라진 것을
41. 윤우성의 공북루를 제하여 [題尹遇聖拱北樓]  
 종남산은 의구히 빈 누각 속으로 들어오고  
 든 세상 속에서 20년을 겪었네  
 다행히 지초와 난초가 나그네를 어여뻐 하는데  
 주렴 밖 비바람은 밤 깊어 잠잠하네
42. 묵으로 그린 매화에 제하여 [題墨梅]  
 휘돌아 뺨으며 가지는 누웠으니 철석같이 참되고  
 눈바람 서리와 달에 정신을 잃었네  
 꽃 피자 점점이 향기가 종이에서 나니  
 비로소 알겠네 운지(耘之) 일인자임을

43. 금오에서 읊다 [金吾題詠]

푸른 비단 조롱 속에서 평생을 허둥대니  
선배들의 풍류도 일장춘몽이었네  
감옥 밖에는 지금도 경치는 그대로  
버들가지 길게 날리고 푸른 연꽃은 향기로워라

44. 심정을 읊어서 창강에게 주다 [詠懷贈滄江]

울타리 꽃아 서리 같은 내 귀밑머리 비웃지 말아라  
서리 후에야 알리라, 늘그막 절개가 향기로움을  
내가 너를 대할 땐 반드시 취했으니  
낙양의 뜨락 속에는 모두가 황금빛이네

45. 장난삼아 창강에게 주다 [戲贈滄江]

온산 푸른빛이 눈속에 쇠잔한데  
종남산 바라보니 새벽빛이 차가와라  
그림이야 무난히 베껴낼 수 있겠지만  
그림 보느니 모름지기 이 모습 보겠네

46. 함경 이일상이 참소를 입음을 슬퍼하며 [傷李成卿-相被參]

삼대 째 청빈한 태학사인데  
뜬 비방이 하늘 가득 퍼지네  
밝은 구슬과 울무가 오히려 비슷하다지만  
어찌 선생이 쌀 실은 배를 받았겠는가?

47. 탄상이 오죽장을 주심에 감사하며 [謝灘贈相烏竹杖]

얇아 누운지 삼년에 절하기도 어려워  
가부좌한 채 맞이하여 바라보기만 하네  
누가 알리오? 앉은뱅이가 방금 걸을지  
감사하여라! 탄상이 주신 낚시대

48. 영릉의 재실에서 자며 느낌이 있어 원군옥에게 보이다

[寧陵奉審宿齋室有感示元君玉]

영릉의 송백은 숲을 이루었고  
 철마도 말이 없고 옥좌도 그늘졌네  
 십년 모신 신하는 머리 하얗게 남아  
 한밤중 잠 못 들며 눈물 흘리네

49. 또 [又]

은대에 일찍이 향을 받들어 올리고  
 예를 마치고 돌아오니 소매 가득 향기롭네  
 성대한 행사 끝난 지금 적막하기만 한데  
 오릉의 송백엔 빛소리가 길어라

50. 기성에서 자화가 총부에서 입직한다는 말을 듣고 시를 읊어서

회답을 구하며 귀천에게 보이다 [騎省聞子和入直總府拙吟求和示歸川]

똑똑똑 물시계 붉은 섬돌에 떨어지니  
 바로 성을 경계하러 나와 부르는 때  
 이십년 동안 함께 내직을 맡아  
 옥당 난액이 꿈속인가 의심하네

51. 다시 귀천과 육은에게 올리다 [再呈歸川六隱]

밤에 사마를 타니 용들이 에워싸 호위하고  
 옥당 은대는 이미 옛일이네  
 오늘 우리 세 사람 함께 입직을 하니  
 흰 머리가 도로 검은 머리 되었나 의심하네

52. 육은의 운을 차운하여 귀천에게 올리다 [次六隱韻奉歸川]

빗장 풀고 대문 열어 아침 정원에 나오니  
 새벽빛이 환하게 낮은 병풍을 뚫어 비치네  
 표직하는 늙은 신하 놀라서 일어나 앉고  
 꿈속에서 이 몸이 작은 미성 되었구나

53. 임금의 병이 좋아졌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서 내국의 도제조 백헌에게 하례하다 [伏聞自上核候有勿藥之慶不勝欣幸賀內局都提調白軒]

모든 군신, 관청 궁궐과

정승들이 오래도록 근심이더니

전해온 반가운 소식에 함께 즐거워하니

유편같은 명의들 그 누가 큰 공 세웠나?

54. 또 [又]

푸릇푸릇 좋은 기운 대궐을 돌렸는데

일식 재앙 사라지고 해가 중천에 떴네

종 울리고 북치며 깃발도 즐거워

기백이 애쓰지 않아도 절로 신의 공덕이로다

55. 앞의 운을 써서 또 백헌에게 올리다 [用前韻又呈白軒]

봄 돌아오는 동짓날 만수궁에는

모든 관리들 대궐 뜰에서 절하며 하례드리네

특별히 하사하신 황봉에 모두들 취했는데

약 맛본 늙은 신하 공로가 있네

56. 또 [又]

삼조의 기록한 효성 모후를 받들어상서로운 오색 구름 속에서 하례드리네

내일 또 동짓날을 맞으리니

봄이 돌아옴은 하늘의 공덕을 입음이라

57. 다시 백헌에게 [再次白軒]

이끌려 전대 끼고 대궐에 들어가니

바로 담벼락에 해가 비치는 시각

병석 삼년에 인사도 변하여

관부 문서를 열어보니 이름을 모르겠네

58. 또 육은의 문자를 써서 백헌에게 올리다 [又用六隱韻呈白軒]

눈 내린 뜰에 앉아 승전을 외치더니

화로를 끼고 어느 깊은 곳에서 취해 있는가  
한 잔도 들지 않은 양 목말라 하며  
즐쓸히 태성과 장성을 바라보네

59. 송도의 김정랑에게 주다 [贈松都金正郎]

선죽교 가에 아름다운 사람 있으니  
갈베옷 채식으로 인생을 마쳤다고  
봄 성 어느 곳인들 꽃과 버들 없으랴만  
동쪽 숲을 향하여 발걸음도 바쁘구료

60. 제곡에게 받들어 올리다 [奉呈濟谷]

옛날 같은 마을 봉성 머리에 살며  
승상집 문앞에서 죽마 타며 놀았네  
오늘 두 집안이 함께 성대히 빛나니  
이정으로 서로 힘써 근심 끼치지 맙시다

61. 호석을 쏘다 [射虎石(사호석)]

얼룩진 바위 안개 속에 숨어있어  
장군이 밤사냥에 활 당겼다 하네  
바위의 핏자국 아직도 남아 있어  
그 당지 무지개 같은 기운이 생각나네

62. 새벽에 채정교를 지나다 상고대를 보고 몹시 기이하여

[曉過彩亭橋木水甚奇]  
새벽 찬 이슬이 나무에 고드름 피워  
천 그루 배꽃이요 만 그루 매화라  
초물주 망국의 한을 알지 못하고  
채정은 예 그대로 경대에 우뚝하네

63. 또 [又]

계문에 쓸쓸하게 석양 비추고  
나무 다한 서남쪽엔 연기가 보이지 않네

한밤중 산신령이 나그네 한을 알아서  
꽃 피우고 버들개지 날려 봄을 만들었네

64. 늙은 천리마를 탄식하며 [老驥歎]

날개 떨치고 구름 울리며 큰소리 칠 때  
성 가득 구경꾼들 기이하다 탄복했네  
지금은 늙고 병들어 긴 고삐 매여  
둔한 말이 앞서 달리니 눈물 절로 흐르네

65. 동명의 운을 차운하여 [次東溟韻]

석문은 손이 없어 일찍 열리지 않아  
이마를 드러내고 옷깃 헤쳐 이끼 낀 돌에 앉네  
산승에게 글귀 구하는 것도 사람의 일인데  
모를레라 나비가 배갯가에 날아올지도

66. 김여남에게 드림 [贈金汝南]

가을바람에 명 받들어 역마를 날듯이 몰아  
타향에서 해를 보내다 모친께 나아갔네  
고당의 지극한 즐거움 가득한 곳에  
금붕어 황금닭 붉은 게가 살지네

67. 도갑사 스님 시축의 운자를 빌다 [次道岬僧軸韻]

누가 나를 시 잘한다고 말했나  
낮에는 시를 읊고 밤에는 등불을 허비 한다네  
구절 만들기 어려우니 글귀를 구하지 말라  
두 마음 서로 비추니 얼음같이 환하네

68. 또 [又]

취해서 높은 다락에 기대니 달은 동쪽에 뒀는데  
스님은 어느 곳에서 맑은 바람 끌어왔나  
계옹과 악로가 제한 시축이  
구름산에서 나와 소매 속으로 들어왔네

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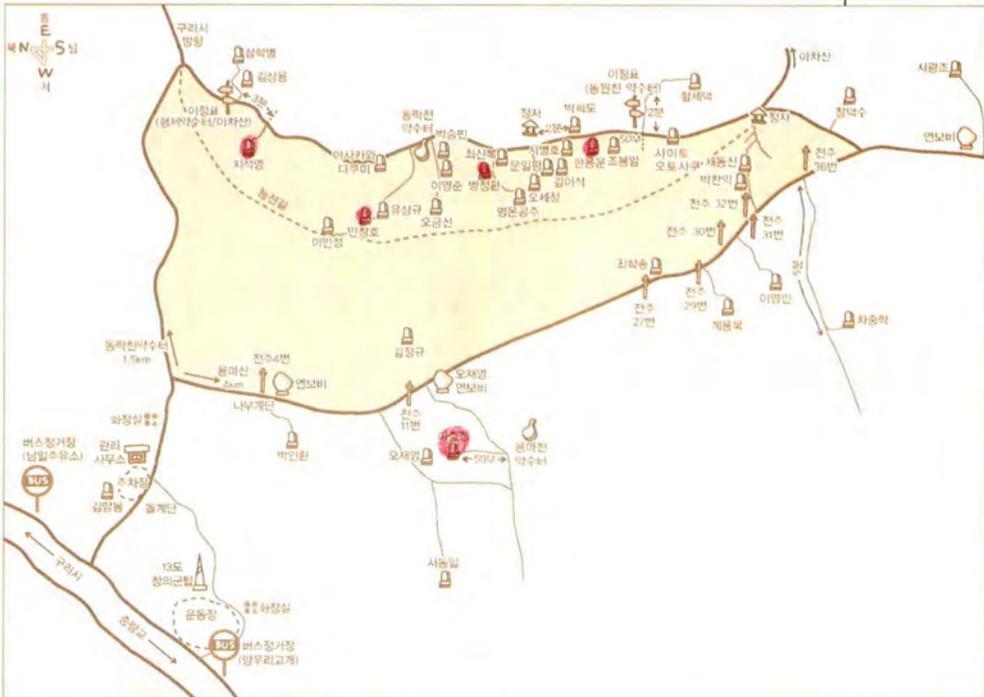
# 독립운동가 노은 김규식

윤승민 | 구리문화원 사무국장



노은 김규식 영정

망우묘역 지도



## 독립운동가 노은 김규식

윤승민 | 구리문화원 사무국장

### 1. 머리말

구리시는 항일독립운동가가 잠들어 있는 망우묘역을 경계로 하고 있어 독립운동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고, 애국애족(愛國愛族) 정신이 강한 도시이다. 구리시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독립운동가 이강덕(李康德, 1892, 고종 29) 선생은, 구리면 아천리 출신으로 직업은 면서기였다. 1919년 3월 전국에서 3·1만세시위가 전개되자, 3월 28일 오후 5시 같은 마을에 사는 심점봉과 함께 아천리 주민 수십 명을 이끌고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아천리·토평리·교문리 일대에서 시위를 한 후, 다음날인 29일에도 아천리 아차산에서 만세시위를 벌였다.

또 한명의 독립운동가는 새롭게 알려진 노은(盧隱) 김규식(金奎植, 1880~1931) 선생이다. 김좌진 장군과 함께 청산리 전투를 지휘한 김규식 선생은 대한제국에서 해산된 군인 출신으로 북로군정서에서 ‘독립군의 호장군(虎將軍)’이라는 별명으로 활동했으며,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고, 구리시의 자랑스러운 역사인물로 2008년 6월의 문화인물로도 선정된 바가 있다.

우리나라 항일 운동사에서 김규식은 동명이인만 4명이다. 그중 안동 김규식과 우사 김규식은 널리 알려져 있었다. 또한 이 세 사람은 역사의 기록과정에서 혼돈된 채 그 업적이나 일생이 중복된 사례도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구리시의 독립운동가인 노은 김규식 선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그가 남긴 별사봉공의 구국정신을 되새기고자 한다.

구리문화원에서는 2004년 김규식 선생의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학술발표를 하여 김규식 선생의 항일운동을 세상에 널리 알렸으며, 2008년 경기북부 이달의 문화인물로 선정되도록 역할을 한 바 있다. 또한 구리문화원은 구리시에서 계획 하였던 생가터에 동상과 기념비를 세우는 사업을 건의하기도 하였다. 앞으로 노은 김규식 선생의 업적이 사실 그대로 인식되는 것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민족의 역사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2. 경기북부에서의 의병활동

### 1) 허위 의병부대와 김규식의 의병활동

한말 의병항쟁의 전개과정에서 보면 경기도의 경우 남부지역에서 먼저 의병이 일어나 점차 북부지역으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였다. 즉, 초기의 의병항쟁은 광주와 이천을 배경으로 김하락, 구연영, 민승천 등이 주도하였으며, 이들은 강원·충청 지역 의병들과 긴밀한 연대를 형성해서 반일투쟁을 전개하였다. 1905년을 전후하여 경기지역 의병항쟁은 더욱 고조되었다. 김순덕의 연구에 따르면 경기지역의 의병은 부대의 규모, 전투회수, 항쟁기간 등을 볼 때 호남지역에 이어 가장 치열하게 항쟁을 벌였다. 따라서 경기의병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복원하는 작업은 한말 의병항쟁의 전체상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1907년 중반 이후부터 크게 확산된 경기지역 후기 의병의 활동은 김규식이 의병으로 활동한 시기와 접목된다. 이 시기가 경기지역 의병활동의 발전기에 해당하므로 경기의병의 가장 특징적인 면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1900년대에 이르러 일제의 침략이 노골화되자 한국인의 불만도 고조되었다. 특히, 1904년에 이르러 ‘한일의정서’와 ‘제1차 한일협약’ 등이 체결됨으로써 일본군이 국내에 주둔하게 되었으며, 한국 정부의 고문이란 미명아래 내정을 간섭하였다. 당시 일제는 외교와 재정 부문의 간섭뿐만 아니라 군대의 주둔과 군용시설의 설치, 철도 부설 및 통신시설의 설치 등을 병자하여 토지를 약탈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물자를 운반하기 위한 노동력을 강제로 징발하였다. 이 과정에서 경기지역 주민들은 일제의 군용철도의 부설조처에 크게 반발하였다. 양주에 거주하던 이춘근, 신수철리에 거주하던 안순서, 아현에 거주하던 김성삼 등은 경의철도의 부설을 방해했다는 죄목으로 처형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주민들의 반일적 분위기가 경기지역 의병봉기를 촉발하게 한 계기가 되었다.

1905년 11월 을사조약이 강제로 체결됨으로써 외교권을 상실하게 되자, 우국지사들은 나라를 잃은 것으로 간주하며 통탄해 마지않았다. 더욱이 1907년에 들어와 일제는 대한제국의 국권을 마음대로 유린하였다. 헤이그특사를 빌미삼아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켰으며, ‘한일신협약’을 체결하여 대한제국의 내정을 간섭하였다. 더욱이 대한제국의 군대마저 해산 당함으로써 자체적인 방어력조차 상

실한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와 같은 정치적 침탈이 끊임없이 자행되자 전국 각지에서 의병활동이 전개되게 되었다.

경기 북부지역의 의병봉기는 대부분 후기의병과 관련된 내용이다. 1896년을 전후하여 당시 경기지역 의병들은 대체로 서부 지역, 임진강 유역과 동북부 지역, 그리고 남동부지역 등 세 권역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그런데 1904년부터 1907년 8월 군대해산 이전까지 경기지역에서 활동한 의병지도층은 약 20명 정도로 확인되었다. 그 이후부터 1908년 2월까지 약 7개월 동안 의병지도층은 224명으로 파악,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리하여 1909년 후반까지 약 4백명 내외의 의병지도층이 경기지방을 무대로 활약하였다. 물론, 그 후 1911년 초까지 경기지역은 의병 활동이 간헐적으로 지속되다가 쇠퇴하였다. 이로써 볼 때 1907년 7, 8월을 분수령 삼아 경기지역 의병이 크게 확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경기북부지역은 1905년을 전후한 시기에 일어난 의병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 그나마 경기동부지역인 양근이나 지평에서 일어난 의병들의 활동 내용은 황성신문이나 대한매일신보 등을 통해 그 편린을 찾아볼 수 있을 정도이다. 경기북부지역은 1907년 8월 군대해산 직후부터 크게 일어났다. 당시 일제는 고종의 강제 퇴위와 ‘한일신협약’ 및 군대해산으로 배일파들이 민중과 힘을 합해 의병을 일으킨 것으로 인식하였다. 특히, 경기·강원지역 후기의병은 해산군인들이 참여로 활성화되었으며, 그 대표적인 의진이 바로 허위 의병부대였다.

의병장 허위(1855~1908)는 경북 선산 출신의 유생으로 1896년에 이은찬 등과 이미 금산을 중심으로 의병을 일으킨 바 있으며 그 후 그는 신기선의 추천으로 발탁되어 환구단 참봉을 시작으로 중추원 의관, 평리원 판사, 의정부 참찬, 비서원승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다. 관직 재임 중에도 그는 한일의정서를 강요하는 일제를 성토하는 통문을 돌리는가 하면, 일진회의 매국적인 친일행위를 규탄하는 통문을 배포함으로써 일제에 의해 두 번이나 구금된 바 있었다. 결국 그는 정계에서 물러나 선산 향제로 강제 이송되었다.

이와 같이 허위는 항일운동을 주도하는 우국지사로 전국에 명성을 날린 인물이었다. 경기북부지역에서 의병을 일으킨 김진묵과 왕회중 등은 1907년 음력 8월경 삭녕군에서 허위를 의병장에 추대하였다.

허위는 임진강 유역을 비롯한 경기북부지역에서 수백 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활동하던 김규식·연기우·황순일 등의 의병부대와 연합을 활발하게 추진한다.

가장 먼저 언급된 의병장 양주 출신의 김규식(27세)은 서울에 주소를 둔 보병 부교를 지낸 퇴역하사관 출신이었다. 의병장 연기우(기호)는 삭령 출신으로 역시 보병 부교를 지내다가 군대가 해산되자 해산군인들을 이끌고 강화도에서 창의한 인물이다. 그는 허위 부대와 합진하여 활동했는데, 순양창의대장 등을 자칭하며 망국 후까지 장기간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김준수(수민, 43세)는 장단 출신으로 주사를 역임한 퇴직 관리로서 양반이었다. 이종협(종엽, 36세)은 서울의 해산군인 출신으로서 1907년 8월 토산에서 의거하여 서상렬 의병부대의 소모장으로 활동하였다. 황순일(44세)은 양주 출신으로 판포대장을 지냈으며 황재호와 호응하여 창의한 인물이다. 황재호(37세)는 포천 출신으로 보병 하사를 지냈으며, 1907년 9월 권덕수와 거의한 후 허위의 휘하에서 선봉수부대장이라 칭하며 활동하였다. 박종한(종환, 28세)은 마전 출신으로 특무정교를 지냈으며 1907년 8월 김규식의 권유로 해산병들을 규합하여 의병에 투신했다. 허위를 연합의병부대의 의병장으로 추대한 김진묵과 왕희중은 각각 양주와 마전 출신으로 함께 창의한 인물들이다. 이로써 허위의 연합의병 의진의 지도층은 경기북부지역 출신의 중소규모 의병장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대부분은 20~40대로 54세의 의병장 허위보다는 소장층에 해당된다. 대부분 해산군인 출신으로 부교와 같은 하사관 층이었기에 군사 경험이 풍부했으며, 그로 인하여 중소 의병부대의 지휘를 맡아 의병장으로 활동하게 된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이들은 경륜과 학식 그리고 항일의지가 투철한 허위가 자신들을 이끌어줄 적임자라고 판단하여 흔쾌히 연합하게 된 것으로 믿어진다.

1907년 9월경 허위는 연합의병부대를 결성하여 경기 북부지역을 무대로 의병 활동을 전개하였다. 당시 군대를 해산했다는 말과 7조약이 또 이루어졌다는 말을 듣고 황감하게 생각하는 중에, 분하고 슬픈 마음이 뒤섞여서 가을과 겨울에 비로소 경기도에서 의병을 일으켜 군병을 포천·연천·적성·삭녕·철원·양주 등지에 벌려 세워 강화를 향해 내려갔다. 이때 부하 김규식·연기우·권중설 등이 여러 번 적진을 깨뜨리니 군대의 소리가 크게 떨쳤다.

그러면 김규식은 언제 의병을 일으켰으며, 의병에 투신하기 전에는 무엇을 했는지 궁금하다. 김규식(1882.1.15~1931.5.10)의 호는 노은, 별명은 금성·사도

이며 출생지는 경기도 양주군 구리면 사노리 281번지이다. 일제는 그의 성격이 '강담', 즉 강직하고 담대하다고 보았으며, 그의 배일사상과 활동으로 말미암아 요시찰 인물로 기록하였다. 그는 어려서 사숙에서 한문을 습득한 후 1903년 1월 경 한국무관학교의 견습생으로 들어가 교육을 받다가 이듬해 3월 무관학교의 해산조치에 따라 폐교됨으로써 학교를 떠났다. 그 후 1904년 12월에 시위대에 입대하여 1906년까지 보병 부교로 승진, 1907년 해산칙령에 의해 제대하였다. 그러나 그의 판결문은 이러한 내용과는 사뭇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

판 결

경성 동서 돈암현

전 육군 보병 부교 퇴역

김규식 27세

(중략)

이 유

피고는 전에 육군 보병 부교로 육군 연성학교에 봉직하다가 광무 10(1906)년 음력 10월 중에 원에 따라 퇴관하여 무직으로 날을 보내던 바, 융희 원년 음력 6월에 이르러 전 육군 정위 현덕호가 주관하는 이현 기독교신학교의 교무에 관계하더니 동 7월 중에 현덕호의 발의에 응하여 그 당시 정부에 대해서 불만의 뜻을 품고 이를 변경하려고 현덕호와 같이 양주군 동두천에 가서 자칭 의병피수 허위의 부하에 투입하여 그의 도당 4~50명 내지 80여 명을 거느리고서 피고는 교련 부하의 명목으로 총검을 휴대하고 마전, 삭녕, 연천, 양주, 철원 등 각 군을 횡행.

위의 기록에 따르면 그의 주소지는 서울로 되어 있는 점과 육군연성학교에 근무하다가 1906년 말에 군을 떠났다는 점 등 앞의 기록과 상반된다. 두 기록을 비교해서 판단한다면 판결문보다는 『요시찰인명부』의 내용이 오히려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그것은 김규식이 1908년에 재판을 받을 때보다 1925년 『요시찰인명부』가 작성된 시기에 보다 많은 정보가 축적되었으리라 믿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1906년 자신이 원해서 군을 떠났다가보다는 1907년 8월 군대해산 조치에 의해 시위대를 강제로 떠나게 된 것으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

군대해산 당시 시위대 대대장이었던 박승환 참령은 “군대가 나라를 지킬 수 없다면 신하가 충성을 다하지 않은 것이니 만 번 죽어도 아깝지 않다(軍不能守國 臣不能盡忠 萬死無惜).”는 말을 남기고 자결하자, 그 소식을 전해들은 시위대 해산군인들이 일본군과 서울에서 격렬한 시가전을 벌였다. 이때 김규식도 그 공방전에 참여하였으리라 추정된다. 해산군인들이 탄환의 결핍 등으로 상황이 불리해지자 김규식은 상급자로 추정되는 전 육군 정위 현덕호와 그의 고향인 양주로 이동, 허위 의병부대에 합류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물론 그 직전에 현덕호와 함께 기독교신학교에 잠시 머물렀다는 판결문의 내용은 이들이 일제 군경의 수색을 피해 일시 몸을 숨긴 사실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와 같이 군대해산을 계기로 김규식은 자신의 상급자인 현덕호와 더불어 의병에 투신하였다. 현덕호에 대한 기록도 거의 없어서 행적을 밝히기가 어려운 편이다. 국가보훈처의 공적내용에 의하면 그는 1907년에 충북 단양에서 신태식의 병부대에 참여하였다가 이강년 의병부대에 합류하여 증부지방을 무대로 활동하던 중 1908년에 경기도 양주의 안산전투에서 순국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위의 판결문에서 알 수 있듯이, 현덕호는 김규식과 더불어 명성이 자자한 허위 의병부대에서 활동하다가 양주 안산전투에서 순국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다.

한편, 김규식은 한국무관학교의 견습생과 시위대의 부교 경력으로 의병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련의 직책을 맡았다는 점이 주목된다. 그는 약 4년(1903.1~1904.3, 1904.12~1907.7) 간 군생활을 경험했으며, 당시에 습득한 군사지식을 활용하여 의병부대의 교련을 담당했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허위 의병부대에는 현덕호와 같은 전투역량이 뛰어난 장교, 김규식과 같은 하사관, 그리고 일반 사병에 이르기까지 해산군인들이 많이 참여하였을 것이다. 그리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허위 의병부대는 여러 의병부대와 연합하여 경기 북부지역의 대표적인 의병부대로 성장하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이들이 경기 북부지역에서 항일투쟁을 전개하자 당시 내각총리대신 이완용이 상주하여 허위의 품계를 삭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허위 의병부대는 1907년 9월부터 포천, 연천, 안협 등지를 돌며 일제의 군경과 격렬한 전투를 벌였다. 더 나아가 강원도 접경지역을 넘나들며 활동영역을 넓혀갔다. 이들은 철원군 보개산으로 이동하여 병력을 보강하는 한편, 일진회원을 처단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

개하였다. 또한 이들은 각국 영사관에 격문을 보내어 자신들의 주장을 밝히고, 대한매일신보에도 기사를 게재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로 인하여 항일투쟁의 정당성을 천명함으로써 이들의 의병활동이 전국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허위 의병부대와 연합한 의진이 계속 불어나 1907년 말에 이르러 그들의 규모는 수천 명으로 늘어났다. 이 과정에서 김규식이 크게 기여하였으리라 추측된다.

## 2) 13도창의대진소와 김규식의 활동

허위 의병부대는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던 의진과 연합하여 서울진공작전을 도모하였다. 당시 원주에서는 이구채와 이은찬의 추대를 받아 의병을 일으킨 이인영 의병부대가 활동하고 있었다. 이들은 효과적인 항일투쟁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양주로 진격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의병부대의 최종 목표를 서울공격으로 설정한 이인영은 먼저 관동지역 의병부대의 통합작업에 착수하였다. 그리하여 관동창의대장에 이인영, 총독장 이구채, 중군장 이은찬, 좌군장 방인관, 우군장 권중희, 진위대 사령부 민공호 등이 편성되었다. 이로써 이인영의 관동창의군이 결성된 것이다.

이인영의 관동창의군은 강원도 원주에서 경기도 지평으로 이동하였다. 지평에서 약 1개월간 주둔하며 일본군경과 여러 차례 전투를 벌이며 군사력 보강에 나섰다. 이때 경기도 지평과 양근 지역에는 의병의 활동이 거센 편이었다. 그 당시의 양평지역 의병은 약 200~400명 규모로 편성되었는데, 유격전을 위주로 하는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양평의병의 규모가 상당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군대 해산에 항의하여 봉기한 서울 시위대와 원주 진위대에서 흩어진 해산군인들이 양평의병에 투신함으로써 의병부대의 전투력이 크게 제고되었다. 그리하여 이들은 한층 발전된 전술과 보강된 무기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항일투쟁을 전개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관동창의군이 잘 활용하였다. 관동창의대장 이인영은 서울을 공격하기 위해 양주로 집결할 때 원주-제천-양근-지평 등지를 거쳐 이동한 점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당시 양평지역에서는 양근읍 출신의 조인환이 소장수였던 권득수와 함께 의병을 일으켜 용문산으로 들어가 상원사와 용문사를 근거지로 삼아 활동하였다. 이들은 1907년 8월 3일 오전 의병 1백여 명으로 당시 지평군 분파소와 관사를 습

격하였으며, 강원도에서 주로 활동하던 권화경 의병부대와 연합하여 규모를 4, 5백 명으로 증강시켰다. 그리하여 양근읍을 공격하여 군아, 세무서, 우편취급소 및 일본인 가옥 등을 파괴하거나 방화하였다. 이들은 다시 지평분파소와 관사를 공격, 파괴한 다음 같은 달 12일 양근분파소와 우편취급소를 공격하였으나 이미 일본인들은 도망간 뒤였다. 이들은 양근세무서에서 서류와 세금 1백원을 몰수한 후 세무주사를 처단하려 했지만 의병장 조인환은 살려 주었다.

이 밖에도 지평에서 활동하던 의병들이 강원도 홍천으로 이동하여 일본인 전당포와 우편취급소를 파괴하였으며, 17일에도 다시 양근읍내를 습격하여 우편취급소를 거둬 파괴하였다. 19일에는 또다시 지평군아를 공격하여 일본군에게 음식을 접대한 군수 금태식을 포살한 뒤 일부 의병들은 한강 상류에 있는 고랑진을 습격, 나룻배를 모두 거두어 파괴함으로써 충주에서 올라오는 진압군의 진로를 차단하였다. 또한 의병장 조인환은 전성환과 나응완을 상경시켜 전 협판 엄주익에게 군자금 10만량을 강요하였다. 하지만 전성환·나응완은 일제에 의해 발각, 체포되어 각각 10년 7년 유배형에 처해졌다.

이처럼 양평에서 의병의 활동이 거세지자, 일제는 이들을 진압하기 위해 250명 규모의 일본군을 파견하였으며, 이어 증원병을 추가로 파병하였다. 이에 맞선 조인환 의병부대는 양근 인근의 산 속에 매복해 있다가 일제의 진압 경찰을 공격, 격퇴하였다. 이들은 또한 양근 방면의 진압에 나선 일본군을 따돌렸다. 일제의 진압 군경은 양근의 장수동 연안막을 습격한 후 상원사·용문사에 비치한 의병의 군량과 군수물자를 찾아내어 불태워버렸다. 뿐만 아니라 일제는 양근읍내 민가 수백호를 불태우고 지평 용문동의 기독교인 가옥 14호와 평민 가옥 6호를 소각하였다. 주민들이 의병에 협조해준 것에 대한 일제의 잔혹한 보복조치로 믿어진다. 8월말 일제 진압군의 추격을 받던 조인환 의병부대 200여 명은 양근의 광탄 부근 산중에 매복해 있다가 역습을 감행하여 상당한 전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일제 군경의 거둬진 진압작전으로 말미암아 의병의 피해가 커지자, 조인환 의병부대를 비롯한 양평의병들은 양주를 비롯한 경기·강원도 지역을 넘나들었다.

이와 같이 의병투쟁이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고조되자, 의병의 지도부는 서울진공작전을 전개하여 일제에 충공세를 펼침과 동시에 한국문제를 국제화하려는 움직임을 구체화하였다. 1907년 12월 양주에서 결성된 13도창의대진소가

그것으로, 이른바 '13도 연합의병'을 성사시킨 대표적인 인물은 원주 출신의 이은찬과 서울 출신의 이구채 등이다. 1907년 음력 8월 이들은 원주에서 관동창의군을 결성하여 수백 명의 의병을 모은 후 양주를 서울 공격의 근거지로 삼고자 먼저 지평으로 이동하였던 것이다.

1907년 10월 20일경 의병장 이인영은 확대 개편된 의병 조직 약 2천명을 이끌고 당시 지평군 상동면에 도착해서 약 한달 동안 머물며 군수물자의 조달과 병력을 보강하였던 것이다. 한편으로는 전국에 격문을 보내어 경기도 양주로 집결하자고 호소하였다. 그리하여 이들은 16개 단위부대에 총 8천여 명으로 증강, 개편되었다. 당시 양주에는 48개 의병부대에 약 1만여 명의 의병이 속속 도착하였다. 아래의 인용문을 잠시 살펴보자.

평안도 의병은 황해도 의장 박기섭과 연락하고, 황해도 의병은 장단 의장 김수민과 상련하고, 김수민은 철원 의장 전 참위 김규식과 연통하고, 김규식은 적성 마전 의장 허위와 상통하고, 허위는 지평·가평 등지의 이인영과 통섭하고, 이인영은 제천 영동 등지의 이강년과 상통하고, 이강년은 원주 등지의 의장 민공호와 연접되어 호상 통첩한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경기도를 중심으로 평안·황해·강원·충북·경북지역에서 활동하는 의병부대 간에는 폭넓은 연대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을 주도한 인물은 아마도 허위와 이인영 등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양주에서 이인영은 13도창의총대장으로 추대되었으며, 군사장에는 허위가 선임되었다. 그리고 관동창의대장 민공호, 호서창의대장 이강년, 교남창의대장 박정빈, 진동창의대장 권중희, 관서창의대장 방인관, 관북창의대장 정봉준 등으로 13도창의대진소의 편제가 짜여졌다. 이들은 대체로 이인영이 이끄는 관동창의진과 허위가 지휘하는 의병부대를 주력으로 연합한 의병이라 할 수 있다.

당시 김규식은 허위 의병부대의 핵심인물로 13도창의대진소의 일원으로 활동하였다. 그가 1907년 12월 이인영 의진과 합진하여 사령장을 맡아 1천5백명의 의병을 거느리고 장단과 양주 등지를 무대로 일본군경과 투쟁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들 연합의병부대는 1908년 1월 군사장 허위의 지휘 하에 약 3백명의

선봉대가 서울 동대문밖 약 30리 지점에 도착하였다.

서울진공작전에서는 허위 선생께서 친히 감사병(결사대) 1백명을 거느리고 선두에 서서 동대문밖 30리 되는 지점에 전군이 와서 모이기를 기다려 일제히 공격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후군은 시기를 어기고 일병이 줄지에 몰려와 장시간 사격을 몹시 심하게 하니, 이때 후원군이 오지 않아서 할 수 없이 퇴진되었고, 김규식·연기우가 모두 탄환을 맞고 붙들렸다.

군사장 허위가 서울진공작전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연합 의진간에 협조체제가 다소 미흡하여 실패하게 된 과정과 일제와의 교전 중에 김규식과 연기우가 부상을 입고 체포되었다는 것이다.

당시의 상황을 매천 황현은 “허위와 이인영의 부하 조수연, 김규식, 홍인관, 이병채, 장순원, 오수영, 김연상, 황재호, 이명기, 연기우, 고재석, 박종한, 윤인선, 황순일, 김운이, 이동섭 등 모두 16인인데, 역사로 이름이 알려졌다. (중략) 의병장 허위가 붙잡혔으며, 부하 김규식도 체포되었는데, 뛰어난 용맹이 있어서 중도에서 묶은 줄을 끊고 몸을 솟구쳐 달아났다.”고 기록하고 있어 김규식은 서울진공작전 중 부상을 입고 붙잡혔으나, 호송 도중에 탈출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13도창의대진소의 서울진공작전은 일제통감부를 타격, 을사5조약과 정미7조약의 파기, 매국노의 처단, 의병주도의 신정부 조직 등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이들은 서울을 무력으로 점령한다는 군사적 목적뿐만 아니라 국권회복 문제를 일제통감부와 담판하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의병지도부의 계획이 치밀하지 못한데다 전술의 미숙과 총대장 이인영의 부친상 등으로 본격적인 투쟁을 전개하지 못한 채 해산하고 말았다. 요컨대 1907년 8월 이후 의병장 허위와 이인영의 주도로 여러 의진을 결집하여 그해 12월에 결성된 13도창의대진소는 일제의 구축과 친일세력의 처단에 앞장섰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1908년 초반 13도창의대진소가 해산된 이후 경기북부지역 의병의 투쟁열기도 다소 식어갔다. 하지만 얼마 안 되어 경기지역 의진들은 전열을 가다듬어 1908년 중반이후에는 경기 서북부지역과 임진강 유역의 의병항쟁은 크게 확산되었다. 반면, 경기 동남부지역의 의병투쟁은 좁처럼 예전과 같은 열기를 회복하

지 못했다. 의병항쟁의 중심지가 경기 동남부에서 서북부지역으로 바뀐 것이다. 경기 서북부지역의 의병항쟁을 주도한 의병부대로는 윤인순·정용대 등이 이끄는 창의원수부, 해산군인 출신 금융기·지홍일이 지휘한 창의돌격진, 이능권이 통솔한 대동창의진, 연기우가 이끄는 동한창의존양군수부, 금수민이 소속된 창의도독부, 해산군인 출신의 강기동 등 이었다. 물론 김규식도 항일투쟁의 대열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아래의 기록을 잠시 살펴보자.

1. 정보에 의하면 지금의 가평군 양주군 홍천군 지방을 배회하는 폭도 수괴는 장계환, 금춘수, 김규식 등 3명으로 각각 부하 약 7, 8명을 유(有)하고 또 당류 모집 중이다. 피등(彼等)은 주간은 산재하여 무기를 은닉하고 양민(良民)을 가장, 척후와 여함은 지계를 배부하여 촌민으로 가장하고 야간에 지하여 집합 행동한다고 한다.

그가 경기북부와 강원 서부지역을 무대로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일본 수비대와 경찰 또는 일제의 침략기구인 우편취급소·관아·세무서 등을 닥치는 대로 공격하였다. 그리고 친일군수와 일제의 앞잡이인 일진회원의 처단에 힘을 기울였다. 하지만 일제군경의 집요한 추적을 끝내 따돌리지 못하고 체포되고 말았다. 대한매일신보 1908년 7월 10일자 <비거하처>에

‘김규식 씨는 허위 씨 휘하의 제일용장인데 인천등지에서 일병에게 피착되었더니 허위 씨의 소재처를 추궁하기 위해 그를 밧줄로 묶어 앞세우고 강원도 지방으로 향하다가 도중에서 그가 밧줄을 끊고 달아났다.’고 하여, 김규식이 인천에서 체포되어 허위의 소재처를 추궁하는 일제에 의해 강원도로 가다가 탈출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허위는 이미 1908년 6월 11일에 경기도 영평에서 체포되었다.

이 기사가 발표된 날짜인 7월 10일과 한 달이나 차이가 나므로 그대로 신빙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흔히 알려진 바로는 김규식이 1908년 4월에 체포되었다고 하나, 그 근거도 사실 충분하지는 않은 편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김규식이 1908년 8월 25일자로 경성공소원에서 15년 유배형을 선고받은 점으로 보아 그 이전에 체포되었음이 분명하다. 일제 군경의 조사와 제1심 재판을 거쳤을 것

이므로 7월경에 붙잡힌 것 같지는 않다. 현재 알려진 대로 4월경 무기를 구입하기 위해 인천에 잠입했다가 체포되어 허위의 소재지를 찾기에 혈안이 된 일제군경에 의해 경기 강원 지역으로 끌려 다녔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 후 의병장 허위가 여영조·박대원의 밑고로 붙잡히자, 김규식은 8월 25일 재판을 거쳐 형이 확정된 것으로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그 후 김규식은 약 2년간 유배생활을 하다가 1910년 9월 5일자로 사면되었다. 그 이후 1910년대 김규식의 행적은 『요시찰인명부』에 어느 정도 밝혀져 있다. 즉, 1917년 1월부터 양주군 구리의 동구릉 삼림감시원을 하다가 1919년 1월에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소작인조합장을 지내던 중 1920년 7월 15일부터 행방불명이라는 것이다. 그가 1920년 8월 7일자로 경성고등법원에 의해 내란죄로 기소되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3.1운동에 관여했거나 그 직후의 독립운동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 3. 김규식의 의병활동과 독립전쟁

#### 1) 대한독립선언서에 나타난 김규식

김규식이 어떤 생각으로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했는지 알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접적인 문헌은 1919년 2월경에 발표된 ‘대한독립선언서’이다. 선언서는 조소앙이 초안을 집필하였는데, 김좌진처럼 대중교에 관여했던 인사들이 많았으며, 만주와 노령지역의 독립단체에서 활동하던 39명의 저명한 지도자들 명의로 발표 하였다. 선언서는 ‘3.1 독립선언서’처럼 외교론적인 독립운동노선의 견해가 반영된 다른 독립선언서와 달리 전쟁을 통해 독립을 쟁취하자는 입장을 천명했다는 점에 커다란 의미가 있었다. 아래는 독립선언서의 일부 인용문이다.

“우리 대한 동족 남매와 온 세계 우방 동포여! 우리 대한은 완전한 자주독립과 우리들의 평등복리를 우리 자손 여민에게 대대로 전하게 하기 위하여 여기 이민족 전제의 학대와 압박을 벗어나서 대한 민주의 자립을 선포하노라. 실로 항구 일관한 지성의 격발로써 저 이민족으로 하여금 깨닫고 새롭게 하여 우리의 결심은 야비한 궤정을 초월하여 진정한 도의를 실현함에 있다. 우리 대중이여 공의의 독립자는 공의로써 진행하게끔 일체의 방편을 다하여 군국전제를 삭제하고 민주 평등을 세계에 널

리 실시함이 우리 독립의 제일의이다. 무력 겸병을 근절하여 평등한 천하의 공도를 진행하는 것은 곧 우리 독립의 본령이다. 밀맹사전을 엄금하고 대동평화를 선전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 복국의 사명이다. 권리와 부를 모든 동포에게 베풀며 남녀·빈부를 고르게 조화하며, 등현등수를 지우노유에게 균등하게 하여 사해 인류를 건질 것이다. 이것이 우리 건국의 기치이다. 나아가 국제 불의를 감독하고 우주의 진선미를 구현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 대한 민족의 시세에 응하고, 부활하는 궁극의 의의이다. 필기하라, 독립군! 독립군은 일제히 천지를 바르게 한다.”

일명 ‘무오독립선언서’라고도 하는 선언서는 1917년에 발표된 ‘대동단결선언’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 독립 이후에 수립할 국가의 성격이 ‘대한 민주’, 곧 민주공화정제임을 천명하였다. 또한 ‘군국전제’, 곧 절대군주제를 부정하고 민주와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독립의 제1의’라고 하고 있다. 3.1운동이 전개되고 있던 와중인 4월 11일 상해 임시의정원에 의해 제정된 <대한민국임시헌장> 제1조, 곧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는 정신보다 앞서 제기된 것이다. 더구나 선언서는 독립한 이후의 ‘건국의 기치’, 곧 국가 건설의 방향을 남녀와 빈부 차이를 부정하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평등한 대동사회를 지향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신도 <대한민국임시헌정> 제3조, 곧 ‘대한민국 인민은 남녀·귀천급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절 평등임’이라는 정신보다 앞서 제기된 것이다. 선언서는 민주와 평등을 지향하는 독립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방안으로 독립군의 필기, 곧 독립전쟁을 벌이자고 독립운동가와 단체들에 촉구하였다. 무력에 의한 자주적인 독립 쟁취를 천명함으로써 외교론적인 독립운동론을 부정한 것이다.

민주와 평등을 추구한 선언서에 서명한 김규식의 생각은 이후 다음 두 가지 점에서 일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뒤에 언급하겠지만 김규식은 만주지역 독립운동단체가 공화주의를 지향하는 단체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 북벽주의 단체에 가담하지 않았다.

둘째, 그는 1926년경부터 비밀결사적인 정당을 표방하는 독립운동단체가 등장했을 때는 여기에 가담하였다. 그가 참가한 정당은 독립 이후에 ‘평균적으로 평등한 국가’를 수립하려는 이상을 가지고 있었다.

## 2) 북로군정서에서의 의병활동

1919년 3·1운동의 영향을 받은 만주지역의 독립운동단체들은 독립전쟁을 적극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용정을 중심으로 동만지방의 한인사회에는 여러 무장단체가 출현하였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1919년 8월 정의단에서 명칭을 변경한 군정회이다. 군정회는 왕청현 춘명향 서대파구에 본영을 두고 있었는데, 10월에 군정부로 개칭했다가 상해의 통합 임시정부의 지시에 따라 1919년 12월 대한군정서로 다시 이름을 바꾸었다. 대한군정서는 서간도, 곧 남만지방에서 활동하던 서로군정서와 구분하기 위해 대한북로군정서라고도 불렀다.

북로군정서는 당시 상해 임시정부의 국무총리 이동휘의 무장투쟁론을 지지하고 있었다. 즉, 이동휘는 민족의 자력으로 마지막 한 사람까지 우리의 주장과 행동을 내세워야 하며, 소련과 일본 또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면 일본의 적국과 연합하여 전쟁의 목적을 달성하고, 독립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렇게 해야 국제사회로부터 교전단체로 승인받을 수 있으며, 독립 이후 국가 건설을 우리 민족이 주도할 수 있다고 보았다.

북로군정서에서 김규식은 이범석, 이장녕 등과 함께 사관연성소의 교관으로 활동하였다. 사관연성소는 1920년 3월 왕청현 십리평에 건립된 군사간부 양성 학교로 김좌진이 소장이었다. 생도들은 주로 대종교의 청년 신도와 왕청현 덕원리에 있던 명동학교 학생들이었다. 사관연성소는 학생들에게 군사학과 총검술을 가르쳤고 전투훈련도 실시하였다. 군사학의 교재는 《보병조전》, 《축성교범》, 《군대내무서》, 《야외요무령》 등 이었는데, 책의 제목만을 놓고 볼 때 일본군의 교재였을 가능성이 높다. 적의 교재로 적의 전법을 익히려 했던 의도와도 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연성소는 1920년 9월 졸업식을 거행하여 289명의 제1회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일본군이 만주지역 독립군을 공격한다는 정보를 미리 입수한 독립군들이 백두산 일대로 이동하기 위한 조치 가운데 하나였다. 졸업생의 대다수는 교성대로 편성되어 북로군정서군과 함께 이동하던 중 화룡현 청산리 일대에서 일본군과 만나 접전을 벌였다. 하지만 청산리전투에서 김규식이 어느 부대를 지휘했는지는 알 수 없다.

독립군은 일본군의 공격으로 백두산 일대에 집결하지 못하고 북만주지방으로 이동하여 밀산에 집결하였다. 그들은 이곳에서 서일을 총재로 하는 대한독립군

단을 조직하고, 러시아 연해주로 월경할 것을 결정하였다. 20만명 가량의 조선인이 거주하고 있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볼셰비키의 도움으로 무기도 공급받고 조직도 정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김규식은 이때 군대 지휘를 책임지는 총사령에 추대되었다. 김좌진과 이범석 등 대한독립군단의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독립군은 1921년 3월 이만을 거쳐 자유시에 도착하였다. 독립군은 이곳에서 노령에서 활동하던 조선인 빨치산 부대와 독립전쟁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통합하여 1400여 명의 병력을 가진 대한의용군을 조직하였다. 김규식은 여기에서 홍범도, 이청천 등과 함께 참모부원으로 선발되었다. 그러나 이념을 떠나 독립을 위해 함께 활동하려 했던 독립군들의 움직임은 6월에 있었던 자유시참변으로 인해 물거품이 되었다. 사회주의자들 사이의 주도권 다툼의 와중에서 일어난 이 참변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의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만주에서 건너간 독립군에게는 커다란 타격이었다. 김규식이 이후 활동에서 반공이란 태도를 견지하는 것도 이때의 경험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 4. 독립전쟁과 김규식

##### 1) 고려혁명군과 대한군정서에서의 활동

자유시참변을 경험한 김규식이 언제 만주로 돌아왔는지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다. 발표자가 확인한 가장 빠른 시기는 1922년 말 그가 목릉현 마교하에서 김좌진 이범석 등과 활동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그들은 중국 지방관헌에게 무장 해제를 당하였고, 다시 영안현 영고탑으로 이동하여 이주한인을 상대로 의무금 징수활동 등을 벌이며 재기를 모색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주민들의 반발을 받았고, 중국 지방관헌이 체포하려 들자 다시 흩어졌다.

북만주지방에서 활동하는데 어려움을 느낀 김규식은 동만주지방으로 활동거점을 옮겼던 것 같다. 그가 1923년 5월 연길현 명월구에서 고려혁명군이란 무장단체를 조직할 때 참가했기 때문이다. 그는 여기에서 총사령, 곧 최고 책임자로 활동하였다. 그런데 고려혁명군의 활동에서 주목되는 사실은 국민개병의 민병제라는 조직방침을 채택하는 한편에서, 둔경제를 실시하였다는 점이다. 둔경제란 특정한 지역에 거주하며 평소에는 생활에 필요한 생활경제를 스스로의 노동

에 의해 확보하면서 군사훈련을 받다가, 기회가 오면 군사활동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노령에서 만주로 돌아온 직후 의무금 징수활동 과정에서 겪은 경험이 그와 동료들의 생각을 바꿔놓는 배경의 하나였을 것이다. 또한, 이주한인사회에 부담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산리전투 당시와 달리 장기적인 운동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나온 조치이기도 할 것이다. 내외적 상황이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서 1923년 참의부, 1924년 정의부, 그리고 김규식이 활동하는 신민부가 1925년에 결성되었던 것이다.

김규식의 입장에서 보면 고려혁명군 활동 때부터 ‘조선인민의 자치’에 기초한 활동이 시작된 것이다. 그렇다고 고려혁명군이 자치단체로서의 형식과 내용을 갖춘 조직이었다는 뜻은 아니다. 그것은 신민부 단계에 가서야 조직적 실체를 드러낸다. 만주 독립운동 단체의 주류가 무장적 독립운동단체에서 자치적 독립운동단체로 넘어가고 있던 과도기에 남만주지방의 대한통의부의 경우처럼 동만주지방에 나타난 현상의 하나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런데 고려혁명군의 활동이 오래 간 것 같지는 않다. 과거 북로군정서 시절에 함께 활동했던 사람들이 결성한 대한군정서가 1924년 3월 영안현 영고탑에서 재조직되어 활동하고 있었는데, 그는 이 조직에서 참모 선임되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5월에는 고려혁명군의 지도부 사람들도 모두 흡수되면서 대한군정서의 조직이 개편될 때 김규식은 군대의 지휘 책임을 맡은 총사령에 선출되었다.

## 2) 신민부에서의 활동

1925년 3월 대한군정서를 중심으로 북만주지방 등지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 단체들은 목릉현에서 부여족통일회의를 개최하고 신민부를 결성하였다. 회의에서는 “국가의 완전한 건설과 민중의 철저한 해방을 도모하기 위하여 강권폭력의 침략주의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와 동일한 지위에 있는 세계의 민중과 협동의 동작”을 취한다고 선언하였다. 민중과 반침략주의를 선언한 신민부는 금혁을 중앙집행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위원제에 입각하여 민주적인 논의과정을 거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검사원(검사원장:현천묵)을 두어 집행부를 견제하고, 원로들로 참의원(참의원장:이범윤)을 구성하여 상징성과 위상을 높이려고 하였다. 또한 행정계통과 별도로 군대, 곧 둔전제에 기초를 둔 보안대(대장:

박두희)도 두었다. 신민부는 기관지로 [신민보]를 발행하였다. 삼부 가운데 유일한 활동이었다.

신민부와 마찬가지로 정의부와 참의부에서도 자치를 통해 군사역량을 강화하고 정치경제적인 실력을 축적해 두었다가,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국가 간의 전쟁이나 중국의 군벌전쟁 등 대외정세가 항일운동에 유리하게 조성될 수 있다면 이를 활용한다는 전술론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이 조성되기까지 군대는 둔전제에 입각하여 유지되어야 했다. 따라서 당시 군대는 국방기능을 담당하는 조직, 곧 독립전쟁을 위해 국내에 침투하거나 만주의 친일파 등을 처단하는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조직이었다기보다는 관할 구역 내에서 치안을 담당하는 사실상 경찰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신민부의 보안대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활동한 측면이 조금 약하였다.

그런데 신민부 상층기관 어디에서도 창립 당시 김규식의 이름을 발견하기 어렵다. 이들 대부분이 북로군정서, 고려혁명군, 대한군정서 등에서 함께 활동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터득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다. 그렇다고 그가 신민부에서 활동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도 없다. 1927년 2월 신민부 내 민정파들로 구성된 고려국민당에서 1928년경 군사부위원에 김규식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이다. 김규식은 신민부 시절 무장단체 활동 일변도에서 경제와 교육 등 자치활동을 기반으로 장기적인 독립전쟁을 준비하는 방향으로 활동의 무게중심을 확실히 옮겼다. 민정을 우위에 두는 독립전쟁론을 추구했던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 3) 고려혁명당과 고려국민당에서의 활동

1920년대 중반경 만주지역 독립운동에서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현상이 하나 나타난다. 즉, 자치 기반을 튼튼히 쌓아가면서 장기적인 독립전쟁을 준비해야 한다는 인식이 일반화되는 한편, 독립운동만을 생각하고 활동하는 비밀조직을 결성하려는 움직임이 바로 그것이다. 그것은 정당을 표방하는 형태로 가지화되었다. 즉, 참의부 활동구역에서는 한인회, 정의부의 활동구역에서는 다물당·한족로동당·고려혁명당, 신민부의 활동구역에서는 한국귀일당과 고려국민당이 각각 결성되었다.

이들 정당이 출현하게 된 배경은 첫째, 정당제를 통해 민주주의사회를 실현시

켜 보려는 세계적인 사조의 반영이었다. 둘째, 뚜렷한 이념과 강력한 통일조직을 갖춘 공산당이 정부를 통제하고 지도하는 현실을 소련에서 보여주고 있는데다가 그것의 이론적 내용인 조직론이 만주지역에 전파되었다. 셋째, 민족주의운동의 지도자들 스스로가 대중의 통일적인 의사를 결집하고 뚜렷한 이념을 표방하면서 안정되고 강력한 독립운동을 추진할 수 있는 정당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즉, '혁명'과 자치의 임무를 구분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신민부 활동구역에서 조직된 한국귀일당과 고려국민당의 경우는 좀 더 색다른 배경이 하나 있었다. 왜냐하면 한국귀일당은 신민부 내 군정파를 이끌고 있었던 김좌진이 조직한 정당인 반면, 고려국민당은 이들에 반대하여 신민부 내 민정파가 결성한 정당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의부에서는 이러한 대립이 없었다. 두 정당은 지금의 단계에서 무장투쟁을 우선해야 하느냐, 아니면 자치행정을 우선해야 하느냐라는 대립의 산물이었다. 정의부가 이미 이 문제를 극복하고 있었는데 비해, 신민부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주도권다툼의 성격까지 겹치면서 1928년 10월 군정파에서 '빈주사건'을 일으킨 것을 계기로 두 세력은 완전히 갈라섰다.

김규식은 고려국민당의 군사부위원이었다. 고려국민당은 1927년 2월 김혁이 일제에 검거된 이후부터 1927년 5월 사이에 '혁명'을 위해 결성된 조직이다. 민정파와 군정파 사이에 분열과 대립의 산물인 것이다. 고려국민당은 동빈현 소량자에 본부를 두고 주하현과 동빈현 일대에서 활동하였다. 김규식이 창립 당시부터 이 조직의 결성에 참여하여 간부로 선출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가 1928년 당시 군사부위원이었던 것만은 분명하다. 고려국민당의 무장활동은 다른 민족주의운동 단체처럼 1927~1928년 사이에 조성된 장개석의 북벌이나 군벌간의 혼전 속에서 비밀스럽게 반 장작림 세력과 호응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을 것이다. 또한 고려국민당은 봉천군벌이나 중국국민당이 인정해 주는 한인의 자치를 통해 안정되고 단합된 역량을 확보하려했을 것이다. 1920년대 후반에 들어 만주지역에서 민족유일당 결성운동과 삼부를 통합하여 새로운 자치기관을 결성하려는 활동이 동시에 일어났던 것도 이와 같은 인식과 전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김규식의 정당 활동은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1926년 3월 정의부의 활동구역에서 결성된 고려혁명당에도 김좌진 등과 함께 참가하였다. 이 때 만해도 신민부 자체가 민정파와 군정파로 확연히 갈라져 있던 때가 아니었기 때

문에 함께 참가했던 것이다. 그러면 고려국민당은 어떤 이념을 추구했을까? 창립 당시의 강령을 통해 김규식의 정치적 입장을 유추해 보자.

1. 우리들은 인간성 실생활의 당면적인 모든 계급적 기성 제도 및 현존의 조직의 일절을 파괴하고 물질계 정신계를 통하여 자유 평등의 이성적 신사회를 건설한다.
2. 제국주의 자본주의에 대한 근본적 반항에서 우리와 공명하는 각 피압박민족을 결합하고 동일전선에서 일치의 보조를 취한다.

위의 강령에서 보면 계급지배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그렇다고 사유재산제도를 부정하고 있지는 않다. 고려혁명당은 고려국민당과 함께 1929년 4월에 결성되는 국민부에 참가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김규식의 정치 지향점은 명백히 반공이면서도 진보적인 정치성향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국민부 결성 이후 김규식이 여기에 적극 참여한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그의 행적은 연길현에서 교육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다.

## 5. 한국독립당에서의 김규식

1929년 즈음부터 김규식의 단체 활동은 이전과 다른 방향에서 이루어진 것 같다. 특정한 조직의 전면에 나서기 보다는 뒤에서 활동하는 형식이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우선 그가 대외적인 활동보다는 연길현에 학교를 세우고 교육에 전념하였다는 점에서 이를 시사 받을 수 있다. 그리고 1929년과 1930년에 이렇다 할 활동을 벌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즈음 그의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는 1930년 7월경 위하현에서 결성된 한국독립당에서 부위원장으로 취임한 것뿐이었다. 한국독립당의 당강과 중앙집행위원회의 구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당강 : 삼본주의 1.민본정치 실현 2. 노본경제의 조직 3. 인본문화의 건설  
조직 : 중앙집행위원장-홍진 총무위원장-신숙 조직위원장-남대관  
선전위원장-조경한 군사위원장-지청천 경리위원장-최호  
감찰위원장-이장녕

당강에서 말하는 ‘본’과 ‘인’은 사실상 북만주지방에 거주하는 조선인 농민을 의미할 것이다. 한국독립당은 농민 위주의 정치, 경제, 문화를 추구하였다. 또한 한국독립당의 중앙집행위원과 간부진은 대부분 이청천이 이끌었던 생육사 출신이거나 신민부 시절의 민정과 출신이었다. 따라서 한국독립당은 군사보다는 자치방면에 활동의 무게를 두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자치연합회라는 연합체적인 표면기관을 둔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을 것이란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한국독립당은 중앙집행위원회가 북만주지방의 독립운동 세력을 끌어 모으는 과정에서 지도부를 완성하였는데, 김규식은 이때 4명의 부위원장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선출되었다. 부위원장 가운데 이장녕 만이 감찰위원장을 겸임하면서 중앙집행위원의 한 사람이었고, 나머지 세 사람은 실제 일을 처리하는 중앙집행위원이 아닌 것으로 보아 명예직에 가까운 비상임 부위원장이었을 가능성이 많다. 더구나 김규식은 한국독립당의 표면기관인 한국자치연합회의 간부도 아니었다. 따라서 그가 한국독립당 표면적인 활동에서 한발 물러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신민부 시절 민정파의 일원으로 진보적인 정치이상을 갖고 있었고, 즉각적인 무장활동보다 이주한인의 생활안정을 우선시하는 자치활동에 더 많은 비중을 두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가 김좌진이 주도했던 한족총연합회에 참가하지 않았던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말년에 그가 한국독립당의 주된 활동공간이었던 북만주지방을 떠나 동만주지방인 연길현에 학교를 설립하고 교육사업에 종사했던 것도 이와 연관이 많아 보인다.

## 6. 김규식의 출신배경과 국내 활동

### 1) 동명이인 김규식

오늘날 인명사전 등 여러 기록에는 음이 같은 네 사람의 동명이인의 이름이 등장한다. 또 한자 이름으로는 김씨 성을 가진 인물로 규식(圭植) 또는 규식(奎植)이 뒤섞여 표기되어 있다. 그리고 상해 등지에서 공산당 활동을 하였다고 전해지는 인물인 김규식(金奎植)도 있다.

먼저, 오늘의 주인공인 김규식에 대해 한국광복회 회장을 지낸 이강훈의 기록을 보면 “김규식에 대한 유년시절의 기록이 없어 생년월일이 미상이나 1888년

생인 이청천 장군과 오동진, 김좌진 양위장군이 동갑인 바 이 네 사람이 사석에서 농담조로 자네가 동생이고 내가 형이니 하는 등의 모습을 연상하면 대개 비슷한 연배로 추상할 따름이다.”라고 하였다. 그 자신의 견문을 적어놓은 것이다. 이 강훈은 누구보다도 독립운동가의 행적 일화 등을 잘 알고 있었다.

이런 혼란스런 오류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기록이 부실한 탓이다. 현재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공훈록》에는 세 명의 독립유공자가 소개되어 있다. 그런데 이름과 생년월일 또는 활동에 대한 기재사실이 각기 조금씩 다르거나 뒤섞여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

먼저 김규식(金奎植)의 경우를 보자. 《독립유공자공훈록》 4권 독립군과 만주노령지역의 독립운동에 따르면 생년월일은 1880년 8월 27일 출생하여 1931년 4월 10일 사망으로 기재되어 있고 출신지는 경상북도 안동 임하로 되어있다. 그리고 호는 노은(蘆隱), 이명(異名)은 서도(瑞道)로 되어 있다. 그 활동 내용에는 한말 육군 참위로서 의병에 가담하였다가 중국 만주로 망명하여 청산리 전투와 서로군정서에 참여하였으며 1931년 4월 10일에 공산당원에게 암살당한 것으로 소개되어 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사실이 혼동되어 있다. 곧 이름의 글자와 생년월일 그리고 출신지이다. 다시 말해 두 사람의 행적을 뒤섞어 놓은 것이다.

다음 안동 출신의 김규식(金圭植)(공훈록 14권, 1996-2000년도 포상자)의 사실을 보자. 공훈록에는 경북 안동출신으로 1880년 8월 27일에 출생하여 1945년 8월 10일에 사망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그리고 만주에서 독립군 지도자로 활동하였고 그는 1907년 안동에서 김동삼 등과 협동학교(協東學校) 교사를 하다가 1911년 김형식 등과 만주로 망명하여 부민단(扶民團)과 서로군정서 등 독립단체에서 항일투쟁을 벌였으며 마지막 무순역에서 동아관(東亞館)이라는 여인숙을 운영 하였다. 여기에는 몇 가지 관련 사실이 잘못 기재되거나 부실하게 기재되어 있다.(의성 김씨 족보와 김시업 교수 증언) 첫째, 본관은 의성 김씨로 이름 글자는 정확하나 죽은 날자는 불확실한 것이다. 그는 해방 직전 일본 헌병에 끌려가서 행방불명이 되어 죽은 날자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끌려간 날짜를 죽은 날짜로 기재하였던 것이다. 호는 위의 관계기록에도 나타나지 않고 족보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안동 출신 김규식의 고향은 임하면 천전리(내앞마을, 현재 안동시에 속함)이며

본관은 의성 김씨이다. 곧 의성 김씨 집성촌에서 태어난 것이다. 그밖에 이름 글자와 행적은 바르게 기재하였다. 이 김규식은 유명한 독립투사 김동삼과 한 문중이며 이명룡과는 남매지간이다. 아들 성로(成魯)는 청산리전투에 참여해서 사망하였다. 그런 탓으로 관계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 문제는 다른 데에 있었다. 앞에서 맨 먼저 제시한 김규식(金奎植)의 생몰연대와 출신지가, 이름자를 달리 표기하면서도 안동 출신인 김규식의 것을 그대로 잘못 전재한 것이다. 그리하여 혼란을 불러왔다. 거듭 말해 두 인물의 관계사실을 뒤섞어 놓은 것이다.

그 다음 김규식(金奎植, 1881~1950)의 관련사실을 알아보자. 그는 상해 임시정부와 중국 관내에서 주로 활동하였으며 해방 뒤에도 정치지도자로 활동하면서 남북협상에 참여하였다. 한국전쟁 시기 납북되어 북쪽에서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그가 쓴 글과 그의 관련사실을 모은 전집도 출간되어 모든 기록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다. 하지만 공훈록에는 일부 양주출신의 김규식 사실을 섞어 적어 놓았다. 본관은 청풍이며 원적은 강원도 영월이다. 아버지 김지성(金智性)이 동래부의 막료(幕僚)로 재직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동래에서 출생하였다. 그런데도 '경기도 양주 사람'이라고 잘못 기록한 경우도 있다. 이 분의 호는 우사(尤史)였다. 우사의 관계 사실은 위 두 인물의 경우와는 달리 여러 기록에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는 것이다. 다만 연구자나 일반인들이 사료에 나타나는 세 사람의 행적을 두고 때로는 혼동을 가져오는 정도였다.

## 2) 김규식의 생(生)과 사(死)

그러면 이제 김규식의 이름자와 생년월일과 출신배경을 알아보자. 이름의 '규'자는 두 가지로 나타난다. 일부 기록에는 규(圭)로 표기하였다. 곧 윤병석의 《독립군사》, 이강훈의 《청사에 빛나는 순국선열들》, 《공산주의운동사》 등에는 '쌍토 규(圭)'자를 쓰고 있는 것이다. 위 《공훈록》에는 위에서 말한 대로 규(奎)로 기록되어 있다. 또 조선총독부 경무국의 문서인 《국외에서의 용의 주선인명부》(소화 9년 6월)에도 '규(奎)'로 기재되었다. 이를 근거한 탓인지 《민족문화대백과사전》이나 그밖에 사전류에도 이를 따르고 있다. 특히 문자를 익힌 그의 딸 현태(顯泰)와 손자 건배(健培)는 분명하게 '별규(奎)자'를 쓴다고 증언하였다.(강용권의 《만주항일 유적지 답사》 상, 죽은 자의 숨결, 산자의 발길에 나옴-부록에 수

록) 구리시에서 발부한 1999년의 호적부(1938년 2월 24일 호주상속신고에 의하여 편제)에는 분명하고 일관되게 규(奎)자로 적혀 있다. 또 김규식의 사망 신고 등 호적부에 등재한 여러 기록에도 한결같이 규(奎)자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김규식의 한 자 이름은 규식(奎植)임이 틀림없겠다. 우사 김규식과는 같은 이름, 안동출신의 김규식과는 ‘규’자를 달리하고 있다. 아버지는 영선(永先)으로 나타나 있다. 김규식의 호적부는 한국전쟁 당시 유실되었다. 다만 1919년 김규식의 사망신고와 같은 해 장자 현욱(顯旭)의 혼인신고를 할 때 이 사실이 호적에 기재되어 있으나 그전의 김규식의 호적 기재사실이 유실되었다. 이 호적에 그의 본관은 김해(金海)이다. 아무튼 김규식 부모에 대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한편, 일제가 조사한 신상명세서(1936년 간행 《사상연구자료》 특집 제25호, 정부기록보존소 (3421~6115)에는 그의 신분을 상민(常民)이라 표시하였다. 양반신분은 아닌 듯하며 아마도 중인신분이거나 양인신분으로 추정된다. 그가 무관학교에 입학할 시기에는 입학 자격에 신분의 제한을 두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김규식의 아내에 대한 사실은 간단히 기재되어 있다. 부인 이름은 주명래(朱明來)로 아버지는 주원식(朱元植, 본관 경주), 어머니는 염전능(廉典能)이며 생년월일은 1881년 12월 15일로 적혀 있다. 또 1919년(대정 8년) 부 김규식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며 1974년 12월 1일 중국 흑룡강성 상지시 하동향 대성촌에서 사망한 사실이 병기되어 있다.

하나 덧붙일 말은 김해 김씨 족보에서 김규식의 관계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음을 밝혀 둔다. 발표자가 정독도서관 등에서 확인을 시도했으나 파보(派譜)를 찾을 수도 없었고 같은 이름의 수많은 인물을 가려낼 수도 없었다. 손자 건배는 근친 동족인 김현찬에게 들은 바로는 족부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한다.

김규식의 호는 노은(蘆隱) 또는 호은(芦隱)으로 나타난다. 노은은 위 《공훈록》과 관련 기록에 표기되어 있다. 한편 호은은 《민족문화대백과사전(필자 김광남)》과 강용권의 《만주항일유적지 답사(죽은 자의 숨결, 산 자의 발길)》, 그리고 《독립운동대사전(이강훈 편저)》에서 표기하고 있다. 독립운동에 밝은 이강훈은 호를 앞 소개 글에서 ‘호은’이라 표기하였으나 본문에서는 정자로 노은이라 썼다. 호(芦)는 자전에 ‘지황 호’ 또는 ‘부들 호’의 뜻을 지니고 있으며 노(蘆)의 약자로도 쓰여진다. 대개 호에서 일반적 관례로 보아 특수한 뜻을 지닌 경우가 아니면

약자를 쓰지 않는다. 그러니 김규식은 호의 뜻을 따서 약자를 쓰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만 노(蘆, 갈대의 뜻)의 획수가 복잡하니 다른 사람들이 약자인 노(芦)를 써서 표시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의 호는 노은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옛 양주군에는 노원면(蘆原面, 현재의 서울 노원구 일대)이 있었다. 1914년 조선총독부에서 전국의 면제를 개편할 때 해동촌면과 노원면을 합해 노해면으로 개칭하였다. 노원면에는 중랑천 상류의 한천(漢川)이 남쪽으로 흐르며 이 일대는 남북으로 마들평야가 전개된다. 한천과 마들평야, 중랑천에는 갈대숲이 무성하였다. 아마도 김규식이 이 언저리에 살면서 “갈대 숲속에서 은거한다.”는 의미를 따서 호를 삼았을 개연성이 높다. 또 일제의 기록에는 그가 이곳 주변에 있는 수락산과 불암산에서 의병활동을 했다고 한 것도 무관치 않을 것이다.

다음 그의 이명을 사도(賜道, 字인듯)라 한 내력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한국에서 의병활동을 할 때부터 사용하였는지, 만주로 망명한 뒤 사용하였는지 알 수 없다. 다만 만주에서 망명생활을 하면서 신분을 숨기려 많은 인사들이 변성명을 한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도’는 망명시기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위 일제에서 조사한 신상명세서(1919년, 대정 8년)에 변명이 김성(金成)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마도 이는 국내에서 활동할 때 사용한 변성명인 것으로 추정되며 만주에서는 김성(金星)으로 변명하였다고도 한다. 우사 김규식의 별명도 김성(金城)이라고도 했다고 하니 혼동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그를 ‘호장군(虎將軍)’ 또는 ‘호랑이 영감’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한다. ‘호랑이 영감’은 그의 딸인 현태의 증언으로 알려졌다(강용권의 위의 책). 손자 건배는 집안 식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별명이라 한다.

그 다음 그의 생년월일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호적은 유실된 탓으로 그의 생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딸 현태와 손자 건배는 말띠(壬午生)라고 증언하고 있다. 곧 1882년 임오군란이 일어나던 해 태어난 것이다. 또 위 《국외에서의 용의 조선인명부》와 일제가 조사한 그의 신상명세서에는 ‘명치 15년 1월 15일생’(1882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니 위의 증언과 일치한다. 이와 달리 《구리시지》상(1996년 발행)에는 1880년생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는 아마도 위에서 말한 안동 출신 김규식의 생몰연대를 잘못 옮긴 《공훈록》의 기록을 그대로 따른 탓으로 보인다. 그의 죽은 연대를 호적에는 1919년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아마도 망명 뒤

소식이 끊기고 또 일경의 감시가 심하여 가족들이 이를 모면하려 사망계를 제출했을 수가 있다.

그는 정확하게 1931년 5월 10일 빈강성(흑룡강성) 상지시(주하현) 하동향에서 암살되었다. 곧 한족총연합회 문제로 홍진 신숙 등과 회합할 때 반대파가 권총으로 살해한 것이다. 당시 그는 연수에서 학교설립의 일로 분주하였다. 이에 대해 이 자리에 합석하였던 신숙은 범인 중 체포된 한 사람의 말을 빌어 “누구보다도 과거부터 비력이 과인하고 운동선상에서 호장(虎將)이란 칭호를 받던 김규식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감히 이런 폭행을 한 것인데 그자들은 마침내 김규식의 생식기를 뽑고 시체는 마의하 강속에 투입하였으며...”라고 기술하였다(강제 신숙의 생애와 독립투쟁), 현장에 함께 있다가 살아남은 신숙의 증언이다. 또 이강훈은, 암살자들은 자치연맹의 경비대원 유희춘 등 5명이었다고 기록하였다(청사에 빛난 순국선열 등). 평소 주명래는 김규식이 “김좌진은 청산리 전투 때 소를 거꾸로 타고 달아났다.”고 분개하였다 한다. 또 김규식은 홍범도의 활동을 높이 평가기도 하였다 한다. 김좌진과 김규식 계열이 갈등을 빚은 것으로 보인다.

그의 손자 건배도 같은 증언을 하면서 “마대로 썬 시체를 어부들이 건져 올렸는데 아들 현성이 달려가서 장수보 근처에서 화장하였다.”고 하였다. 그의 시신을 강물 속에서 찾아 장수보 주변에서 화장했으니 그의 묘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 3) 출생지와 가정 배경

그 다음 그의 출생지는 어디일까? 위 일제가 조사한 신상명세서는 출생지를 경기도 양주군 구리면 사노리 281번지로 기재하였다. 또 위 《국외에서의 용의 조선인명부》의 본적란에도 위와 같은 주소를 적어 놓았다. 호적의 기재와 일치한다. 모두 위 구리시의 호적에 적은 기록과 같은 주소지이다.

당시 구리의 행정제도 변천 과정을 보면 이러하다. 《구리시지》 상에는 “구리 주변지역은 일제 식민지 시기 초에 경성부 두모면과 경기도 양주군 구지면 망우리면, 고양주면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그런데 이때의 개편으로 양주군 구지면과 망우리면이 통합되고 여기에 양주군 진관면, 별내면, 미음면, 노원면 일부 지역이 편입되어 구리면이 되었다. 그리고 동리도 통폐합되어 중하리, 상봉리, 신내리, 망우리, 인창리, 사노리, 교문리, 수택리, 토평리, 아천리, 갈매리 등 12개리

로 재판되었다”고 하였다. 1914년 면 체제로 개편하였을 무렵의 구리 행정구역  
을 말한 것이다. 여기에는 김규식이 본적을 둔 사로리가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이강훈은 “서울 미동에서 출생하였다.”고 하였다. 그는 서울에서 출생하  
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강훈은 자료보다 독립운동가의 일화와 견문을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마도 들은 말을 적어 놓은 것으로 추정된다.

후손 김건배 씨는 김현찬에게서 들은 집안 내력을 다음과 같이 전해주고 있다  
(1991년도 증언).

그의 아버지 영선은 ‘황제묘’에서 일을 보았다고 한다. 아마 궁내부 또는 궁중  
에 속한 낮은 벼슬아치였던 것으로 보인다. 김현찬의 부모는 김영선의 도움으로  
능묘에서 밥과 술을 팔아 부자가 되었다고 한다. 사위인 정동일(鄭東日)도 황궁  
에 근무하였다 한다.

할머니(김규식의 아내인 주명래, 1974년 사망)가 전해주는 집안 내력은 다음  
과 같다.

김영선은 4남매를 두었다. 첫째는 딸 무술이었고, 서울 갑부집 아들 정동일  
에게 시집을 갔다. 김영선과 정씨는 같이 황궁에 근무한 인연으로 사돈을 맺은 것  
으로 볼 수 있다. 정동일은 김규식이 인천에서 체포되었을 때 도움을 준 사실이  
발각되어 곤욕을 치렀다고 한다. 큰아들은 김규식, 둘째 아들은 김창식(金唱植)  
이었다. 김창식의 직업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김규식이 의병활동을 할 때 화약을  
공급하는 등 도움을 주었다. 김창식은 뒤에 서울 행당동에 살았는데 김규식의 막  
내아들 김현륜이 병치료를 할 때 기거한 적이 있었다. 서자 김윤식(아명 금술)은  
그 행적을 알 수 없으나 강릉에 거주하면서 광대조직을 운영하였다 한다.

김규식의 부인 주명래의 집안 내력은 다음과 같다.(주원식의 손자 주인태의 증  
언, 2004년 9월 30일 증언) 사노리에는 주씨들이 40여 호 살았다 한다. 주원식  
은 아들 주부길(朱富吉), 주귀길(朱貴吉)과 딸 주명래 등 3남매를 두었다. 두 아  
들은 사노리의 안말 아랫쪽에서 나란히 집을 짓고 살았다(현재 261번지). 몇 백  
석 지기 부자였다. 어느 때 김규식이 중앙선 구리역 앞(지금의 인창초등학교 앞)  
에서 의병투쟁을 하다가 발뒤꿈치에 총탄을 맞아 처가로 와서 몸을 피하며 치료  
를 한 뒤 불암산으로 이동하였다. 가을 어느 날 일본 헌병들이 몰려와 주원식의  
부인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사위 내놓으라고 으박지르며 집안을 샅샅이 수색한

뒤 집에 불을 질렀다. 초가 두 채와 쌓아둔 벼들이 1주일 동안 탔다고 한다. 이처럼 김규식의 처가는 핍박을 받았으나 주씨들이 직접 의병활동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한다.

아무튼 1908년(융희 2년), 김규식이 마전, 연천, 양주, 철원 등지에서 의병활동을 하고 이인영과 의병창의를 한 혐의로 체포되어 판결한 문서에는 그의 주소를 경성 동서(東署) 돈암현으로 적어놓고 있다. 그가 27세 무렵의 사건이었으니 이 무렵에는 서울에 주거지를 두었던지 또는 구지면 사로리에 본집을 두고 서울에 임시 거처를 마련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노리는 동구룡산(검암산)의 동쪽 끝자락에 자리 잡은 마을이다. 사노리는 양지말, 언제말, 두레묵골, 안말 등 네 개의 동네로 구성되어 있는데 김규식의 고택(생가로 보임)은 안말(內洞)의 산 끝자락에 자리잡고 있었다. 안말에는 예전 100여 호가 살았다 한다. 안말에는 박씨와 임씨가 집성촌을 이루어 살았고 주씨들이 일부 살고 김씨들은 서너집 정도 살았다 한다. 김규식의 장남 현욱은 이곳 임씨로 보이는 임근호(林斤虎)와 혼인한 것으로 보아 임씨와 김씨와는 세혼(世婚)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김규식의 고택은 마을의 언덕 위에 있어서 마을의 집들이 모두 바라보이는 위치이다. 지번은 281번지이다.



노은 김규식 선생 생가터

그의 딸 현태는 “나는 1915년 1월 20일 조선 경기도 양주군 구림면 사로리에 서 태어났다. 부친은 호은 김규식이고 모친은 주명수(朱明洙, 호적에는 洙를 來로 기재)인데 부친이 15세, 모친이 16세에 서울에서 결혼한 후 4남 1녀를 두었다. 나는 우리 가정에 하나밖에 없는 딸이다(위 강용권의 책)라고 증언하고 있으며 서울에서 결혼식을 올린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물론, 이 증언의 ‘구림면’은 ‘구리면’을 잘못 기억한 것일 것이다. 그런데 김규식은 결혼식을 서울에서 올렸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어머니나 집안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해 주었을 것이다. 이로 보아도 서울에 일정한 근거지가 있었음을 알려준다. 현태는 “내가 아직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망해가는 나라를 구하려고 집을 떠나 활동하다가 일경에 체포되어 감옥살이를 했다. 아버지가 출옥한 후부터 우리집은 밤낮으로 일경들의 감시를 받게 되었다. 제삿날과 같이 사람이 조금만 많이 모이면 경찰들이 와서 살살이 조사했고 아버지가 며칠만 보이지 않아도 따지고 들었다. 이런 삼엄한 경계 속에서도 아버지는 비밀활동을 계속하다가 경술년에 만주로 망명했다. 아버지가 떠난 것 때문에 어머니가 경찰서에 잡혀가 많은 고통을 받았다. … <중략> … 아버지한테 소식이 왔는데 쓰던 집기들을 그대로 두고 사람만 조용하게 나오라는 것이었다. 우리 집은 그때까지도 계속 감시를 받고 있어 대낮에 공개적으로 이사할 수는 없었다. 우리 집엔 조상들이 물려준 재산도 꽤 있었고 훌륭한 기와집도 있었다. 집을 팔기는커녕 모든 물건을 사람이 살고 있는 듯이 두고 나왔다.”고도 하였다.

이로 보면 김규식의 생활수준은 적어도 중농 이상 이었다고 판단된다. 일제가 작성한 신상명세서에는 집 한 채와 부동산을 합해 약 5백원 시가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기재하였다. 임정규의 증언도 기와집에서 살았고 생활수준이 큰 부자는 아니었으나 살만하였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일부 기록에는 김규식이 1910년(경술년) 또는 1912년에 단신으로 망명하였다고 했다. 그런데 어떻게 딸 현태가 1915년에 태어날 수 있었을까? 또 셋째 아들 현의(顯毅)는 1907년생, 막내아들 현륜(顯崙)은 1918년생이다. 그렇다면 김규식이 망명한 뒤에도 구리 집에 가끔 왕래했다는 말이 아닌가? 그러나 김규식은 위의 자녀를 둔 뒤에 망명하였음을 알려준다. 망명한 뒤 국내에 자주 잠입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또 위 증언을 보면 현태가 태어났다는 사로리 집의 정황을

말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가족들이 서울에 거주하였다는 분위기가 전혀 없다. 또 여기에는 김규식이 처가살이를 하였다는 증거도 찾을 수 없다. 그러니 그의 가족은 그가 망명한 뒤에도 사로리에 살았음을 알려준다.

#### 4) 김규식의 국내활동과 망명

먼저 그의 국내 이력과 행적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하다. 일제의 기록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는 그는 대한제국의 무관학교를 졸업하고 참위(參尉, 소위)로 임명되어 장교가 되었다. 그 뒤 시위대(侍衛隊) 부교(副校), 육군연성학교 조교로 있었다. 1906년 자진 퇴관하였다.

둘째는 그의 신상기록에, 1902년 1월경, 한국사관학교 견습생으로 채용되어 수업을 받던 중 다음해 5월 폐교에 따라 퇴교를 하였다고 하였다 한다. 이어 퇴교를 당하던 해 11월 한국시위대에 입대하여 1906년 육군보병부교로 승진한 뒤 제대하였다 한다.

이를 검토해 보자. 위에서 말한 한국사관학교는 말할 나위도 없이 1896년에 초급무관양성을 위해 세운 무관학교를 말한다. 무관학교는 여러 번 개편되었으며 20세 이상, 30세 미만의 청년이 입학할 수 있는 연령 제한이 있었다. 김규식이 입학할 수 있는 연령요건은 1902년이여야 한다. 1904년 무관학교는 일본식으로 개편된 뒤 차츰 한국군 장교의 임명이 어렵게 되었으며 1907년 군대해산으로 말미암아 모집정원이 축소되는 등 유명무실하게 변질되었다가 1909년 완전 폐지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김규식은 무관학교 졸업과 장교 임명과정에서 평탄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903년 “한국시위대에 입대하였다.”고 하였으며 장교와 하사관의 재교육기관인 연성학교의 조교로 있었다 하였다. 시위대는 1895년 처음 서울 방어를 위해 설치되었다. 다음 연성학교는 1904년 설치되었다. 위에서 말한 ‘육군보병’은 시위대를 말하며 ‘부교’는 바로 시위대 3개 대대의 1개 대대마다 3명씩 둔 장교였다. 위 기록에는 그가 1908년 제대한 것으로 되어 있다. 1907년 구한국군대가 한국통감부의 압력으로 해산되자 군인들이 폭동을 일으켰다. 시위대 제1대대장 박승환(朴昇煥)의 자결을 계기로 군인폭동이 일어났으며 따라서 시위대도 폐지되었다. 그가 1906년 뒤, 자진 퇴관하였다 하였으니 이 폭

동에 그가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군에서 나온 뒤, 구한국 군인을 모아 강원도 철원과 경기도 양주 등지에서 의병활동을 하였다 한다. 특히 유명한 의병대장인 허위(許葦)와 이인영(李麟榮)의 부하로 알려져 있다. 허위는 경상도 선산출신, 이인영은 경기도 여주출신으로 한때 문경에 은거해 있었다. 황현은 “허위와 이인영의 부하인 조수연, 김규식, 홍인관, 이병채, 장순원, 오수영, 김연상, 황재호, 이명기, 연기수, 고재석, 박종한, 윤인선, 황순일, 김운이, 이동섭 등 16인이 역사(力士)로 알려졌다.”(매천야록), 또 “의병장 허위가 잡혔으며 부하 김규식도 잡혔는데 뛰어난 용맹이 있어서 호송 도중 묶은 줄을 끊고 몸을 솟구쳐 달아났다.”고도 기록하였다.

여기에 나타나는 김규식은 노은 김규식이 분명하다고 판단된다. 이인영이 1907년 12월, 13도창의대장으로 추대되어 다음해 1월 전국의 의병 1만5천여 명을 이끌고 양주(구리)에서 동대문 밖으로 진격하였다. 이때 김규식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체포되어 재판기록의 판결 이유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피고는 전에 육군보병 부교(副校)로 육군 연성학교에 봉직하다가 광무 10년(1906년) 음력 10월 중에 원에 따라 퇴관하여 무직으로 날을 보내던 바, 융희 원년(1907년) 음력 6월에 이르러 전 육군 정위 현덕호(玄德鎬)가 주관하는 이현 기독교신학교의 교무에 관계하더니 동 7월 중에 현덕호의 발의에 응하여 그 당시 정부에 대해서 불만의 뜻을 품고 이를 변경하려고 현덕호와 같이 양주군 동두천에 가서 자칭 의병 피수 허위의 부하에 투입하여 그의 도당 4, 50명 내지 60여명을 거느리고서 피고는 교련부하의 명목으로 총검을 휴대하고 마전, 삭녕, 연천, 양주, 철원 등 각 군을 횡행할 때에 일본병과 4, 5차 교전한 일이 있어서 그때 동당 중 김창순이라는 자가 바로 피살된 바 그의 장례비용으로 쓰기 위하여 양주 불암동 동네에서 돈 1천냥과 이 동리 송인식에게서 돈 8백냥을 강탈하고 또 동년 12월에 창의원수 이인영과 합진하여 피고는 사령장(使令將)이 되어 그의 부하로 종사하고 그의 도당 1천5백여 명 가량을 거느리고서 장단, 양주 등의 군에서 일본병과 교전하여 피수 허위와 이인영의 하수자로 그 목적 수행에 종사한 자이다.(융희 2년 8월 25일 선고)

1908년 8월 25일자의 판결문 내용이다. 이로 보면 그는 군인폭동 이전에 퇴관

한 것이 분명하다. 이 판결에 그는 내란의 종속범으로 15년 형을 선고받았다. 이때 그에게 지정한 유배지는 알 수 없으나 2년 뒤 은사조치로 풀려났다. 그 뒤에는 은거한 시기였던 것은 분명하다. 그는 부상을 당하고 은신해 있었다 한다.

이어 1920년 8월 경성고등법원에서 내란죄로 다시 기소되었다. 이때 그에게 적용한 내란죄는 아마도 3.1운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양주군에는 시위 혐의로 117명이 체포되었다. 구리면 아천리에 사는 이강덕과 심점봉은 아천리 주민 수십명을 시위에 합류시키고 국기를 들고 이웃 마을인 토평리 교문리로 진출하여 시위를 벌였으며 이어 아차산 정상에 올라가 태극기를 꽂고 만세를 불렀다. 두 사람은 체포되어 징역 1년 6월을 받았다. 위의 내용은 구리시지에 잘 나타나 있으며 김규식에게 적용된 내란죄는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아무튼 그는 1917년 어떤 연유인지 구리 소재의 동구릉 산림순시원으로 임명되었다. 또 주인태의 증언에 따르면 목릉(穆陵, 선조능, 동구릉의 하나)의 총감독관으로 일을 보았다 한다. 아마도 아버지의 주선으로 이런 일을 맡았을 것이다. 일제 시기에는 동구릉 주변 산에 산림감시원을 임명하였는데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 마을에서 보수로 일정한 시기에 걸보리와 벼를 거두어 주었다 한다(위 임정규 증언). 어쨌든 그 2년 뒤에는 소작인 조합장에 임명되었다고 하였는데 그 역할은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다. 아마도 이 시기가 그의 은거생활 기간으로 보인다. 위 신상명세서에는 1920년(대정 9년) 7월 15일부터 행방불명되었다고 기록하였다.

그의 해외 망명시기는 1910년설, 1912년 설로 나누어진다. 또 위 신상명세서에는 첫 망명시기를 1920년(대정 9년)이라 기록하였으며 망명지를 상해라 하였다. 또 《국외에서의 조선인명부》에는 주거지를 천진북양대학이라 하고, 대정 9년경 중국 상해로 건너가 고려공산당에 투신하고 대학교수로 근무하면서 불령행동을 감행중이라 기록하였다. 이름, 출생지, 본적이 노은 김규식과 동일하니, 일본 경찰이 다른 인물의 기재사실을 잘못하여 혼동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다. 또 우사 김규식의 사실이 착종된 것으로 보인다. 《보훈록》에는 1920년 8월에 북로군정서에 가입하고 이 해 9월 중대장에 임명되었다고 하였으며 청산리전투에 참여하였다 하였으니 상해 망명설과 활동상황이 다르다. 다만 1920년 7월 15일에 행방불명이 되었다 하였으니 가장 근접한 시기가 될 것이다. 이 관련의 사실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요망된다.

## 7. 김규식 후손의 가계

### 1) 김규식의 4남 1녀

김규식의 자녀 관련 사실도 혼란스럽다. 모두 국외에 이주한 뒤에 사망하거나 해방 뒤 귀환하지 않은 데에 그 원인이 있을 것이다. 보훈처가 인정하는 독립유공자 자녀라는 점에서 분명히 밝혀두어야 할 것이다. 그는 4남 1녀를 두었다. 이들 가족의 이주 역사도 여느 망명자와 같은 생활을 했을 것으로 보이며 망명지에서 삶의 고난의 연속이었을 것이다. 다음 현재의 증언을 보면 알 수 있다.

‘우리 가정이 아버지를 따라 만주로 오게 된 것은 내가 11살 때니까 1925년이다. 아버지한테 소식이 왔는데 쓰던 집기를 그대로 두고 사람만 조용하게 나오라는 것이었다. …… 어머니 큰오빠 내외, 둘째 오빠, 셋째 오빠, 나, 남동생 모두 7명은 달도 없는 캄캄한 밤을 택해 조용히 떠나 새벽 기차를 탔다. 신의주를 거쳐 단둥에서 내렸다.’(위 강용권의 책)

일제 경찰조사는 김규식이 1920년 7월 15일 행방불명되었다고 하였으니 김규식이 망명한 뒤 꼭 5년 뒤 가족들이 이주를 한 것이다. 이들 가족은 4번의 이사 끝에 연수현(延壽縣) 성내에 정착하였다. 연수현에서 3년째 살던 해인 1931년 김규식이 주하현 하동향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하였다가 피살된 것이다. 그의 반대파들은 그의 불알을 뽑고 시체를 말아 강물에 던졌던 것이다. 그 뒤 이들 가족은 하동향으로 옮겨 이인영 가족과 한 마을에서 살았다(이인영 손자인 이종갑의 증언). 또 하동 대성촌에 근거지를 두고도 일제의 감시를 피해 주하 보남시장 등 몇 곳을 옮겨가면서 살았다. 그의 부인 주명래는 장수를 하여 1974년 93세로 하동에서 작고하였다. 그런 탓으로 손자 건배는 할머니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서 많은 가족사를 들을 수 있었다. 어쨌든 이들 4남 1녀는 모두 국내에서 태어났으나 위의 증언과 같이 장남 현욱만이 국내에서 혼인하였다. 이들 가족의 신상은 다음과 같다. 구리시 호적과 손자 건배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장남 : 현욱(顯旭, 1901년 6월 29일~1945년 9월 7일)

처 : 임근호(林斤虎, ? ~1933년 6월 10일)

차남 : 현성(顯聲, 1904년 10월 28일~1946년 4월 8일)

처 : 이종숙(李鍾淑 호적에는 明善, 1812년 4월 1일~1994년 3월 11일)  
 3남 : 현의(顯毅, 1907년~1930년대 행방불명, 미혼)  
 장녀 : 현대(顯泰, 1915년 3월 5일~1995년)  
 부 : 김순철  
 4남 : 현륜(顯崙, 1918년 9월 13일~1945년 5월 12일)  
 처 : 성명 미상

## 2) 자녀들의 행적

큰아들 현욱은 가족을 먹여 살리느라 부지런히 일한 근실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는데 때로는 술로 세월을 달렸다고 한다. 그는 해방이 된 뒤인 9월, 아들이 늦은 저녁에도 돌아오지 않자 아들 찾으러 나갔다가 권총에 맞아 피살되었다. 그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다.

둘째 아들 현성은 의병장 이인영의 손녀인 이명선(동생인 이종갑은 이종숙이라 함)과 김규식이 죽은 뒤인 1938년에 혼인하였다. 두 가족은 흑룡강성 상지시(주하현) 하동향의 대성촌에 살았다. 현성은 독립운동의 혐의로 체포되어 무순감옥에서 모진 고문을 받으며 옥살이도 하였는데 해방 뒤 하동향에서 전염병으로 사망하였다. 이종숙은 문자를 익혔는데 일본군들이 남자들을 찾아내라고 으박질러 대면서 ‘총박’(총머리판)으로 입을 때려 앞니 네 개가 부러지는 수모를 당한 적도 있었다. 그녀는 오랜 동안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딸 현대는 1934년에 평양출신의 토목기술자인 김순철과 혼인하였는데 김순철은 해방 뒤인 1946년에 거주지에서 전염병으로 죽었다. 현대는 결혼한 뒤에도 남편이 하동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한 탓으로 생활형편이 넉넉하게 살았다. 하동요양원에서 죽었다.

셋째 아들인 현의는 아버지의 암살소식을 듣고 원수를 갚는다고 권총을 들고 가출하였다. 그가 3년쯤 지난 뒤 집에 돌아와서 원수를 모두 갚았다고 말하였다 한다. 그는 다시 가출한 뒤 행방불명되었으니 죽은 연대와 연유를 알 수 없다.

현성과 현의는 아버지를 늘 따라다녔다. 그의 집안에는 늘 말 다섯 필 정도를 길렀다. 김규식이 출타할 때 현성은 마부 노릇을 하였으며 현의는 권총을 휴대하고 호위병 노릇을 하였다. 두 아들은 철저하게 아버지를 보호하는 수행원이었다

한다. 김규식이 피살되던 때에는 두 아들이 모두 동행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현의는 아버지의 원수를 찾으려 나선 것이다.

넷째 아들 현륜은 소년시절부터 폐병을 앓아 고생 하였다. 그는 형수 이명선의 주선으로 용정중학교를 졸업하고 소학교 교원노릇을 하였다. 그의 부인은 강원도 고성출신인데 하동에서 부부생활을 하였다. 그의 부인이 임신을 한 몸으로 먼저 고국으로 귀환하였다. 그는 아내를 찾을 겸 병 치료를 위해 서울 남산(호적에는 사망지를 서울 성동구 행당동 산36번지라고 기재하였음)에 사는 삼촌에게로 왔다. 그는 서울에서 홀로 떨어져 살면서 해방되기 직전에 26세로 사망하였다.

아들 넷은 모진 풍진 속에 살았다. 김규식이 죽고 난 뒤 어느 때인지 확인할 수 없으나 누가 집에 불을 질렀다. 이명선의 증언에 따르면 재산이 완전히 잿더미로 변했으며 고리짝 하나만 건졌다고 한다. 그 당시 달필의 김규식 글씨와 많은 문서들이 함께 불탔다 한다. 그런 뒤에도 그의 아들들은 일제의 감시를 피해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살았다. 해방이 된 뒤 만주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었을 때와 문화대혁명이 수행될 때 이들 가족은 다시 탄압에 시달렸다. 곧 민족주의 제열이라고 하여 반동으로 몰렸던 것이다. 1973년에는 다시 집에 불이 나서 김규식의 사진도 화재에 휩쓸려 없어졌다. 현성의 아들 효배는 무서운 나머지 남은 사진과 문서 등 모든 자료를 불태워 없앴다 한다.

다음 아들 5남매 중 3남매가 자녀를 두어 가계를 잇고 있다. 첫째 아들 현욱은 아들 형배(衡培)와 옥배(郁培)를 두었다. 형배는 조선의용군에 가담하여 북한에 귀환, 뒤에 사단장급으로 한국전쟁에 참여하였다. 한국전쟁이 끝난 뒤 1960년 연안과 숙청이 있을 무렵 행방불명되었다. 둘째 아들 현성은 정배(正培), 효배(孝培, 딸), 은배(恩培, 딸), 건배(健培)를 두었다. 건배는 할머니와 어머니를 모시고 살다가 현재 서울에 살고 있다. 둘째 아들 계통이 가장 자손이 번성하다. 딸 현태는 자녀 둘을 두었다.

김규식의 증손자녀들은 현재 서울을 비롯하여 내몽골, 하동 등지에 흩어져 살고 있다. 현재 건배는 이종갑 등의 주선과 증언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끝에 1991년 귀국하여 국가보훈처로부터 독립유공자 유족증을 발급받아 유공자 후손으로 인정되었으며 순국선열유족회와 광복회의 회원이 되었다.

아무튼 김규식의 자손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고난의 삶을 살고 있다. 어느 독립



김규식 선생의 손자  
김건배씨 가족

운동가의 자손들보다 어렵게 살고 있는 것이다. 비극적 독립운동가 가족사의 한 보기가 될 것이다.

## 7. 맺는말

이제 노은 김규식은 동굴의 역사 속에서 다시 빛을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안동의 김규식이나 남북협상의 주역이었던 김규식은 제대로 평가를 받았다. 이제는 구리 출신의 노은 김규식을 바르게 평가해야 할 것이다. 독립투사에 대한 정당한 역사적 예우를 위해서도 이 작업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의 출신배경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국내의 의병활동과 국외의 독립운동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정확한 학술적 작업이 이루어지면 왜곡된 기록들이 바로잡아질 것이다.

김규식은 우리 나이로 52세에 세상을 떠났다. 1920년대 만주에서 왕성하게 활동했던 시기는 40대로서 그의 체력, 열정, 그리고 연륜이 어우러진 시기였다. 그의 삶은 독립운동의 큰 흐름과 일치하였다. 1920년대 초반기 군정 위에 기초한 무장독립전쟁, 1920년대 중반경부터 민정에 치중한 자치활동과 민족운동의 통일을 위해 민족유일당 결성운동에 뛰어든 활동이 이를 증명해 준다.

그만큼 시대가 독립운동가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었는지를 판단하여 적절하게 대응했던 삶이었던 것이다. 이런 점은 1920년대 내내 김규식과 거의 같은 삶의 궤적을 밟아 왔던 김좌진의 삶과 대조적인 점도 있었다고 볼 수 있겠다.



2016 노은 김규식 선생 추모제(손자 김건배 씨 내외 - 가운데)

노은 김규식 선생의 후손 김건배 씨는 “1908년에 다시 서울을 되찾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이인정, 허위 선생과 같이 지금 바로 이 망우리 고개에서 대한독립을 외쳤고, 1931년 사망한 김규식 선생은 아직도 무국적자로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수 독립운동가들은 일제가 만든 호적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으며 광복 후 대한민국은 국적부를 따로 두지 않고 호적에 등재된 사람 모두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부여했기 때문에 독립운동가들이 국적조차 얻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힘겨운 삶 속에서도 할아버지의 행적을 알리기 위해 온갖 노력을 펼치고 있는 손자 김건배 씨는 아직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독립운동가를 세상에 알리기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기본 과제에 대해 피력하였다.

“우선 구리시에서 우리 지역의 독립운동가인 김규식 선생의 국내의 의병활동과 국외의 독립운동을 정확하게 평가하여 왜곡된 기록을 바로잡아야 하며, 묘지조차 없는 현재의 상황을 대신하여 사노리 281번지 생가 고택을 기념비적으로 보존하고 도로의 이정표에 팻말을 달아서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구리시에서 계획하였던 생가 터에 동상과 기념비를 세워 할아버지의 업적을 널리 알렸으면 한다.”

독립운동가 노은 김규식 선생의 삶과 발자취를 세상에 올바르게 알리는 일은 직계 후손의 바람과 노력만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지역사회를 비롯해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 참고문헌 ]

- \_구리시, 1996. 구리시지(상). 인물편. 김규식, 이강택
- \_권구훈, 2002. 양주문화원. 구한국군 해산 이후 양주지역의 의병항쟁. 《양주항일민족운동사》
- \_홍영기, 2004. 한말 경기북부지방의 의병활동과 김규식. 순천대학교 사학과교수. 학술자료집
- \_대한해일신보, 1904년 9월 21일자 및 황성신문 1904년 9월 22일자
- \_신주백, 2004. 만주 연해주의 독립운동과 김규식.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책임연구원. 학술자료
- \_김순덕, 2002. 경기지방 의병운동 연구(1904~1911).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_이이화, 2004. 김규식(金奎植)의 출신배경과 가계에 관한 고찰. 역사문제연구소 고문. 학술자료
- \_국가보훈처, 2002.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인물록 54쪽

[ 부록 ]

노은 김규식 연보

이름 : 金奎植, 호 : 蘆隱, 별명 : 賜道, 金成, 金星

본적 : 경기도 구리시 사노리 안말 281번지

출생지 : 위 본적지 또는 서울특별시 을지로1가(미동 탄생설)

1882년 1월15일 영선의 장자로 태어남

1902년 1월 무관학교 입학

1903년 이후 육군시위대 부교

육군연성학교 조교

1906년10월 육군 제대

이후 의병활동

1908년 1월 13도창의군에 합류

1908년 8월 인천에서 일경에 체포되어 재판을 받은 끝에 유형 15년 선고

1910년 은사로 석방

1917년 1월 동구릉 산림순시원, 목릉 총감독관

1919년 1월 소작인조합 조합장

1920년 내란죄 기소(3.1운동 관련인 듯)

1920년 7월 만주로 망명, 북로군정서 참여

1920년10월 북로군정서의 제1연대 제1대대장으로 청산리전투 참여

이후 노령 밀산부로 이동

1921년 3월 밀산부에서 통합단체인 대한독립군단의 총사령관 임명

1921년 6월 연해주 자유시로 이동, 자유시 참변, 이후 연길현으로 기지 옮김

1923년 5월 연길현 명월구에서 고려혁명군 조직, 총사령 선출

1925년 이후 신민부 가담활동

1926년 4월 조선혁명당 중앙위원 임명. 이후 김좌진과 한족총연합회 활동

교민교육을 위해 연수현에 학교설립 운동

1931년 5월10일(음 3.21) 주하현 하동향 마의하 주변에서 피살

1963년 건국훈장 국민장 추서

\* 일부 음양력 혼동된 것으로 보임

연천



허무를 통해 저항, 전원을 동경한 서정시인  
동양적 허무를 느끼게 하는 독특한 시(詩) 세계  
월파(月坡) 김상용(金尙鎔)

이준용 | 연천문화원 향토사료위원장

## 월파 김상용(金尙鎔, 1902~1951) 시인



- 시인·영문학자, 호 월파(月坡), 경기도 연천(漣川) 출생
- 1927년 일본 릿쿄대학(立教大學) 영문과 졸업
- 보성고등보통학교에서 교사, 이화여자전문학교 교수로 재직
- 1926년 동아일보에 시 〈일어나거라〉 발표로 등단
- 해방 후 미군정(美軍政)으로부터 강원도 지사에 임명되었으나 곧 사퇴
- 1946~49년 미국 보스톤대학 유학. 49년 2월 귀국
- 1950년 9.28 수복. 공보처 고문 겸 구(舊)코리아타임 사장 역임
- 1951년 음 6월 22일 부산에서 식중독으로 사망
- 대표작 시(詩) 〈남으로 창을 내겠소〉, 〈노래 잃은 뽕곡새〉, 〈어미소〉, 〈향수〉 등.

### [ 문학활동 ]

- 1926년 〈일어나거라〉를 동아일보에 발표. 이후 〈이날도 낮아서 기다려 볼까〉, 〈무상(無常)〉, 〈그러나 거문고 줄은 없고나〉 등 계속 발표 본격적 활동
- 1935년 《시원(詩苑)》에 〈나〉, 〈마음의 조각〉, 〈무제(無題)〉 등 발표 문단에 알려짐.
- 1939년 창작집 《망향》 출판 〈남으로 창을 내겠소〉 등 발표
- 1950년 산문집 《무하선생방랑기(無何先生放浪記)》 출판
- 1956년 6월 24일 묘비와 문학비 세움
- 1983년 김상용전집, 김학동 편저, 새문사 출간
- 2009년 4월 30일 김상용시전집, 연천향토문학발굴위원회 발행 《망향에서 귀향까지》, 도서출판 고글

## 서정시인 월파(月坡) 김상용(金尙鎔) 선생

이준용 | 연천문화원 향토사료위원장

### 1. 김상용 시인의 탄생과 성장 그리고 사망

시인 김상용의 아버지는 기환(基煥)이고 어머니는 나주 정씨. 그는 1902년 음력 8월 27일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왕림리 840번지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경주, 호는 월파(月坡), 시조 시인 김오남(金午男, 1906~1996)이 그의 여동생이다.

아버지는 일제 당시 한의사로 만 여 평의 농지를 가진 당시로서는 부농이었기에 그의 유년 시절은 어렵지 않고 다복했다고 한다.

1917년 경성제일고보에 입학하였다가 18세의 나이에 3.1운동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제적당하고 낙향했다가 보성고보로 전학, 1921년에 졸업했다. 이듬해 일본으로 건너가 1927년 일본 릿쿄(立教)대학 영문과를 나와 보성고보에서 교편을 잡다가 곧 이화여자전문대학(현 이화여대 전신)에 재직하다가 태평양전쟁이 터졌다.

일제는 즉시 영문 강의를 폐강, 1943년 종로2가에서 동료 김신실과 장안학원을 경영하기도 했다. 1945년 해방이 되자 군정 아래 그는 뜻하지도 않은 강원도 지사로 부임한 일이 있었으나 실권도 없고, 통역관 역할에 지나지 않은 것을 깨닫고는 몇 달 만에 사직하고 상경한다. 이화여자대학교에 복귀하여 영문학을 가르치다가 돌연 도미(渡美) 1946년 보스턴대학에 유학했다. 월파는 9.28 수복과 함께 공보처 고문 겸 구(舊)코리아타임 사장도 역임했다.

1951년 음력 6월 22일 부산 피난 중 김활란(金活蘭) 집 파티에서 먹은 음식으로 인해 식중독으로 사망했다. 그때 그의 나이 마흔아홉 살이었다. 지금의 묘인 서울 중랑구 망우동 산 51 망우동 공원 묘원에는 그가 죽은 지 1년 뒤 옮겨 안치되었고, 5주기를 맞아 '고 월파선생 이장위원회'에서 1956년 6월 24일 월파선생 묘 앞에 화강암으로 비를 세웠다.

## 2. 월파의 작품 세계

1930년 시 〈무상(無常)〉, 〈그러나 거문고의 줄은 없고나〉를 [동아일보]에 발표하여 등단하였고, E.A.포와 J.키츠의 작품 등을 번역하였다. 1939년 문장사(文章社)에서 간행한 첫 시집 《망향(望鄉)》에 유명한 〈남으로 창을 내겠소〉, 〈서글픈 꿈〉 등이 수록되었다.

하지만 월파는 암울했던 당시 자신의 모습을 해방 후 산문집 《무하선생방랑기(無何先生放浪記), 1950, 수도문화사》를 통해 월파 자신도 비통한 시대의 소산물임을 짐작케 한다. ‘우리에게 한때 울지도 웃지도 못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 일제에 나라를 빼앗긴 채 이정표를 잃어버린 나그네처럼 기항지 없는 비운의 역사가 있었다. 마치 고향이 있으되 고향을 잃어버린 방황자의 모습이었고, 목숨이 있으되 숨통이 막혀버린 그런 비극의 연속을 체험해 왔다. 이른바 고향을 찾아 헤매는 그런 얼굴이 곧 작자의 얼굴이었고 또 우리의 얼굴이 아니었던가. 그의 마음이 잘 도드라진 작품을 소개한다.

### 노래 잃은 삐꾸새

나는 노래 잃은 삐꾸새  
봄이 어른거리건  
사립을 단치리라  
냉혹(冷酷)한 무감(無感)을  
굳이 기원(祈願)한 마음이 아니냐

장미빛 구름은  
내 무덤 쌀 붉은 깊이어니

이러해 나는  
소라(靑螺)같이 서러워라

‘때’는 짓궂어  
꿈 삼켰던 터전을  
황폐(荒廢)의 그늘로 덮고…

물 깃는 처녀(處女) 도라 간  
황혼(黃昏)의 우물가스에  
쓸쓸히 빈 동이는 노혔다

- 《망향》. 문장사. 1939 -

위 시 〈노래 잃은 뼈꼭새〉는 암울한 일제하에서 마음대로 울지도 웃지도 못하던 백성들의 심정을 토로한 것으로 민초들의 울분을 잘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서 시인 김상용은 암울한 시대에 묵묵히 시로 일제에 저항을 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김상용의 시는 전원적 경향, 자연친화적 경향을 보이며 이러한 특성은 당대의 시대적 상황과 함께 한국시의 전통적 특성과 연관되어 있다. 그의 시엔 시적 화자인 나와 시적 대상인 자연 사이의 동일성이 전제되어 있으며 시적화자는 인공적이고 인위적인 삶을 거부하고 자연의 품에 안긴 삶을 지향한다.

#### 1) 시집 《망향》에 도드라진 자연귀의 정신

월파가 본격적인 글을 발표한지 13년 만인 1939년 그의 유일한 시집인 《망향(望鄉)》을 발간한다. 이 시집은 우수와 동양적인 체념의 관조적 서정시들이 주를 이룬다.

《망향》은 말 그대로 ‘고향을 그리워한다.’로 귀결된다. 이 시집에는 월파의 시 세계가 잘 나타나는 주옥같은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다. 월파의 대표작 〈남으로 창을 내겠소〉를 비롯하여 〈괭이〉, 〈노래 잃은 뼈꼭새〉, 〈어미소〉, 〈여수〉, 〈향수〉 등으로 꾸몄다. 《망향》의 글제 대부분이 자연이다. 그의 시작(詩作) 초기부터 절정에 이르는 《망향》까지 자연 속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시인이 인생을 관조하면서 담담한 심정이 동양적 허무를 느끼게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월파의 첫 시집 《망향》

### 망향(望鄉)

인적(人跡)이 끊긴 산(山)속  
 돌을 베고  
 하늘을 보오  
 구름이 가고  
 있지도 않은  
 고향(故鄉)이 그림소

### 2) 1926년부터 본격적인 창작과 번역 활동

월파의 최초 문학 활동은 1926년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동아일보에 〈일어나거라〉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후 〈이날도 앉아서 기다려 볼까〉, 〈무상(無常)〉, 〈그러나 거문고 줄은 없고나〉 등을 연달아 발표했지만 그다지 관심을 끌지 못했다.

월파가 문단에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35년 《시원(詩苑)》에 발표한 〈나〉, 〈무제(無題)〉, 〈마음의 조각〉 등 김상용 특유의 시를 발표하면서 부터이다. 이로 부터 일제하의 불안시대에 처한 울분을 담은 서정시 〈망향(望鄉)〉, 〈물고기 하나〉 등을 주로 《문장(文章)》 지면을 이용하였다.

## 일어나거라

아침의 대기는 우주에 왔다  
동편 하늘 붉으레 불이 붓는데  
근역(權域)의 일꾼아 일어나거라  
너의들의 일때는 아침이로다.

농무(濃霧)가 자욱한 신상(神爽)한 아침  
죽은듯 고요한 경쾌(輕快)한 아침에  
큰 소래 웨치며 일어나거라  
너의들의 잘때는 아침이 아니다.

아침의 대기를 흠뻑 마시며  
공고(鞏固)한 의지와 굵직한 육체로  
팔 다리 견고서 일터에 나오라  
혈조(血潮)의 전선(戰線)에 힘있게 싸호자.

- 처녀시. 1926년 동아일보 전문 -

이 시는 김상용의 처녀발표작으로 보고 있다. 제목처럼 어두운 현실에서 희망을 전달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달리 부르는 근역(權域)을 표제어로 삼았고, ‘아침, 굵직한 육체, 힘있게’ 등 생기가 넘쳤지만 비슷한 시기에 발표한 나머지 작품들은 민족의 비애와 분노로 이어진다.

1935년 시원에 발표한 <무제(無題)>를 보면 “천년 만년을 있노라면/ 그 바람은/ 내 무덤의 풀일망정/ 씻고 갈듯 하다면은” 이라고 적었다. 허무에서 벗어나려는 작가의 몸부림, 그리고 예언자적 정신보다는 그저 시인이 도달할 목적지가 자연이라는 것을 잘 말해 주고 있다. 그 절정은 <물고기 하나>이다.

## 물고기 하나

웅덩이에 헤엄치는 물고기 하나

그는 호젓한 내 심사에 걸렸다.  
 뚝새 너겍밑을 가웃거린들  
 지난밤 저버린 달빛이  
 허무(虛無)로히 여직 비칠리야 있겠니?  
 지금 너는 또다른 웅덩이로 길을 떠나노니  
 나그네될 운명(運命)이  
 영원 끝날수없는 까닭이냐.

- 1935년 <시원(詩苑)> -

### 팽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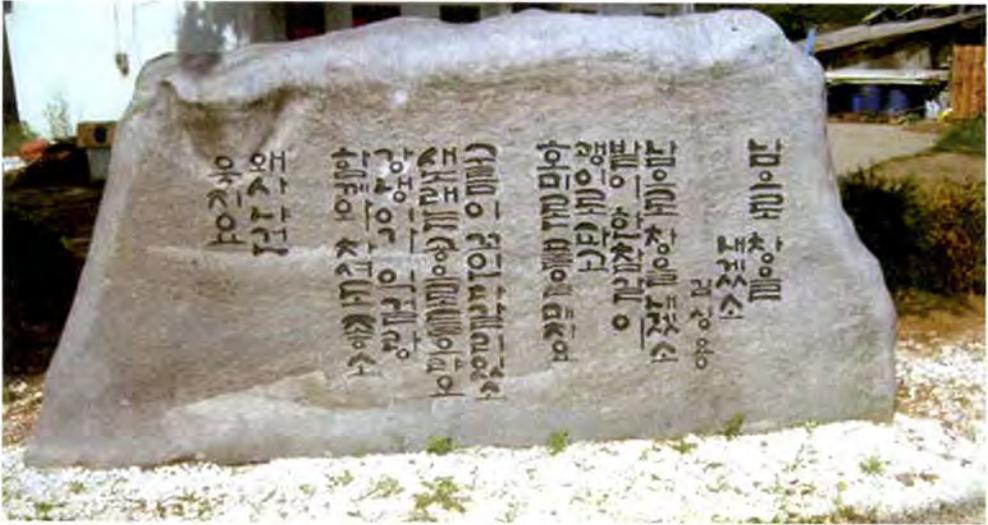
넓적 무우룩한 쇧조각, 너 팽이야  
 괴로움을 네 희열로  
 꽃밭을 갈고,  
 물리와 너는 담 뒤에 숨었다.

이제 영화의 시절이 이르러  
 봉우리마다 태양이 빛나는 아침  
 한 마디의 네 찬사 없어도  
 외로운 행복에  
 너는 호올로 눈물 지운다.

- 《망향》. 문장사. 1939 -

고인의 묘는 현재 서울 중랑구 망우동 산 51 망우동 공원 묘원에 안치되어 있으며 시집으로는 《망향(望鄉)에서 귀향(歸鄉)까지》가 있고 생가터는 군부대 내에 있어 일반인들의 출입이 불가능하며 후손으로는 손자 1명이 현재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다.

시인의 대표작이라면 당연히 <남으로 창을 내겠소>일 것이다. 이 시는 교과서에도 수록될 만큼 유명한 시로서 서정시인인 월파의 심성을 잘 나타내 주는 대표작이랄 수 있다.



연천군 군남면 왕림리 마을회관 앞의 시비

〈남으로 창을 내겠소〉는 자연 속에서 영위되는 삶의 소박한 아름다움을 꿈꾸고 있는 것이다. 김상용은 신석정, 김동명과 함께 3대 전원파 시인으로 불렸다. 〈남으로 창을 내겠소〉의 시비는 왕림리 마을회관 앞에 있으며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왕림리로 직접 방문하여 감상하시기 바란다.

### 남으로 창을 내겠소

남으로 창을 내겠소  
 발이 한참갈이  
 팽이로 파고  
 호미론 풀을 매지요  
 구름이 꼬인다 갈리있소  
 새노래는 공으로 들으랴오  
 강냉이가 익결랑  
 함께와 자셔도 좋소  
 왜사냐건  
 웃지요

위 내용이 담긴 시비(詩碑)와 시인 김상용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라는 사실을 안내하는 안내비도 함께 세워져 있다.

### 3. 시인 생전의 작품 활동(活動)

《망향(望鄉)에서 귀향(歸鄉)까지》

어미소

산성(山城) 넘어 새벽드리 온 길에  
자욱자욱 새끼가 그리워  
슬픈 또 하로의 네날이  
내 연(煙) 끼인 거리에 그르는도다

바람 한숨짓는 어느 뒷골목  
네 수고는 서푼에 팔리나니  
눈물로 잊은 네 침묵(沈默)의 인고(忍苦) 앞에  
교만(驕慢)한 마음의 머리를 숙인다

푸른 초원(草原)에 방만(放漫)하던 네조상(祖上)  
맘놓고 마른목 추기든 시절(時節)엔  
굴레없는 씩씩한 얼굴이  
태초청류(太初清流)에 비친 일도 있었거니

반딧불

너는 정밀(靜謐)의 등촉(燈燭)  
신부 없는 동방(洞房)에 잠그리라

부러워하는 이도 없을 너를

상징(象徵)해 왜 내 맘을 빚었던지

헛고대의 밤이 가면

설은 새 아츰

가만히 네 불꽃은 꺼진다

나

나를 반겨함인가 하여

꽃송이에 입을 맞추며

전율한만치 촉감(觸感)은 싸늘해-

품에 있는 그대로

이해(理解) 저편에 있기로

'나'를 찾을가?

그러나 기억(記憶) 망각(忘却)의 거리

명멸(明滅)하는 수(數)없는 '나'의

어느 '나'가 '나'뇨

포구(浦口)

슬픔이 영원(永遠)해

사주(砂洲)에 물결은 깨어지고

묘막(杳漠)한 하늘아래

고(告)할 곳 없는 여정(旅情)이 고달퍼라.

눈을 감으니

시각(視覺)이 끊이는 곳에

추억이 더욱 가없고……

깜박이는 두 셋 등잔 아래엔  
무슨 단란(團樂)의 실마리가 풀리는지……

별이 없어 더 설어운  
포구(浦口)의 밤이 샌다.

1) 시인의 망향(望鄉) 이전 시(詩)

이날도 안저서 기다려 볼스가

지평선(地平線)위에 떠도는 구름  
바람불면 떼소낙 올 듯도 하다만은  
한가한 가지에 매암이 우니  
이날도 안저서 기다려 볼스가

골작이로 붉은 물 내려만 오면  
다 썩은 저 개뚝 이리질 듯도 하다만은  
번갯불 아즉도 뵈지 않으니  
이날도 안저서 기다려 볼스가

물우에 날린 어지런 띄스글  
한자락 풍우(風雨) 뒤엔 씻길 듯도 하다만은  
저 구름 움죽인다 어딴로 가노  
이날도 안저서 기다려 볼스가.

- 《조선지광(朝鮮之光)》 90호. 1930년 3월 -

그러나 거문고 줄은 없고나

바다사가 깨어지는 물결

산(山)모루 설레는 바람  
들로 나리는 물 다 함스기  
이 나라엔 노래하는 이 없느냐  
잇거든 나오라 외치는고나.

행(幸)여 날다려 그림 아닐스가?  
그래 나는 가슴을 뒤지고 잇네  
그러나 아— 거문고의 줄은 없고나.

물결은 뒤 넘어 질을 치고  
하날엔 노염만이 가득한 이때  
풀납가튼 배스조각 잡고  
'죽엄' '삶'에서 날뛰는 이들  
이곳엔 풍랑(風浪)재는 곡(曲)이 없느냐  
잇거든 어서 타서 잠재라 한다.

아마 날 다려 저림 아닐스가  
그래 나는 가슴을 뒤지고 잇네  
그러나 아— 거문고의 줄은 없고나.

물 녹고 모래도 타는 이시대  
빈 농의 인 안악네들이  
강마른 우물스가에 모혀  
이곳엔 샘 자넬 곡(曲)이 없느냐  
잇거든 어서 타서 자내라 한다.

혹시 나다려 타람 아닐스가  
그래 나는 가슴을 뒤지고 잇네  
그러나 아— 거문고의 줄은 없고나

말 못는 서른 앓고

이세상 해매는 몸아  
가엾은 내 녀어!  
이곳엔 네 한(恨)마칠 곡(曲)이 없느냐  
잇스면 그 곡(曲)을 타리 누군고.

내 너 위해 그 곡(曲) 타란다.  
그래 나는 가슴을 뒤지고 잇네.  
그러나 아— 거문고의 줄은 없고나.

- 동아일보. 1930년 11월 16일 -

### 어이 넘어 갈거나

어두운 인생로(人生路)라 되나된 그 비탈을  
나홀로 외작지로 어터듬 압을 차자  
어휘여! 엇지엇지 내 지나를 왔노라.

지나온 그 뒷길을 내 도라다 볼스가나  
이십팔년 하움에 짓틈이 그 무엔고  
조각배 큰 바다를 지나감도 갖하야  
창랑(瘡浪)만 넘실넘실 자취도 예업세라.

외로운 등스불이 지난 뒤도 갖하야  
압스뒤는 다시 자욱 사방이 밤뿐이니  
남은 쏜 그 열매랴 헤며 가히 일 배로되  
어두운 이 인생로 어이 더듬가랴고.

내뿐이라 동모야 그대 어이 가랴고  
고닦은 저 몸으로 어이 이 길 가랴고  
그 무건 짐을 지고 강마른 저 다리로  
돌 만든 이 늙흔 재 어이 넘어가랴고.

- 《이화(梨花)》 20호. 1930년 12월 21일 -

## 내 생명(生命)의 참시(詩) 한 수(首)

그대 앞 꺾박어리는  
내 생(生)의 초사불도 꺼질때가 올것이 아닌가.  
그때 아~ 이 초사불이 꺼지랴할 그때  
가득한 그대여 내 마즈막 자리로 오게  
그리하여 내 마즈막 선물을 받게  
오즉 그대만을 주랴하여  
가장 깨끗한때 피와 눈물로 써 두었든  
내 생명(生命)의 참시(詩) 한 수(首)를  
마즈막 선물로 받게.

내 초사불 꺼진 후(後) 내 선물 펴보아 주게  
내 너의 말못하든 호소(呼訴)  
내 너의 못 아뢰든 서름  
내 너만이 알든 목마름

내 너만이 품었든 원한(怨恨)  
다 썩어 재된 그 자리에  
무덤우 피는 산국화(山菊花)가터  
피어난 내 생명(生命)의 참시(詩) 한 수(首)를  
그대 홀로 펴보아 주게

그때 그대는 나를 보시리  
썩은 풀덤이 가튼 내 살림살이에  
반드시불 가터 꺾박어리는  
내 너를 보시리  
장터에서 혼자 짓든 나를 보고  
너털웃음속 울든 나를 보고  
춤추며 한숨짓든 나를 보리  
사라오든 내가 아닌

살라하든 가련(可憐)한 나를 보시리.

그때 그대는 나를 아시리  
내 모든 것을 아시리  
왜 내가 머리를 흔들든가를 알고  
왜 내가 떨든가를 알고  
왜 내가 가든 길 멈추고 두런거리든가를 아시리  
왜 내가 산(山)을 따르고 바다를 그리워하고  
밤중(中)만 혼자 이리 앉겠든가를 아시리  
왜 별을 바라보고 왜 내 옷자락이  
마를 때 없었든가를 아시리.

그대 앞 깜박어리는  
내 생(生)의 초스불도 꺼질 때가 온 것 아닌가  
그때 아~ 이 초스불도 꺼지랴 할 그때  
가룩한 그대여 내 마즈막 자리로 오게  
그리하여 내 가슴속 감춰두었던  
내 생명(生命)의 참시(詩) 한 수(首)를  
마즈막 선물로 받게.

내 초스불 꺼진 후(後)  
그 선물 펴보아 주게  
그대 홀로 읽어주시게  
그대 우시랴는가 눈물도 고마우리.  
그대 웃으려나 웃음도 반가우리  
아~ 다만 '알았노라' 웨쳐주게.

- 동아일보(東亞日報). 1931년 12월 19일 -

무지개도 귀하것만은

무지개도 귀하것만은

강랑밭이 마르기에  
비 오라 헛네  
급기야, 바람불고, 비나리니,  
무지개 스러진 검은 하늘,  
쳐다보는 이 눈에  
눈물이 왜 고이나.

달빛도 조릿만은  
숨어야 할 몸이기에  
뜬 달 지라고 헛네.

급기야 달 떨어지고,  
밤만이 깊은 거리  
긋는 이 눈에  
눈물이 왜 고이나.

꿈의 탐 알들하것만은  
인생로 짐이 되길래에  
허러바다에 더 젓젓네  
애달프다. 갈 줄 모르고,  
아즉도 떠도는 넋꿈의 조각  
바라보는 이 눈에  
눈물이 왜 고이나.

- 《신동아(新東亞)》18호, 1933년 4월 1일 -

#### 기원(祈願)

무쇠 검타만 마소  
달구면 녹아  
태초(太初)의 목숨 벗어튼  
용광(鎔鑪)으로 돌아가나니.

님이여 그대 순정(純情)으로  
이 녀 환원(還元)시킨 후  
님의 원하시는 그릇  
만들지 않으랴오.

- 《동광총서(東光叢書)》 2호. 1933년 7월 1일 -

우리 길을 가고 또 갈까

우리 길을 가고 또 갈까.

꽃을 다 어떻게 찾아가나  
별의 창(窓)뒤의 별의 창(窓)뒤의 별의 창(窓)뒤의 별의 창(窓),  
다 어떻게 '넋' 하나,  
샘의 '나'와 '너'와 '그'가 모다 부르는데.....  
모래알과 모래알의 통로(通路)가  
안개같이 자욱이 얼컹네.

아—, 녀아 네 향수(鄉愁)는  
길과 함피  
끝없이, 끝없이, 끝없이 유장(悠長)코나.

- 《문학(文學)》 2호. 1934년 2월 1일 -

박첨지와 낮잠

유월(六月)의 한나절  
장다리 꽃에  
나비 춤이 무겁다.

이따금 바람이 불어  
느티나무 그늘이 어질러진다.

반(半)나갈의 피로(疲勞)가  
송이송이 박꽃처럼 피었드라.

일어나 높은 시선(視線)이  
비 실은 구름장을地平線(지평선) 위에 더듬는다.

한글작이의 한가(閑暇)로움이 그대론 不足하냐?  
송아지는 철없는 가수(歌手),  
시에, 높은 귀에  
찰아리 번거로운 예술(藝術)일러라.

담배스대를 떼다.

저녁에 구수할 아욱국의  
마누래 장승씨가 대견해,  
왁살마진 주름속에  
그래도 장미(薔薇)의 미소(微笑)가 되노나!

- 《백광(百光)》 3, 4 합병호. 1937년 4월 -

## 2) 망향(望鄉)

### 한잔 물

목 마름 채우려든 한잔 물을  
땅우에 엽질렀다.

너른 바다 수많은 파두(波頭)를 버리고  
하심(河心) 내 잔에 담겼든 물.

어느 절벽밑 깨어진 구비런지.....

어느 산모루 어렸던 구름의 조각인지-

어느 나무 잎우에  
또 어느 꽃 송이우에  
나려졌던 구슬인지~  
이름 모를 골을 나리고  
적고 큰 돌사이를 지난 남아지  
내 그릇을 거쳐  
물은 제 길을 갔거니와.....

허전한 마음  
그릇의 비임만을 남긴  
아~ 애담은 추억(追憶)아!

눈 오는 아침

눈 오는 아침은  
가장 성(聖)스러운 기도(祈禱)의 때다.

순결(純潔)의 언덕우  
수묵(水墨)빛 가지 가지의  
이루어진 솜씨가 아름다워라.

연기는 새로 탄생(誕生)된 아기의 호흡(呼吸)  
담이 울어  
영원(永遠)의 보금자리가 한층 더 다스하다.

새벽 별을 잇고

새벽 별을 잇고  
산국(山菊)의 '맘음'이 불러도

겨를없이  
길만을 가노라.

길!  
아~~ 먼 진흙 길

머리를 드니  
가을 석양(夕陽)에  
하늘은 저러히 멀다.

높은 가지의  
하나 남은 잎새!

오랜만에 본  
그리운 본향(本鄉)아.

태풍(颱風)

‘죽업’의 밤을 어질르고  
문(門)을 두드려 너는 나를 깨웠다.

어지러운 병마(兵馬)의 구치(驅馳)  
창검(槍劍)의 맞부딪침,  
폭발(爆發), 돌격(突擊)!  
아~ 저 포효(咆哮)와 섬광(閃光)!

교란(攪亂)과 혼돈(混沌)의 주재(主宰)여,  
썩기고 부서지고,  
날리고 몰려와  
안일(安逸)을 향락(享樂)하든 질서(秩序)는 깨진다.

새싹 자라날 터를 아서  
보수(保守)와 조애(阻碍)의 추명(醜名) 자패(自敗)하든  
어느 뒤편의 썩은 등걸을  
꺾고 온 길이나.

풀 뿌리, 나무 잎, 못 오예(汚穢)로 덮인  
어느 항만(港灣)을 비길하야

질식(窒息)에 숨 지라든 물결을  
일깨우고 온 길이나.

어느 진흙 싸인 구렁에  
소낙비 쏘다 부어  
중압(重壓)에 울든 단 샘을  
웃겨 주고 온 길이나.

파괴(破壞)의 폭군(暴君)!  
그러나 세척(洗滌)와 갱신(更新)의 역군(役軍)아  
세차게 팔을 둘러  
허섭스러기의 퇴적(堆積)을 쓸어 가라

상문(霜刃)으로 심장(心臟)을 헤쳐  
사특, 오만(傲慢), 미온(微溫), 순준(巡邊)에여 바리면  
순진(純眞)과 결백(潔白)에 빛나는 넋이  
구슬처럼 새 아침에 빛나기도 하려니...

서그픈 꿈

뒤로 山  
숲이 돌리고  
돌스새에 샘 솟아 적은 내 되오.

들도 쉬고  
재스빛 메뿌리의  
꿈이 그대로 깊소.

폭포(瀑布)는 다음 골(谷)에 두어  
안개낀 '정적(靜寂)'이 잠기고.....

나와 다람쥐 인(印)친 산길을  
넝쿨이 아셨으니

나귀 끈 장스꾼이  
찾을리 없오.

'적막(寂寞)' 함께 끝내  
남은 거문고의  
줄이나 고르랴오.

긴 세월(歲月)에게  
추억(追憶)마자 빼앗기면

풀잎 우는 아츨  
혼자 가겠오.

### 3) 망향(望鄉)] 이후의 시(詩)

여수(旅愁)

비준산(比澗山) 넘어 대(竹)와 으루나무(竹) 길을 걸으며 비파호(琵琶湖),  
호수(湖水) 건너 들, 들 밖에 산(山)  
산(山)넘어 끝이 없이

내 여수(旅愁)에 하늘이 연(連)하도다.

생은 짐짓 외로운 것,  
고개숙여 호젓이 짓거늘  
너는 왜 물새처럼  
추억(追憶)의 바다로 나를 인도해  
아득이도 돌아갈 길을 잊게 하나뇨.

- 《문장(文章)》 2권 9호, 1940년 11월 1일 -

### 고궁(古宮)

고요함을 한갓 아껴 하듯  
조심 고궁(古宮)에 눈이 나란날

비둘기 마실가고,  
아- 옛빛 숙연(肅然)히 저르는 뜰을  
고적(孤寂)을 달래며 홀로 걸었오.

모란(牧丹)포기 마른 화단(花壇), 섬돌,  
그날의 꿈은 씨겨 가고,

몇 나히로 헤일지, 늙은 행자수(杏子樹),  
고(告)할듯 그저 말이 없었오.

- 《춘추(春秋)》 2-2호, 1941년 3월 1일 -

### 손없는 향연(饗宴)

하늘과 물과 대기(大氣)에 길러  
이역(異域)의 동백나무로 자라남이어,  
손없는 향연(饗宴)을 버리고  
슬픔을 잔질하며 밤을 기다리도다.

사십고개에 올라 생을 돌아보고  
적막(寂寞)의 원경(遠景)에 오인(嗚咽)하나  
이 순간(瞬間) 모든 것을 잊은 듯  
그 시절(時節)의 꿈의 거리를 배회(徘徊)하얏도다.

소녀(少女)야, 내 시름을 간직하여  
영원(永遠)히 네 가슴속 신물(信物)을 삼으되  
생(生)의 비밀(祕密)은 비 오는 저녁에 펴읽고  
묻는 이 잊거든 한 사나이  
생각에 잠겨 고개속이고  
멀리 길을 간 어느 날이 있었다 하여라.

- 《문장(文章)》 3권 4호. 1941년 1월 -

## 산에 물에

맑은 아침 새 노래 아름다워라  
꽃냄새에 취(醉)한 놈이 풀빛(草色)에 젖(濕)네  
구름도 쉬여 넘는 산(山)머리에서  
천만리(千萬里) 넓은 들 굽어봅니다.

뒤 서름에 물결은 깨여지는지  
아득하다 하늘에 물이 다왔네.  
포구(浦口)를 찾아드는 배를 보고도  
마음의 고향(故鄉)을 그려합니다.

시름은 물결에 흘려보내고  
산(山)에 올라 영기(靈氣)로 맘을 닦겠네.  
고이고이 천지(天地)가 걸으는 생(生)을  
아끼며 깨끗이 살으랍니다.

- 《삼천리(三千里)》 13권 9호. 1941년 9월 1일 -

시조(時調) 육(六)수(首)

새벽달 성두(城頭)에 걸고 청천(淸泉)을 길고 드니  
군자(君子)의 산간락(山間樂)이 이 아니 족(足)하온가  
네부터 뜻 잇는 손이  
날과 갖치 노니라

동천(東天)이 회엿할 사달은 아즉 서성(西城)이라  
일월(日月)이 한스기 잇서 이몸을 기루거니  
구태여 사람을 차자  
구(求)할 줄이 이시라

산간(山間)에 봄 느즈니 송화(松花)가 날리매라  
속객(俗客)이 차자와서 먼지 인다 하는고야  
눈에도 선(仙)과 속(俗)이 잇거니 제 알 줄이 이시라

소 치는 저 아희야 궁예성(弓裔城) 내 아는다  
십리초원(十里草原)을 그곳이라 하는고야  
장부(壯夫)의 평생지업(平生之業)도  
꿈 깬 뒤와 갖고녀

선포(洗浦)라 너른 뜰에 추풍(秋風)이 나붓길 제  
준총(駿驄)을 급(急)히 모라 진일(盡日)뒷 노닐다가  
큰 나무 등걸을 베고  
쾌(快)히 쉬면 하노라

금강송백(金剛松柏) 버허 일엽선(一葉船) 지여 타고  
동해창파(東海滄波) 우에 넘다려 노니다가  
하날이 날 부르실 제  
한스기 가면 하노라.

- 《이화(梨花)》 2호. 1930년 12월 21일 -

## 어떤 개인 날에

날이 맑다. 바다의 끝  
수평선(水平線) 그 어름에  
한줄기 연기 보이면  
배는 나타나 배는 나타나  
포성(砲聲) 은은(殷殷)한 속에  
부두(埠頭)에 흰 선체(船體)를 보리니  
그가 온건만 나는 안가랴오  
그를 맞으랴 아니 가랴오  
나는 언덕우에 머물러  
오래 왜 기다리랴오  
얼마를 기다린들 피곤야 하겠소  
멀리 일점(一點)으로 그가  
인해(人海)속에 오나니  
언덕을 오르는 그는 누구?  
그가 언덕에 오른 때  
날 향(向)혀 할 말은 무엇?  
채 오기 전 그가 호접(胡蝶)이라 부르면  
대답(對答)없이 난 태(態)를 지키랴오  
만나는 첫 기쁨에 실명(失命)할가 두려워  
잠시(暫時) 그를 조롱하랴오 괴로피랴오  
그가 여기 왔을 때 나를 부르든  
'내 안해 적은 오렌지꽃'의 이름으로  
또 다시 나를 찾으리니  
만사(萬事)는 말 같이 되을 것을-  
부지없음 눈물을 거두오  
나는 그가 올것을 아오.

- 동아일보(東亞日報). 1938년 4월 14일 -

## 검은 새의 노래

한 눈은 사라지고 봄 돌아와  
가지엔 파릇파릇 싹이 틈다  
시내물도 잠을 깨여  
바다 향해 홀로 노니  
사라진 내 사랑, 돌아오라.

미풍은 하늘하늘 향기롭게  
가지에 웃는 꽃을 흔드노나  
연한 꽃이 떨어지면  
봄철 또한 지나가리  
사라진 내 사랑 돌아오라.

오. 그대 아느냐 나의 맘을  
고요한 새벽이면 숲속에서  
들으라 나의 노래 너 위해 불르노니  
언제나 돌아오려나  
기다린다.

## 목동(牧童)아 네 태도(態度)를 변(變)해

목동(牧童)아 네 태도(態度)를 고쳐  
쾌활(快活)히 노래하고 춤을 추렴아  
대담(大膽)하고 진실(眞實)한 구애자(求愛者)로  
나를 달래다오  
탄식(嘆息)과 실망(失望)의 빛  
이러한 줄(掘)한 지음은  
내마음을 얻기 어려워  
그대 불꽃에 나는 타야겠노라.

- 동아일보(東亞日報). 1938년 4월 15일 -

#### 4. 시인 김상용의 또 다른 삶 엿보기

이곳에서는 시인 김상용이 학생 시절 '신파소설'을 다수 창작한 작가였음을 밝히고자 한다. 그 근거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한다. 첫째 「동정의 루」부터 시작하여 「무궁화」까지 20여 편의 '신파소설' 작품의 필명이 김상용의 호인 '월파'라는 점을 들었다.

둘째 김상용은 종로 행촌동에 살았는데 월파의 작품 말미에 탈고 장소에 대한 기록이 '행촌'으로 되어 있음을 밝혔다. 셋째, 김상용의 산문쓰기와 월파의 '신파소설' 창작의 관련성을 살폈다. 그러면서 김상용이 보성고보 학생 시절, 《학생계》에 「두견성」이란 단편 소설을 투고한 바 있다는 사실을 제시했다.

시인 김상용이 '신파소설'의 작가이기도 했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는 다른, 문인 김상용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문학사에서 배제되어 왔던 '신파소설'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 이것은 단지 '신파소설'에 대한 관심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당시 '문단'이 제도화되고, 전문화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월파 김상용의 고향은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이다. 그러니까 해방이 된 후에는 삼팔선 이북 땅이 되어 마음대로 오갈 수가 없었음에 안타까움을 시로 표현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도 든다. 실향의 고통을 느끼던 그는 1948년 도미 1년 만에 귀국하였고 피난지인 부산에서 당시 공보처장이던 김활란의 집 필승각에서 음식을 먹은 것이 식중독이 되어 치료를 하다 의사의 잘못된 투약으로 부산 부전동 52번지 셋집에서 사망을 하게 된다.

그 후 4년 뒤 이화여대의 주선으로 1955년 2월 30일 당시 양주군 구리면 망우리(현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공동묘지에 이장을 하였다. 그는 살아생전 참으로 여러 방면에서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모교 교사, 교수, 일제에 의해 영문학 강의가 폐지되자 회원 주인, 재한 군정청장을 겸한 육군 24사단장이 임명한 강원도지사, 이대 학무처장, 통역관, 공보처 고문, 코리아타임 주필을 지내는 등 다방면에서 활동을 했다.

월파의 씻을 수 없는 실수는 1943년 8월 1일부터 7일까지 매일신보에 7인의

문인들이 시를 발표하였는데, 월파는 <님의 부르심을 받고서>라는 시를 일제에 의해 강제로 신계 된다. 이로 인해 친일이라는 오명을 쓰고 해방 후에 친일파 시인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된다.

그러나 이 불명예는 2009년 서울 중앙지법의 사건번호 2009가 단223470호에 의해 친일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고 모든 불명예가 씻기게 된다.

이제는 월파의 생가를 복원하고 생가 터에 시비(詩碑)를 세우는 등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하지만 그의 생가 터는 현재 군부대 내의 통신창고 바로 앞 남향으로 아담하게 자리하고 있으나 여간해서는 일반인의 접근이 어렵다. 출입은 물론이거니와 사진 촬영 자체도 허락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생가 복원은 고사하고 시비(詩碑)를 세운다는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 [ 참고자료 ]

- \_김상용시전집 《망향(望鄉)에서 귀향(歸鄉)까지》, 도서출판 고글
- \_위키 백과



월파 김상용 묘비석

고양



동관 김현규의 삶과 소리  
그리고 민속놀이

김종일 | 동화작가. 소설가



김현규의 중학시절

# 동관 김현규의 삶과 소리 그리고 민속놀이

김종일 | 동화작가, 소설가

## I. 들어가며

### 1. 동관 선생의 소리 인생의 출발점

동관 김현규 선생은 고양군 송포면 대화리(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양촌마을에서 팔 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그의 부친은 김형문 씨로 고양군의 유명한 도편수였으며, 모친은 원주가 본관인 원씨였다.

동관 김현규 선생은 어렸을 때부터 소리꾼의 자질을 보여 마을 두레패의 공연이 있으면 그 뒤를 따라다니며 구경을 하였다고 한다. 그런 동관은 학교에 들어가서도 공부는 뒷전인 채 소리에 빠져들었다. 심지어는 친구들과 두레패를 직접 조직하여 소리와 놀이를 하기도 하여 선생님이나 어른들한테 야단도 많이 맞았다고 한다.

이런 동관 김현규 선생의 소리 인생에 큰 영향을 주신 분은 동관의 백부이신 김형운 선생이시다. 김형운 선생은 당시에 경기도 일대에서는 유명한 선소리꾼이며 두레패의 상쇠이기도 하였다. 이런 백부에게서 동관 선생은 자연스럽게 호미걸이 소리와 농요, 두레잡이 가락을 배우게 된다. 그리하여 나중에 송포 대화리 두레패의 상쇠와 선소리꾼으로 활동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동관 선생의 나이 약관에 불과하였다. 그런 동관 선생에게 우리 민족의 최대 비극인 6.25 전쟁은 또 다른 삶의 의미를 깨우치는 계기가 된다.

부친과 형, 누이, 조카를 전쟁 통에 잃게 되는 것이다. 이에 동관 선생은 인생무상을 느껴 다니던 학교도 그만두고 백부를 도와 농사일을 하며 지낸다. 그런 중에 농사일을 하면서 부르게 되는 호미걸이 소리와 농요, 민속놀이에 빠져들었다. 그러다가 동관 선생은 고향을 떠나 서울로 올라가 부친이 해오던 목수 일을 배우고 그 일을 하게 된다. 하지만 목수 일을 하면서도 동관 선생은 잡가, 선소리, 산



선소리산타령 동기들과

타령 등 여러 소리를 배운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남이 하는 것을 따라 하는 정도였다. 따라서 동관 선생은 체계적으로 배우기 위해 당시 중요무형문화재 제19호 선소리 산타령 예능보유자인 유개동 선생의 문하에 들어가 경·서도 소리를 익힌다. 당시 동관 선생의 나이 30대였다.

유개동 선생이 타계하자 동관 선생은 유개동 선생의 뒤를 이은 김순태, 이창배 선생에게서 소리를 배우게 된다. 그리하여 80년도 무형문화재 제19호인 선소리



임창렬 경기도지사로부터 상 받을 때



대회 때 상 받은 사진

산타령 이수자가 된다. 그 후 동관 선생은 배뱅이굿으로 유명한 이은관 씨로부터 이씨가 운영하는 민속예술학원에서 소리를 가르쳐 달라는 제의를 받고 10여년을 경기민요와 서도민요를 가르쳤다.

1982년 이은관 선생이 서도소리로 중요 무형문화재 제29호 예능보유자가 되었고, 1985년 동관 선생은 독자적으로 경기민요와 선소리 전수소를 종로에 개설한다. 그런 한편으로 고양문화원의 주선으로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송포 호미걸이’를 가지고 출전하여 종합우수상을 받았다.

동관 선생의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동안 송포 호미걸이 소리를 발굴 복원하는 노력의 결실로 1998년 ‘송포 호미걸이’는 전통문화의 가치를 인정받아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22호로 지정을 받았다. 또한 그 일을 계기로 동관 선생은 문화재 지정 기념으로 호암 아트홀에서 ‘송포 호미걸이’ 소리발표회를 성대하게 치르면서 국악계와 일반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된다.

고양 ‘송포 호미걸이’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기 전 민속학자이며 문화재 전문위원이신 심우성 선생께서 동관 김현규 선생에게 보낸 편지가 있다. 여기에 전문을 공개하여 송포 호미걸이에 대한 가치와 동관 선생의 노고에 대한 심우성 선생의 마음을 되짚어 보기로 한다.



두레소리

‘하루 속히 무형문화재로 지정 되어야 합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이 있듯이 바로 가까운 우리의 주변에 소중한 문화유산이 있음을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호미걸이 소리’가 그 중의 하나입니다. 이 호미걸이 소리를 보유하고 계신 동관 김현규 선생은 경기도 고양시 대화동 출신으로 소리로부터 이 고장의 두레소리와 일반 민요에 이르기까지 완벽하게 이어 받고 있는 분입니다.

1977년 제18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는 민요부문에서 영예의 개인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이제 그의 호미걸이 소리를 아끼는 인사들이 모여 ‘호미걸이소리 전수보존회’를 조직하고 본격적인 전수교육을 펼친다 하니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닙니다. 김현규 선생의 호미걸이 소리는 이미 학계의 인정을 받아 KBS.FM의 전통음악 감상 시간에 경기도의 일노래를 대표하여 자주 소개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당국은 하루 속히 그의 전통적인 ‘일노래’를 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자랑스러운 향토의 무형유산이 인멸되지 않도록 해야 하리라는 생각입니다.

끝으로 고양시와 고양문화원 그리고 호미걸이소리 전수 보존회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하며 동관 김현규 선생의 건강을 빌어마지 않습니다.

1996. 2. 22.



김씨문중 어르신과 두레소리

## 2. 동관 선생의 업적

고양시는 시가 되기 전만 해도 농업이 성행하던 지역이었다. 그러던 것이 시로 승격되고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논밭을 메꾸고 그 자리에 대단위 주거단지인 아파트가 들어서고, 상공업과 위락시설이 들어섰다. 그로 말미암아 농업은 많이 위축되었으나 아직까지 도시화가 덜 진행된 송포 지역은 아직까지 논이 많이 남아 있다.

예전 논농사가 성행하던 시절 송포와 대화리 지역에는 논농사와 관련된 놀이와 소리가 널리 불리어지고 행해졌었다. 당시 논을 매면서 부르는 논땀 소리로서 가장 대표적인 소리가 바로 '송포 호미걸이'였다.

송포 호미걸이 소리는 논을 매면서 부르는 소리였는데 논김은 세 번을 매어야 했다. 그러나 여름 피약별 아래 엮드려 논을 매는 작업은 보통 고된 일이 아니어서 주로 두벌김까지 매는 경우가 많았다. 농부들은 김매기의 지루함과



아버님 두레소리 문하생들과

고됨을 덜기 위하여 두레를 짜서 공동 작업을 하였고 일하면서 소리를 하였다. 그 소리가 바로 논맴 소리요, 고양시의 대표적인 논맴 소리가 송포 호미걸이 소리인 것이다.

그런데 논맴 소리인 송포 호미걸이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종류의 소리와 민속놀이가 산업화와 도시화로 말미암아 점점 잊히고 사라져갔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동관 선생은 소리와 민속놀이를 보존하고 새롭게 발굴하려고 노력하였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여러 소리와 민속놀이가 발굴되고 재현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송포 호미걸이’였다. 그밖에도 ‘멩개안 사출다리기’, ‘십이지신 불한 당놀이’, ‘고양 쌍그네놀이’, ‘싱아대 말목박기소리’, ‘용구재 이무기제’, ‘선공감 김감역 호상 상여소리’, ‘고양12채가락’이 있다.

이런 일련의 소리와 민속놀이들은 동관 선생이 아니었으면 모두 잊히고 사장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동관 선생의 노력으로 발굴되고 보존되어 오늘날 고양의 소리와 민속놀이로 문화적 가치를 지닌 고양의 전통문화로 자리매김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동관 선생이 발굴하고 재현한 소리와 민속놀이 8가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1996년 2월 두레소리발표회

## II. 동관이 발굴 재현한 소리와 민속놀이

### 1. 송포 호미걸이

#### 1) 송포 호미걸이 소개

호미걸이는 김매기가 끝나고 칠월 칠석 전후로 해서 행한다. 호미걸이란 농군들이 김매기를 마치고 벌이는 축제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지역에서는 ‘호미씻이’, ‘뫼긋’, ‘두레먹기’ 등으로도 불린다.

고양 지역에서는 구두레가 있는 뱀개마을에서만 호미걸이를 하였고, 다른 마을에서는 ‘구두레’가 있는 뱀개마을 호미걸이에 참가하여 같이 축제를 벌였다. 호미걸이는 해마다 하는 행사가 아니었고 시절이 좋을 때만 했다고 전한다. 두벌 김매 때 그 해 호미걸이를 할 것인가를 정했다고 한다. 왜냐하면 두벌 김매 때쯤이면 그 해 농사가 풍년인지 흉년인지를 판가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었다. 그 해 농사 작황과 마을 사정을 참작하여 호미걸이를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다. 호미

걸이를 하기로 정해지면 즉시 호미걸이 할 날짜를 정하고 마을과 이웃 마을에 알린다고 한다.

또한 뱀개마을에서는 호미걸이에 쓸 음식을 정하고 음식에 쓸 재료들을 유지들에게 배정한다. 쌀과 술, 고기 등을 배정하는데 밥 짓는데 사용되는 쌀이 4가마나 되고 술도 많이 담근다고 한다. 그리고 소 한 마리, 돼지는 여러 마리 잡아 고기를 넉넉히 장만하였다고 한다.

호미걸이 행사는 뱀개마을 도당재에서 했다. 뱀개 도당재는 마을 뒷산에 있었는데 아름답리나무들이 가득한 산이었다. 행사 전날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당 마당을 청소하고 큰 가마솥을 여러 개 걸고 천막도 치며 만반의 준비를 하였다.

그리고 당일 새벽 동이 트기 전에 남자들이 모여 기를 앞세우고 길 균악(행진 풍물)을 치고 당 앞에 가서 기잡이가 기를 붙들고 서 있는 가운데 건어물 등으로 제물을 진설하고 상산재를 지냈다. 그리고 풍물패들은 일자로 늘어서서 풍물을 울리고 나서 축문을 읽었다. 그리고 다시 풍물을 치며 사방에 절하고 기를 꽃고 내려온다. 그러면 이번에는 여자들이 올라가서 대동고사를 지냈다. 당 마당에 떡 시루를 올리고 풍년농사와 마을의 안녕, 집안의 평안을 빌었다.

상산제는 농사가 잘 되라는 제사이며 대동제는 질병 없고 무사안녕을 비는 제사였다. 풍물 대동제가 끝나면 풍물놀이가 시작되었다. 남자들이 풍물을 치고 있으면 이웃 마을 두레들이 차례로 기를 앞세우고 풍물을 치며 호미걸이에 참례하러 왔다. 참례하는 두레가 많을 때에는 20여 두레가 넘었다고 한다. 찾아오는 이웃 두레패는 두 줄로 늘어서서 풍물을 치며 들어왔다. 두레패들은 수레에 술을 싣고 왔다. 그러면 뱀개마을 두레패는 마중을 나가 그들을 맞이했다. 각 마을의 두레패가 당 마당에 오게 되면 각각 따로 풍물을 치며 놀다가 모두 모여 점심을 먹고 나서 '기 절 받기'를 했다.

당 마당에 '구두레'(뱀개마을 두레)는 당 앞에 일렬횡대로 밖을 향하여 늘어서고 '신두레'(초청받은 두레패)들은 일렬종대로 당을 향하여 방사선으로 늘어선다. 기잡이가 영좌기(구 두레기)를 중앙에 들고 서면 신두레기들이 세 바퀴 끌고 영좌기가 한 바퀴 쓴다. 신두레기들이 세 번 절하면 영좌기는 반절로 받는다. '기 절 받기'를 마치면 '기쓸기'를 한다. 각 마을 기잡이들이 기를 수평에 가깝게 비스듬히 들고 돌리는 것을 '기쓴다'고 하는데, 제일 많이 쓰는 이를 장원으로 뽑는다.

역대 '기 쓸기'로 장원한 이들의 이름이 전해지는데 영좌기잡이 강여관, 강덕필, 김영만, 김덕철이 그들이다. 이들 가운데 김영만은 힘이 장사라 기를 열 세 번이나 쓸었다고 한다. 장원으로 뽑힌 사람은 배 한 필, 정목 한 필을 상으로 주었다고 한다. '기 쓸기'가 끝나면 한 두레씩 나와서 논다고 한다. 해질녘이 되면 각 두레들은 다들 자기 마을로 돌아가고 본 두레(구 두레)는 자기네 뱀개마을 곳곳을 돌며 집들이를 하였다. 고양 지역에서의 이와 같은 호미걸이는 1951년(신묘년)을 마지막으로 단절되었고, 그것을 동관 선생에 의하여 민속놀이로 복원되어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등 여러 민속공연에 참가하여 보존하고 있는 것이다.

## 2) 송포 호미걸이 순서

- 상산제 : 마을 뒷산인 도당산에서 마을의 수호신인 도당신에게 풍년을 기원하며 드리는 제사이다. 도당산의 큰 소나무인 도당나무 앞에 제사상을 차려놓고 마을에서 제일 어른이 의관을 정제하고 제사를 지냄으로써 호미걸이가 시작되는 것이다.

- 대동고사 : 마을 여자들이 함께 모여 집안과 마을의 무사태평과 풍년을 기원하며 지내는 제사이다. 상산제를 지낸 후에 남자들이 놀이마당으로 내려오면 부녀자들이 음식을 차려놓고 고사를 지내는 것이다. 이때 서로 덕담을 하고 합장과 함께 반절을 하며 풍년 농사와 집안의 안녕을 서로 주고받는 것이다.

- 대동놀이 : 초청된 이웃 두레패를 맞이하는 의식. 두레패는 형성된 시기를 중시하기에 어떤 경우라도 서로 만나게 되면 먼저 형성된 두레패의 기에 절을 하며 예를 표한다. 두레패 중 가장 오래된 구두레의 기를 향해 온 절을 하면 구두레의 기는 반절로 답례하는 기절받기가 이루어진다. 그 후에는 추천된 사람 중 가장 힘센 사람을 선발한다. 선발된 기수는 깃대재주부리기라 하여 기수에게 상품으로 주어진 필목을 몸에 감고 깃대를 들고 춤을 추면서 기쓸기를 해 보인다. 그 외에도 종기놀리기, 조사놀리기 등을 행한다. 다음으로는 무등타기를 하고 명석으로 만든 소가 등장하면서 호미걸이 소리를 하고 온 마을 사람들이 춤을 추면서 대동놀이는 절정에 이른다.

- 유가제(儒家祭)와 뒷풀이 : 유가는 조선시대 때 과거급제자가 광대를 앞세우고 풍악을 울리면서 거리를 돌며 좌주, 선배, 친척 등을 찾아보는 것을 말하며 '유가

제'란 여기서 따온 명칭이다. 이때는 두레패가 무리를 지어 집집마다 방문하여 그 집의 무사태평을 기원한다. 그러면 집주인이 나와 술과 음식을 대접한다. 두레패는 마을의 집을 다 돈 후에는 마을의 중심 마당으로 돌아와 준비한 음식과 술을 마시며 한바탕 노는 것으로 호미걸이의 대미를 장식하는 것이다.

### 3) 등장하는 소리

송포 호미걸이 소리의 특징과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호미걸이 소리는 매우 다양하고 종류가 많아 지루하지 않으며 흥이 있다.

둘째,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자진방아타령이 이곳에서는 농요로 불린다.

셋째, 소리의 가락은 높고 낮음이 분명하며 경쾌하며 재미있다.

넷째, 우리나라에서는 고양시에서만 전수되는 소리이다.

다섯째, 선소리와 후렴이 다른 구절이 많아 사실과 재담이 많고 복잡하다.

여섯째, 소리와 함께 다양한 풍물, 가락이 있어 민속놀이로서의 보존 가치가 크다.

- 긴소리

<모갑이> 이 편 저 편 좌우 편 군방님네 ~

<두레꾼> 예이 ~

<모갑이> 자, 오늘 날도 선선허구 김도 맬 만 허구 이 집 떡쌀이 세 가마, 서 말, 석 되이니 옛날 옛적 젓날 젓적 떠꺼머리 총각적 현 패래 고랫적 나무 접시 맛있을 적에 노인네 하든 두레소리나 우럭 우럭 해봅시다 ~

<두레꾼> 예이 ~

<모갑이 선소리> 예히에 예헤에 예헤에히에 예히에헤에 ~

허이~ 썩아아아 이 이히요오 ~ 오오오 오호오 오오오 ~

<두레패 받는 소리> 예히에 예헤에 예헤에히에 예히에헤에

허이 썩아아아 이 이히요오 오오오 오호오 오오오

- 사두여

<모갑이> 예 예헤에 예이에 예헤에리 사두여

<농군들> 예 예헤에 예이에 예헤에리 사두여

<모갑이> 사두여 소리가 또 넘어 갔구려

〈농군들〉 사두여 소리가 또 넘어 갔구려

〈모갓이〉 친일범주 연리거 하여 유시요도 월중환을 어워라 어워라하니 아심수  
쳐 자망가를 지국총 지국총 어사화로다

〈농군들〉 (위 소리를 그대로 받음)

〈모갓이〉 에 에이에 에에에 에에에 에헤리 다아하아

〈농군들〉 (위 소리를 그대로 받음)

〈모갓이〉 양덕 맹산 흐르는 물은 감돌아 든다 부벽루로다

〈농군들〉 (위 소리를 그대로 받음)

〈모갓이〉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놀이로다

〈농군들〉 (위 소리를 그대로 받음)

- 방아타령

〈농군들〉 에헤 에헤여허 어라 우겨라 방아로구나 노니가 나누 나니가 네누 나  
니나 방아가 좋다

〈모갓이〉 어두어차 좋았구나 이 방아가 웬 방아냐 아랫녘 옷녘 경상 방아 여주  
이천 자차 방아 통진 김포는 밀 타리 방아 날고 장천 찢어도 헛 방아뿐이로구나

〈농군들〉 에헤 에헤여허 어라 우려라 방아로구나 화조 밭에 학두루미 두 날개  
를 둥당치며 목을 길게 늘어 푸루루루루루 하고 아주나 감돌아간다

〈모갓이〉 용산 삼개 실버드나무 무엇을 주어서 길렀는지 우줄 줄줄이 춤만 춘다.

쫄구나 두었구나 천안도 삼거리 능수나 버들 제멋에 겨워서 반춤을 추고 젊은  
과수는 에루와 반붓짐 썬다.

〈농군들〉 에헤 에헤여허 어라 우겨라 방아로구나 넓적 짙끈 소고 등은 우리나라  
명창 어디다 두고 어줄 어줄이 걸렸느냐

〈농군들〉 좋다 두었구나 충청도 허구두 계룡산 밑에 셋바구니를 옆에다 끼고  
지신 캐는 저 처녀야 너 사는 집이 어디드냐 나 사는 집은 저 산 넘어 실안개 속에  
초당 삼간을 쭉 비켜놓고 초가 일간이 소녀의 집이로소이다

- 자진방아타령

〈모갓이〉 뗏다 뗏다 새 새소리 뗏다 에 에헤요호 에히여허 에헤야하 어야라 어  
허야 에허리 뗏다

〈농군들〉 (위 소리를 그대로 받음)

〈모깁이〉 떴다 떴다 새 새소리 떴다 대보름날에 구머리 장군 긴코배기 액막이  
연이 떴다

〈농군들〉 (위 소리를 그대로 받음)

- 놀놀이

〈모깁이〉 놀놀놀 놀이 놀놀놀 놀아

〈농군들〉 놀놀놀 놀이 놀놀놀 놀아

〈모깁이〉 놀놀이 소리는 엄청난 소릴세

〈농군들〉 놀놀놀 놀이 놀놀놀 놀아

〈모깁이〉 심봉사의 거동을 보아라

〈농군들〉 놀놀놀 놀이 놀놀놀 놀아

〈모깁이〉 굴관 제복을 정히 하고

〈농군들〉 놀놀놀 놀이 놀놀놀 놀아

〈모깁이〉 상두 뒷채를 더 텨안고

〈농군들〉 놀놀놀 놀이 놀놀놀 놀아

- 자진놀놀이

〈모깁이〉 어어어 어허어야 널널널어리 저어허어야

〈농군들〉 (위 소리를 그대로 받음)

〈모깁이〉 어어어 어허어야 놀놀이 소리는 낭구꾼의 소릴세

〈농군들〉 어어어 어허어야 널널널어리 저어허어야

〈모깁이〉 어어어 어허어야 가세 가세 놀러를 가세

〈농군들〉 어어어 어허어야 널널널어리 저어허어야

〈모깁이〉 어어어 어허어야 뽕도 따고 님도 불검

〈농군들〉 어어어 어허어야 널널널어리 저어허어야

- 널널널 상사도야

〈모깁이〉 널널널 상사도야

〈농군들〉 널널널 상사도야

〈모깁이〉 상사소리가 어지나 좋은지

〈농군들〉 널널널 상사도야

〈모깁이〉 어깨춤이 절로 나네

<농군들> 날닐닐 상사도야  
 <모감이> 한 소리는 질러 받고  
 <농군들> 날닐닐 상사도야  
 - 훠훠이  
 <모감이> 우후야 훠훠  
 <농군들> 우후야 훠훠  
 <모감이> 우후야 소리는 새 쫓는 소리  
 <농군들> 우후야 훠훠  
 <모감이> 웃논에다 간 찰벼를 심고  
 <농군들> 우후야 훠훠  
 <모감이> 수염이 빨개서 돼지찰이나  
 <농군들> 우후야 훠훠  
 - 몸돌여  
 <모감이> 에이어라 몸돌여  
 <농군들> 에이어라 몸돌여  
 <모감이> 일낙석양에 해 떨어지네  
 <농군들> 에이어라 몸돌여  
 <모감이> 석양세우 녹수풍에  
 <농군들> 에이어라 몸돌여  
 <모감이> 물소리는 가까워오고  
 <농군들> 에이어라 몸돌여  
 <모감이> 뽕뽕 돌아라 따리 몸돌  
 <농군들> 에이어라 몸돌여  
 <모감이> 에이어라 빙빙  
 <농군들> 에이어라 빙빙

## 2. 12지신 불한당 물이놀이

### 1) 배경과 유래

'12지신 불한당 물이놀이'는 옛 경기도 고양군 한강 연안 일대 마을에서 행해지던 마을 공동체 민속놀이이다. 한강 연안에는 오래 전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하였는데 지금의 현천동, 행주내·외동, 신평동, 토당동, 장항동, 백석동, 대화동, 구산동, 법곶동 등의 마을이다. 이 마을들은 강 주변에 있어 기름진 평야 덕택으로 비교적 넉넉한 살림을 할 수 있었다. 그 중의 한 가문인 오씨 집안은 수대에 걸쳐 많은 자손과 재물로 부자 가문으로 알려져 있었다. 현재도 일산 신시가지 부근 마을에 자손들이 살고 있다.

오씨네 집안을 포함해서 마을 사람들은 열심히 농사를 짓다보니 재물이 많이 늘어 생계에 도움을 주는 배들도 소유하게 되었다. 그런데 한강 연안 동령말(현 함정고개)에는 힘센 불한당 패거리들이 자주 출몰하여 마을 사람들과 한강을 오가는 상인들을 괴롭혔다. 불한당 패거리들은 한양 마포에서 강화 선돌목에 이르기까지 분탕질의 주 무대로 삼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다.

불한당 패거리들은 마을로 들어오기 열흘 전부터 방표를 붙여 마을 사람들에게 마을 어귀로 재물을 가져오라고 협박을 하였다. 방표를 붙이고 협박을 하여도 재물을 가져오지 않으면 이들은 한밤중에 패거리들이 몰려가 노적가리에 불을 지르고, 집집마다 들어가 식량, 돈 등을 약탈하였다. 패거리의 두목은 '정소권'이라는 자였는데 힘이 장사였다고 한다. 그리고 부두목인 '안덕삼'이라는 자는 두목보다 힘이 더 세었다고 한다.

한강 연안의 불한당 출현 지역 주민들은 불한당을 몰아내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마을의 장정들을 동원하여 초겨울부터 이듬해 정월까지를 불한당 물이기간으로 정하기도 하였다. 그리고는 12지신(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으로 하여금 불한당의 접근을 막으려고 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12지신의 힘으로 불한당을 혼내고 쫓아내면 모두 모여 큰잔치를 벌이는데, 잔치에 쓰이는 술과 음식은 마을 대갯집에서 내게 하였다. 이러한 12지신 불한당 물이 놀이는 김성권씨 대까지 이어졌으나 그 후 가세도 기울고 일제의 통제로 말미암아 사라지고 말았다.

## 2) 12지신 불한당 물이놀이 줄거리

불한당 물이놀이 시기가 정해지면 마을 사람들은 12지신 탈과 12지신기, 오방기를 준비한다.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면 12지신기와 오방기를 노적가리 주위에 설치해 놓고 동아줄로 연결하여 돈대(움막) 위에다 막을 짓는다. 사람들은 불한당들이 오나 안 오나 살피다가 꽤거리들이 나타나면 줄을 당겨 마을 사람들에게 불한당들이 침입해 움을 알렸다. 그러면 마을 장정들은 몽둥이질 잘 하는 메꾼, 꽤대기를 잘 하는 씨름꾼, 발길질 잘 하는 택견꾼, 손질 잘 하는 수벽꾼 모두가 힘을 합쳐 불한당을 한강쪽으로 몰아냈다.

불한당 꽤거리들은 후일을 기약하며 물러나는데 이들이 마을 어귀를 절룩거리며 물러나게 되면 12지신 불한당 물이 놀이는 끝나게 되는 것이다. 이러면 마을의 큰 부잣집에서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듬해 정월 중 길일을 잡아 술과 떡, 고기 등을 대접하며 하루를 즐겼다.

이 놀이는 12지신을 등장시켜 마을의 부정한 것을 물리치고 불한당을 몰아내는 경기북서부 지역의 대표적인 놀이였다.

## 3. 멧개안 사줄놀이

### 1) 유래

‘멧개안 사줄놀이’는 옛 고양군 송포면 대화리와 가좌리 이름에서 유래한 민속 놀이이다. 뱀개마을에는 뱀미마을과의 사이에 멧개라는 개울이 있는데 이 멧개는 한강 하류에서부터 올라오는 조수가 드나드는 개울이므로 겨울에도 바다의 염수가 드나들기 때문에 물이 얼지 않았다.

이곳 뱀개마을과 뱀미마을은 1년 농사를 짓기 위하여 이 개울을 막아서 동을 만드니 이곳을 고리포동이라 하였다. 동에 물을 저장하여 놓았다가 이듬해 봄 농사철에 물을 이용하여 모내기가 끝이 나면 동을 터서 물을 흘려버리고 조수가 드나드는 개울 사이에 다리를 놓았다. 이 다리 이름이 ‘버릿게동다리’라 하였다. 멧개안 사줄놀이는 바로 이 다리에서 펼쳐졌다.

이 놀이는 예로부터 내려오던 것인데 일제 강점기 때인 1908년을 마지막으로 단절 되었다가 1990년 민속놀이로 재현하여 현재에 이른다. 뱀개마을은 뱀의 혈

이라 하여 뱀은 제집을 나가면 죽는다고 전해 내려와 이곳을 떠나면 못산다고 하여 지금까지도 이곳을 떠난 사람은 성공하지 못하여 다시금 돌아오게 된다는 속설이 전해 온다. 또한 뱀개마을은 예전부터 뱀의 혈이라 하여 집안의 업병 중에 구렁이 업을 제일로 모시는 집이 많이 있었다고 한다.

## 2) 뱀개안 사줄놀이의 구성과 진행

- 다리목 베기 : 뱀개 개울을 가로 막았던 동을 터놓으면 조수가 드나들므로 농사의 편리함을 위하여 다리를 놓았는데, 여기에 쓰이는 나무를 양쪽 마을에서 장만하였다. 다리목을 베는 날짜를 선달 그믐날을 택하여 베어서 개울을 막은 고리포동 뱀개안으로 옮겨가고 그 자리에서 음력 열엿새 날을 놀이의 마지막 날로 정하였다.

- 사줄 꼬기 : 여러 집에서 내놓은 원 동아줄 각 줄마다 머리끝에 대주의 의복을 잡아매었다. 뱀개마을에서는 사두라 하여 외줄로 줄을 만들어 남사신 형상으로 하였고, 뱀미마을에서는 여사신이라 하여 동아줄의 줄을 두 가닥으로 하여 쌍줄로 하였다.

- 사줄 옮기기 : 음력 정월 대보름까지 마당놀이를 하여 정월 열엿새 날을 귀신 날이라 하여 이 날을 택하여 풍물꾼들이 앞에 나가고 뒤따른다. 사줄을 메고 나가면 부녀자들은 해묵은 부지깽이와 수수 빗자루로 사줄을 두드리며 '괘개비아 괘개비'야 하며 진원을 한다.

- 다리목 세우기 : 양쪽 마을에서는 사줄 옮기기가 끝이 나면 다리목 세우기를 한다. 다리목 세우기는 양쪽 마을을 향하여 다리목을 삼각대식으로 세워놓는다. 다리목을 세우고 나서는 하장목이라 하여 양쪽에서 한 사람씩 올라앉아 줄을 당겨 하장목을 올려놓음으로서 작업이 끝난다.

- 사줄 다리기(합사) : 합사는 양쪽의 사줄을 연결하여 한 몸을 만드는 작업이다. 남사신의 외줄이 여사신의 두 줄 사이로 옮겨지는 놀이인데 여기에서 여사신은 쫓기기만 하는 것이 특징이다. 여사신이 쫓기면 남사신은 계속하여 여사신의 줄을 덮쳐 나중에 가서는 합사가 되는데 합사가 끝이 나면 사줄 다리기가 시작된다. 사줄 다리기는 뱀개 마을과 뱀미 마을이 양편을 가리어 당기게 된다. 사줄을 당길 무렵에는 양편에서 횃불을 준비하여 불을 밝히고 양편 하장목에서도 불을

밝히게 된다.

-액 불사르기 : 사줄 다리기 합사가 끝이 나면 사줄을 하장목 위에다 걸어서 올려 메고서 햇불로 사줄에 불을 당긴다. 그리하여 지금껏 모아진 액의에 불이 붙게 하니 모든 액이 사라져 멩개 개울로 재는 흘러 내려 일 년의 평안과 태평의 복을 받아들인다.

이때 풍물꾼들은 풍물을 치며 다리목을 돌면서 모든 흥을 돋우며 밤새 논다. 이렇게 하여 액 사르기가 끝이 나면 모든 액을 멩개 개울로 흘려보내며 풍물꾼들은 각기 마을로 돌아가고 멩개안 사줄놀이는 끝이 난다.

#### 4. 용구재 이무기제

##### 1) 유래

용구재 이무기제는 고양군 대화동 개간촌 건너 마을에서 수백 년 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마을 제사이며 공동 축제이다. 명칭은 용구재 고개에서 이무기에게 제사를 드린다고 하여 용구재라는 명칭이 생긴 것이다.

한강에 제방이 쌓여지기 이전부터 강물이 들어오는 대화동 용구재에 자그마한 고개가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오래 전부터 이곳에 이무기가 살고 있다고 믿어왔다.

대화동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용구재 이무기에 대한 전설은 다음과 같다.

'옛날 대화동과 법곶동의 경계에 있는 큰 벌판에는 큰 웅덩이가 있었다. 이 웅덩이에는 많은 물고기가 있었으나 마을 사람들은 이무기가 무서워 감히 근처에 접근도 하지 못하였다. 이무기는 늘 용이 되고 싶었는데 3천 년 동안 큰 공을 얻어야만 용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물에서 천 년, 돌에서 천 년, 흙에서 천 년 합쳐 3천 년 동안 살인 등을 행하지 않고 근신해야만 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마을 사람들은 이무기의 행패를 무서워하여 웅덩이 근처에서는 늘 행동을 조심했다. 세월이 흘러 3천년이 되는 날 마침내 이무기는 날이 저물자 서서히 하늘로 오르기 시작해 자정이 다 되어서는 꼬리를 제외하고는 금빛으로 빛나는 용으로 변하기 시작하였다. 이제 꼬리만 변하면 3천년의 오랜 기다림 속에 비로소 용이 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이때 마을 사람들이 용이 되는 모습을 보고 크게 놀라 소리를 지르며 사람들을 깨우자 이무기는 그만 용이 되어 승천하지 못하고 웅덩이에 떨어지고 말았다.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는 이때부터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며 복수를 하기 시작하였다. 한강에 물이 범람하고 강을 타고 질병이 퍼져 사람이 죽고 흉년이 들었으며, 젊은 사람들이 죽고는 하였다. 따라서 마을 사람들은 이무기의 심사를 달래주고 액운을 막기 위해 이무기가 사는 웅덩이에서 보이는 용구재에서 이무기에게 제사를 지냈다. 이때부터 용구재 이무기제가 시작된 것이다.

용구재 이무기제는 12년마다 돌아오는 용띠 해에 정월 첫째 용날에 마을 사람들이 참여하여 하는 놀이이다. 수백 년의 유래 깊은 민속놀이이자 축제로 열린 이무기제는 모두 아홉 줄거리로 진행된다.

(1) 제 지내기 : 제단이 설치된 용구재에 이무기를 안치한 후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제관이 제를 지내는 줄거리이다. 이때 제관들은 황의를 입는 것이 일반 제관들과 다르고 제사를 지내는 제단에는 무녀, 악사, 제관 외에는 출입을 할 수 없다. 제에 사용되는 제물로는 소머리와 해수동이(바닷물), 명계라 하여 산닭을 놓으며 명다리와 제웅을 깃대에 매어 놓는다. 이때 명다리와 제웅은 가정에 횡액이 있는 집에서는 빠짐없이 다 가지고 가서 놓는다.

(2) 가살풀이 : 가살풀이는 이무기제가 끝나면 이무기를 장광틀에 모시고 제웅, 명다리대를 들고 째이꾼을 앞세우고 마을을 돌며 대갓집 마당에서는 고사덕담을 한다. 또한 횡액이 있는 사람을 무녀로 하여금 찾아내게 하고 그 집을 찾아간다. 그러면 집주인은 음식과 술을 차려 마을사람을 대접한다. 일행은 한 집이 끝나면 다른 집으로 옮겨가며 가살풀이를 하게 되는 것이다.

(3) 달구질 : 달구질은 용의 해[年] 정월에 중병을 앓는 사람에게만 행한다. 이때에 병자는 마당에 명석을 뒤집어 깔고 붉은 옷을 입히고 지붕 용구새를 덮고 눕게 한다. 그리고 나면 누운 사람 주위를 12지신으로 하여금 좌로 3번, 우로 3번 돌면서 달구질을 한다.

(4) 횡액풀이 : 달구질이 끝나면 무녀는 횡액을 입은 사람을 앞에 앉혀놓고 횡액풀이를 하고 명계로 대수대명을 한다. 이때 장광틀꾼들은 이무기와 명다리, 제웅을 어깨에 메고 용구재 앞으로 나아간다.



용구재 이무기제

(5) 이무기 명계운감 : 횡액풀이가 끝이 나면 무녀는 이무기를 모신 장광틀에 올라서서 횡액 당한 사람들로 하여금 대수대명한 명계를 받아 놓고 횡액 당한 사람들은 이무기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무녀는 받아놓은 명계를 이무기 입에다 넣는다. 그러면 무녀는 고사 진원을 하며 이무기와 함께 조금씩 앞으로 나아간다.

(6) 이무기 놀리기 : 이무기 명계운감이 끝나면 이무기와 12 지신 모두가 흥겹게 잽이 가락을 바꿔가며 한바탕 놀이를 한다. 이때 이무기의 입이 벌려지기도 하며 위, 아래, 좌, 우로 이무기를 놀리게 된다. 이때 틀꾼들은 이무기를 들었다 올렸다 하며 잽이의 상쇠놀음이 이어지도록 한다.

(7) 액불 넘기 : 이무기 놀리기가 끝이 나면 액불 넘기를 하는데 액불 넘기는 이무기제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이 불을 넘게 된다. 액불 재료는 썩은새(초가 지붕에 오래된 용구새와 이영을 말함)와 두명(잡신을 꼼짝 못하게 오라를 짓고 넣는 그물망)에 불을 지르고 넘는 것인데, 이무기제를 지낸 모든 사람의 나쁜 액과 잡귀들이 다시는 못 오도록 소멸을 시키는 행위인 것이다.

(8) 이무기 출해 : 액볼 넘기가 끝나면 마을 사람들은 이무기를 강구재로 옮겨간다. 강구재는 조그마한 산이었는데 이곳은 옛날에 이무기가 통과해 셋길에 났다 하여 구렁목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구렁목은 야산 중심을 갈라놓은 것같이 양 절벽의 높이가 13미터나 되었다. 이무기를 강구재로 옮겨가면 황해를 오가는 상선과 어선들이 장사와 물고기를 많이 잡는다하여 서로 다투어 가며 가져가려고 하였다. 이무기를 중선 위에 올려 모시고 명다리를 같이 올렸다.

안전하게 이무기를 모시고 서서히 황해 바다로 출해가 시작되고 마을 사람들은 큰절을 올리며 이무기가 용이 되어서 깊은 황해에 나가 마을을 위한 풍운조화를 부려달라는 기원을 하였다.

(9) 뒷풀이 : 이무기 출해가 끝이 나면 마을 사람들은 풍물을 치면서 마을로 돌아와 술과 음식을 먹고 마시며 풍물꾼들과 즐거운 마음으로 놀며 이무기제를 마치게 된다.

## 5. 고양 쌍그네놀이

### 1) 유래

쌍그네놀이는 고양시 전 지역에서 행하여졌던 민속놀이의 한 종류이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농사를 주로 하여 농경문화가 발달하였다. 농경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공동체놀이의 하나로 줄다리기와 줄타기(그네뛰기) 놀이가 성행하였다.

줄타기 놀이는 원래 난장판(놀이판)에서 행하여지는 것인데 난장판은 활쏘기(광대), 줄타기(그네), 윷놀이, 씨름, 풍물, 음울 등이 합쳐진 종합적인 놀이였다. 그러나 이런 놀이는 돈이 들기 때문에 해마다 하지 못하고 몇 년에 한 번씩 주로 풍년이 들었을 때 하였다.

고양시의 쌍그네 놀이는 주로 마을 뒷동산의 도당대나 마을 앞의 축동, 정자나무 가지에 동아줄을 길게 동여매고 하였다. 그네를 타고 즐기면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소리 지르고 풍물을 치며 하루를 즐겁게 보내고는 하였다. 언제부턴가 높은데 그네를 매면 부녀자들이 덜 좋아하기 때문에 마을 넓은 공터에다 그네를 매고 놀게 하였다.

## 2) 구성과 진행

- 줄꼬기 : 먼저 4월 초파일이 되면 마을 청년들로 하여금 집집마다 짚을 추럼  
케 하여 마을 공터 그네줄 세울 자리에서 동아줄을 꼬아서 준비를 한다.

- 그네틀 옷입히기 : 그네틀 옷입히기는 줄을 드리는 작업과 동시에 시작되는데  
먼저 그네틀을 맨 다음 무명을 왼쪽에 감아서 나무가 보이지 않도록 올려 감는다.

- 그네줄 매기 : 그네틀이 세워지면 동아줄로 드린 그네줄을 조정하여 안전하게  
매여 놓고 줄이 다 보일 때까지 여러 사람이 매달려 그네를 탄다. 줄이 다 드러난  
뒤에는 안전하게 고정시키고 마무리한다.

- 그네놀이 : 그네가 완성되면 마을 사람들을 날마다 그네타기 연습에 참여하  
게 한다. 그네타기 연습이 끝나면 오월 단오를 이틀 앞두고 여자 장원을 뽑는다.  
그리고 여자 장원을 뽑은 이튿날 남자 장원을 뽑는다. 남녀 장원이 가려지면 쌍  
그네놀이가 시작 되고 이때 여러 마을이 어우러져 축제가 이뤄지며 그네뛰기의  
절정에 이른다.

- 덩타기놀이 : 덩타기놀이란 남녀 장원 쌍그네놀이가 끝이 나고 그네틀을 헐어  
서 가마를 만든다. 그리고 남자를 앞세우고 여자는 위에 태워서 마을을 몇 바퀴  
돈다. 그런 다음 대갓집 마당에서 마당돌기를 하고 끝이 나는 것이다.

## 6. 싱아대 말목박기 소리

### 1) 유래와 배경

싱아대 말목박기 소리는 옛 고양군 전 지역에서 부르던 일노래로 전승되고 있  
는 것중 하나다. 이 소리는 주로 보막이(강의 보를 막는 일)나 동막이(저수를 위  
해 논이나 개울에 독을 쌓음)를 할 때, 또는 큰 건물을 지을 때 하는 일노래인 것  
이다. 보막이나 동막이를 할 때, 지반이 무른 곳에는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말장을 박아 넣기 마련이다. 이때 힘을 모으기 위해 통일된 행위를 하게 되고 흥  
을 돋우고 힘이 덜 들게 하려는 뜻으로 모갑이가 선소리를 메기면 인부들은 받는  
소리를 했다. 이와 비슷하게 전국 어디에서나 행해지고 불리어지던 것으로 집터  
를 닦을 때 지경을 닿는 소리가 전승되는 것과 같다.

고양시는 한강 하류 지역으로 장마가 심할 때는 한강 주변은 물론 일산, 능곡,

원당까지 수해를 입게 되니 이 지역에는 동막이, 둑을 쌓는 일이 행해졌고 한강에는 대보둑(현 자유로)을 쌓게 됐다. 한강 대보둑 공사는 1927년부터 시작하여 배수 조절을 위한 수문공사를 마지막으로 1932년에 공사를 끝냈다. 그때를 마지막으로 불리던 소리가 오늘에 재현하게 된 것은 참으로 오랜만이라고 하겠다.

## 2) 구성과 진행

- 싱아대 말목박기 : 싱아대란 6개의 들채(지죽대)의 꼭대기에서 땅으로 내리꽂은 쇠막대이다. 말목박기는 싱아대에 구멍이 뚫린 무거운 쇠뭉치(공이)를 들채 꼭대기에 달린 4개의 도르래와 쇠뭉치 네 방위 고리에 연결한 밧줄을 네 방향에서 한결같이 당겼다 놓았다 하여 말목을 깊이 박아서 둑을 탄탄하게 쌓는 과정이다. 밧줄을 당기고 놓는 것은 모감이의 소리에 맞춰 조사(기를 든 사람)가 들채 꼭대기에 앉아 위아래로 신호를 하는데, 이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줄을 늘였다 줄였다 하는 것이다.

- 두레패와 일꾼 입장 : 농기를 앞세운 가운데 오방기 두 줄이 이어지고 호적꾼이 호적을 불며 앞장서는 뒤로 오른쪽 줄에는 두레꾼이 왼쪽 줄에는 일꾼들이 줄을 이어서 어깨를 들씩이며 춤을 추며 대보둑 앞 싱아대까지 입장한다. 그리고는 자기가 맡은 자리로 돌아가고 두레꾼은 풍물을 계속 친다.

- 싱아대 말목박기 소리 : 모감이는 북을 메고 돈대에 올라 쇠공이를 들었다 놓는 도르래에 연결된 밧줄을 사방에서 잡고 있는 줄꾼을 향해 북을 치며 선소리를 매긴다. 그러면 줄꾼들은 모감이의 매기는 소리와 조사의 수기에 따라 줄을 올리고 내리는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다. 싱아대 말목박기 소리는 현재 여러 가지가 전해지는데 지면 관계상 여기에 다 소개하지는 못하고 제목만 기술하겠다.

- ① 여라소리 ② 말목소리 ③ 양산도소리 ④ 방아타령 ⑤ 놀놀이 ⑥ 떴다  
⑦ 상사도야 ⑧ 훨훨이 ⑨ 여차소리 ⑩ 차저소리 ⑪ 잦은 차저소리

- 흙을 모으는 일 : 대보둑을 쌓기 위해 가래질꾼이 흙을 모으고 지게꾼이 흙을 쳐 나른다.

- 대보둑 다지기 : 운반해온 흙을 단단하게 다지기 위해 무거운 어치구니를 대보둑 위에서 끌고 민다. 시작에서는 ‘차저 어차, 차저 어차……’를 반복하며 서서히 발을 떼고, 얼마동안 가서는 ‘어저차, 어저……’를 반복하며 빠르게 발을 떼다.

- 고사 지내기 : 독이 완성된 후 수해를 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기쁨과 만족감으로 제방과 수문에 무사를 기원하는 뜻으로 무당을 불러내어 축원 고사를 지낸다.

- 퇴장 하기 : 독이 무사히 완성되고 축원 고사도 끝내니 뿌듯하고 흥겨운 마음으로 대보독과 수문 다리를 건너면서 텅실텅실 춤을 춘다. 그와 동시에 수문을 연다. 강에는 선유배가 한가로이 뜨고 배 위의 사람들이 춤을 추며 뱃놀이를 즐긴다. 그러면서 배는 멀어져가고 행사는 끝이 나는 것이다.

## 7. 선공감 김감역 호상 상여소리

### 1) 유래

다른 지방의 애절하고 처량한 소리에 비해 소리에 힘이 있고 경쾌하며 소리의 종류도 타 지방에 비해 많고 원형 보존이 잘 되어 있다. 호상인 경우에는 동네잔치를 연상케 하듯 모든 주민들이 참여하여 망자의 극락천도를 빈다.

다른 지방에서는 선소리꾼(모잡이)이 요령(방울)을 들고 소리를 하지만 고양에서는 북을 치며 앞소리를 매긴다. 상여소리 마지막에는 염불을 함으로서 장엄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선공감(繕工監)이란 고려 때 대궐이나 국찰, 성곽 등의 신축이나 중건을 할 때 토목과 영선(營繕)을 맡아보고, 때로는 왕명으로 군기(軍器)를 출납하던 관청으로 장작감(將作監)이라고도 하였다.

‘선공감 김감역 호상 상여소리’는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출신 감역 사대부 김성권의 장례식 때 상여가 나가면서 하던 상여소리와 상여꾼들의 행위를 예술적으로 재현한 것이다. 일반 호상에서는 볼 수 없고 사대부의 호상에서나 볼 수 있는 만장, 집불, 방상씨(方相氏) 가면이 출현하고, 상여가 나갈 때의 길 소리에서부터 무덤에 흙을 다지는 회대소리를 완벽하게 재현한 것이다.

### 2) 구성과 진행

- 발인제 : 상여가 나가기 전에 발인제를 지낸다.

- 상여소리 : 방상씨와 만장기를 앞세우고 상여꾼들이 상여를 매고 장지로 가면서 길소리 상여소리를 하는데, 모잡이(선소리꾼)는 북을 치며 소리를 메기고 상여꾼들이 뒷소리를 받으며 앞으로 나아간다.

- 노제 지내기 : 망자가 평소 좋아하던 장소나 잘 가던 곳을 들러 노제를 지내고 나서 상여소리를 하며 또 앞으로 나아간다.

- 노자 전 받기 : 상여 앞의 새끼줄에 친지들이 망자가 저승길 가는 길에 쓸 노자 돈을 꽂아준다.

- 사위 절 받기 : 만사위의 절을 세 번째에 가서야 받아주고 노자 돈을 받은 후에 상여를 매고 장지로 향한다.

- 빠른 길 소리 : 좁은 길이나 다리 위는 길을 재촉하여 갈 때 하는 빠른 상여소리를 한다.

- 엽불 소리 : 장지에 도착하면 엽불 소리를 모감이 소리에 받아 세 번 한다.

- 하관 : 장지에 상여를 내려놓고 유족들은 곡을 한다.

- 회방아 소리 : 무덤에 흙을 넣고 다지며 하는 소리로 긴소리, 달고소리, 양산도, 방아타령, 놀놀이, 땀다소리, 잣은놀놀이, 후우야소리로 끝을 맺는다.

## 8. 고양 12채 가락

### 1) 유래

고양 풍물은 다른 지방의 풍물과는 다른 점이 많다. 현재 호남의 좌·우도 풍물과 경기의 웃다리 풍물이라 하여 경기 안성을 중심으로 평택·화성을 꼽고 있다. 그러나 이곳의 풍물은 거의가 안성군 서운면 청룡리 청룡사라는 절이 있어 이곳에는 예전에 남사당의 근거지로 전국에서 남사당에 적을 둔 짹이들이 모여서 기량을 닦고 전수하던 곳이므로 남사당 풍물이 발달한 것이다.

그러나 고양의 풍물은 농사일을 하는데서 하는 두레풍물이라 남사당과 같은 취군풍물과는 전혀 다르다 하겠다. 따라서 고양의 풍물은 이 지역에서만 전승되어 내려오는 12채 가락과 복색이 있다. 예로부터 내려오던 12채 가락의 원형이 잘 보존이 되어있고 농군들의 풍물복은 삼베옷의 복색으로서 삼색 가사와 고깔을 쓴다. 팽과리를 치는 상쇠는 지휘자를 뜻하며 상쇠가 쓰는 상모는 나비상을 달고 복상이라하여 옛날 군졸들이 돌팔매질 연습을 할 때 지휘관의 전립에만 달았던 복색이 풍물의 판굿으로 전환한 것이다. 고양에서는 풍물을 짹이, 풍물 치는 사람을 짹이꾼이라 하며 짹이의 편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영기·농기·종기·



고양 12채 가락

오방기의 깃발과 상쇠를 중심으로 부쇠·상제금·부제금·상징·부징·상장구·부장구·상북·부북·상복구(소고)·중복구·말복구·호적 순으로 하며 또한 제금을 넣는 것이 특징이다. 복구잡이가 잼이보다 앞에서는 경우가 있으며, 판굿은 상쇠가 잼이가락을 바꾸어 나가며 상복구와 놀이를 꾸며 나간다.

## 2) 12채 가락 진행 순서

- 전고 인사굿(기 절 받기) : 잼이꾼들이 영기와 농기를 앞세워 상쇠가 이끄는 대로 입장하여 인사굿을 하며 이웃 마을의 두레패들에게 기 절 받기를 한다.
- 돌리배기 : 잼이꾼은 바깥 원을 돌고 소고잡이는 안쪽으로 뛰어 들어가 작은 원을 만들어 서서 가락을 바꾸며 소고춤을 춘다.
- 엇갈이(가새치기) : 두 줄로 마주 서서 가락을 잦은 1채까지 돌린 후에 한 사람씩 엇갈려 돌며 큰 원을 만든다.
- 십자걸이 : 잼이꾼들과 소고잡이들이 한 줄씩 일렬로 십자를 선다.
- 사통배기 : 십자로 선 상태에서 바람개비 방향으로 네 원을 만들어 가락을 바꾸어 나간다.

- 농사놀이 : 10가지 소고놀음으로 논갈기(3채), 가래질(거성5채), 씨래질(3채), 못자리만들기(3채), 볍씨뿌리기(3채), 모찌기(6채), 모내기(3채), 애벌김매기(5채), 두벌김매기(3채), 콩심기(무등 3채) 등 농사놀이를 한다. 다시 말해 잽이의 가락은 종북, 종쇠, 잓은1채, 2채, 잓은3채, 3채, 잓은4채, 4채, 오채, 6채, 7채, 8채, 9채, 10채, 11채, 12채, 길군악7채, 길놀이4채, 거성5채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 조사 놀리기 : 농기를 큰 원 가운데 놓고 한 사람이 농깃대를 타고 올라가 가락에 맞춰 춤을 춘다.

- 상쇠놀음 : 잽이꾼들이 두 줄로 늘어서고 상쇠는 가운데 중심에서 앞뒤로 오가며 상모를 돌리며 쇠채 발림을 하는 상쇠놀음을 한다.

- 세 돌리배기 : 모든 잽이꾼들이 세 원을 만들어 각각 엇갈려 돌며 놀이를 한다.

- 명석말이 : 상쇠의 가락에 맞춰 안으로 감아 돌며 명석말이를 한다.

- 개인놀음(12발 상모놀음) : 12발 상모, 상장구, 상북, 소고 등 개인기를 가락에 맞춰 놀음을 한다.

- 뒤풀이 : 전체가 모여 가락을 바꿔가며 한바탕 노는 것이다.

- 마무리 인사굿 : 길군악 7채 가락으로 마무리 인사굿을 하며 끝을 맺는다.



경기도대회 때 대상기념 '통진두레'

이상으로 동관 선생께서 평생을 바쳐 발굴하고 재현한 여덟 가지의 소리와 민속놀이를 간략하게나마 소개를 한다. 여덟 가지 외에도 발표를 하지 못한 민속놀이 한 개가 더 있다는 것이 유가족에 의해 발견 되었다. ‘축동축귀경놀이’ 라는 민속놀이인데 원고가 완벽하게 쓰인 것이 발견이 된 것이다. 이로써 동관 선생이 발굴한 민속놀이는 총 아홉 개가 된다.

이는 실로 한 개인이 발굴한 민속놀이로서는 최다일 뿐만 아니라 이런 사례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없다는 것이다. 거기에 더하여 김포 통진의 통진두레놀이도 동관 선생께서 발굴하고 가르쳐서 제 38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나가 대통령상을 수상하였다. 이를 계기로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으니 동관 선생의 민속놀이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능력을 새삼 알 수 있게 해주는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이제 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민속놀이에 대하여는 타고난 천재라고 할 수 있는 동관 선생의 뜻과 유지를 제대로 이어받은 제자나 후계자가 없다는 점이다. 동관 선생이 발굴한 소리와 민속놀이를 흉내 내는 사람들은 더러 있다. 그러나 원형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하고 변형하여 훼손하고



김포 통진두레놀이 시연



김포통진두레놀이 '제38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대통령상 수상

있으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동관 선생은 오늘 우리 곁에 안 계신다. 평생을 우리의 소리와 민속놀이에 빠져 가정도 소홀히 했던 동관 선생은 2004년 4월 홀연히 세상을 떠났다. 향년 63세였다. 동관 선생은 살아생전에 늘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있었다.

“우리 소리와 민속놀이를 고스란히 후손들에게 전해주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 이제 나의 소원은 시립 민속예술단을 창단하고 제대로 된 전수회관을 건립하여 그곳에서 마음껏 우리의 소리와 민속놀이를 하는 것이다.”

동관 선생은 하늘에서도 이런 바람을 가지실 것이며,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발굴하신 고양의 민속놀이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오늘날의 현실을 개탄하실 것이다.

## 경기북부 인물년 (人物傳)

---

발행일 2016년 12월 31일

발행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주소\_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민계로 178 6층  
전화\_ 031 239 1020

주관 의정부문화원  
주소\_ 경기도 의정부시 산단로 123  
전화\_ 031 872 5678  
총괄 기획\_ 최영희(의정부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장)  
교정 교열\_ 최영희, 윤영옥, 안희정, 신진희

디자인 (도서출판)동심원  
/ 제작 주소\_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5번길 8-17 707호  
전화\_ 031 852 9333

경기북부 인물년(人物傳)

이 책은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ISBN 978-89-954467-9-9(93990)

## 경기북부인물년 人物傳

포천 | 봉래(蓬萊) 양사인(楊士彦, 1517~1584)

파주 | 우계(牛溪) 성혼(成渾, 1535~1598)

양주 | 월정(月汀) 윤근수(尹根壽, 1537~1616)

동두천 | 화곡(禾谷) 정사호(鄭賜湖, 1553~1616)

가평 | 어우(於于) 유몽인(柳夢寅, 1559~1623)

의정부 | 월봉(月峰) 이서(李曙, 1580~1637)

남양주 | 지암(止庵) 이행진(李行進, 1597~1665)

구리 | 노은(盧隱) 김규식(金奎植, 1880~1931)

연천 | 월파(月坡) 김상용(金尙鎔, 1902~1951)

고양 | 동관 김현규(金鉉圭, 1942~2004)

金水亭(금수정)

十年塵土髮如絲

一笑權娛問幾時

晚向江湖訪漁父

白鷗心事少人知

십년간 속세에 사노라니 귀밑털 실같은데

한 번 웃는 기쁨인들 몇 때나 될까

늪마에 강과 호수로 어부를 찾아가니

백구와 같은 마음을 아는 이 적네

- 포천의 인물 봉래 양사언(蓬萊 楊士彦) 본문 中 -



ISBN 978-89-954467-9-9